第 2 輯

우리고장의 民俗

(大川市·保寧郡)

社團法人 大川文化院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을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 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發 刊 辭

大川文化院長 尹 源 錫

民俗은 土俗에서 緣由되였고 土俗的 民俗은 곧 俗神 즉 信仰으로 昇華한것도 事實이다. 民俗은 하나의 民族의 土着的 藝術이라 할 수 있고 얼굴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부터 先祖들은 部族生活에서부터 믿어 왔던 民俗들이 俗神으로 뿌리 박혀 전해 오고 있다.

祖上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또는 正月 초하루부터 섣달 그믐날까지 경험한 많은 禁忌사항이 信仰처럼 우상화되어 土着되었던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俗神이란 한낱 迷信에 불과하고 事理에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으나 先祖들은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하나의 敎訓的 格言으로 간직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었었다. 그리고 많은 儀禮와 信仰을 지켜왔다.

우리 祖上들은 이 民俗的 俗神을 최소한 三國時代 이전부터 幸과 不幸으로 生과 死에 비유하면서 믿어왔고 儀禮는 儒敎思想으로 한 時代를 支配하면서 歷史와 함께 民俗文化로 傳承되어 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風俗은 現代文明의 뒷전으로 밀려나 우리들의 生活속에서 褪色되어가고 있다.

지난날의 民俗! 이를 옛것 낡은 것이라 하며 버리고 잊기에는 너무나 所重하고 아깝다 生覺되어 우리들의 記憶속에서 더 잊혀지기 전에 文獻과 口傳으로 傳해 오는 이 地方의 民俗(信仰)의 一片一片을 모아서 엮어보았다.

이 册子에 실은 民俗資料 이외에도 發掘되지 못한것도 많으리라 볼때 미흡하다고 본다.

이 모두가 歲月속에 忘却되는가 하면 世風에 밀려 再演을 하지 않으므로 不知不識間에 再現이 不可能한 것이 殆半이다. 그러나 이 刊行物에 目錄된 것만이라도 可及的 俗神이다 迷信이다 라고 無關心과 度外視하지 말고 다시 年中月中 한번쯤은 再演出하면서 傳承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勿論 이것들을 되새기고 살려나가려고 한다면 隨伴되는 여러가지 여건이 걸림돌이 될것이다. 더욱이 나름대로 그地域에서 그뿌리를 알고 그時代 그民俗 行事에 主管하고 참여했던 古老나 技能 保有者들이 점차 사라져 가는 이 마당에 무엇인가 무슨 方法으로든 서둘러 再現토록 有關기관 또는 團體에서 再生에 努力을 하여 지난날의 歷史와 함께 後世에 傳承 保存하여야 할것이다. 이에 本人은 文化暢達에 앞장선다는 立場에서 안타까이 痛切痛感 할 따름이다.

祝　　辭

어느 地方의 歷史와 뿌리를 올바로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토속신앙과 民俗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史料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도록 잘 保存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우기 現代社會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와 고도의 情報化 물결속에서 자기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자기 魂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物質萬能의 時代에서 오랜 전통문화가 무시되고 道德이 짓밟히는 가운데 올바른 價値觀이 定立되어 있지 않은 昨今의 世態는 이것과 無關하지 않으며, 무언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 둘씩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서글픈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대천문화원이 이번에 우리의 根源을 찾기위한 民俗책자를 發刊하는 것은 그 意義가 매우 크고 우리 고장의 맥을 이어가줄 만한 귀중한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資料蒐集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오신 尹源錫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향토사료조사연구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勞苦에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1994.　11.

大川市長　朴　商　敦

祝 刊 辭

먼저 大川文化院의 "우리고장의 民俗" 第二輯 發刊을 眞心으로 祝賀드리며,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에도 이처럼 所重한 資料들을 모아 册字를 發刊하신 尹源錫 文化院長님께 感謝드립니다.

民俗은 代代로 이어져 온 우리의 生活像이자 歷史 그 自體이며, 한 時代를 風味하는 文化인 것입니다. 또, 地理的 與件이라던지 時代的 狀況, 社會構成員의 情緖가 듬뿍 담겨져 있는 매 所重한 史料이며, 祖上님들의 哀歡과 얼이 스며있는 삶의 現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豐饒로운 物質文明을 謳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와같은 先祖들의 祈願과 受難과 榮光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風俗을 理解하고 保存하여 繼承·發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貴重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西歐文物의 無分別한 急激스런 產業化로 因하여 祖上代代로 이어져 온 우리의 아름다운 傳統이 하나 둘씩 잊혀져 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大川文化院에서 우리고장에 널리 傳해 내려오는 民俗들을 찾아나서 發掘하고, 한片 한片 整理하여 册字로 記錄·保存함으로서, 後世에까지 길이 남기고, 우리모두에게 祖上님들의 體臭를 느낄수 있도록 하심은 千萬多幸스럽고 고마운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알무쪼록 이 册字가 綿綿히 이어져온 保寧人의 숨결을 再照明하여 活氣차고 豐饒로운 萬世保寧을 建設하는 精神的 支柱가 되어 주기를 期待하면서 大川文化院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94. 11.

保寧郡守 李 完 相

머 리 말

民俗하면 그 地方의 土俗이라 할 수 있고 土俗하면 그 行事나 行爲에 따라서는 土俗神 즉 信仰이라 할 것이다.

발간사에서도 強調된 바와 같이 民俗은 民族의 藝術이라 할 수 있고 民族의 正直한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民族의 永遠한 祝祭인 것이다. 土俗神을 위하고 年中月中, 季節에 따라 住民 모두가 참여하여 行하는 行事가 大部分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옛 八道江山에 地方마다 大同小異하면서도 나름대로 다른 特色을 지니고 있어서 보는바 뜻의 해석여하에 달리 볼수도 있는 것이다. 忠淸道다 경상도 전라도다 강원도 평안도다 함경도가 모두 색다른 것으로 수백년동안 傳統的으로 繼承傳來 해 오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明滅하여 가면서 이어가는 것도 있고 아주 자취도 없이 忘却되고 또는 完全히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 이에 그 原因은 옛 部族國家 시절 單位的 集團이 分散되거나 人間의 生存興亡에 따라 自然現象으로 技能保有者가 없어져 버렸거나 世態에 變遷課程에서 改造되였거나 變質되는 바람에 요즘사람들이 興味가 現代的 感覺에 밀려져서 關心도 없고 再現을 試圖치 않는 關係가 큰 原因이라 하겠다. 더욱이 우리 忠淸地方 中에서도 우리地方은 人類의 定着이 오히려 딴 地方보다도 늦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部落을 形成한 歷史가 짧은 理由가 原因으로 볼 수 있기에 集團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民俗이 적고, 있다는 것도 他地方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民俗을 가로채거나 흉내내는 程度인 것들인 것이다. 또 이 地方은 高麗國 時代부터 옛 藍浦邑 時節에 비로서 人類가 定着하기 始作한 것인데 이 到來人 역시 北方人이나 또는 中國大陸系 사람들이 모여들어 貧弱한 寒村을 이루었다는 記錄을 볼때 그런대로 제일 먼저 人間이 들어왔다는 곳인데도 이렇다면 우리 고장 大川以北 地方은 더욱이 그 당시에 어떻게 무엇이 獨特한 民俗이 생기고 이어갔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大川 保寧地方은 朝鮮朝 末期에 三郡을 幷合하여 大川한내가에 郡廳 所在地를 定하여 오늘에 이른 것인데 여기 무슨 民俗資料를 開發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民俗(信仰) 土俗등이 눈에 약간 보인다는 것도 通俗的인 것 뿐이어서 他에 遜色을 免치 못하고 있고 50년 100년전 그後 오늘날은 世相이 옛것을 白眼視하고 無關心하는가 하면 民俗(土俗風俗信仰 一名 迷信)등은 儀禮에도 두터운 不可分의 連繫性이 있어서 이 모든 形態는 絶對的으로 儒敎에서 우러나온 것이 많고 影響이 크다 하겠는데 現世의 實狀은 外來信仰에 밀려 儒敎도 等閑視하는 時點에 이르러 東邦禮儀之國이라는 韓國사람들이 自己나라 固有 民俗조차 喪失시키고 있으니 寒心하기 그지 없다. 言必稱 日本政府가 朝鮮統治 手段으로 迷信이라고 밀어 부쳐 文化政策을 抹殺하는 彈壓에 못견디어 土着되었던것도 中斷한 까닭도 理由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는 한낱 口實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褪色한 辯明에 불과하다.

아무튼 政府에서도 사라져가는 鄕土民俗藝術을 發掘 再現하여 民族文化의 原形을 保存하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는 時點이니 만치 우리 鄕土에서도 現代社會속에 잃어버린 무형의 民俗文化를 되살려 내는데는 수많은 분들의 땀과 정성이 쏟아져야 하겠다. 여기에 비록 전해 오던 것조차 아직도 찾지못한 민속의 자료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모습의 원형을 영영 잃어갈 우려가 크므로 기록으로 나마 이것을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 편 집 자 —

우리고장의 전통민속(전통예절·세시풍속) 토속 · 무속 · 신앙

민속신앙(民俗信仰)의 개관(槪觀)

조선조 正祖때 人物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臨官政要, 1757년)에도 나와 있듯이 백리부동풍 천리부동속(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이란 말이 있다. 풍속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생활속에 정착되는데 한 지역을 구성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구성원들에 의해 특수한 모습으로 잔존되거나 소멸해 가기도 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향토민속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유성을 갖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전파 속성에 의해 타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보편성을 띠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니고 전승되는 향토민속은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 풍토에 의하여 형성되고 생활양식이나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유희, 관습등을 내포하게 된다.

첫째, 風水:우리民族의 民俗信仰에 있어서 風水說은 지금까지 가장많이 존속해오는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 풍수설은 산줄기와 물 방향을 첫째로 삼아 구분한다. 산에는 반드시 宗山이 있고 이 종산에는 모든 산줄기가 갈라져 나가게 된다. 이 산을 太祖山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태조산은 白頭山으로 이산에서 뻗어나온 가장 큰 山脈을 幹龍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幹龍에서 뻗어나온 산맥을 枝龍이라고 한다. 이 山脈의 龍에는 富貴貧賤과 長短, 老若이 있고 龍이 생긴 모습에 따라 吉龍도 있고 凶龍도 있으며 生龍과 死龍도 있다. 風水說에서는 凶龍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돌산으로서 土質이 섞이지 않아 그 속에서 精氣가 통할 수 없는 石山이 있고, 둘째는 枝龍이 단절되어 정기와 왕래할 수 없는 斷山이 있으며, 셋째는 獨山으로 다른 山脈과 연결이 되지 않아 精氣가 흐르지 않아 단산중에서도 가장 큰 凶山이 되며, 넷째는 山勢가 지나치게 뻗어나가 멈출곳이 없어 정기가 멈추어 보이지 않는 過山이고, 다섯째는 童山으로 草木이 자라지 않아 陰陽이 調和를 이루지 않아서 凶山으로 꼽는다. 風水說에서는 精氣가 모이는 곳이면 吉山이고 정기가 흩어지는 山은 凶山이라 본다. 대체로 보아 吉山은 山勢가 높고 秀麗하며 高低長短의 기복변화가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데 비하여 凶山은 그 강세가 단절되고 기복의 변형이 불규칙한 것을 말한다. 風水說에서 두번째의 조건으로 바람을 삼는다. 天地의 氣運은 바람을 타면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여 바람을 타고 오는 精氣는 막아서는 안되고 다만 모여있는 정기가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藏豊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風水說에서는 穴에 모여있는 정기가 四方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 바람을 막는 역활을 하는 산이나 언덕을 妙라 하는데 이 妙의 임무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四神妙이다. 이 사신묘는 혈(穴)의 사방에서 있는 山을 말하는데 穴이 뒤에 있는 山을 玄武라 하

고 혈의 좌측에 있는 山을 靑龍이라 하며 혈의 우측에 있는 山을 白虎라 부르고 앞의 山은 朱雀이라 한다. 四神妙는 각기 그 형상에 따라서 吉凶이 결정되는 것으로 玄武는 안정되고 멈춘듯한 定止相을 보여야 하며 左靑龍은 길게 뻗고 빙둘러 쌓은듯한 형상이어야 하고 左白虎는 범이 웅크리고 앉은 形象이어야 하며 앞山인 朱雀은 山이 낮고 춤추는 듯한 멋이 있어야 吉山에 든다. 風水說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朱雀이나 左靑龍 右白虎보다 뒤에 있는 玄武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셋째로 風水說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이다. 이 물은 땅 표면을 흘러서 땅에 스며 들어 地下水가 되어 地氣를 운반한다고 한다. 左의 靑龍은 陽이고 右의 白虎는 陰으로써 內面을 따라 흐르는 물로 靑龍을 따라 흐르면 陽水가 되고 白虎를 따라 흐르면 陰水가 된다. 또한 양수와 음수가 만나 合流하는 곳을 水口라 하는데 여기에서 음양이 氣가 중화되어 정기를 순화 보강하게 된다.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나는 水口는 산만하다거나 광활하면 그 정기가 모이지 않으므로 明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風水를 보아 墓를 쓰는데 吉山에다가 四神妙가 완벽하고 水口의 調和가 잘된 곳을 골라 묘를 쓰면 明堂자리로 자손이 번창하고 富貴榮華를 누린다는 것이다. 지금도 墓를 쓸 때는 지관을 불러다가 묘혈을 정하는데 그것은 지맥에 따라서 그곳에 응결된 생기를 확인하고 그 자손에게 미치게 될 禍福을 식별하고 복을 받을지언정 화를 입지 않기를 바람에서이다. 지금까지 風水說은 묘자리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때나 부락이 들어스는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것이 그 사람의 생기를 맞추어 화합이 이루어져야 特히 된다는 것이다.

목 차

제1편 우리고장의 세시풍속

○ 1 월 3
○ 2 월 22
○ 3 월 29
○ 4 월 35
○ 5 월 41
○ 6 월 51
○ 7 월 58
○ 8 월 62
○ 9 월 69
○ 10월 72
○ 11월 76
○ 12월 80
○ 윤달 85

제2편 가정편람

○ 一 家 89
○ 親族間 呼稱 94
○ 말하기 예절 101
○ 절의 예절 121
○ 婚 禮 124
○ 初喪禮 130
○ 喪 禮 135
○ 祭 禮 152

제3편 무의·부적

○ 무 의 163
○ 부 적 183

제4편 무속인 불경문 211

부 록 소선시대의 생활과 풍습 화보

제 1 편

우리 고장의 세시 풍속

❖ 차 례 ❖

1 월 ····· 3

○ 설날 ○ 입춘 ○ 십이지일 ○ 보름날 ○ 그 밖의 1월 풍습

2 월 ····· 22

○ 초하루 ○ 경칩 ○ 청명 ○ 한식 ○ 그 밖의 2월 풍습

3 월 ····· 29

○ 삼짇날 ○ 곡우 ○ 그 밖의 3월 풍습

4 월 ····· 35

○ 초파일 ○ 그 밖의 4월 풍습

5 월 ····· 41

○ 단오 ○ 태종우가 내리는 날 ○ 그 밖의 5월 풍습

6 월 ····· 51

○ 유두 ○ 삼복 ○ 망종 ○ 그 밖의 6월 풍습

7 월 ····· 58

○ 칠석 ○ 백종일

8 월 ····· 62

○ 추석 ○ 그 밖의 8월 풍습

9 월 ····· 69

○ 중양절

10 월 ····· 72

○ 말날 ○ 손돌 바람이 부는 날 ○ 그 밖의 10월 풍습

11 월 ····· 76

○ 동지 ○ 그 밖의 11월 풍습

12 월 ····· 80

○ 납일 ○ 섣달 그믐 ○ 그 밖의 12월 풍습

윤 달 ····· 85

우리 고장의 세시 풍속

1 월

설 날(元日)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인 1월 1일은 설날이다. 원래 설이란 말은 슬프다. 섧다에서 나왔다 하는데 새해 첫날 삼가지 않으면 일년 내내 슬프거나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신년 초에는 모든 일을 쉬고,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설날 아침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로, 조상을 모신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차례(茶禮)라고 한다. 또한, 조상의 묘에 성묘를 가기도 한다.

설날을 위해 새로 지은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설날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설빔을 입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새해 첫 인사를 하는데 이를 세배라 한다. 이때, 세배를 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며 이 때의 술을 세주라고 한다.

세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국이다. 떡국을 만들려면 먼저 멥쌀 가루를 쪄서, 떡메로 친 후 손으로 떼어 둥글고 길게 늘여 가래떡을 만든다. 그리고 떡이 굳으면 꿩고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을 넣어 장국을 끓이다가 이 가래떡을 동전 모양으로 썰어 집어넣고 끓여서 고춧가루나 후추가루를 뿌려 먹는다. 민간에서는 그 동안 떡국을 몇 그릇을 먹었느냐고 물으면 올해 나이가 몇인가라는 말로 통한다. 설날에는 떡국 말고도 시루떡, 이굳히 엿, 강정, 초백주, 도소주등을 먹는다.

<그림1> 세 배

설날로부터 3일 동안은 관청의 업무도 쉬고, 시장도 문을 닫으며 감옥도 비우기 때문에 거리는 설빔을 차려 입은 사람들로 붐빈다. 이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웃으며 서로의 복(福)을 빌어 주는데 이러한 말을 덕담(德談)이라 한다. 양반집 부인들은 사돈간의 진근을 표하는 뜻으로 하녀를 보내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 하녀를 문안비라고 한다.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웃사람의 집에 명함을 드리는데, 이때 집 주인은 모두 새해 인사를 나가고 집안에는 세함(歲銜)이란 옻칠한 쟁반을 두어 아랫사람들의 명함을 받는다.

승정원에서는 문관들에게 새해를 축하하는 신년시를 짓게 한다. 도화서(圖畵署)에서는 국왕의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선의 그림을 그려 바치고 또한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 그림을 세화(歲畵)라 한다.

그리고 금(金)·갑(甲) 두 장군과 귀신을 쫓는 그림을 문이나 문설주에 붙여 재앙과 질병을 물리치게 하는데, 이를 문배(門排)라고 한다. 금·갑 두 장군의 그림에 대해서는 제갈양(諸葛 亮)과 주유(周瑜)라는 설과 사천왕(四天王)이라는 설 등이 있다.

민간에서는 벽에다 닭이나 호랑이 그림을 붙여 재앙이 물러가기를 빈다.

신하들 중에서 나이가 70세 이상 된 사람에게는 새해에 쌀·물고기·소금등을 내려주고 신하로서 80세, 일반으로서 90세 이상 된 사람은 벼슬을 한 등급 올려주고 1백세 이상 된 사람은 한 품계를 승진시켜 정치에 관여할 자격을 주는데 이는 노인을 우대하는 풍습이다.

9년 만에 한 번 삼재(三災)가 드는 해를 당한 사람은 세 마리의 매를 그려 문설주에 붙이고 액을 막는다. 삼재란 수재(水災)·화재(火災)·풍재(風災) 또는 질병·전쟁·기근 등 세 가지 재앙을 말한다.

민간에서는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디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건간에 첫번째 들려오는 소리로써 일년간의 길흉을 점치는데 이를 청참(聽讖)이라 한다. 또 한해 동안 머리를 빗을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아 두었다가 설날 저물녘에 태우는데 이는 질병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바라는 뜻에서이다.

민간 신앙에 야광(夜光)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 이 귀신은 설날 밤에 동네에 내려와, 두루 아이들의 신을 신어 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 버린다. 이때 신을 잃은 아이는 불행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자는데 마루 벽이나 뜰에는 체를 걸어 둔다. 그러면 야광 귀신이 와서 이 체의 구멍을 세느라고 아이들 신을 훔칠 생각을 잊는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 닭이 울면 도망간다. 이 야광 귀신은 어쩌면 약왕(藥王)보살의 발음이 변해서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약왕 보살의 모양이 무섭게 생겨서, 아이들을 겁주어 일찍 재우고자 지어 낸 말일 수도 있다.

설날, 중들이 시내로 들어와 북을 치는 것을 법고(法鼓)라고 한다. 이 때, 중들은 떡 한 개로, 속세의 떡 두개와 바꾸기도 하는데, 속담에 중의 떡을 얻어 어린이에게 먹이면 마마, 즉 천연두를 예방한다고 한다. 여러 절의 상좌 중이 재올릴 쌀을 시내에서 빌기 위해, 새벽부터 문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쌀을 퍼다 준다. 이는 새해의 복을 맞아들이는 뜻에서이다.

민간의 부녀자들은 길쭉한 널판을 짚단 위에 가로 놓고, 양쪽의 길이를 똑같이 잡은 다음

두 명이 각각 널판의 양쪽 끝에 마주 서서 번갈아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면서 노는데, 이를 널뛰기라 한다. 널뛰기의 재미는 널판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쾌한 소리를 내며, 여인들의 뛰어오르는 모습이 춤을 추듯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는 데 있다. 널뛰기 놀이는 누가 오래 뛰는가, 또 얼마나 높이 뛰는가를 다투어, 저마다 힘껏 발을 굴러 몇 자씩 뛰어 오른다.

널뛰기는 고려 시대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고려시대의 여인들은 매우 활발하여 운동을 좋아했으므로 이 널뛰기도 즐겼을 듯하다.

널뛰기의 기원은 전설에 의하면, 어떤 죄수의 아내가 높은 담장 저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을 보려고, 또 한 명의 죄수의 아내와 짜고 널을 뛰면서, 담장 너머를 보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과거의 양반집 여인들이 항상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하여, 널을 뛰면서 담장 밖의 세상을 넘겨다보았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윷놀이를 하는데, 윷에는 장작윷과 밤윷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장작윷은 길이가 15~20센티미터, 지름이 3센티미터쯤 되는 둥글고 길게 깎은 나무 두 개를 각각 길게 반으로 쪼개어 네 개비를 만든것이고, 밤윷은 밤알만한 크기의 나무조각 네개를 다듬고, 색칠하여 만든 것이다. 밤윷의 모양을 본 떠, 북쪽 지방에서는 팥알 두 개를 반으로 쪼개어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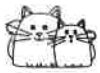
윷을 노는 방법은 장작윷일 때는 네 개비를 모아 위로 던져 떨어지게 하고, 밤윷일 때는 조그만 그릇 속에 넣어 뒤흔들다가 바닥에 흩어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던져서 떨어진 윷의 모양을 보아, 말판(윷판)에 네 필의 말을 진행시키는데, 말판은 정사각형에 두 줄의 대각선을 친 모양을 그려, 모서리와 변에 모두 29개의 점을 찍어 놓은 것이다.

윷판을 가는 방법은, 윷가락 넷이 모두 엎어져 '모'가 나오면 다섯 점을 가고, 넷이 모두 젖혀져 '윷'이 나오면 넉 점을 가며, 하나가 젖혀지고 셋이 엎어져 '도'가 나오면 한 점을 가고, 둘이 젖혀지고 둘이 엎어져 '개'가 나오면 두 점을 가며, 셋이 젖혀지고 하나가 엎어져 '걸'이 되면 석점을 간다.

여기서 '도(徒)'는 돼지를 뜻하며, '개(開)'는 개를 뜻하고, '걸(杰)'은 코끼리를 뜻하며, '윷(流)'은 소를 뜻하고, '모(牟)'는 말을 뜻한다.

<그림1> 윷 놀 이



이렇게 윷을 던져 나온 결과대로 네 필의 말을 조리있게 움직여, 누구의 말 네 필이 먼저 최종점을 지나는 가를 겨루는 것이 윷놀이이다.

옛날에는 윷을 가지고 윷놀이뿐 아니라, 설날에 윷을 연달아 세 번 던져서 한 해 동안의 운수도 점쳐 보았고, 또한 동네끼리 윷놀이를 하여 어느 동네에 풍년이 드는 가도 점쳤다.

그리고, 설날이면 집집마다 복조리를 사는 풍습이 있는데, 설날 이른 새벽에 조리를 사두면 한 해 동안 복을 많이 받는다 하여, 설날 아침의 조리를 특별히 복조리라 부르는 것이다.

복조리 장수들은 섣달 그믐날 밤 열 두 시가 지나,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둠을 무릅쓰고 거리를 누비며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고 다닌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한 해 동안 쓸 만큼의 조리를 사는데, 이 때 일찍 살수록 좋다하여, 밤인데도 남보다 먼저 사려고 애쓴다. 밤중에 사지 못한 사람은 이른 아침에라도 꼭 복조리를 산다.

설날에는 각 지방에서 특별한 행사를 벌인다. 광주(廣州) 지방의 풍속은 이 날을 서로 축하하며 해와 달의 신에게 절하는 행사가 있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산과 들, 그리고 물가 곳곳에 사당을 만들어 놓고, 매년 설날부터 보름까지 무당이 제사를 지낸다.

이 때, 무당은 신령의 깃발을 들고, 잡귀신을 쫓는 행사를 하는데, 사당에서부터 징과 북을 울리며 동네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투어 돈과 재물을 던져 굿을 청한다. 이것을 화반(花盤)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설날이나 동짓달에는 임금께서 정전(正殿)에 나와 신하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다 하였다. 이 때 신하들은 축하 인사를 적은 글과, 농촌에서 거칠게 짠 옷감을 바친다.

전국 8도의 관찰사를 비롯한 지방 관리들도 축하하는 글과 지방 특산물을 바친다. 그러나, 때로는 검소한 왕실의 진통을 중요하게 여겨, 이러한 예절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중국에서도 일찌기 없었던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　　춘(立春)

입춘은 24절기의 첫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된다는 날인데, 보통 양력 2월 4일이나 5일경이 된다.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하는 뜻에서, 대궐에서는 신하들이 지은 '춘첩자(春帖子)'를 붙이고 민간에서는 '춘련(春聯)'을 붙인다. 특히, 양반 집안에서는 손수 새로운 글귀를 써서 봄을 축하하는데, 이것을 '춘축(春祝)'이라 한다. 이 때, 댓구를 맞추어 두 구절씩 쓴 춘련을 '대련(對聯)'이라 부른다. 이 춘련들은 집안의 기둥이나 대문·문설주 등에 두루 붙인다. 대련에 흔히 쓰이는 글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여산 (壽如山)　　부여해 (富如海)'
— 산처럼 장수하고, 바다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

'입춘대길 (立春大吉)　건양다경 (建陽多慶)'
— 입춘에 크게 좋은 일이 있고, 새해가 시작됨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

'소지황금출 (掃地黃金出)　개문백복래 (開門萬福來)'
— 땅을 쓰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림3 > 立春大吉

이처럼 희망 어린 글귀들이 춘련에 쓰인다.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라는 붉은 물감으로, 귀신을 쫓는 글을 써서 대궐에 올리는데, 이것을 궁중의 문설주에 붙여 둔다. 또, 단오날에 쓸 부적도 만드는데, 문에 붙이는 글에는 '신다(神荼)와 울루(鬱壘)' 넉 자를 써서 흉악한 귀신을 쫓는다.

신다와 울루, 이 두 신은 귀신들이 다니는 문의 양쪽에 서서, 모든 귀신을 검열한다고 한다. 이 때, 남을 해치는 귀신이 있으면, 갈대로 꼰 새끼로 묶어 호랑이에게 먹인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신다와 울루를 그려 갈대로 만든 새끼줄과 함께 문위에 걸어, 흉악한 귀신을 막는 옛 풍습도 생겨난 것이다.

경기도 산골 지방에서는 움파(葱芽), 멧갓(山芥), 승검초(辛甘菜)를 대궐에 올린다.

멧갓은 이른 봄 눈이 녹을 때쯤 산속에서 저절로 나는 풀인데, 이것을 더운 물에 데쳐서 초장에 무치면 맛이 아주 매워, 고기를 먹은 후의 입가심으로 매우 좋다.

승검초는 움 속에서 기른 당귀의 싹인데, 깨끗하기가 은비녀 같다. 꿀을 그속에 넣어 먹으면 맛이 있다.

농가에서는 입춘날 보리 뿌리를 캐어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점치는데, 보리 뿌리가 세 가닥이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 한 가닥이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함경도 풍속에, 입춘이 되면 나무를 깍아 소를 만들어, 관청에서부터 민간의 마을로 끌고 나와 돌아다니는 행사가 있는데, 이는 농사를 권장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십이지일 (十二支日)

옛날에는 날짜, 시간 따위를 오늘날과 같은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동물의 이름으로써 표시했는데, 그 동물들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辛), 유(酉), 술(戌), 해(亥) 이렇게 열 두마리의 동물로써 날

<그림4 > 十二干支

짜를 표시할 때는 '자일(子日)', '축일(丑日)' 등으로 표시했다. 이 열 두마리 동물 중에 털이 있는 짐승, 곧 자·축·인·묘·오·미·술·해로 표시되는 동물의 날은 '유모일(有毛日)'이라고 하고, 털이 없는 동물, 곧 진·사로 표시되는 날은 '무모일(無毛日)'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설날이 유모일이면 풍년이 들고, 무모일이면 흉년이 든다 하니, 이는 동물의 솜털이 풍성함에서 연유된 말이다. 또한 설날에 문을 닫았던 상점들이 유모일을 택하여 문을 여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연초의 십이지일 풍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돼지날(上亥日)과 쥐날(上子日)

새해 들어 첫번째 맞는 해일(亥日)을 상해일(上亥日)이라고 하고, '돼지날'이라고도 부른다. 이 밖의 짐승의 날들도 설날부터 열이틀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다.

돼지날과 쥐날에는 궁중에서 나이가 젊고 지위가 앝은 내시들 수백 명이 횃불을 땅에 끌면서 '돼지 주둥이 지진다.' 또는 '쥐 주둥이 지진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쥐와 돼지가 곡식을 많이 축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벌이는 행사이다.

또한 궁중에서는 곡식의 씨를 태워 비단 주머니에 넣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리하는 것이다. 이때의 주머니를 '돼지 주머니'와 '쥐 주머니'라고 부르는데, 돼지 주머니는 둥글고, 쥐 주머니는 길쭉하다.

돼지날에는 부인네들이 팥을 갈아 '조두(澡豆)'라는 가루비누를 만드는데, 이것으로 세수하면 얼굴이 희어진다고 한다. 아마 돼지의 얼굴빛이 검기 때문에, 반대로 그 뜻을 취한 것인 듯하다.

쥐날, 시골에서는 콩을 볶으며 '쥐 주둥이 태운다.'라는 주문을 반복하여 왼다. 또한 농부들은 떼를 지어 들판에 몰려가 잡초밭이나, 논두렁, 밭두렁에 불을 지르는데, 이를 '쥐불'이라고 한다. 이것은 들판의 쥐를 없애고, 풍년을 바라는 뜻에서 하는 행사이다.

⊠ 소 날(上丑日)

소날은 '소달기날'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와 말 등의 가축들을 쉬게 하고 좋은 먹이를 만들어 주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이다.

⊠ 호랑이날(上寅日)

이 날은 남과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꺼리며, 특히 여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만일 호랑이날에 남의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게 되면, 그 집 식구 중의 하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는 말이 있다.

⊠ 토끼날(上卯日)

토끼날에는 남자가 먼저 일어나 대문을 열어야 한다. 특히 가장(家長)이 먼저 문을 열면 한 해 동안 집안 일이 잘 되어 풍족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가 먼저 문을 열면 복이 나간다고 하니, 여자들은 남자가 대문을 열고 나간 후에야 방에서 나올 수 있다 한다.

이 날 새로 뽑은 실을 '톳실(兎絲)'이라고 하는데, 이 실을 파랑색으로 물들여 주머니 끝에 달거나, 옷에 꿰고 다니면 재앙을 물리친다고 한다.

⊠ 용 날(上辰日)

옛말에 용날이 되면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우물에 알을 낳는다 하는데, 여인들은 남들이 이 용알을 건져 가기 전에 물을 뜨려고, 아침 일찍 우물가로 간다.

이 때 제일 먼저 물을 길은 사람은 우물 속에 지푸라기를 띄워, 용알을 건져 갔음을 알린다. 이렇게 하여 차지한 용알이 든 물로 밥을 지어 먹으면, 한 해 동안 운이 좋고,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이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용과 같이 길어진다 하여 많은 여자들이 이 날 머리를 감는다.

⊠ 뱀 날(上巳日)

뱀날에는 머리를 빗거나 깎지 않는다. 만일, 이날 머리를 손질하면, 그 해에 뱀이 집안에 들어와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옛날부터 뱀은 사람들이 매우 꺼리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뱀날에는 특별히 조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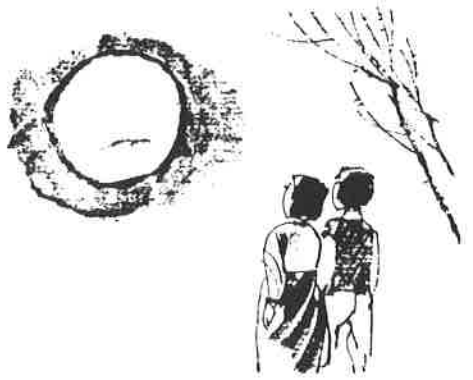
⊠ 닭 날(上酉日)

닭날에는 여자들이 바느질을 꺼린다. 만약, 이 날 바느질 등의 일을 하면, 손이 닭발처럼 흉하게 변한다는 말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일을 않고 쉬려고 한다.

⊠ 사람의 날(人日)

십이지일과는 상관없이 음력 정월 7일을 '사람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한 해 동안 인간 관계가 화목하기를 바라며,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일곱 가지 채소로 국을 끓여 먹고, 수를 놓은 비단에 금박(金箔)을 입혀, 인형을 만들어 병풍에 달거나, 머리에 꽂아 장식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공조(工曹)에서는, 대궐에 '화승(花勝)'이라는 머리장식을 올리고, 또한 손잡이에 자루가 달린 구리 거울을 올리는데, 그 거울 뒷면에는 신선이 새겨져 있어, 그 거울 이름을 '동인승(銅人勝)'이라 부른다.



<그림5 > 上　　元

또, 이 날에는 임금님께서 친히 시험 제목을 내어, 임시로 성균관(成均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과거를 실시한다. 이 때, 1등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임금님께서 특별히 관직과 집 등을 내리시고, 그 밖의 등수에 든 학생들에게도 차례로 상을 내린다.

이처럼 명절날에 임시로 실시되는 과거를 '절일제(節日製)'라고 한다. 절일제는 인일 말고도, 삼월 삼짓날인 3월 3일, 단오날인 5월 5일, 칠월 칠석날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에도 실시된다.

보름날 (上元)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부르며, 또한 상원(上元)이라고도 부른다. 대보름이라는 이름은, 이날 뜨는 보름달이 밝고, 크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상원이란 이름은 도교(道敎)에서 나름대로 붙인 이름이다.

사람들은 농사일도 한가하고 달도 밝고, 또한 겨울날씨도 이 때쯤 되면 많이 따뜻해지고 하니, 바쁜 봄철이 오기 전에,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마음껏 하루를 즐긴다.

보름날에는 또한, 특별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그 중 특이한 것은 약식이다. 약식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찹쌀로 밥을 짓는데 약간 되게 밥을 한다. 이 찹쌀밥에 씨를 뺀 대추와, 껍질을 깐 밤과, 잣을 넣고, 참기름과 꿀과 진간장으로 버무려 푹 쪄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약식은 조상께 제사를 지낼때 쓰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데, 검붉은 빛이 나고 달고 쌉살한 맛이 있으며, 오래두고 먹어도 잘 상하지 않는다.

이처럼 검붉은 빛의 약식이 우리 나라의 고유음식이 된 유래는 신라 시대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신라 소지왕(炤知王) 10년 정월 15일 날 왕이 교외로 행차했을 때, 쥐 한마리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함께 온 까마귀를 따라가 보라고 간청했다. 그리하여, 왕이 사람을 시켜 그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니, 까마귀는 남쪽으로 날아가 어느 연못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연못 속에서 한 노인이 나와 봉투 하나를 주며 왕에게 바치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왕이 그 봉투를 전해 받고 겉봉을 보니,

"이 봉투를 떼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 떼어 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씌어 있었다. 왕은 두 사람이 죽느니,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 봉투를 떼어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일관(日官 : 달이나 별을 관측하여 앞날을 예언하던 신라시대의 관리)이 간청하여 결국 그 봉투를 뜯어 보았다. 그 속에는 '거문고 상자를 쏘아라.'하는 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곧 거문고 상자를 쏘

았더니 그 속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 죽은 자는 궁궐에 드나들던 중으로, 공주와 짜고 왕을 죽이려고 거문고 상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이 밝혀지자, 왕은 그 중과 공주를 둘 다 죽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까마귀 등의 짐승들에게는 감사하는 뜻으로, 검은 빛의 찰밥을 대접했다 한다. 이것이 약식의 시초가 된 것이다.

보름날 새벽에는 그 전날 밤 머리맡에 준비해 두었던 '부럼', 즉 호도, 잣, 은행, 생밤 등 껍질이 단단한 과일과 껍질있는 땅콩, 무우 등 단단한 땅속 식물을 서너 개 깨무는데, 이 때 "올해 일 년, 열 두 달,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내고, 부스럼이나 뾰루지도 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원한다. 이런 의식을 '부럼 깨물기'라고 부른다.

부럼을 깨무는 일을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종기등 부스럼을 막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이빨을 단단히 단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주지방에서는 새벽에 사탕을 깨물어, 누구 이가 튼튼한가 '이빨내기'를 하는 풍습도 전해진다.

또한 이른 아침에 맑은 술, 즉 청주(淸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는데 이를 '귀밝이술'이라고 한다. 이는 귀가 밝아져, 일년 내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길 바라는 뜻에서 베푸는 행사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말려 두었던 박나물, 버섯, 콩나물, 무우 등을 묵혀 두었다가 이 날 나물로 무쳐 먹는데, 이 나물을 일컬어 '묵은 나물' 이라고 한다. 이것들을 먹어두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보름날에는 다섯 가지 잡곡을 넣어 오곡밥을 지어 먹는데, 이 때 들어가는 곡식으로, 보리, 콩, 찹쌀, 팥, 수수, 조 등이 많이 쓰인다. 이 오곡밥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데 여러 집의 밥을 고루 나누어 먹어야 운수가 좋다고 한다. 이것은 제삿밥을 나누어 먹는 옛 풍습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보름날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밥을 먹는데, 옛 말에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심을 해 오면 좋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6 > 다 리 밟 기

보름날 밥을 먹을 때는 배추 잎이나 취나물, 김 등으로 쌈을 싸 먹는데,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면 복을 많이 받게 된다 하여, 이 쌈을 '복쌈'이라고 부른다.

보름날에는 또한 갖가지 재앙을 쫓는 행사가 베풀어 진다.

그 중 가장 큰 행사가 '다리밟기(踏橋)'이다. 보름날 저녁, 서울 시내의 남녀들은 종로 거리에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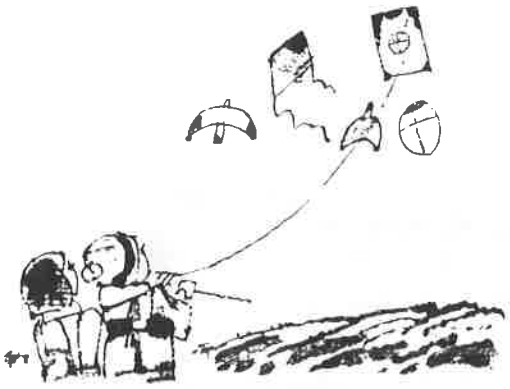
그리고는 보신각의 저녁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져 곳곳의 다리로 몰려가 밤새도록 달빛과 물빛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지방에서는 열 두 개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 행사는 일 년 열 두 달 동안 다리에 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

다리밟기를 할 때는 군중이 떼를 지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성대하고 요란하게 밤을 밝혀 혼잡을 이룬다.

이 혼잡을 꺼려 귀족들은 14일 밤, 나름대로 다리밟기를 하는데, 이를 '양반답교'라고 부른다. 여자들은 14일과, 보름날을 모두 피하여 16일에 하기도 했다 한다.

옛날 서울 성의 북쪽에는 숙정문(肅靖門)이 있었는데, 항상 닫혀 있어 드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문 근처에는 계곡이 있어 경치가 아름다왔고, 또한 그 문이 액(厄)을 막는 힘이 있다는 말이 있어, 여인네들은 보름을 앞두고 세 차례 그 곳에 가서 노는 풍습이 있었다.

어린이들의 액막이 행사로는 '호로병 버리기'와 '연 날려보내기'가 있다.



<그림7> 연날리기

겨울이 시작되면, 어린이들은 나무로 깎아 만든 파랑, 노랑, 빨강색의 조그만 호로병 세 개를 오색실로 끈을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닌다. 그러다가, 정월 14일이 되면 밤중에 남 몰래 길에다 버리는데, 이는 세 가지 재앙을 막는다는 뜻에서 그러는 것이다.

남자 어린이들은 겨우내 날리고 놀던 연을 이 날 줄을 끊어 날려 보낸다.

연을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기도 하는데, 댓가지로 뼈대를 만들고, 종이를 발라 방패 비슷하게 만든것에 줄을 균형 있게 매고, 꼬리를 달거나 색을 칠하여 긴 실에 묶어 하늘 높이 날리며 노는 어린이들의 주된 장난감이다. 연을 날릴 때는 연에 달린 긴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팽팽히 당겨 연의 균형을 조종하는데, 이 긴 실을 감고, 풀기 쉽게 손잡이를 장치해 놓은 실패 모양의 물건을 '얼레'라고 한다.

연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어, 바둑판 모양을 한것, 머리쪽에 먹칠을 한 것, 쟁반이나 접시처럼 둥근것, 까치 날개 모양이나 방패, 고기비늘, 가오리 등의 모양을 본뜬 것, 고양이 눈을 그린 것, 용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연의 기원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찾아보면, 이야기가 신라 진덕여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때,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진덕여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였다. 군중에 있던 대신 몇몇이 여왕의 즉위를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성 밖에 군사를 모아, 왕을 지키는 군사들과 맞서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별똥 하나가 성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반란군쪽에서는 그것이 바로 여왕이 패망할 조짐이라고 하여 기뻐 함성을 질렀고, 여왕은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이 때, 왕의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여왕을 진정시키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가만히 인형을 만들어, 이것을 큰 연에 매달아 불을 질러 밤하늘에 올려 보내니,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전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반란의 무리들은 놀라서 힘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마침내 왕의 군사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연의 기원은 삼국시대에서부터 비롯되며, 연이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군사적으로 연이 전쟁 때 이용되었던 또 다른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은 최영(崔瑩)장군에 얽힌 이야기이다.

옛날 고려 말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이 제주도를 정벌할 당시의 일이다.

최영 장군이 육지에서부터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는 도착했으나, 섬 주위가 절벽과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어, 도저히 섬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여기서부터 전설은 세 갈래로 나뉘어 전해져 내려온다.

첫째 이야기에서는, 최영 장군이 커다란 연을 만들어 거기에다 군사들을 태워 공중으로 띄워 올린 후, 섬위에 내리도록 하여 제주도를 점령했다고 한다.

둘째 이야기에서는 최영 장군이 연에다가 갈대의 씨를 담은 주머니를 띄워 섬 주위의 가시밭에다 그 주머니를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갈대의 씨는 가시밭 가운데서 싹이 트고 자라 그 해 가을이 되자, 섬 주위에는 온통 마른 갈대로 뒤덮이게 된 것이다. 최영 장군은 여기에 불을 질러 가시밭을 모조리 태워 버리고 제주도를 점령했다 한다.

나머지 한 가지 전설에서는 연 잘 날리는 소년들을 모아, 제각기 연을 날리게 하여 그 연을 성 안에 떨어뜨리게 한 후, 그 연의 줄을 이용하여 섬에 올라가 섬을 점령했다고 전한다. 사실인지는 확실히 밝힐 도리가 없으나 ,매우 기발한 묘안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옛날부터 소년들은 연날리기를 매우 좋아하였고, 연싸움도 많이 즐겼다.

연 줄에다가 아교를 칠하고, 그것을 사기조각을 빻은 가루나 쇳가루를 담은 그릇 속으로 통과시켜, 연 줄이 날카롭고 튼튼해지도록 만든다. 그리고, 동네의 친구와 함께 연을 날리다가 자기 연의 연 줄과 친구의 연 줄을 교차시켜 비벼댄다. 그리하여, 자기의 날카로운 연줄로 친구의 연 줄을 끊어 버린다. 이와 같이 하여 개구장이들은 남의 연이 멀리 날아가는 것을 구경하며 통쾌하게 웃고 즐긴다.

연 싸움 때 지지 않으려고, 어린이들은 저마다 연 줄에다가 자석가루나 구리가루, 유리가루, 등 날카로운 것들을 골라 묻히기도 하고, 실을 세겹, 네겹 겹쳐서 연줄을 만들기도 한다. 연싸움을 잘 하는 소년들은 부잣집에 불려가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보름날을 앞둔 서울의 수표교(水標橋) 위는 연싸움을 하는 소년들과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로, 한때 큰 혼잡을 이룬다. 그러나 보름날이 지나면 연을 모두 날려버려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연을 날려 버릴 때는 연의 뒷면에 '액(厄)'이라는 글자 하나를 쓰기도 하고, 질병, 사고, 흉년 등 여러가지 재앙을 모두 적기도 하며, 또는 '집안 식구 아무개 모년 모월 모일 태어난 사람, 몸의 재앙이여 모두 없어져라.'라는 글을 쓰기도 한다. 이는 곧 액을 날려 버린다는 뜻이다.

나이가 '제웅직성'에 달한 사람들은 짚으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옷을 입혀 '제웅'을 만드는데, 이것을 얼마 동안 머리맡에 두었다가, 14일 밤 길에 버린다. 또는 제웅 속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내어 주는데, 어린이들은 이것을 받아 돈을 빼어 갖고, 제웅은 불에 태워 버린다. 이것을 '제웅치기'라고 부른다.

이는 자기가 당할 재앙을 남에게 팔아 없애버린다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다.

여기서 '제웅직성'이라 하는 것은, 남자는 태어난 지 10년 되는 해, 여자는 태어난 지 11년 되는 해부터 들어, 9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 이 해가 되면 운수가 나쁘고, 몸에 나쁜 일이 생긴다 하여, 사람들은 이 해가 되면, 꺼림칙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이다.

'제웅'이란 신라 시대에 악마, 특히 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쫓은 바 있는, 용왕의 아들 처용(處容)의 이름에서 변화되어 생긴 말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을 만나면, 급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 때, 이름을 불린 사람이 대답을 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

하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더위 팔기'인데, 이런 방법으로 남에게 더위를 팔면, 그 자신은 한 해 동안 더위를 먹지 않게 되고, 반대로 더위를 산 사람은 그 해 여름, 남의 몫까지 더위를 먹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보름날 아침에는 누가 불러도 선뜻 대답을 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대답 대신,

"내 더위 사가라."하고 먼저 말하여, 먼저 더위를 팔기도 한다.

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먹이지 않는 풍습이 있다. 이날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에 파리가 많이 들끓고, 개가 마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속담에 굶는 것을 빗대어 "개 보름 쇠듯 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린이 가운데 봄을 타, 살빛이 검어지고 야위어 마르는 아이는, 정월 보름날 백 집의 밥을 얻어다가 절구를 타고 앉아 개와 마주 보면서 개에게 밥 한 술 먹이고, 자기도 한 숟가락 먹으면, 다시는 그런 병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농촌에서는 설날부터 보름날 사이에 어느 하루를 잡아 '고사(安宅)'를 지낸다. 이것은 굿의 일종으로, 새해를 맞아 깨끗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집안에 쌓인 나쁜 것들을 없애버리고 재앙을 물리쳐 없앤 후, 풍년이나 복을 불러들인다는 뜻에서 베푸는데, 이 때 무당을 불러 조상신, 부엌신, 동네신 등에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 무당이 없으면 안주인이 대신해서 가족끼리 지내는 수도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번창을 위해 고사를 지내는데, 일 년에 보통 봄과 가을 두 차례 지낸다. 봄에 지내는 고사는 주로 새해 초에 하는데, 이는 소원을 빌기 위해서이고, 가을에 10월쯤 지내는 고사는, 감사하는 뜻에서 지내는 것이다.

<그림8 > 고 사(安宅)

보름날 전후로 농가에서는 그 해의 풍년, 흉년을 점치고,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인다.

보름날 하루 전인 1월 14일 무렵, 농가에서는 마당에 장대를 세우고, 그 둘레에 짚단을 둘러 묶어, 깃대같이 만든 후 짚단 사이로 벼, 수수, 조, 피 등의 곡식 이삭을 꽂고, 장대 위에는 목화를 매단다. 이것을 일컬어 '낟가릿대' 또는, '볏가릿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2월 1일 아침까지 세워 둔다.

2월에 들어서 낟가릿대를 허물 때가 되면, 농부들은 가마니를 곁으로 가져다 놓고, 곡식을 쏟아 넣는 흉내를 내면서, "벼가 몇 만 석이요, 콩이 몇 만 석이요."하고 외친다. 이러한 의식은 그처럼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산간 지방에서도 가지 많이 친 나무를 베어다가 곡식 이삭과 목화를 매어 달아 놓는데,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 여기를 맴돌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를 부른다.

14일 밤에는 '복토(福土)훔치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거나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흔히 이런 의식을 한다.

이 의식은 보통 어두컴컴한 밤중에 행해지는데, 동네에서 부유하게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그 집의 뜰이나 마당을 파서 흙을 떠오는 일종의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얻은 부잣집 흙에는 재물을 모으게 하는 힘이 있다 하여, 이 흙을 '복토'라 부르며, 이 흙을 부뚜막에 바르거나, 집 주위에 뿌리면 부잣집의 복이 모두 따라 들어온다고 믿어, 사람들은 그 흙을 얻으려고 애쓰고, 부잣집에서는 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밤중에도 불을 밝혀 집안을 지킨다. 부잣집 흙 외에도, 종로 네거리의 흙을 파다가 쓰는 수도 있었다.

14일 밤중에 재를 그릇에 담아 지붕 위에 놓아 둔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 그릇 속에 어떤 곡식의 씨가 날아와 떨어져 있나 살펴본다. 만약 재 속에 어떤 곡식의 씨가 있으면, 그 곡식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수수깡 속에 열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콩 열 두개를 그 구멍마다 끼워 우물 속에 넣어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 두 개의 그릇에 물을 담고, 그 그릇마다 콩알 하나씩을 넣어 두어, 보름날에 꺼내어 콩알이 얼마나 불었나 살펴본다. 이 때 다섯 번째 콩이 불었으면, 5월에 비가 풍부히 내려 모내기에 충분할 것이요, 여섯번째 콩이 불지 않았으면, 6월에 비가 잘 안내려 가뭄이 들 것이라는 등 소박한 점을 쳐 본다. 이러한 점을 '달붙이' 라고 부른다.

보름에는 대추나무,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돌을 끼우는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라는 행사를 행한다. 이것은 사람이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일나무도 시집을 보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생각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름날 꼭두새벽에 농가에서는 첫닭 우는 소리를 센다. 이 때 닭이 열 번 이상 울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 새벽 닭이 울자마자 각 가정의 아낙네들은 바가지를 들고 서로 앞을 다투어 우물로 달려가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 온다.

<그림9 > 용알긷기

이를 '용알 긷기'라고 하는데, 맨 먼저 우물물을 길어 간 집이 그 해의 농사가 가장 잘 된다고 한다.

보름날에는 각 지방마다 특유의 행사를 벌여 하루를 즐긴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 날 '지신(地神)밟기' 라는 민속놀이를 벌인다. 지신이란 집터를 담당하는 신으로, 그 집안의 복을

마음대로 주관한다고 한다.

마을의 청년들은 저마다 사대부(士大夫), 팔대부(八大夫), 포수(砲手)로 분장한다. 사대부, 팔대부는 관을 쓰고 점잖게 앞장 서 걸으며, 포수는 짐승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등에는 꿩을 잡아 둘러메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일종의 가장 행렬을 벌인다. 이 때 농악대는 징, 꽹과리, 장구, 북을 치고, 그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지어, 마을에서 넉넉하게 사는 집을 차례로 찾아가 지신을 밟아준다.

그 행렬은 부유한 집의 대문을 거쳐 그 집 마당, 뒤뜰, 부엌, 광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놀다가, 집주인이 차려 주는 떡과 술과 과일 등을 먹고, 때로는 곡식이나 돈을 받아 가지고는, 그 집을 떠나 다음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 집안을 다니며, 여럿이 지신을 밟아 주면, 한 해 동안 지신의 덕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서는 보름을 전후하여 줄다리기를 하는데, 보통 마을과 마을이 하며, 크게 할 때는 면(面)이나 군(郡) 단위로 하기도 한다.

줄다리기에 쓰는 줄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꼰 새끼줄을 모아, 다시 큰 기계에 넣고 꼬아 만드니, 그 지름은 30~60센티미터에 달하고, 길이는 100미터 이상이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줄을 넓은 공터에 실어다 놓고, 양쪽 편의 줄을 암줄과 수줄로 연결시켜, 그 연결 부분 밑에 금을 그어 놓고, 농악 소리와 함께 일제히 양쪽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줄다리기는 줄을 자기 편으로 끌어 간 쪽이 이기는 것으로, 이 때 이긴 편 동네에는 그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여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응원을 한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이긴 편 줄을 썩혀서 논에 거름을 주면 풍년이 들고, 또 어부가 배에 가지고 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풍파에 사고를 당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는 대보름날 밤에 여자들이 하는 놀이로 '놋다리 밟기'가 있다. 이 놀이는 먼저 나아가 50~60된 할머니 중에서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손자를 본 할머니를 뽑는다. 이런 할머니들은 여자로서 갖출 복을 다 갖추었다하여 '창립(創立)'이라 부르고 맨 앞에 세워진다.

<그림10> 놋다리 밟기

이 창립 뒤에 30대의 장년 부인들이 서고, 그 뒤로 나머지 여자들이 한 줄로 서서, 허리를 구부려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 마치 생선을 꿰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구부린 등 위로 공주로 선발된 예쁜 소녀가 양 옆의 부축을 받으며, 뒤에서 부터 앞으로 걸어간다. 이 때, 창립과 장년은 놋

다리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렴을 부른다.

평소에 여인들은 바깥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남자들에게 눌려 살았지만, 이 때만은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며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남자들도 감히 이 놀이를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놀이는 오로지 여자들만의 놀이로, 남자가 여기에 끼려고 하거나, 구경을 하면 여자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놀이의 기원은 고려 말 공민왕(恭愍王)이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피해 안동에 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겨울이라 추운데, 왕의 일행은 초라했고, 시내를 건너려는데도 배가 없었다고 한다. 이를 딱하게 여긴 안동의 여인들이 시내를 가로질러, 허리를 구부려 등으로써 다리를 만들어 왕의 일행을 건너게 해주었다고 한다.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시내를 건너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만 초라하고 지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놀이를 고안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안동 여인들의 충성심을 나타낸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 놀이는 보름달 밑에서 여성들이 모처럼의 자유와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며, 싸우거나 이기고 지는 승부도 없이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아주 정서적인 놀이로서, 우리 민족 특유의 자랑스러운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보름날에 '편싸움'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서울의 동부, 서부, 남부에 사는 사람들과 애오개(지금의 아현동)에 사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큰 싸움을 벌이는데, 이 때 몽둥이나 돌을 들고 싸우므로 '돌싸움(石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싸움을 하다가 한 편이 쫓겨서 달아나면, 그 쫓겨난 편이 지는 것이다. 이싸움에서 동, 서, 남부 편이 이기면 경기도 지방에 풍년이 들고, 애오개 편이 이기면, 다른 지방에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다.

이 편싸움이 한창일 때는 용산이나 마포에 그 당시 모여 있던 불량 청소년들이 애오개 편을 들어 심한 폭력을 쓰는데,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피를 보아도 싸움을 그치지 않아서 때로는 죽는 사람까지 생기기도 했다 한다.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칠까 봐 모두 몸을 피했고, 감독 관청에서는 이 싸움을 못하게 말렸지만, 이런 악습은 오히려 고쳐지지 않았다 한다.

서울 말고도, 평안도와 황해도 사람들이 보름날을 잡아, 도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서로 돌을 던지고, 물을 끼얹으며 싸웠다는 기록이 중국의 역사책에 남아 있고, 또한 경상도 안동에서도 정월 16일 돌싸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격렬한 싸움 풍습은 어린이들에게도 이를 본받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어 서울 곳곳에서 소년들의 편싸움이 벌어졌다 한다.

그러나, 이 풍습은 우리 민족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투지와 정열을 발휘하여 어느 때 닥

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 체력을 단련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예로 고려 초에는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척석군(擲石軍)'이란 군대를 조직한 바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 나라에서는 안동, 김해 지방의 돌팔매 선수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앞장서 싸우게 하여, 일본군을 놀라게 한 사실을 들 수 있겠다.

<그림11> 횃불싸움

물론 돌싸움은 오늘날의 대보름 풍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충청도와 경기도 지방에서는 보름날 저녁 편을 나누어 '횃불싸움'을 벌인다. 청소년들은 각자 집에서 쓰던 낡은 마당비나, 대나무, 싸리나무로 만든 홰를 준비해두었다가, 대보름의 둥근 달이 동산에 떠오를 때면, 두패가 맞서 횃불을 들고, 상대편을 욕하고 약올린다.

이 때 농악이 울려 응원을 시작하면, 용감한 청년부터 앞장 서서 상대편에게 싸움을 건다. 횃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게 섞여 서로 때리고 불로 지지고, 옷을 태우며 함성을 지른다. 그래서, 그 광경은 참으로 용맹스러운 불의 장관을 이룬다.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횃불을 빼앗긴 사람이 많은 편이 지는 것이다. 이 횃불싸움은 불을 낼 위험도 있고, 다칠 위험도 많은 놀이이긴 하지만, 협동정신을 기르고, 남성다운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놀이로, 옛날에는 전쟁 연습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전라 북도 옥구군과 익산군 일대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마을들이 형제를 정하여 아우 마을 농기(農旗)가 형 마을 농기에게 절을 하는 '기세배(旗歲拜)'라는 행사가 있다. 그 베풀어지는 장소는 맏형 마을의 광장이다.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근처 마을의 농악대들은 자기네 마을의 상징인 농기를 앞세우고, 흥겹게 농악을 울리며 행진한다.

이와 같이 농기를 높이 세우고 곳곳에서 아우 마을 농악대들이 모여들면 기세배가 시작되는데, 먼저 둘째형뻘 되는 마을의 농기가, 맏형 마을 농기에게 50도 각도로 정중히 절을 한다. 뒤이어 맏형 마을의 농기가 15도쯤 숙여 답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마을의 기가 맞절을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막내 마을까지 기세배가 끝나면 모든 마을이 함께 어울려 준비해 온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 날을 즐겁게 보낸다.

형제의 차례를 정하는 방법은, 어는 마을이 가장 먼저 농악대와 농기를 만들었는가를 따져서 맏형을 정하고, 그 다음 마을부터 그런 방법으로 형제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기세배는 농업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마을 사람들의 단결과, 마을과 마을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베풀어졌던 좋은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보름날 농부들이 벌이는 '사자 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는 두 사람이 함께 사자 모양의 옷을 입고, 앞사람은 사자 머리를 본뜬 가면을 쓰고는 마을의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며 춤추고 노는 놀이이다. 사자와 농악대가 집안에 들어오면 집주인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돈과 곡식을 주는데, 이 물품들은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쓰인다. 이 놀이에서는 사자 외에도 소나 말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즉흥적인 묘기를 부리기도 하면서 명절을 즐긴다.

지방의 곳곳에서는 보름을 전후하여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山神), 동신(洞神)을 위한 제사가 벌어진다. 사람들은 마을의 산에다 산신령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여기에 제사를 지낸다. 이 때 제사를 담당하는 '화주(化主)'는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갖고, 제사에 쓸 그릇과 음식들을 새롭게 마련한다.

제사 때 쓸 물을 긷는 우물 주위에는 누런 황토흙을 뿌려, 악마나 마음씨가 나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우물은 멍석으로 가려 놓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제삿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농기를 화주의 집에다 두었다가 첫닭이 울 때 사당으로 들고 가, 제사를 올린다. 마을 전체의 제사가 끝나면, 각 집안에서는 가장(家長)이 준비한 얇은 종이에 소원하는 바를 적은 소지(燒紙)를 태워 올린다.

강원도의 산간 지방에서는 여러 명의 어린이들이 일제히 온갖 새 이름을 부르면서 쫓는 시늉을 하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새들이 농작물을 쪼아 먹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고,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하는 놀이이다. 춘천이나 가평에서는 마을끼리 싸움을 하는데, 외바퀴 수레를 앞으로 몰아, 뒤로 밀리는 마을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싸움을 '차전(車戰)'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알려진 안동 지방의 차전놀이와 같은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림 12> 달 맞 이

이러한 보름날의 놀이들은, 각 지방마다 독특한 모양과 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이웃간의 화목과 마을의 단결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보름날 날이 저물고, 밤이되면 사람들은 일찌감치 저녁을 먹은 후, 횃불을 들고 동산에 오른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달맞이'라고 한다. 보름날 처음으로 달을 본 사람은 운수가 좋다 하여, 저마다 빨리 산에 오르려 하니, 산에 오르는 사

람들의 횃불이 줄을 이어 화려한 풍경을 이룬다.

산꼭대기까지 오른 사람은 보름달이 뜨자마자, '망월(望月)이야!'하며, 횃불을 흔들어 달이 떴음을 알린다. 사람들은 밝은 보름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빌기 시작한다. 농부들은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빌며,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하기를 빌며, 결혼할 나이가 된 남녀들은 시집, 장가가기를 빈다. 이렇듯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은 소원을 성취해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떠오른 달빛을 보아 그 해 농사의 풍년 흉년을 점쳤다.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 징조이고,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내려 장마가 질 징조이며, 달빛이 흐리면 흉년,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달이 북쪽으로 치우치면 산동네에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치우치면 바닷가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보름날 밤에는 이와 같이 달맞이와 다리밟기 등 여러가지 행사가 벌어지니,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야간 통행금지를 임시로 폐지해 주었다.

정월 대보름은 우리 민족이 가장 성대하게 지내는 명절로, 오늘날에도 그 풍습이 많이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밖의 1월 풍습

정초에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하여 밖에서 뛰어놀며 즐긴다.

빳빳한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각 모서리부터 대각선을 따라 중심을 향해 가위질한다. 이때, 중심에는 동전 크기만큼의 여유를 두어 가위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귀퉁이를 반씩 가른 다음, 그 한 쪽 귀만을 중심으로 모아 못이나 바늘로 꿰고 그것을 다시 수수깡이나 나무로 만든 연필만한 자루의 앞머리에 박아 고정시킨다. 이 때, 약간 헐렁하게 박아야 색종이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하여 만든 것을 앞에서 보면 선풍기의 날개와도 비슷하고 비행기의 프로펠러의 모양을 닮기도 했으며, 또 그것을 들고 바람을 맞아 달릴 때는 뱅글뱅글 도는 것이 마치 풍차가 돌아 가는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을 바람개비 또는 팔랑개비라고 부르며, 옛날에는 '회회아(回回兒)'라고 불렀다고 한다.

또한, 한 가닥의 생명주실에 거위의 솜털을 붙들어 매고 바람을 따라 날리면서 노는데, 이것을 '고고매(姑姑妹)'라고 한다. 이는 몽고말로 봉황이란 뜻이다.

보름날 연을 날려 보내고, 남은 줄로는 돌멩이를 붙들어매어 남의 줄과 얽어 잡아당기기 놀이를 한다. 이 때, 줄이 끊어지는 아이는 진다.

정월은 일 년이 시작되는 달인만큼 꺼리고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시골에서는 정월 16일로 꺼리는 날로 삼아, 활동도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풍습이 있다.

경주 풍습에는, 정월 첫번째 쥐날·용날·말날·돼지날을 조심해서 보내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신라 소지왕이 이들 쥐·용·말·돼지와 까마귀의 알림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 때문에, 이 날들을 신중히 여기게 된 것이다.

정월 24일은 매년 흐리고 음산하다. 이는 임진왜란때 왜병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다가, 명(明)나라 군사에게 쫓겨가면서 서울 시내를 불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날의 분한 기운이 서려 그런 것이라고 한다.

8일은 잘못하여 '패일(敗日)'이라고 여겨 남자들은 외출을 안한다. 이것은 '여덟 팔(八)'자와 '망할 패(敗)'자의 음이 비슷해서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고려시대에 이 날이 되면 여자들이 성 안팎을 돌아다니니, 남자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을 지켰기 때문에, 그 풍습이 전해지다가 잘못되어 망하는 날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달이 반달이 되는 날을 조금날이라 한다. 매달 두 번씩 상현(上弦)과 하현(下弦)이 되면,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여 나들이를 삼갔다.

그리고, 매달 5일·14일·23일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외출을 꺼렸다. 이는, 고려시대에 왕이 이 세날을 잡아 나들이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밖에 나돌아다닐 수 없었으므로 생긴 풍습이다.

이들 풍습은 오늘날, 그 원인 되는 바가 없어짐과 함께 차츰 사라지고 있는 풍습이다.

2 월

초 하 루 (朔日)

음력 2월 초하루는 중화절(中和節)이다. 궁궐에서는 이 날, 세상에 봄이 찾아온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또한 이 때가 바로 농사가 시작되는 때라 농사일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에게 중화척(中和尺)을 나누어 주시며, 신하들은 임금께 농사짓는 일에 관하여 자신이 지은 책을 바친다.

'중화척'이란 보통 때 쓰는 바느질 자보다 조금 짧은 자인데, 얼룩점이 있는 대나무나 붉게 물들인 나무를 깍아서 만든 것이다. 이 자를 나누어 주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려 임금을 도우라는 뜻이다.

또, 농촌에서는 이 날을 머슴날이라고 하여, 특별히 머슴들에게 하루를 즐기게 해주었다.

<그림 13> 중화절 (머슴날)

이것은 지난해 추수를 끝낸 후, 겨우내 쉬고 있던 머슴들이 봄이 찾아와 농사 준비를 위해 갑자기 바빠지기 때문에, 주인 집에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고, 새로이 농사일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머슴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머슴들이 마음놓고 돌아다니며 놀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주인 집에서는 보름날 세웠던 낟가릿대를 헐어, 거기에 꽂아 두었던 곡식의 낟알로 떡을 만든다. 크기는 손바닥만하거나, 계란만하게 만드는데, 모양은 둥근공을 반쪽으로 낸 모양이다. 이 떡 속에는 콩을 불려 넣거나, 팥이나 꿀을 소로 넣는데, 소를 집어 넣은 다음 시루에 솔잎을 깔고 그 위에 떡을 얹은 후 푹 찐다. 떡이 잘 익었으면 시루에서 꺼내 물로 씻은 후, 참기름을 바른다. 이것을 송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솔잎을 깔고 쪘기 때문이다.

이 송편을 머슴들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했으며, 또한 이웃집과도 나누어 먹었다.

머슴날은, 일 년 내내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머슴들이 술과 떡과 푸짐한 음식을 먹고, 또한 농악을 울리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날이니, 오늘날의 근로자의 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날이라 볼 수 있겠다.

또, 이 날은 집집마다 콩을 볶아 먹는다. 콩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피워 가마솥을 덥힌 다음, 콩이 타지않게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콩을 볶는데, 이 때 어린이들은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하며 주문을 왼다.

이렇게 볶은 콩을 아이들은 주머니속에 가득 넣고 다니면서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콩을 볶아 먹는 것은 노래기를 없애고, 쥐와 새가 곡식을 축내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또한, 콩을 볶으면서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를 점친다.

그 방법은 콩과 약간의 보리를 섞어서 한 되가 되게 한 후 그것을 솥에 쏟아 넣고 볶는다. 이것을 다 볶은 다음, 다시 되에다 담아 보는데, 만약 볶아 낸 것이 볶기 전보다 늘어, 한 되가 넘는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 것이고, 볶기 전보다 줄어서 한 되가 안 되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들어 추수가 적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이 날, 배탈이 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욕심을 부려, 볶은 콩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대청소를 벌인다. 겨우내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젖뜨리고 방안 구석구석의 먼지도 털고, 거미줄도 걷어 내며, 문지방, 마루 틈새, 장농 밑 등 평소에 손이 안 가던 곳도 깨끗이 쓸고 닦는다. 집 안팎뿐만 아니라, 헛간이나 외양간 같은 가축 우리도 거름을 치우고 깨끗이 씻어 낸다.

이렇게 청소를 하여 두면 봄을 맞는 기분도 상쾌하고 또 겨울 동안 방 구석구석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던 노래기 등의 벌레와 해충들의 알을 쓸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게으름을 피우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일 년 내내 기분도 불쾌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지저분한 벌레들 때문에 병이 옮기도 쉬우니, 봄이 찾아와 날씨가 따뜻한 이때를 택하여 청소를 하는 것은 좋은 풍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옛날에 농촌에는 짚으로 지붕을 덮은 초가집이 많았다. 그래서 노래기 등의 더러운 벌레들이 짚 속에서 알을 까고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일이 많았으므로, 농가에서는 이 노래기를 쫓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생각해 낸 것이 부적을 붙이는 방법이다. 흰종이에

'향랑각시(香娘閣氏) 속거천리(速去千里) — 향락각시야 빨리 천리 밖으로 달아나라'

라는 글을 써서 집의 서까래나 벽, 기둥에 붙여 놓으니, 이렇게 해 놓으면 노래기가 천 리 밖으로 도망 가리라 믿었던 것이다.

'향랑'이란 향기 나는 여자라는 뜻이고, '각시'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노래기를 아름답게 표현한 말로, 부르기 거북한 이름을 피한다는 생각에서 지어 낸 것이다.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경상도 지방과 제주도 지방에서는, '바람 올리기'라는 제사를 올린다. 이 제사는 또한, 영등제(靈登祭) 또는 연등제(燃燈祭)라고도 부른다. 이는 '영등 할머니'라는 바람신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영등 할머니는 하늘에서 사는 바람과 날씨를 담당하는 신이다. 그 할머니는 매년 2월 1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 위의 곡식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살펴 주고는 20일 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2월 초하루경, 할머니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함께 온다고 한다. 만약, 딸이 함께 오면 그 때의 날씨는 맑고 온화하지만, 며느리가 함께 오면, 날씨가 궂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의 날씨가 맑은가 궂은가를 따져 보아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를 짐작한다. 따라서, 농부들은 영등 할머니가 내려올 때 딸과 함께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2월 1일 아침 일찍 새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담아 장독대나 부엌, 헛간, 마당 등에 올려놓고 소원을 빈다. 이 때에 여러 가지 음식물도 차려 놓으며, 대개 그 해에 풍년이 들 것과 집안의 평안을 빌며, 식구 수대로 소지(燒紙)를 올린다.

대체로 영등 할머니가 땅위에 있는 20일 동안은 거센 바람이 불어 바다 또한 풍랑이 심

하므로,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쉬고 영등 할머니에게 바람을 순하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낸다.

경상도 지방에서는, 무당이 그 영등신을 맞아 온 동네를 나돌아다니면, 사람들은 그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장대 열 두개를 세워 놓거나, 휘어서 양끝을 땅에 꽂은 후 신을 불러 들여 제사를 지내며, 곳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나무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색색의 비단으로 장식해 '말놀이뛰기(躍馬戱)'를 하기도 한다. 이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이다.

경 칩 (驚蟄)

음력 2월 달에는 24절기의 하나인 '경칩(驚蟄)'날이 들어 있다.

경칩이란,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그 밖의 동물들, 특히 파충류들이 봄이 온 것을 깨닫고, 놀란 듯이 땅 위로 튀어 나온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말이다.

사실, 경칩은 양력 3월 5일쯤이므로 어느 정도 봄이 와서 따뜻해진 때이니만큼 벌레도 나오고, 나무들도 싹이 틀때인 것이다.

이 때, 땅속에서 나온 개구리들은 논이나 도랑 같은 물이 괴어 있는 곳에 알을 낳는데, 농촌에서는 경칩날에 알을 건지는 풍습이 있다.

<그림 14> 경칩 (驚蟄)

이것은 개구리의 알에는 몸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 하여, 이 알을 건져다가 몸이 약한 사람에게 먹이고, 또한 몸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기 위해 병이 없는 사람들도 흔히 먹는다.

또 경칩날에는 흙으로 집안의 금이 간 벽이나, 허물어진 담 등을 수리하는데, 이것은 경칩날 흙일을 하면 사고가 없다는 말이 전해지므로 그러한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벽 전체를 새로 바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벽 틈에 숨어 있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집안에 빈대나 벼룩 등 해충이 많이 돌아다니는 집에서는,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집의 네 귀퉁이에 놓아 두면 빈대 등의 벌레가 없어진다고 한다.

경칩날에는 또한, 단풍나무를 베어 그 베어 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위장병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하여, 이 물을 약으로 먹는다.

청 명 (清明)

청명은 24절기 중의 한 절기로, 양력 4월 5일 쯤이 되고, 또한 한식날과 겹치거나 그 하루 전날이 되는 수도 있다.

농가에서는 이 즈음에 봄 갈이를 시작하고, 궁중의 예절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새로이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로 불을 일으켜 임금께 올린다. 그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각 관청에 나누어 내리신다.

이는 모든 관청의 업무를 새롭게 하는 뜻과 아울러,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불이, 임금으로부터 관리를 거쳐 온 백성들에게 퍼짐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이 임금으로부터 나옴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옛날부터, 불씨는 집안의 전통과도 같이 물려 내려가는 중요한 존재였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날의 성냥처럼 쉽게 불을 일으켜 주는 기구가 없어서, 부싯돌을 쳐서 생겨나는 잠깐 동안의 불똥을 쑥으로 만든 솜에 옮겨 붙여 불을 만들거나, 나뭇가지를 나무 토막에 대고 구멍이 날 정도로 비벼서 불을 일으키거나 하여, 불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다.

이처럼 불을 옮기는 행사는 한식날에 베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한 식 (寒食)

동지(冬至)후,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고 한다. 한식은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를 기준으로 정한 명절이라, 양력으로는 매년 4월 5일이나 6일이 되면, 음력으로는 2월이나 3월 중의 어느 날에 끼게 된다.

한식이 되면, 조상의 묘를 찾아가 과일과 고기와 떡으로 제사를 지낸다. 이 때의 제사를 '한식차례(寒食茶禮)'라고 한다.

조상의 묘를 찾아보았을 때, 묘가 허물어져 있으면 흙을 다시 더하고 잔디를 입히니, 이를 '개사초(改莎草)'라고 부르며, 이 때 묘에 입힌 잔디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으면 정성껏 뽑아 낸다.

또한, 묘 둘레에 좋은 나무를 골라 심기도 한다.

한식날에는 보통 더운밥을 먹지 않고 찬밥을 먹으니, 한식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식의 풍습은 옛날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우리 나라에까지 이른 것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고대 중국 진(晋)나라에 개자추(介子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문공(文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외국을 떠돌고 있을 때, 19년

동안이나 갖은 고생을 다하며, 문공을 모셨던 충신이다. 그런데, 문공이 자기 나라인 진(晋)에 돌어와 왕이 되자, 예전에 개자추에게 신세졌던 사실을 잊고, 개자추를 소홀히 대하는 것이었다.

개자추는 이러한 왕의 대우를 서운히 여기고, 홀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뒤늦게 개자추의 충성심을 깨달은 왕은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개자추를 불러다 상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자추를 찾으니 그는 산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림 15> 한 식 (寒食)

왕은 이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다. 개자추가 숨어 있는 산에 불을 지른다면, 개자추는 분명히 불에 견디지 못하고 산을 빠져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왕은 산 둘레에 사람들을 둘려 세우고 산의 가장자리부터 불을 질러 개자추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산의 나무가 완전히 재가 될 때가지 그는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불꺼진 산을 뒤지니, 개자추는 홀어머니를 안은 채 버드나무 밑에서 타 죽어 있었다.

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개자추가 죽은 이 날, 불을 쓰기를 꺼리니, 자연히 밥도 짓지 못하고, 미리 지어 놓았던 식은 밥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한식 때에는 새해의 농사가 시작되어 매우 바쁘며, 이때를 택해 채소의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일이 많다.

또 속담에 한식날 천둥이 치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불행이 닥친다는 말이 있어, 이 날 날씨가 나쁘면 모두들 걱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이 때가 식목일(植木日)에 가까우므로, 나무를 심은 후에 비가 오는 것은 좋다고 여기기까지 한다.

그 밖의 2월 풍습

2월 6일이나 7일에 농가에서는 초저녁 별을 보아 점을 치는 풍습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좀생이보기'이다. 좀생이는 겨울 하늘 남쪽에 있는 오리온 자리의 서쪽에 위치한, 황소 자리에 있는 '플레이아데스 성단(星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 별무리

를 점치는 데 썼던 것이다.

이 별무리는 맨눈으로 보면 대여섯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2천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옛날 기록에 보면, 이 좀생이가 달보다 앞서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하기도 하고, 달과 나란히 있거나 조금 앞서서 그 거리가 아주 짧으면 좋은 징조이나, 만약 달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그것은 나쁜 징조라 한 데도 있다.

또한 달보다 뒤져서 한 길 정도 뒤에 있으면 풍년이 들고, 달보다 앞서서 한 길 정도 앞에 있으면 흉년이라고한 데도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지방이나 관찰자에 따라 의견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결국 좀생이가 달과 가까운 데 있으면 좋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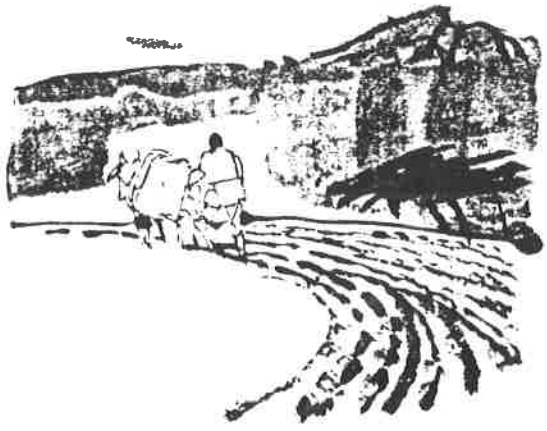
이 풍습은 옛날 중국에서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 즉 삼성(參星)을 보고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추측된다.

또한, 2월에는 저장해 두었던 얼음을 종묘에 올리던 왕실의 풍습이 있었다. 2월 20일경,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2월이 되면 농촌의 일손이 바빠진다. 논과 밭을 갈아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맨 먼저, 겨우내 굳은 채로 있던 논이나 밭의 흙을 파서 뒤집고, 뭉쳐 있는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공기가 잘 통하고, 거름이 잘 배어들게 해준다.

이렇게 논밭을 갈아 엎어 주어야 새로 심은 곡식이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되는 것이다. 새 봄 들어 처음으로 흙을 갈아 엎어 주는 일을 애벌갈이라고 부른다.

밭이나 논을 갈 때에는, 밭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으면 쟁기질도 남북으로 하지만, 이런 밭에서는 먼저 동서로 몇 골을 갈고 난 후, 남북으로 갈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밭곡식이 잘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밭을 갈 때, 많은 농가에서 황소 대신 경운기를 쓴다. 이것은 농사짓기에 편리를 꾀한 것이다.



<그림 16> 밭 갈 이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며칠간은, 봄인데도 바람이 매섭고 눈이 내리는 수도 있어, 갑자기 겨울이 되돌아온 것 같은 때가 매년 있다.

이것은 봄이 찾아와 나무에 새 움이 트고, 꽃봉오리가 부풀어오르니, 바람의 신이 샘이 나서,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매서운 바람을 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꽃샘 바람은 어떤 때는 겨울 바람보다 심할 때도 있다 하여, '꽃샘 바람에 큰 독이 깨진다.'는 속담도 생긴 것이다.

꽃샘 바람이 불 때는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으며, 먼 길을 떠나는 배 또한 타지 않는다. 바람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거세어, 뱃길이 순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꽃샘이 시작되지 전에는 날이 따뜻하여, 마치 봄이 다 온 것 같으므로 성급한 사람들은 옷을 얇게 입고, 심지어는 겨울 옷을 모두 깊이 넣어 두기까지 한다. 이러다가 꽃샘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감기에도 쉽게 걸리니,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말까지 생겼다.

<그림 17> 봄 맞 이

3 월

삼 짇 날

음력 3월 3일은 삼짇날이라고 하고, 3이 둘 겹쳤다 하여 중삼(重三)이라고도 부른다.

삼월 삼짇날이 되면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바야흐로 생기를 되찾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나무는 꽃을 피우고, 들녘에는 봄나물이 돋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강남으로 갔던 제비들도 이 때 돌아오는 것이다.

이 때 쯤이면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여, 온통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이 꽃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이 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진달래 꽃을 골라 한 아름 따 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따온 진달래꽃을 떡이나 술에 넣어 계절의 독특한 맛을 선보인다.

진달래꽃을 깨끗이 씻고 다듬어서 찹쌀가루를 반죽한데에 넣고, 두툼하고 둥글게 빚어, 참기름을 두르고 지져 낸 것을 '화전(花煎)'이라고 한다. 화전은 원래 꽃으로 만든 떡이라는 뜻으로 진달래꽃 말고도 여러 가지 꽃들을 넣어 만드는데, 주로 그 철에 많이 피는 꽃

들을 넣어 만든다.

이 때의 음식으로 화면(花麵)이 있는데, 이것은 녹두 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국에 띄우고 꿀을 섞고 잣을 곁들인 일종의 화채이다.

혹은 진달래꽃을 녹두 가루에 반죽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 녹두로 국수를 만들어 붉은색으로 물들여 꿀물에 띄워 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수면(水麵)이라고 한다.

이들 화면이나 수면은 시절 음식이고 또한, 이 때의 '시제(時祭)'에 쓰는 음식이기도 하다.

삼짇날쯤이 되면, 나비가 나와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이 때 나비를 보고 점을 치는 풍습이 전해진다.

새봄 들어 처음으로 본 나비가 노랑나비이거나 호랑나비일 때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해의 운수도 좋을 것이지만, 만약 흰나비를 처음으로 보았다면, 그 해에는 부모가 죽거나,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흰나비의 색깔이, 흰 상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생긴 미신이며, 또한 오늘날처럼 다른 나비보다 흰나비가 훨씬 많은 때엔 이 점이 반드시 맞는다고 믿을수만은 없는 것이다.

삼짇날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감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 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소담스러워지고, 물흐르듯이 윤기가 나며, 부드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옛날, 진천 지방에서는 이 날부터 4월 8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용왕당(龍王堂)이나 삼신당(三神堂)에 제사를 드리던 풍습이 있다. 이것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치기 위한 것으로, 그 기도를 하러 몰리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또 사방의 여인들이 모두 모이므로, 마치 시장이 선 것같이 혼잡을 이루었다 한다.

곡 우 (穀雨)

24절기 중의 하나인 곡우(穀雨)는 양력으로는 매년 4월 20일이나 21일쯤이 된다. 곡우라는 말의 뜻은 곡식들을 기름지게 자라도록 제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이 날에는 대개 촉촉히 봄비가 내린다.

농가에서는 이 때가 되면 볍씨를 물에 담가 두어, 못자리에 뿌릴 준비를 한다. 볍씨를 물에 담그는 것은, 볍씨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벼의 싹이 잘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불려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볍씨를 담글 때는 물을 알맞게 붓고, 볍씨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볍씨를 물에 담근 후, 며칠이 지나면 벼의 새싹이 벼의 껍질을 뚫고 파릇파릇 솟아나게 되는데, 이 때가 되면 농부들은, 논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 논 한 모퉁이에, 이 볍씨를 뿌린다. 이렇게 뿌려진 볍씨들이 논에 뿌리를 내려 연두색으로, 잔디밭 모양을 이루는데, 이처럼 모가 빽빽히 자란 밭을 못자리라 한다.

곡우 때가 되면 서해안에는 조기가 많이 잡힌다. 이 조기들은 겨울 동안 전라남도의 흑

산도 근처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곡우 때쯤 되어 날씨가 풀리면, 북쪽으로 올라가 충청도 앞 바다에 모이게 된다. 이 때의 조기를 곡우살이라고 부른다.

곡우살이는 살은 많지 않아도, 연하고 맛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때가 되면 남해의 고기잡이 배들까지도 이 곡우살이를 잡기 위해 충청도 앞 바다에 모인다고 한다.

또한, 강물에서 사는 물고기 중에 '공지(貢指)'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고기는 곡우를 전후하여, 한강을 거슬러 동쪽으로 올라가는 버릇이 있다 한다. 그리하여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비늘을 번쩍이며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곡우 때가 되었음을 짐작한다고 한다.

<그림 18> 穀雨와 공미리

이 공미리란 물고기는 크기도 크고 비늘이 잘며, 살이 많이 쪄서, 회로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 한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곡우가 지나면 없어진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곡우 때의 별식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그 밖의 3월 풍습

3월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새로이 채소와 봄 나물이 돋아나, 한층 신선한 맛이 입맛이 돋운다.

이 때, 신선한 채소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탕평채와 애탕이다.

탕평채는 녹두로 만든 청포묵을 잘게 썰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을 섞어 무친다음, 초장을 쳐서 먹는 것이다. 이 탕평채는 서늘한 봄날 저녁에 차게 해서 먹을 수록 좋다.

애탕은 봄철의 들판에 연하게 돋아난 어린 쑥을 뜯어다, 된장을 풀고 끓인 국으로, 쑥의 향긋한 냄새와 씁쓸한 맛이 일품이다.

또한, 수란(水卵)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계란을 깨뜨려 끓는 물 속에 잠시 담가 반쯤 익혀서 초장을 쳐 먹는 것이다. 수란을 만들 때는 달걀의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국자에 담아야 하며, 이 국자를 끓는 물에 담근 후 달걀이 너무 단단히 익지 않을 때쯤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3월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잡히므로, 생선으로도 많은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봄 들어 한강에는 많은 물고기가 나는데, 그 중 잉어와 소어(蘇魚)는 날것으로 먹어야

<그림 19>

맛이 좋아, 옛날에는, 궁중의 반찬을 담당하던 사옹원에서는 관리들이 나와 손수 그물을 쳐 이들 물고기를 잡아, 임금님께 드렸다 한다. 또한 복숭아꽃이 지기전에 복어를 잡아 파란 미나리와 참기름, 간장등을 섞어 국을 끓이는데, 그 맛이 참으로 독특하다 한다. 황해에서 많이 잡히는 조기를 사다가 노란 모시조개를 넣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이 때, 복어를 꺼리는 사람은 숭어로 대신 국을 끓이니 그 맛이 또한 훌륭하다 한다.

산골에서는 이 때, 마를 캐어다가 쪄서 먹기도 하고, 조각조각 썰어, 꿀에 재어 먹기도 한다.

옛날, 각 가정에서는 봄에 나는 독특한 재료로서 나름대로 술을 빚었다.

이 때, 술을 만드는 재료는 여러 가지여서 술의 종류도 많았다.

봄에 많이 피는 진달래를 가지고 빚은 두견주, 복숭아꽃으로 빚은 도화주, 소주와 약주를 빚어 섞어 빚은 과하주, 찹쌀로 담그는 소국주를 비롯하여, 솔잎을 가지고 담은 송순주, 배와 생강으로 빚은 이강주 등이 이 때 담그는 술로서 이름을 보면 대개 그 재료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순수한 식물성 재료로써 술을 담기도 했지만, 때로는 향료나 약재를 써서 자기 입맛에 맞고, 몸에도 좋은 술을 빚기도 했다.

또한, 각 지방마다 고유의 술을 빚어 유명하니, 서울의 공덕동에서는 소주를 빚어 유명했고, 황해도 지방에서는 이강주를 빚어 유명했다. 그 밖에도 평안도 지방의 감흥로와 벽향주, 호남 지방의 죽력고와 계담주, 충청도 지방의 노산춘 등은 좋은 술로 손꼽혔고, 선물로도 많이 선사되었다.

또한, 술은 오래 된 것이 좋다 하여, 백일 동안 대문앞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어 먹는 백일주도 담근다. 술독을 대문 앞에 묻어 두는 이유는 대문으로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술이 먹고 싶어도, 남들의 눈에 뜨일까 봐 함부로 파내어 먹지 못하므로 무사히 백일 동안 묵혀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담근 술들은 각 지방, 각 가정의 솜씨를 빛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류를 돋우는 것으로, 봄의 흥취를 한층 더 깊게 해준다.

3월의 떡으로 산병과 환병이 있다.

멥쌀이나 찹쌀을 빻아 그 가루로 희고 작은 방울 모양의 떡을 만드는데, 그 속에 콩으로 소를 넣고 떡을 다섯가지 색으로 물들인다. 이렇게 만든 떡을 색을 맞추어 다섯 개씩 꿴 것이 산병이다. 혹은 파란 색과 흰색 두 가지 빛을 내어 송편처럼 반달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큰 것은 두 개, 작은 것은 다섯 개를 대꼬치로 꿰어 먹는다. 이렇게 먹는 산병은 그 모양이 구슬을 꿰어 놓은 듯 아름답다.

또, 찹쌀 가루에 소나무 속 껍질과 푸른 제비쑥을 섞어, 동그란 떡을 빚어 먹으니, 이것이 환병이다.

그리고, 찹쌀에 대추를 넣고 찐 시루떡(甑餠)도 이 때에 만들어 먹는다.

옛날부터, 서울의 남산 아래에서는 술을 잘 빚고, 북부에서는 좋은 떡을 많이 만들었던 까닭에 '남주북병(南酒北餠)'이란 속담도 생겨나게 되었다.

서울 지방의 양반들은, 봄을 맞아 꽃이 피고 나뭇잎이 새로와지면, 산에 오르거나, 들녘으로 나가 꽃을 즐기며 먹고 마시는 풍습이 있었다. 이를 화류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꽃놀이와 비슷한 풍습으로, 서울 근교의 살구꽃, 복숭아꽃, 버들이 많은 데로 사람들이 모여 놀았다.

화류는 아마도 중국 춘추 시대에 3월 삼짇날 '답청'을 행하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된다.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는 활쏘기 대회가 열린다.

활쏘기는 청년들이 즐기는 운동이다. 겨우내 활발한 운동을 못했던 젊은이들이, 봄을 맞아 모처럼 들판에 과녁을 펼치고 활에 화살을 먹여 힘껏 당겨, 과녁의 중심에 쏘아 맞히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다. 활쏘기는 또한 힘뿐만 아니라, 눈도 좋아야 하며, 기술이 있어야 정확하게 표적에 맞는다.

그리고, 활쏘기는 단순히 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냥 때는 동물을 쏘아 죽이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적을 맞히는 무술로서, 젊은이들은 누구나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운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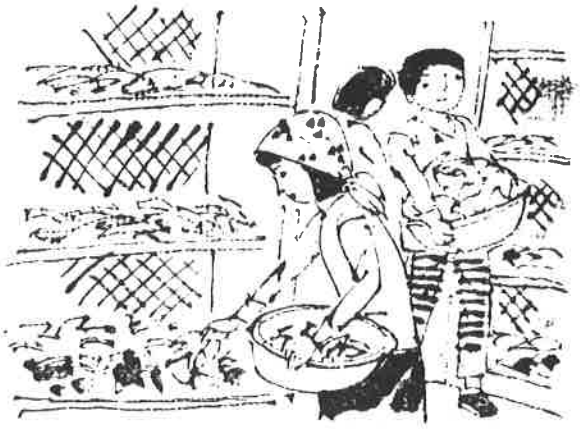
활쏘기 대회는 대개 맑게 갠 날 열리는데, 활터의 정자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구경꾼들이 겹겹이 모여든다.

사수(射手)들이 차례로 활을 쏠 때면, 구경꾼들과 기생들이 응원을 하고, 또 화살이 과녁의 중심을 맞히면, 구경꾼들은 함성과 함께 손뼉을 치고, 기생들은 '지화자'하며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운다.

농촌에서는 3월에 꿩알줍기를 한다. 꿩은 수컷을 장끼라고 부르고, 암컷을 까투리라고 부른다.

봄이 되면 까투리는 잔솔밭 우묵한 곳이나, 보리밭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어 준다.

사람들은 꿩알을 주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여, 봄철이 되면 산이나 보리밭으로 꿩알을



<그림 20> 누에치기

주우러 다닌다. 그리고 주워온 꿩알은 삶아 먹는다.

그런데, 가끔 까투리가 앉아서 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때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까투리가 알을 버리고 도망치려 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쉽게 까투리와 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생겨났다.

농촌에서는 3월 들어 봄 누에를 친다. 누에는 누에 나방의 애벌레이고, 그 번데기인 누에고치에서는 비단을 짜는 명주실을 뽑아 낸다. 명주는 가볍고 보드라운 귀한 옷감으로 예나 지금이나 비싼 값으로 팔린다. 농가에서는 이 누에를 길러 좋은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누에는 보통 봄·가을로 두 번 치는데 봄에는 뽕나무에서 연한 새 잎이 나와 누에치기에도 좋고, 또한 좋은 명주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봄이 되어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사내아이들은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논다.

굵기가 아기 손가락만한 버들가지를 꺾어, 약 10센티미터의 길이로 자른다. 그리고, 이것의 껍질을 몇 번 비틀고 나서 속을 뽑아 낸 버들가지의 껍질 한쪽 끝을 납작하게 누른 다음, 입술에다 대고 불면 버들피리는 청아한 소리를 낸다.

여자 아이들은 푸른 풀을 한 줌 따다가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그것을 붙인 다음, 옷을 입히고 머리를 따 주면서 노는데, 그 풀잎으로 만든 인형을 풀잎각시(草閣氏)라 한다. 소녀들은 이 풀잎각시를 가지고 이부자리를 만들어 재우기도 하고, 엄마가 아기 잠재우듯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 주기도 한다. 이것을 각시놀음이라고 한다.

또 봄에는 새로이 풀이 많이 돋아나므로 어린이들은 풀놀이라 하여 서로 많은 풀을 뜯어다가, 누가 여러가지 풀을 골고루 모았나 내기를 하기도 하고 질경이를 뜯어서 서로 얽어 잡아당겨 누구 것이 질긴가 겨루기도 한다.

봄이 되면 각 지방마다 봄맞이 행사를 벌인다.

강릉(江陵)지방에서는 70세 이상 된 노인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 모셔다 즐겁게 해 드린다. 이 행사를 청춘 경로회라 한다.

남원 지방에서는 활쏘기가 베풀어졌고, 전라 북도 익산군의 용안이란 동네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모셔다 절을 드리고, 술과 활쏘기로써 기쁘게 해 드리는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봄에 사당에 모여 술과 고기로써 제사를 지낸다. 이 때, 회색 뱀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신령이라 하여 꺼리고, 죽이지 않는다.

충청북도의 청안 지방이란 곳에서는 산에 있는 큰 나무에서 국사신(國師神)을 모셔다 20일 동안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옛날 신라 수도인 경주에는 '사절유택(四節遊宅)'이라 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네 계절마다 놀이하는 집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하여 봄에는 동야택(東野宅), 여름에는 곡량택(谷良宅), 가을에는 구지택(九知宅), 겨울에는 가이택(加伊宅)에서 한 철을 즐겼다.

4 월

초 파 일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특별히 초파일이라 부르며, 또한 이날 밤,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고 부른다.

이 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고, 등을 바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날 밤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등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행렬이 벌어진다.

각 가정에서도 등을 달아 이 날을 기념한다. 초파일밤은 온 시내가 연등놀이로 어두움을 모르고, 밤을 밝히는 것이다.

원래 연등놀이는 정월 보름에 하던 행사였는데, 고려 고종(高宗) 때부터, 초파일에도 하게 되었다 한다. 또, 이 때까지는 연등놀이가 국가적인 행사였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강해지고, 불교가 약해져, 이 행사는 초파일에만 민간에서 행해지는 풍속이 되었다.

그러나 이 날의 행사는 여전히 성대하여, 조선 왕조 후기의 기록을 보아도 그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이 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등을 달아맬 등대를 세우고, 그 등대 꼭대기에는 꿩의 꼬리털을 꽂거나 색색으로 물들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이 등대에다 줄을 매어, 식구 수대로 또는 아이들의 수대로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때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추녀에는 초롱에 불을 붙여, 매달아 놓으면, 온 집안이 밤새 환하게 밝다.

등대의 장식은 가난한 집에서는 늙은 소나무 가지를 붙들어 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부잣집에서는 온갖 사치를 다부려 멋을 낸다.

<그림 21> 초 파 일

큰 대나무 수십 개를 이어 매고 배의 돛대를 실어다가 등대를 받치는가 하면, 일월권(日月圈)을 장대 끝에 꽂아 바람에 따라 눈부시게 돌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회전등(廻轉燈)을 매달아, 총알이 연달아 나가는 모양을 꾸미기도 하고, 종이에 화약을 싸서 줄에다 매어 위로 솟구치면서 터지게 하여, 그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져 비가 오는 듯 꾸미기도 했으며, 긴 종이발을 늘어뜨려 펄펄 날리는 모양이 용의 모습처럼 보이게 꾸미기도 했다. 장대 끝에는 그 밖에도 광주리를 매달기도 하고,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줄에 매어 놀리기도 한다.

가게집에서는 등대를 남보다 높고 크게 만들려고, 받침대를 높이 해서 수십 개의 줄을 펼쳐 애써서 세워 놓는다.

이 때 등대가 남의 집 것보다 작은 집은 놀림을 받았다 한다.

초파일에 다는 등은 집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가게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 가지각색의 등이 가게 앞에 죽 걸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등의 모양 또한 여러 가지이다. 열매의 모양을 본 뜬 수박등·참외등·머루등·마늘등 따위가 있고, 동물 모양을 본 따서 만든 거북등·잉어등·학등·자라등·용등·봉황등·오리등도 있다. 그리고 물건의 모양을 본 뜬 북등·종등·방울등·누각등·난간등·화분등·가마등·병등·항아리등·공등·배등·알등이 있었다.

이처럼 사물의 모양을 본 뜬 것외에도, 만수무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뜻에서 만든, 수복등·태평등·만세등·남산등이 있었고, 우주의 별들을 상징한 칠성등·일월등·오행등 따위도 있었다.

등을 만들 때는 종이를 바르기도 하고, 붉고 푸른 비단을 바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유리 대신 운모를 끼워 신선과 꽃과 새를 그려 넣기도 했다. 등의 모가 진 곳에는 삼색의 종이쪽을 붙여 바람에 펄럭이는 모양이 멋있었다.

북 모양으로 만든 등에는 장군이 말을 탄 모양이나,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이야기

의 장면들을 그렸다.

또 영등(影燈)을 만들어 안쪽 틀에는 매·호랑이·개·이리·사슴·노루·꿩·토끼등 동물의 모양을 붙이고 또한 바람에 따라 돌 수 있도록 풍차를 장치하니, 바람이 불 때마다 바깥에 비쳐지는 그림자가 바뀌는 것이 흥미가 있다. 이 등이 이른바 오늘날의 주마등(走馬燈)이다.

초파일 밤은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 그리하여 온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서울 주위의 산에 올라 밤새도록 서울 시내를 밝히는 등불을 구경한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면서 놀기도 한다. 불바다를 이룬 서울 장안은 9일 새벽이 될 때가지 축제 분위기가 그칠 줄 모른다.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날 탑돌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탑돌이는 초파일 뿐만 아니라, 8월 한가윗날에도 하는데, 이 또한 오늘날에는 사라져가는 풍습이다.

옛날, 불교가 성하던 신라 때는 전국민이 불교를 믿어, 이 탑돌이 풍습은 절정에 이르렀었다.

모든 절에는 돌로 만든 석탑이 세워져 있었고, 초파일이 되면 수많은 신도들이 탑이 서 있는 절간의 마당을 가득 채웠다.

절의 스님은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둥글게 돌아가면서 불경을 외었고, 신도들은 스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탑을 돌아가며, 저마다 마음 속으로 한 해 동안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한다. 또 자기가 품고 있던 소원을 석가모니에게 간절히 빈다. 부인네들은 아들 낳기를 빌고, 처녀·총각들은 시집·장가가기를 빌며, 부모님이 아픈 집 자녀들은 부모님의 병이 완쾌되기를 빌면서 여럿이 탑을 도는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었다 한다.

또 고려 시대 풍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 초파일 연등 행사를 하기 수십일 전부터 어린이들은 호기(呼旗)를 하러 다닌다 한다.

호기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용돈을 버는 놀이의 한 가지인데, 그 방법은 등을 매달 등대에 종이를 잘라 깃발을 만들고는 동네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쌀이나 돈을 얻어 내는 것이다.

이런 호기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등대에 깃발을 다는 풍습이 생겼다 한다.

초파일의 등대 밑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진다.

<그림 22> 호 기 (呼旗)

각 가정에서는 등대 밑에다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느티떡과, 볶은 콩, 삶은 미나리 등으로 상을 차려 놓고 손님을 데려다 음식을 대접했다. 이 때의 음식은 전혀 고기를 넣지 않은 것으로 이를 일컬어 '석가탄신일의 소반(素飯)'이라 하니 그것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여 고기 없이 소박하게 지은 밥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동물을 죽이거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있으므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베풀었던 행사인 것이다.

또, 한 가지 등대를 중심으로 한 풍습에 물장구라는 것이 있다. 등대 밑에 물 한 동이를 길어 놓고 그 물동이에 담긴 물 위에 바가지를 엎어 띄운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들고, 그 바가지의 등을 두드려 소박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태평을 기원하는 뜻에서 행하는 놀이라 한다.

이 놀이는 물동이를 써서 하기 때문에 '수부희(水缶戱)'라고도 하고, 물장구를 친다 하여 '수고(水鼓)'라고도 부른다.

또한 이 놀이가 태평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태평고(太平鼓)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는 정월 보름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행해졌던 것이 초파일로 옮겨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도시 풍속에 콩볶기가 있는데, 이 때 쓰는 콩은 틈틈이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염불을 욀 때마다, 콩알 하나씩을 모아 그 횟수를 표시해 두었던 콩이다. 이렇게 모아 둔 콩을 초파일에 이르러 소금을 약간 쳐서 볶는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을 맞이해다가 이 볶은 콩을 함께 먹게 함으로써 서로 인연을 맺는다. 이 또한 인연을 중시하는 불교의 신앙에서 비롯된 풍습인 것이다.

그리고 초파일을 전후하여, 종로 거리에는 1년에 한번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시장이 섰다 한다. 이것은 등을 팔고 사는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릴때, 함께 따라온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어린이들은 이 때를 기회로 시내의 화려한 상점들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장난감을 사서 한때 즐거이 놀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데, 옛날에는 초파일이 어린이 날도 겸했던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초파일은 온 국민이 기쁨과 축하를 나누었던 날이었고, 나라에서도 궁궐에 수많은 등을 장식하고, 불꽃놀이를 벌여 왕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구경하고 즐겼던 명절이어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풍경보다도 훨씬 화려했으리라 생각된다.

이 화려한 경축 행사는 조선 시대까지도 계속되었고, 유교를 중요시하게 되어 국가가 이를 막았어도, 그 풍습이 끊일줄 몰랐었다 한다. 특히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성대한 연등 행사를 거행했다 하니, 우리 나라에서의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고, 깊은 영향을 끼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도 불교 신자는 많지만, 초파일의 행사는 거의다 사라지고, 절에서만 등을 달고 재를 올리며, 밤에는 불교 신자들이 손에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 행렬이 있을 뿐이다.

그 밖의 4월 풍습

음력 5월이면, 이미 봄을 지나고 여름이다. 꽃밭에는 봄에 뿌린 꽃씨들이 자라나 여러 가지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긴다. 그 중에 봉숭아도 빨강·분홍·하얀색을 띤 꽃을 잎 사이 사이에 곱게 피우고 있다.

봉숭아 꽃은 빛깔이 뚜렷하며 물기도 많아 꽃잎이 비비면 빨간 물이 나와 미치 빨간 물감이 스며 나오는 것 같다. 어찌 보면 꽃에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도 보인다.

어린 소녀들과 아가씨들은 이 빨간 꽃물이 스며 나오는 봉숭아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

활짝 핀 빨간 봉숭아 꽃잎을 소복히 따서 움푹 패인 돌멩이 위에 담고, 차돌로 꽃잎을 으깬다. 이 때, 봉숭아 물을 더욱 빨갛고 또렷하게 물들이기 위해서, 백반이나, 소금, 또는 식초를 넣기도 하고, 신 맛이 나는 괭이밥 같은 풀을 뜯어다 함께 섞어 넣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넣고 꽃잎을 완전히 으깬 다음 이것을 손톱 위에 붙이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싸맨다. 싸맬 때는 헝겊이나 봉숭아 잎으로 봉숭아 꽃물이 다른데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싸고 그 위로는 실을 감아 동여 맨다.

봉숭아 물은 보통 초저녁 때 들이기 시작하여 하룻밤을 재운 다음 풀어 보게 되어 있어 소녀들은 잠 잘때 봉숭아 꽃밥이 손가락에서 빠져 나갈까 봐 손을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을 들여 하룻밤을 지낸 후 아침이 되어 묶었던 손가락을 풀어 보면 손톱에는 진홍색 꽃물이 들어 있는 것이다. 소녀들은 저마다 자기 손톱을 자랑하며 누구 손톱이 더 빨간가 대어 보기도 한다. 이 때 남보다 진하게 물을 들인 소녀는 흐뭇하여 손톱을 뽑내고, 남보다 흐리게 물들인 소녀는 다시 봉숭아 꽃을 따다 물을 들인다.

오늘날에도 여름이 되면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인 소녀들은 더러 볼 수 있다. 이처럼 봉숭아 꽃잎으로 손톱을 물들이는 풍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땅 어디에서나 행해지는 여름 풍속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원래 봉숭아는 중국 이름인 '봉선화(鳳仙花)'가 변해서 된 것이고, 그 이름은 꽃모양이 봉황을 닮았음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에 의하면, 봉선화 꽃은 봉선이라는 소녀가 죽어서 된 꽃이라고 한다. 봉선이는 거문고를 아주 잘 탔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솜씨를 알아 주지 않았고, 봉선이보다 솜씨가 나쁜 여자를 거문고의 명수로 뽑아 왕을 모시게 하였던 것이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봉선이는 왕이 행차하는 길목에 나가 거문고를 안고, 손끝에 피가 나도록 그 줄을 타다가 설움이 복받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피묻은 거문고와 함께 묻어 주니, 그 무덤에서는 봉선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피의 빛깔을 닮은 꽃이 피었다 한다.

<그림 23> 봉선이와 거문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꽃을 '봉선화'라 부르고, 그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니, 마치 손끝에 피가 묻은 것처럼 꽃물이 들더라는 것이다.

봉숭아는 이러한 전설 때문인지, 그 특이한 꽃모양 때문인지, 손톱에 물들이는 재미 때문인지, 한국 사람 누구에게나 친근한 느낌을 주고, 또한 많은 한국 여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으로 청초하게 모든 집의 뜰에 피어 있는 것이다.

옛날 우리 나라에서는 4월 달에 즐겨 먹던 음식으로 '파강회'와 '미나리강회'라는 것이 있다.

파강회는 파를 삶아 날고기를 속에 넣고 파잎으로 말아서 초간장을 찍어 먹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흔히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데쳐서 파강회와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미나리 잎과 줄기로 감아 초간장이나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것이다.

또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오이·나물·국화잎·파의싹·석이버섯·익힌전복·계란 등과 섞어 기름과 식초를 쳐서 시원하게 먹는 것을 '어채(魚菜)'라고 한다.

또 생선을 두껍고 넓게 잘라 넓적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만두 껍질을 삼아, 쇠고기를 소로 넣은 것을 어만두라고 한다. 이것은 익혀서 초간장에 찍어 먹는다.

떡을 빚어 먹는 집에서는 4월에 증병을 만들어 먹는다. 멥쌀 가루를 막걸리를 탄 더운 물에 질죽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밤새 두었다가 그것이 부풀어 오르면, 여기에 대추나 콩 등의 고물을 뿌려서 틀에 찐다. 이 떡이 오늘날의 증편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달랐다.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한 조각씩 떼어 술을 넣고 쪄서 마치 방울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그리고 콩을 삶아 꿀과 섞어 그 방울 모양의 떡속에 소로 넣고는, 그 위에 대추의 살을 잘라 얹은 후 쪄낸 것이 옛날의 증편이다. 이것을 만들 때 가끔 푸른색을 내기 위해 승검초(當歸)의 잎을 가루 내어 섞기도 한다.

또한 초여름에 장미가 한창 필 때는 빛이 노란 장미를 따다 찹쌀 가루에 넣어 반죽하여 둥그런 떡을 만들어, 기름에 튀겨 먹는다. 이것을 꽃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전(花煎)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유전(油煎)이라고도 부른다.

웅천 지방에서는 매년 4월, 동네 사람들이 웅산신당(熊山神堂)으로부터 신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 종과 북을 울리며 놀이를 한다. 이것은 곰을 위한 제사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몰려와 함께 제사를 지낸다 한다.

5 월

단 오 (端午)

음력 5월 5일은 단오(端午)날이다. 이 날을 수릿날 또는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부른다. 단오와 천중절이라는 이름은 이 날의 해가 일년 중 가장 또렷하고, 또한 정오 때가 되면 하늘의 한가운데에 온다고 하여 옛사람들이 붙여 준 이름이다. 아마도 이 날이 하지(夏至) 가까이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옛날 천문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때, 이 날을 태양의 절정기로 여겼을 것이라 추측된다.

옛날에는 홀수가 겹치는 날, 예를 들면 3월 삼짇날, 7월 칠석날 같은 날을 명절로 생각했고, 또한 그런 날에는 큰 힘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5가 겹치는 단오날에는 마침 한여름이고 하니, 태양의 빛과 열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농사의 풍년을 비는 제사도 이 날 지냈던 것이다.

원래 단오를 명절로 지내는 풍습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의 초 나라에 굴원(屈原)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정치를 잘하고, 충성스러워 항상 왕에게 사랑을 받던 신하였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간신들은 틈만 있으면 굴원을 헐뜯고, 왕에게 아첨만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이웃 나라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화친을 빙자하여, 초 나라 왕을 죽이려는 음모였다. 굴원은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고, 초청에 응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간신의 무리들은 왕을 부추겨 이웃 나라 왕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며, 굴원을 벌 주도록 입을 모아 졸라 대었다. 결국, 왕은 간신들의 말만 믿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웃 나라의 함정에 빠져, 초 나라에도 못 돌아오고 남의 나라에서 죽게 되었다.

그 때부터 초 나라는 날로 쇠약해졌고, 죽은 왕의 뒤를 이은 새 왕은 정치를 잘 베풀지 못했다. 굴원은 여러 차례 왕을 깨우치려고 애썼으나, 번번이 쫓겨날 뿐이었다. 이에 굴원은 초 나라의 현실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통탄하는 글을 남기고는, 멱라수(汨羅水)라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그가 강물에 빠져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건지기 위해 배를 타고, 하루 종일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애를 태웠다 한다.

<그림 24> 용 배 놀 이

지금도 중국에서는 단오날이 되면 억울하게 죽은 초 나라의 충신 굴원을 기리며, 큰 강에서 '용배 경기'를 벌이고, 옛날 사람들이 굴원의 시체를 찾을 때 먹던 주먹밥을 본 뜬 '종자(粽子)'라는 떡을 댓잎이나 연잎에 싸서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오날을 수릿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 이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년 굴원이 죽은 5월 5일, 사람들은 강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때 떡이나 밥을 강물 속에다 던진다. 그리고 그 밥이나 떡은 굴원의 혼이 아닌 다른 물귀신이나 용 따위가 빼앗아 먹지 못하도록 대나무 잎으로 잘싸서 넣게 돼 있다. 바로 이 제사 때 쓰는 떡이 한국에 와서 쑥떡으로 바뀌었고, 또한 그 쑥떡 모양이 수레 바퀴처럼 둥글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날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먹게 된다고 하여, 이 날 이름을 수레와 발음이 비슷한 '수리'라고 불렀던 것이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수리'는 단오날에는 굴원이 빠져 죽은 물가 즉 '수뢰(水瀨)'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여 '수뢰'와 음이 비슷한 '수리'를 단오날의 이름으로 썼다고도 한다.

또 단오날에는 수리치로 떡을 해 먹기 때문에, 이 날을 '수리'라 불렀다는 말도 전해진다.

단오날에는 창포로 머리 감는 풍습이 있다.

창포는 물가의 습기 찬 땅에서 잘자라는데, 잎은 길고 뾰족하며, 꽃은 초여름에 노란 빛깔로 핀다.

사람들은 이 창포를 캐어다가 물에다 넣고 삶아, 그 삶은 물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한다. 이렇게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며, 머리숱이 많아져 머리가 소담스러워진다고 한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단오날이면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옛날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고, 또한 그 때는 남자들도 머리를 길렀으므로 여자, 남자할 것 없이 모두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

또 창포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하여 사람들은 창포의 뿌리를 캐어, 깨끗이 껍질을 벗기고, 10센티미터쯤의 길이로 잘라 머리에 비녀처럼 꽂기도 했다. 그 창포 비녀에는

'수(壽)'자 '복(福)'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 인주나 연지를 발라 붉게 물들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창포로 머리를 장식한 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창포와 붉은 색깔이 고약한 마귀와 질병을 쫓아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단오날에는 단오장을 하고 다녔다.

단오장과 마찬가지로 나쁜 마귀를 쫓는 장식품에 '쑥 호랑이(艾虎)'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주로 양반들이나, 점잖은 남자 어른들이 지녔던 것으로, 궁중에서는 단오날 이것을 여러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쑥 호랑이는 원래 쑥의 줄기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비단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쑥잎으로 장식했던 것인데, 나중에 가서 쑥을 쓰는 대신에 지푸라기와 비단을 쓰기도 하고, 나무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어 창포잎을 붙이고, 모시로 만든 꽃을 붙여 만들기도 했다.

쑥 호랑이를 지니면 재앙이 물러가고, 수명도 길어져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이것을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차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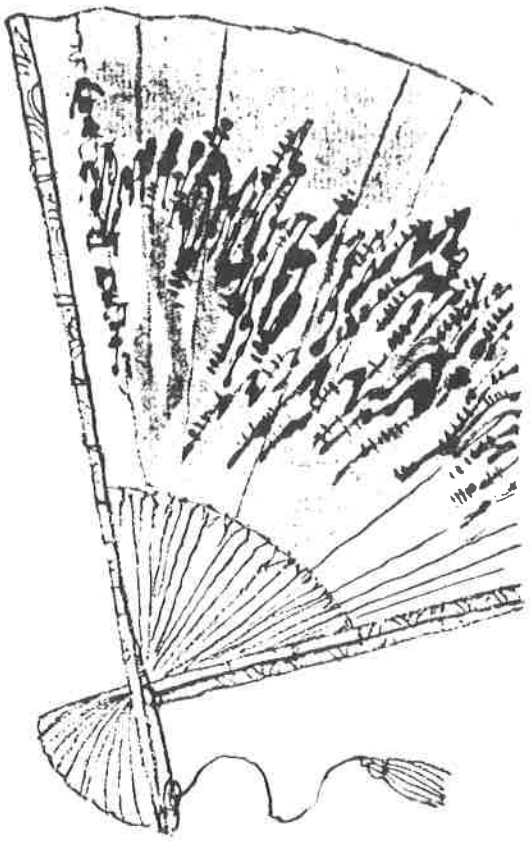
조선 시대에 공조(工曹)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충무시의 각 관청에서 만든 부채를 모아 조정에 바쳤다.

조정에서는 이 부채들을 대신들에게 그 관직에 따라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이 부채를 받은 대신들은 이것을 또다시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 부채는 임금의 손으로부터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의 손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단오를 기해 온 나라에 퍼지는 부채를 '단오부채(端午扇)'라고 부른다.

단오 무렵이 되면 여름이 한창 때라서 날씨가 매우 덥다. 오늘날처럼 냉방 장치가 없었던 옛날에는 부채만이 유일하게 땀과 더위를 식혀 주는 기구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손에 든 부채가 가지각색이었다.

부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흰대나무살이 50개나 붙어 있는 '백첩(白貼)'이란 부채였다. 이 부채에는 보통 금강산 1만 2천 봉의 그림을 그렸다 한다.

이런 부채에 옷칠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림 25> 단오선 (端午扇)

그것은 칠첩(漆貼)이라 하여 대나무살이 검은 색이었다.

무당이나 기생들은 부채에다 버들가지·복숭아꽃·연꽃·나비·잉어·해오라기등을 그려 넣기를 좋아했고, 부인들이나 어린이들은 '까치선(色扇)'이라 하여 여러가지 색을 붙인 부채를 좋아 했다.

부채는 크게 나누어 접는 부채와 둥근 부채의 두 종류가 있다.

접는 부채는 또한 손잡이 자루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붙여 진다. 예를 들면 물고기 모양을 새긴 어두선(魚頭扇), 뱀 모양을 새긴 사두선(蛇頭扇) 따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채살이 펼쳐지는 너비에 따라, 광변선(廣邊扇)·협변선(狹邊扇) 즉 완전히 펼쳐서 반원이 되는 부채와 반원이 안 되는 부채로 나누어진다.

또 변죽 부채의 양쪽 가장자리에 붙인 살의 재료에 따라 반죽선(班竹扇)·소각선(素角扇)·단목선(丹木扇)으로 나누고, 변죽의 모양에 따라 합죽선(合竹扇)·외각선(外角扇)·내각선(內角扇)으로, 또 부채 손잡이에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환선(有環扇)·무환선(無環扇)등으로 이름이 붙여진다.

또한 부채의 색깔도 여러 가지여서 빨강·노랑·파랑·초록 등의 명랑한 색깔뿐만 아니라, 자주색·검푸른색·검은 구름색·검정색·흰색·바위색 등 없는 색이 없었다 한다.

보통 사람들은 흰색 검은색을 즐겨 썼고, 기름 먹인 부채도 좋아했다 한다. 부채는 또한 색깔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데, 흰색은 주로 상제들이 쓰고, 어린이나 여인들을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하고, 푸른색은 신랑들이 주로 썼다. 신부들은 무늬 있는 비단으로 만든 부채에 구슬을 장식한 것으로, 얼굴을 가린다.

둥근 부채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쓰이고,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된다.

둥근 부채는 특히 여러 가지 잎 모양을 떠서, 오동잎 모양의 동엽선(桐葉扇), 연잎 모양의 연엽선(蓮葉扇), 파초잎 모양의 초엽선(蕉葉扇) 등이 있다.

이런 부채에는 기름을 칠하거나 검누런 색을 칠하는데, 남자들은 집에 있을 때 이것을 부친다. 부채는 쓰임새도 여러 가지이다.

우산처럼 생긴 윤선(輪扇)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햇빛을 가릴 때 쓰고, 또 자루가 길고 큰 둥근 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잠자리나 파리·모기를 쫓는 데에 쓴다. 대신들은 큰 파초잎 모양의 부채를 멋으로 들고 다닌다.

아주 옛날에는 접는 부채가 없었고, 둥근 부채만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접는 부채를 만들어 중국에 보냈다. 중국의 황제는 그것을 신기하게 여겨, 황실의 과학자에게 명하여 그와 똑같은 것을 만들도록 했다 한다.

그로부터 접는 부채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우리 조상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지혜로왔으며, 창조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부채는 옛날부터 전주(全州)와 남평(南平)것을 고급으로 쳤으며, 오늘날에도 호남 지방

에서 만든 부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

궁궐의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주사(朱砂)로 부적을 써서 대궐에 올린다. 이것을 대궐의 문설주에 붙이며, 양반들의 집에서도 부적을 붙인다. 부적에는 재앙과 질병을 쫓는 글귀가 씌어 있어 재앙과 질병을 몰고 다니는 나쁜 마귀가 이 부적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고 믿었다.

궁중의 의료기관인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여러 가지 약초와 꿀을 섞어 만든 제호탕(醍醐湯)이란 청량 음료를 임금께 드린다.

또 급성 위장병 등 위급한 병에 걸렸을 때 물에 개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든 옥추단(玉樞丹)이란 구급약도 금박에 싸서 바친다. 이 약은 임금이 친히 지니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에게도 나누어 주는데, 이 약에 구멍을 뚫어 오색실을 꿰어 가지고 몸에 달고 다니면 마귀와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단오날의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이 있다. 그네뛰기는 여자들만의 놀이이다.

단오날이 가까와 오면 동구 밖의 큰 나무, 가로 뻗은 굵은 나뭇가지나, 또는 높다랗게 세운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기다란 그넷줄이 매어진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인들은 남에게 뒤질세라 힘껏 발을 굴러 몸을 공중으로 띄우면 그 앞뒤로 오가는 여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하고, 팔랑팔랑 나르는 나비 같기도 하다.

그네는 재미로 뛰기도 하지만, 누가 더 높이, 더 많이 뛰는가 상품을 걸고 겨루기도 한다. 그네뛰기 대회가 있는 장소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 든다. 누가 그네를 제일 높이 뛰는가를 재기 위해 장대 위에 방울을 달아 그네 가까이 낮게 달았다가, 점점 멀고 높이 달아 놓는다. 나중에 방울은 아주 높고 멀리 달려 있게 되어, 마지막으로 그 방울을 차서

<그림 26> 그 네 뛰 기

소리를 낸 사람에게 상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그네뛰기 놀이는 남쪽 여인들보다 씩씩하고 활발한 북쪽 여인들이 즐겼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단오날이 되면, 곳곳에서 그네뛰기 대회가 벌어지고, 어린 소녀들은 한 그네에 두 사람씩 올라서 서로를 마주보며 재미있게 그네뛰기 놀이를 즐긴다.

그네뛰기가 단오날 여인들만의 놀이라고 한다면, 씨름은 남자들만의 놀이로 단오날에 벌어진다.

씨름은 남산이나 북악산 밑에서 많이 벌어졌었는데, 오늘날에는 동네의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서도 흔히 구경할 수 있다.

어른은 어른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소년들은 소년들끼리 나이에 따라 모여서 씨름을 하는데, 특히 소년들끼리의 씨름을 아기 씨름이라고 부른다.

씨름을 할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샅바'를 매는데, 이것은 상대방 사람이 왼손으로 잡도록 만든 것이다. 씨름을 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이 마주 몸을 굽히고, 오른손으로는 상대편의 허리를 왼손으로는 샅바를 잡은 뒤, 한쪽 무릎을 끓고 있다가 일시에 일어나면서 손과 발의 기술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이기는 것이다. 남을 넘어뜨리는 데는 힘이 세어야 할 뿐 아니라, 꾀도 있어야 한다.

씨름의 기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다리 안쪽을 걸어 넘어뜨리는 '안걸이', 다리 바깥쪽을 걸어 넘어뜨리는 '발걸이', 이 쪽의 배를 남의 배에 바짝 붙이면서 상대방을 번쩍 들어 메어치는 '배치기', 무릎이 약해진 틈을 타 상대편의 무릎을 쳐서 넘기는 '무릎치기', 상대편을 빙빙 돌리다가 메어치는 '둘러치기', 상대편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뒷덜미를 잡아 쓰러뜨리는 '꼭뒤잡이'등이 많이 사용된다.

씨름에서 이긴 사람들은 계속 도전자와 겨루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모두 이겨내어, 더 이상 도전자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우승을 하게 된다. 이 우승자를 '판막음' 또는 '도결국(都結局)'이라 부른다.

이 '판막음'은 보통 상품으로 황소 한 마리를 받게 된다. 소년들의 아기 씨름 우승자에게는 송아지를 준다.

씨름 대회가 끝나면 씨름에 우승한 장사는 황소를 이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청년들은 농악으로 우승을 축하하고, 한 때를 즐긴다.

씨름은 고구려 시대 무용총(舞踊塚) 벽화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고유의 놀이이며, 이것이 중국과 몽고에까지 전해졌으니 중국인들이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단오날에는 어린 쑥잎을 뜯어다 짓이겨, 멥쌀 가루 속에 넣고 반죽하여, 수레바퀴 모양의 푸른빛 감도는 떡을 만들어 먹는다. 또한 흰빛이 나는 쑥을 볕에 말려 비벼서 솜처럼 만드는데, 이를 수리치라고 한다. 이것도 떡에 넣어 먹으니 단오날에는 쑥떡과 수리치떡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는 것이다.

쑥은 약초로도 쓰이며, 쑥을 먹으면 몸에 좋다 하여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단오때 지내는 단오 차례때 쓰기도 한다. 또한 창포를 삶을 때 쑥을 함께 넣어 삶기도 한다.

특히 단오날에 뜯은 쑥은 특효가 있다하여 사람들은 단오날 정오에 쑥과 익모초(益母草)를 뜯어서 말려 두었다가 약으로 쓴다.

익모초란 어머니들의 몸에 좋다는 약초인데,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익모초를 짓이겨, 그 즙을 마시면 식욕이 난다고 하여, 농촌에서는 이 약초를 많이 먹는다.

말려 둔 익모초는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달여 먹이면 좋다고 한다.

쑥은 말려 두었다가 농부들이 밤에 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더위를 피해 온 식구가 모여 앉아 감자나 옥수수를 삶아 놓고 먹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울 때 한 옆에다 불을 피워 쑥을 태우면, 모기들이 그 연기를 맡고 달아나거나 죽어 버린다.

사람에게는 쑥 태우는 냄새가 상쾌하고 향기롭지만, 모기에게는 맵고 쓰라리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들에서 일할 때는 약쑥으로 긴 홰를 만들어 불을 붙여 두고, 하루 종일 담뱃불을 붙이는데 쓰기도 한다. 약쑥에 불을 붙이면 잘 꺼지지 않고 오래 타기 때문이다.

단오에는 쑥과 수리치를 뜯어다 말려서 손으로 비벼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솜을 만든다. 이것을 부싯깃이라고 하는데 이 부싯깃은 부싯돌을 칠 때 불똥을 옮겨 붙이는 역할을 한다.

단오날 아침 일찍, 여자들은 상치밭에 가서 상치잎에 송알송알 매달린 이슬을 받아 얼굴을 씻는다. 이렇게 하면,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으며, 부스럼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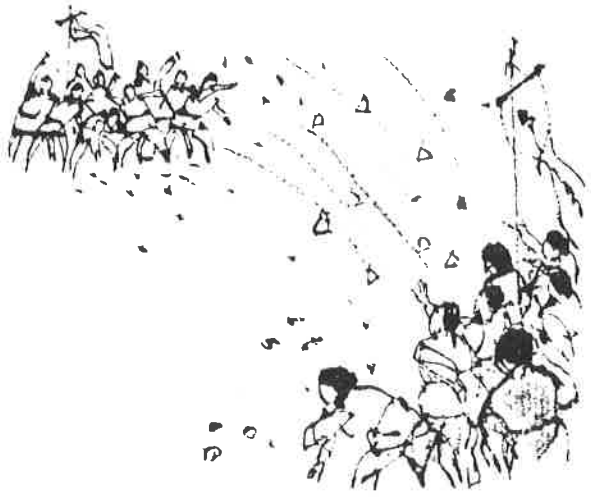
또 5월 1일부터 단오날까지 5일 동안 여자들이 나들이를 나가는 풍속이 있다. 소녀와 아가씨들은 새 옷을 차려 입고, 곱게 화장도 하고, 단오장도 장식하여, 한껏 멋을 낸 다음 그네를 타러 나가기도 하고, 씨름 구경을 가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러 다닌다.

출가한 부인들도 이 때가 되면, 곱게 단장을 하고 오랫동안 못 뵈었던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친정에 근친을 간다.

이 풍습은 옛날 중국의 여아절(女兒節)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다. 이 밖에도 단오날에는 각 지방에서 특별한 행사를 벌여 즐긴다.

김해(金海) 지방에서는 매년 4월 초파일부터 아이들이 떼를 지어 성의 남쪽에 모여 돌싸움을 하며, 단오날에 이르면 청년들이 모두 모여 돌싸움을 하며, 오른쪽과 왼쪽으로 편을 갈라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며,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돌을 던지며 상대편에게 달려든다.

이 때 사방에서 날아오르는 돌팔매가 마치 비가 오는 모양으로 쏟아져 떨어지니, 그 싸움에 끼어 든 사람들은 많이 다치고 병이 든다.



<그림 27> 김해지방의 돌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승부가 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 다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 않으며, 후회하지 않았다. 또 관청에서도 이를 막으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다.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 서울 지방의 돌싸움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조상들은 평소 싸움을 연습했고, 또 한 번 싸움을 시작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용감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금산(金山)에서는 매년 단오날 수천명의 구경꾼이 모인 가운데, 직지사(直指寺)에서 큰 씨름판이 벌어졌었다.

경상북도 군위(軍威)의 효령(孝靈) 서산에는 김유신(金庾信)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보통 삼장군당(三將軍堂)이라 부른다.

매년 단오날이 되면 그 동네의 제일 높은 관리가 동네 사람을 이끌고, 역마(驛馬)를 타고서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그 사당으로 간다. 그리고는 그 곳에서 신을 맞이하여 동네로 모시고 내려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三陟)에는 '오금잠제(烏金簪祭)'라는 오금의 비녀를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유물이라는 오금 비녀를 숭상하여, 매년 단오가 되면 이 비녀에게 제사를 지낸다.

사람들은 이 비녀를 작은 상자에 잘 담아 동헌 동쪽 모퉁이에 있는 나무밑에 감추어 두는데, 매년 단오 때가 되면 아전이 이 상자를 꺼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니, 사람들은 이 비녀로 말미암아 재앙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들이기를 기원하여 돈과 곡식을 아끼지 않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연달아 사흘간 계속되는데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신을 맞이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제사동안 몸을 단정히 하고, 꺼림칙한 것은 멀리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목욕 재계를 행하고,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제사때 초상을 당한 집에서는 울음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사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빈 다음 제사가 모두 끝난 다음 날, 그 비녀를 다시 동헌의 나무밑에 감추어 둔다.

안변(安邊) 지방에서는 상음신사(霜陰神祠)라는 사당이 있어, 그 곳에 선위대왕(宣威大王)과 그 부인을 모셔둔다.

매년 단오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 선위대왕 부부를 모셔다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강릉에서는 단오를 중심으로 약 한달 동안에 걸쳐 성대한 제사를 지낸다.

이 때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며, 제사를 주관하는 무당만도 40~50명에 다다른다 한다. 이 때의 제사는 전체를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성황신(城隍神)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제사로, 강원도에서 제일 가는 큰 규모였다.

사람들은 먼저 대관령 성황신(大關嶺 城隍神)을 사당으로 부터 모셔옴으로써 제사를 지내니, 그 앞에서는 관리와 머슴의 탈을 쓴 춤꾼들이 가면놀이를 벌이고, 또한 여러 가지 흥겨운 놀이를 베푸니, 제사 마당은 큰 성황을 이룬다.

이와 같이 큰 제사를 벌이는 것은 강원도 지방의 풍년과, 대관령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뜻에서다.

그 밖의 여러 지방에서도 단오를 기하여 신령께 제사를 지냈다.

태종우(太宗雨)가 내리는 날

음력 5월 초열흘 날은 조선 태종(太宗)이 돌아가신 날이다. 태종은 조선의 세번째 임금으로 백성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었다.

그런데, 태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지 22년째 되는 해에, 이상스럽게도 여름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뭄이 드니, 논밭의 곡식과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태종은 이 때 늙고 병이 들어 몸이 매우 수척했으며, 또한 이처럼 비까지 제때에 내려주지 않아 몹시 마음 아파했다. 그런 가운데 태종은 항상 백성들의 고통을 염려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비는 태종이 죽기 전까지 내릴 줄을 몰랐다. 태종은 결국 안타까움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임종할 때, 태종은 옆에서 자신의 죽음을 지켜 보고 있던 세종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내가 죽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온 누리에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태종이 운명하자, 지금까지 햇볕이 쨍쨍하던 하늘에 갑자기 빗방울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태종이 비를 기원하면서 돌아가신 덕분에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리게 했다고 믿어, 이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이름하였다.

태종이 돌아가신 그 해, 온 나라는 가뭄에서 벗어났으며, 몇 년 만에 한 번 들까말까한

<그림 28>

큰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매년 태종이 돌아기신 5월 10일이 되면 여지없이 태종우가 내리고 농부들은 그 비를 바라보면서 어지신 태종께 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기 전 몇 해 동안에는 이 태종우가 내리지 않았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못된 짓을 7년 동안이나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태종우를 더욱 신기하고 거룩하게 여겼다.

그 뒤로 부터 농부들은 4~5월의 극심한 가뭄을 만날 때마다 태종우를 기다렸다.

태종우는 꼭 해마다 내린다고 할 수는 없었다. 4~5월에 비가 알맞게 와서 가뭄 걱정이 없을 때는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한 해도 때로 있으니, 그 때마다 농부들이 태종의 시신(屍身)을 모신 헌릉(獻陵)을 가리키며, '우리 태종 대왕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는가.'하고 스스로를 달래면, 반드시 5월 10일에 태종우가 내려 준다 한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여 마주 보면서,

"태종 대왕께서는 과연 영험하시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다.

이 태종우를 바랬던 농업 국가 시대의 우리 나라는 참으로 소박하고, 선량했었을 것이다. 태종이 돌아가신 후 4백년 넘도록 우리 조상들은 그 뜻을 기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는 농업보다는 공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태종우의 고마움을 많이 잊어가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농부들은 태종우가 내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한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이며,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이 드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써는 해결해 낼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힘없는 농부들의 괴로움을 몸소 보살피고 함께 걱정해 주었으며, 죽을 때까지 백성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태종과 같은 지도자는 아마도 다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 밖의 5월 풍습

조정에서는 새로 거둔 보리·밀 등의 곡식을 종묘에 천신(薦新)한다. 지위가 높은 양반집에서도 이것을 따라 조상을 모신 사당에 천신을 행한다.

또, 음력 5월에는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 장을 담근다. 나중에 다시 메주를 건져 내는데 이것이 된장이다. 이들 된장·간장은 우리 나라 음식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조미료로서, 한번 담가서 1년 동안 먹는데, 이것은 양지 바른 장독대의 항아리 속에 담가 두게 돼 있다.

6 월

유 두 (流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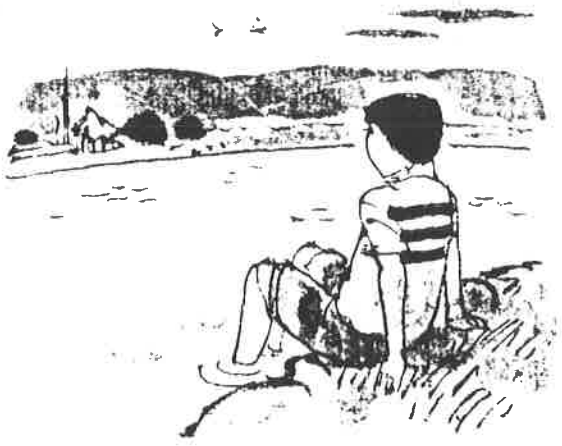
음력 6월 15일은 유두(流頭)일이다.

유두(流頭)라는 말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시대의 수도인 경주(慶州)에서는 이미 유두의 풍습이 있어, 6월 보름날이 되면 동쪽으로 흘러가는 시내나 강가에 가서 머리를 감는다 하였고, 또한 이 때, 술자리를 마련하여 재앙을 막는 술을 마신다. 이것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었다 하며, 경상도 지방에서는 특히 이 풍습을 지켰다 한다.

이 유두의 풍습은 옛날 중국 춘추시대의 정(鄭)나라 사람들이 진수(溱水)라는 강과, 유수(洧水)라는 강에서 자기 몸의 액을 물에 띄워 보내는 제사를 베풀었던 것에서 전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29> 유 수 (洧水)

사실, 예나 지금이나 봄·여름 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고 더위를 피해 보려고 물가로 모인다. 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 물가에서 쉬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을 담그거나 세수를 하거나, 헤엄을 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름 내내 시달린 몸을 하룻동안 물놀이로 달래 주면, 어느덧 몸과 마음은 상쾌해지고, 고달픔도 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나서 새삼스럽게 물의 고마움을 느꼈고, 한층 더 나아가 물에게는 재앙을 쫓는 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리라.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몸으로 부터 씻어 내 주고, 또한 멀리 떠내려 버린다. 그리고 약이 없었던 옛날 열병에 걸려 다 죽게 된 사람도 물 한 모금을 먹여 주면 열이 내리게 되니 이것 또한 물이 병을 씻어 내버린 것이라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우기 여름에는 물이 땀도 식혀주고, 목마름도 달래준다.

여름철에 유행하는 전염병도 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 모든 물의 역할이 옛날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는 몸을 괴롭히는 마귀와 질병 따위를 없애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찾았다는 것으로 보아,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맑고 강한 기운이 더욱 풍부하므로 이왕이면 동쪽을 택하려 했던 옛 사람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풍습이 많이 변화되어, 꼭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반드시 음력 6월15일을 잡아 머리를 감지도 않는다.

그래도 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숲속의 계곡이나 강가를 찾아가 음식을 벌여 놓고 하루를 즐기며, 머리를 감고 헤엄도 치는 것이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남들이 보는 가운데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여자들과 양반은 아무리 더워도 마음대로 물 속에 들어가 놀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 계곡에서 목욕을 했을 뿐이었으며, 지체 높은 양반들은 발을 씻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글읽는 선비들은 계곡이나 강가의 경치 좋은 곳에 세워진 정자를 찾아가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시를 지어 읊으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유두 때가 되면 여름 과일들이 바야흐로 싱싱하고 달콤한 맛을 선보이게 된다. 수박·참외·복숭아·자두·살구 등이 과일 가게에 진열되어,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향기로운 냄새와 고운 빛깔에 군침을 흘리게 된다.

농촌에서는 자기 손으로 가꾼 과일들을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과일과 바꾸어 먹기도 한다.

한여름의 과일들은 맛이 달고, 물이 많아 더위를 잊게 해 준다. 또 이것들은 깊은 우물 속이나, 산골의 차가운 시냇물에 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더할 나위없이 시원한 맛을 느낄수 있다.

옛날에는 유두날이 되면 떡을 만들고 국수를 말아 이 과일들과 함께 상을 차려 조상을 모신 사당에 올렸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풍습이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새로 나온 과일은 자신들이 맛보기 전에 반드시, 조상께 먼저 바쳤다. 이렇게 유두날 사당에 새 과일을 바치는 것을 '유두천

신(流頭薦新)'이라 한다. 이 유두천신의 풍습은 자신들을 길러 주고, 또한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조상께 감사를 드리는 뜻에서 지내는 제사이니,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깊은 효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풍습이라 하겠다.

유두날에는 특별히 '유두면(流頭麵)'이라는 떡을 만든다. 유두면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슬 모양으로 만든 떡이다. 사람들은 이 유두면을 먹으면 오래 살고 또한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유두날이면 모두들 이것을 먹는다.

또한 이 유두면에 오색의 물을 들여 세 개씩 색실로 꿰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거나, 대문의 문설주 위에 걸어 두었으니, 이렇게 하면 마귀가 집안에 들어 오지 않고 재앙이 물러간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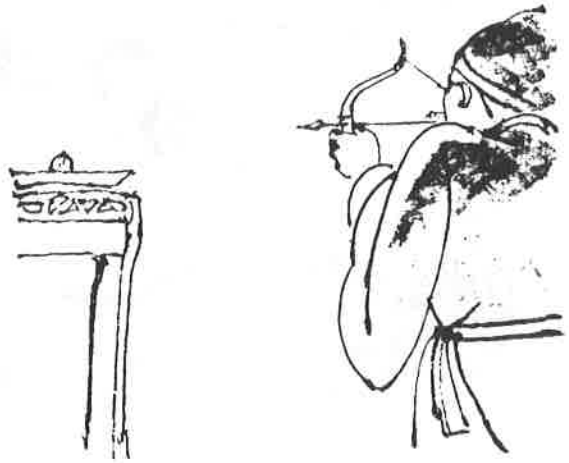
유두날 먹는 음식으로 수단(水團)과 건단(乾團)이 있다. 수단은 찹쌀이나 멥쌀로 만든다. 먼저 쌀 가루를 쳐서 그것을 가늘고 길게 반죽해 놓는다. 이 기다란 가래떡을 작게 잘라 그 조각들을 손으로 비벼 새알만한 구슬 모양의 떡을 빚는다. 이것을 꿀물에 넣어 얼음에 채워 두었다가 꿀이 떡 속에 밴 다음에 먹는 것이다.

이것은 여름철에 목이 마르고, 배가 약간 고플 때 꿀물에서 건져 먹으면 그 맛이 매우 좋다. 이것은 유두천신이나 제사 때도 쓰인다.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되, 꿀물에 넣지 않고, 마른 채로 먹는 것은 '건단'이라고 한다. 옛날 궁중에서는 이 건단에 가루를 입힌 '분단(粉團)'이라는 떡을 만들어 황금 쟁반 위에 못으로 고정시켜 놓고 활쏘기를 했다.

조그만 활에 조그만 화살을 메겨 분단을 쏘게 하는데 활로써 분단을 명중시키는 사람이 그 분단을 먹는 놀이이다. 그런데 분단은 작고 매끄러워 쏘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활을 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장난스런 놀이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다.

유두날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 '연병(連餠)'이란 것이 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도마나 쟁반 위에 놓고 방망이로 밀어 납작하게 만든다. 이것을 마름모 모양으로 썰어 기름에 튀긴 다음, 꿀을 바르고, 콩이나 참깨·들깨를 묻혀 먹는데, 이것은 바삭바삭하고, 달고 고소하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기 좋다. 이 연병을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 고유의 과자였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림 30> 분단(粉團) 맞추기

또 밀가루를 반죽하여, 꿀에다 버무린 콩과 깨를 소로 넣고, 만두처럼 싸서 찐 것을 '상화병(霜花餠)'이라고 한다.

또한 밀을 갈아 고운 채로 쳐서 기울은 버리고, 고운 가루만 물에 반죽하여 조금씩 떼어 방망이로 밀어 손바닥만하고 납작하게 만든다.

그리고 늙은 오이를 잘게 썰어 돼지고기나 쇠고기·닭고기 등을 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 후, 먼저 밀어 놓았던 밀가루 반죽의 양쪽을 올려 싸서 오그려 만두모양으로 빚어 놓는다. 이것을 푹 쪄서 초간장에 찍어 먹는데, 수교위(水角兒)라고 한다. 수교위란 중국에서 물만두로 통하는 수교(水餃)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 우리 나라에 물만두라는 말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중국말을 그대로 받아다 썼었던 것 같다.

유두날 먹는 음식들은 여름에 더위로 잃은 입맛을 돋우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두를 명절로 지내지 않게 되니, 유두의 풍습과 유두의 음식들은 거의가 다 사라져 버렸다. 하루동안의 풍류로써 한 여름의 무더위를 씻어 버리던 옛 사람들의 여유와 슬기를 생각할 때, 오늘날 여름이면 단순히 물과 얼음으로써 더위와 싸우느라고 애쓰는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메마르고 멋 없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삼 복 (三伏)

옛날 달력으로 하지(夏至) 후 세번째 경일(庚日)을 초복(初伏)이라하고, 그 10일 뒤인 네번째 경일을 중복(中伏)이라 하며, 입추(立秋)후 첫 번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 복날과 더불어 그 사이에 낀 날들을 합친 20일간을 삼복(三伏)이라 부른다.

그런데 때로 입추가 늦어지는 해가 있으니, 이런 해에는 말복도 따라서 늦어지고, 삼복 기간도 30일이 되는 수가 있다. 이것을 월복(越伏)이라 부른다. 복이 넘었다는 뜻이다.

<그림 31>

어쨌든 이 삼복 기간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르는 때이다. 이 때의 더위를 삼복 더위라고 하여, 일년 중 가장 심한 더위라는 뜻으로 통하게 되었다.

삼복이 되면 사람들은 너무 더워 입맛을 잃고, 또한 땀도 많이 흘려 몸이 약해진다. 어린이들은 낮이 되면 시냇가에 몰려가 물장난을 치며, 밤이 되어도 집 밖에서 논다. 집안은 무

덥고, 또한 더위로 잠도 잘 안오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한낮이 되면, 일손을 멈추고 나무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면서 땀을 식히고 낮잠을 자기도 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들도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며 그늘을 찾아 낮잠을 잔다. 또한 삼복 더위가 한창 심할 때는 더위를 먹거나 전염병에 걸리는 등 건강을 해치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과일을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 고기를 많이 먹는다.

옛날 대궐에서는 왕족들만 특별히 얼음을 먹으며 더위를 피했다고 한다. 이 때의 얼음은 겨울에 얼린 깨끗한 얼음을 돌로 만든 창고 속에 녹지 않도록 저장해두었다가 꺼낸 것이다.

그 당시에서는 오늘날 같은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여름에는 얼음을 구경할 수 조차 없었다. 다만 수박이나 참외를 나무 그늘 그윽한 시냇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나누어 먹음으로써 시원함을 맛볼 수 있었을 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찬 것으로써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위를 이겨 내기 위해 오히려 맵고 뜨거운 것을 먹으려 했으니 이른바 '이열치열(以熱治熱)'을 실천했던 것이다.

삼복 더위 때 먹는 것으로 육개장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매운 양념, 예를 들면 고추가루·마늘·파등을 넣고, 푹 끓인 국이다. 이 국은 뜨겁고 매워, 먹는 사람이 눈물까지 흘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몸속이 시원해지고, 입맛이 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개장 속에 넣은 고기는 여름내 허약해져 있는 몸에 영양을 보충해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육개장은 원래 개장에서 나온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복날이 되면 벌레를 쫓는 의식으로 성문 밖에서 개를 죽였는데, 이 풍습을 본떠 우리 나라에서는 복날 개를 잡아 먹게 되었다 한다. 개를 잡아 그 고기로써 끓인 국이 개장국인데, 그 조리 방법은 육개장을 끓이는 방법과 같다. 복날에 특히 개장국을 먹었던 것은, 개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고, 또한 다른 고기보다도 영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복날에 고깃국을 끓여 먹되, 개고기가 아닌 쇠고기를 넣어 끓인다. 그래서 이 고기국을 육개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농가에서는 햇병아리를 잡아 그 배를 가르고 인삼과 대추와 찹쌀을 넣어 삼계탕(蔘鷄湯)을 끓여 먹는다.

또 밀가루로 만든 국수에 닭고기를 넣어 먹기도 했다. 이렇게 닭을 먹으면 몸의 원기가 회복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삼계탕은 삼복 때가 아니더라도 기운을 돋우고, 입맛을 되찾는데 좋은 음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복날에는 팥죽을 먹기도 한다. 팥죽은 색이 붉으므로 나쁜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팥죽에는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넣어 먹는다

삼복 중에는 밀가루로 전병(煎餠)을 부쳐 먹는다. 밀가루에 물을 부어 질죽한 밀가루 물

을 만든 다음 그 속에 호박이나 감자 등을 썰어 넣고 잘 섞은 후, 숟가락이나 국자로 떠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진다. 이렇게 만든 밀전병은 밥 반찬으로 간자을 찍어 먹는다.

또한, 흰떡을 가늘고 짧게 썰어, 돼지 고기와 호박 등의 양념을 넣고 떡볶이를 해 먹는다. 이러한 음식들은 여름철에 많이 나는 채소로 만든, 소박한 계절의 별미라고 할 수 있겠다.

삼복 기간이 지나면 더위는 한풀 꺾이고, 산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이 때부터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복날은 특별한 명절은 아니지만, 그 풍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복날에는 과일이 많이 팔리고, 또한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장국도 많이 찾는다.

또한, 삼복에 얽힌 속담으로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報恩)처녀의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진다."는 말이 전해진다.

대추나무는 삼복 중에 열매가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비가 오면 그 열매가 떨어져 익는 것이 얼마 안된다. 대추나무를 심어서 그 대추를 팔아 먹고 사는 충청북도 청산(靑山) 보은 사람들은 대추를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보은의 처녀들은 이 대추를 팔아 시집갈 때 그 비용으로 쓰므로, 그런 속담이 생긴 것이다.

삼복 때가 되면 시원하고 맛 좋은 물을 찾아 약수(藥水)터에 모이는 사람들이 유달리 많아진다. 약수는 보통 샘물과 마찬가지로 땅속 깊숙이에서부터 땅 위로 뚫고 나오는데, 주로 높은 산의 바위틈이나, 나무가 많이 우거진 깊은 숲속의 흙 속에서 솟아나와 시내를 이루고 강으로 흘러간다.

약수가 보통 샘물과 다른 점은 약수에는 특수한 광물질이 섞여 있어, 그 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는 점이다. 약수는 약수터에 따라 각기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은 위장병에 좋고, 또 어떤 약수터에서 나는 물은 피부병에 좋다. 그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이 보통이다.

약수는 이른 새벽 산에 올라가 땀을 식히며, 시원하게 마시기도 하지만, 주전자나 물병에 담아 와 밥을 지을 때 쓰거나, 약을 달일 때 쓰기도 한다. 또 어떤 약수는 피부병에 좋다 하여 몸에 바르기도 한다.

약수는 맛도 여러 가지여서, 쓴맛, 단맛, 매운 맛, 찝찝한 맛 등이 있고, 아예 아무 맛도 안나는 약수도 있다 약수는 보통 물처럼 맑은 것도 있지만, 약간 노란 빛을 띤 것, 거품이 많아 희뿌연 것들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이름이 나 있는 약수터로는 석왕사의 약수터와 삼방 약수터·강서 약수터·달기 약수터 등이 있다.

서울에는 천호동 약수터를 비롯하여 남산과 정릉 등의 약수터가 유명하고, 그 밖의 산에도 각기 특유한 약수가 솟는 약수터가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 근교에는 초정 약수터가 있는데, 이 초정의 약수는 조선 시대 세

종 대왕께서 말년에 눈병에 걸리셨을 때, 이 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려진 지도 오래며, 약효도 또한 좋은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나라는 어디를 가나 먹을 물이 풍부하고, 또한 약수까지도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다.

망 종 (芒種)

'망종(芒種)'은 24절기의 하나로, 대개 양력 6월 5일이나 6일에 들게 된다.

망종이란 벼나 보리 등의 딱딱한 까끄라기를 가진 곡식을 뜻하는 말이다. 망종 때가 되면 보리는 다 익어 거두어들이게 되고 벼는 한창 자라기 시작한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어라'하는 속담이 있다. 보리는 망종 때가 되면 알맞게 익어 모든 보리는 밭에서 거두어들여 타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망종 때를 놓쳐 보리를 늦게 거두게 되면 농사지은 보람도 없이 적은 양의 보리를 거두게 된다. 망종을 넘기면, 보리에는 벌레나 병이 생기기도 하며, 비와 바람이 몰아쳐, 보리 이삭이 쓰러지고, 썩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촌에는 망종이 되어, 보리가 다 익을 때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망종날에 먹구름이 궂으면, 이는 농사가 안 될 불길한 징조라 하며, 농가에서는 매우 걱정을 한다.

그 밖의 6월 풍습

조정에서는 망종을 전후로 하여, 농가에서 추수한 피·수수·조·보리 등을 종묘에 천신한다. 양반들은 서울의 남산이나, 북악산을 찾아가, 그 계곡에서 '탁족(濯足)'놀이를 한다. 탁족이란 발을 씻는다는 뜻으로, 옛날 중국의 문인들이, 여름에 맑고 고운 물을 찾아 발을 담그고 시를 지으며 즐기던 풍습이다. 우리 나라의 선비들도 이를 본 받아 한여름의 놀이로 삼았던 것이다.

6월이면 여름이 한창 때라 과일도 풍부하다. 서울의 동쪽에 있는 시장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내어 놓고, 남대문 밖의 어물(魚物)시장인 칠패(七牌)에서는 생선들이 많이 나온다.

서울 곳곳의 경치 좋은 산이나 연못·정자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꽃이나 수석(水石)을 즐기려 모여들고, 또한 산보를 즐긴다.

각 가정에서는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배추갱이와 닭고기를 섞어 백마자탕(白麻子湯)에 말아 먹는다. 또, 미역국에 닭고기를 넣고, 국수를 말아 물을 약간 부어 익혀 먹기도 한다.

진주(晋州) 지방에서는, 6월 말일,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성이 함락당한데 대한 좋지 못한 기운을 씻어 버리는 행사를 한다.

이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 날 진주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그 때 억울하게 죽었던 원혼들을 달래고, 또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날 이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 때가 되면 그 근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몰려와 이 행사를 보느라고 시장을 이루었다 한다. 이 행사는 원래 해마다 베풀어졌었던 것이라 하나, 오늘날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7 월

칠 석 (七夕)

한여름 밤 하늘을 보면 남북으로 흐르는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빛나고 있다. 이 은하수의 중간쯤에 보면 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밝은 별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두 개의 별 중, 은하수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견우성이요, 서쪽에 있는 것이 직녀성이다.

견우성은 독수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서양에서는 '데네브'라고 부르고, 직녀성은 거문고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서양에서는 '베가'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음력 7월7일이 되면 상현의 반달이 은하수에 떠 있고, 이 견우와 직녀 두 별은 하늘의 맨 꼭대기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하늘의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하던 고대 중국사람들은, 이 날의 은하수와 견우·직녀를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옛날에 하늘 나라 임금인 옥황상제에게는 옷감을 아주 잘 짜는 직녀라는 딸이 있었다고 한다. 직녀는 매우 아름다왔으며, 마음씨도 매우 착하였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 나라 궁궐 안에서 베를 짜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늘 날, 직녀는 하늘의 선녀들과 함께 궁궐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옷감을 짜는 일에 싫증을 느꼈고, 또한 궁궐 밖의 세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기 때문이다.

하늘 나라의 궁궐 밖은 참으로 신기했다. 들에는 꽃이 피어 있고, 마을에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는 풍경을 직녀는 처음 보았던 것이다.

직녀는 궁궐 밖의 세상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다. 그 젊은이는 소를 모는 목동으로 이름은 견우였다. 견우란 소를 몬다는 뜻이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고, 결국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 견우와 직녀는 남 몰래 자주 만났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뒤늦게 들은 옥황상제는 자기의 딸이 소를 모는 천한 목동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매우 화가 났다. 그리하여, 직녀를 궁궐 안에 가두어 두고, 절대로 밖에 나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견우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직녀는 더욱 더 견우가 그리워져, 매일 같이 베틀에 앉아 옷감을 짜지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옥황상제는 더욱 더 화가 났다. 그리하여, 견우를 잡아들이고는 직녀와 함께 멀리 귀양을 보냈다. 직녀는 서쪽으로 구만리, 견우는 동쪽으로 구만리 되는 하늘 끝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림 32> 견우와 직녀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서로를 그리워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길을 떠났다. 견우는 소를 몰고 직녀가 있는 서쪽을 향해 걸었고, 직녀 또한 견우가 있는 동쪽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다. 수없이 많은 나날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 그들은 드디어 은하수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은하수에는 그들을 만나게 해줄 다리도 없었으며, 한 척의 나룻배도 없었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건너편에 서서 안타깝게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어 한없이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다. 이들이 은하수 양쪽 강가에서 만난 날은 7월 7일이었다. 이날 그들이 흘린 눈물이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니, 땅 위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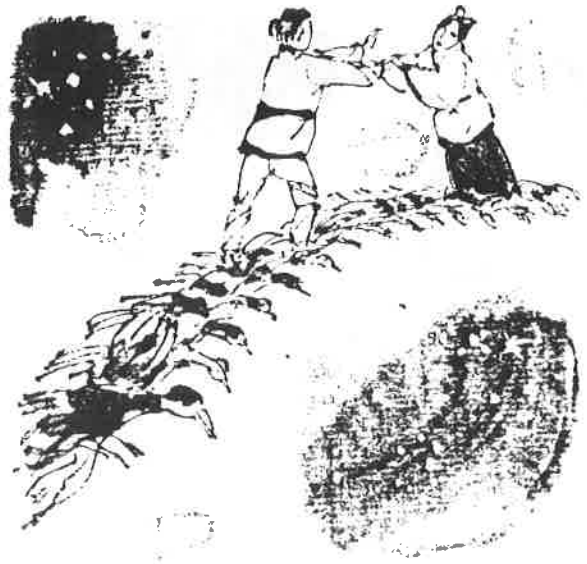
그리하여 사람들은 비를 그치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가 명령을 어기고 길을 떠나 서로 만나서 흘린 눈물이 비가 된 것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일 년에 한 번, 7월 칠석날 밤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것만은 허락해 주었다.

그 뒤로 견우와 직녀는 매년 7월 칠석날 은하수 강가에서 멀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도 땅위에서는 항상 큰 비 때문에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왜냐하면 견우와 직녀는 하룻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헤어져야 했기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한층 더 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땅 위에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짐승들도 홍수 때문에 많이 죽어 갔지만, 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땅위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이 큰 홍수를 막기 위하여 의논했다. 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해마다 7월 칠석날이 되면 큰 비가 내린다.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를 애타게 부르



<그림 33> 오작교(烏鵲橋)

며 흘린 눈물이 땅 위로 떨어져 비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을 울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때 많은 짐승들 중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나서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즉, 까마귀와 까치가 견우와 직녀를 위하여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짐승들은 안심을 하고, 7월 칠석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칠석날이 되었다.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은하수까지 갔다. 은하수 양쪽 끝에는 견우와 직녀가 막 도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였다. 까마귀와 까치들은 재빨리 은하수 동쪽 강가와 서쪽 강가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서로의 날개와 날개를 맞대고 줄지어 공중에 늘어섰다. 땅 위로부터 날아온 새들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은 것을 본, 견우와 직녀는 그것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그 다리에 올라 새들의 머리를 밟고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고, 하룻밤 동안 즐겁게 지낸 후 돌아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7월 칠석날에 내리던 큰 비는 없어지게 되었고, 다만 밤 사이에 가랑비가 내릴 뿐이었다.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그리고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아 준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고 불렀다.

7월 칠석날 오작교를 놓아 주고, 다음 날 돌아온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벗겨져 있다. 이는 견우와 직녀가 밟고 지나가 머리털이 빠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칠석날을 맞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다. 궁중에서도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옛날 고려 때에는 이 날 신하들과 관리들에게 급료인 녹(祿)을 주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도 이 날 잔치를 베풀었고, 또한 절일제(節日製)라 하여 임시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걸교(乞巧)'라는 풍습도 이 날 베풀어진다.

걸교는 교묘한 재주를 구한다는 뜻으로 주로 여인들이 바느질 솜씨나, 베 짜는 솜씨를 늘게 해 달라고 빌기위해 하던 행사다.

7월 칠석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여인들은 대접에 물을 떠나 햇빛을 받게 한다. 이 때

그릇 밑에는 물의 그림자대로 물 위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모양은 꽃 같은 것도 있고, 새 같은 것도 있고, 신 같은 것도 있다. 여인들은 이 모양이 아름답게 되면 바느질 솜씨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 이러한 행사를 하였다 한다.

또 칠석날 밤이 되면 참외나 수박을 차려 놓고 견우성과 직녀성에게 바느질과 베 짜기 솜씨가 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풍습이 생긴것은 직녀가 하늘 나라에서 베를 짰었기 때문에, 그에게 빌면 자신의 솜씨도 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34> 걸 교 (乞巧)

소년들은 이 날,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주제로 글을 지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한다.

또한, 이 날 낮에는 옷과 책을 말리는 습관이 있다.

여름 장마철 동안 장롱 속에 넣어 두었던 습기 찬 옷, 골방에 쌓아 두었던 곰팡이가 난 오래 된 책들을 이 날 햇볕에 말리고 바람도 쏘인다.

7월 칠석이 되면 장마철도 다 끝나 이때 옷과 책을 말려 두면 다시 말리지 않아도 되고, 또한 겨울 동안 벌레가 슬지 않는다고 하여, 이 날을 고른 것이다.

백종일 (百中節)

음력 7월 15일 백종일 또는 백중절(百中節)이라고 부른다. 이 날, 절에서는 스님들이 새로 나온 백 가지 곡식과 과일들을 불상 앞에 차려 놓고 재를 올린다. 이 백 가지의 곡식과 과일은 신도들이 정성껏 쟁반에 담아 바친 것이다.

이렇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부처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며, 또한 돌아가신 부모의 혼을 불러 대접하는 효도 행위로, 이를 일컬어 '우란분회(盂蘭盆會)'라고 한다.

이 때 쓰는 백 가지 곡식과 과일에서, 백 가지라는 뜻의 백종이 이 날의 이름이 되었다.

이 풍습은 불교가 성했던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널리 베풀어졌으나, 조선 시대부터는 거의 사라지고, 절에서만 스님들끼리 이 행사를 치렀다.

각 가정에서는 이 날 저녁 죽은 어버이의 혼을 불러 음식을 대접한다. 대개 이 행사는 보름달이 뜬 달밤에 베풀어지니 상 위에 과일과 채소·술·밥 등을 차려 놓고 혼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날을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중원(中元)이라 부른다. 이 중원이란 이름은 도교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1년중 1월 15일을 상원(上元), 7월 15일을 중원(中元),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 하는데, 이 중의 하루를 일컫는 말이다. 도교에서는 하늘의 신선이 일년에 세 번 땅에 내려와 하룻동안 세상을 살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 그 날이 바로 이 세 원일(元日)이라고 한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날, 백 가지 열매를 갖추어 조상께 제사를 지낸다. 백종날이나, 백종날 전후의 하루를 잡아, 농가에서는 농사를 마무리짓는 뜻에서 잔치를 베푼다. 이 잔치는 농사짓느라고 여름 내내 고생한 머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떡과 술을 푸짐하게 차려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한다.

또 주인집에서는 이 날 머슴에게 돈을 주어 마음대로 나가 놀게 하니, 머슴들은 백종장에 가서 하루를 즐긴다. 백종장은 백종날을 전후로 하여 서는 시장으로, 백종 때 쓸 백 가지 과일과 곡식을 파는 곳이다.

또 마을 공터에서는 농악이 벌어져, 머슴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신나게 놀 수 있다. 이처럼 이 날은 머슴을 위하는 날이므로, 이름도 '머슴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날에는 호미씻기 풍습이 있다. 이것은 농사가 거의 다 끝나고, 밭에 나가 김을 맬 일이 없어졌으니, 깨끗이 씻어 다음해 농사가 시작될 때까지 광 속에 잘 정리해 두는 행사를 일컫는 것이다.

이 날 마을에서는 그 해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을 뽑는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 그 집 머슴을 칭찬하는데, 그 집에서는 음식을 내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머슴에게 삿갓을 씌우고, 소를 타게하여 마을을 돌아다니게 한다. 그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남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이다.

백종날 다음날인 음력 7월 16일에는 옛날 신라 여인들의 베짜기 대회가 시작된다. 두 명의 공주가 여인들을 두 편으로 갈라 맡고, 베짜기를 시키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8월 한가위까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베를 짜니, 상대편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베짜기의 승부는 그 한 달 동안에 짠 베를 합하여 어느 편이 더 곱게, 더 많이 짰는가를 따져서 판가름한다. 이 때 이긴 편에게는 상품이 주어지고, 진 편은 이긴 편을 위해 음식을 내고 춤과 노래를 그 동안의 수고를 달래 주어야 했던 것이다.

8 월

추 석 (秋夕)

음력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추석이란 말의 뜻은 가

을의 저녁이란 뜻이다.

가을은 모든 나무에 열매가 익고, 모든 풀에 씨가 여무는 계절이다. 논에는 벼를 비롯한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여물고, 과수원이나 동구 밖의 과일나무에는 과일들이 먹음직스런 빛깔을 띠고,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린다.

농부들은 한가로이 추수를 하고,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빨간 사과, 노란 배, 주홍빛 감을 따서 바구니에 가득히 담는다. 가을은 참으로 풍부한 계절이다. 기름진 햇곡식과 신선한 햇과일이 시장에 수북히 쌓여 첫선을 보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햅쌀로 지은 밥을 먹는다. 가난한 집, 부유한 집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웃끼리도 정다운 웃음을 나누며, 많은 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때도 이 때이다.

가을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이따금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들판의 곡식은 황금물결을 출렁이고, 숲속의 풀벌레들은 더욱 세찬 소리로 노래를 불러댄다.

가을의 밤하늘은 초롱초롱한 별무더기로 눈이 부시다. 쌀쌀한 밤기운에 곡식익는 구수한 냄새와 풀벌레의 노래소리가 곁들여지면 기분은 더욱 상쾌해진다. 특히, 추석날 밤 하늘은 높고 맑은 하늘 한 가운데 쟁반같은 보름달 한 덩이가 대낮처럼 온 누리를 비추니, 한층 풍요롭고, 한층 더 정답다. 그래서 가을의 보름날 밤인 추석은 인정 많고, 감정이 풍부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추석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일을 쉬며, 모처럼 추석빔을 차려입고 동네 사람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푸짐한 떡과 과일과 술을 먹고 마시며 하루를 즐긴다.

추석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 옷을 갈아 입고,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햇과일을 차려 놓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또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가기 전에 추석 전의 어느 하루를 택하여 벌초(伐草)를 하는 풍습이 있다. 이는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를 뽑고 무덤에 입혀놓은 떼를 보기 좋게 다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낫을 잘 들게 갈아, 그 날에다 새끼줄을 감고, 수십리 길을 멀다하지 않고 무덤을 찾아간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잡초가

<그림 35> 벌초(伐草) 가는길

우거진 것을 수치로 여겼었다. 그리하여 추석이 되기 전에 묘를 찾아 벌초하는 것이다.

추석날이 되면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고향의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 이 때 고향을 떠나 멀리 있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간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것이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일이 바빠도 추석 때만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운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조상 앞에 정성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건강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손들의 도리로써 바치는 예절이다.

원래, 추석을 명절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신라 때부터이다. 옛날 신라 유리왕(儒理王) 때에는 이 날 가배(嘉俳)라는 행사를 베풀었다고 한다.

8월 한가위의 한 달 전인 음력 7월 16일부터 전국 여섯 마을의 여인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각각 한 명의 공주가 지휘하는 가운데 베를 짰다.

양편의 여인들은 정성을 다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대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베를 짰다. 베를 짜는 데는 결코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고, 하루라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되었으며, 이른 새벽부터 오후 아홉 시 밤이 깊어지기까지 열심히 베를 짜고 또 짠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보낸 뒤, 이윽고 추석날이 되면, 양쪽 편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짠 베를 전부 모아 대회장에 가지고 나간다. 양쪽의 베가 다 도착하면, 검사하는 관리가 나가 그 두 편의 베를 비교한다. 이때, 상대편보다 더 많이, 더 고운 베를 내놓은 편이 이기는 것이다.

이긴 편은 기뻐하고, 진 편은 억울하여 울기까지 한다. 진 편은 이긴 편에 음식과 술을 대접해야 하고, 또한 춤과 노래와 묘기로써 이긴 편을 위로하게 되어 있어 진 편에서는 그대로 행한다. 이때 진 편에서는 한 여인이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을 하니, 그 소리가 '회소, 회소' 하며 읊조리하는 것이 매우 처량하고 서글프게 들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 애처롭고, 아담한 노래를 지어 부르니, 이것이 '회소곡(會蘇曲)' 이다.

이 가배라는 베짜기 대회의 이름은 훗날 추석을 일컫는 이름으로 변하였는데, 그 변화된 이름이 바로 한가위이다.

한가위란 이름은 신라 유리왕 때에 가배라고 불리던 것이 변화되면서 내려온 것이니, 추석이라는 말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우리 고유의 이름이니,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든다.

한가윗날은 농사를 지어 거기서 나온 농산물로써 먹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 다음 가는 큰 명절이었다.

논밭에 가득 여물어 있는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는 농부들은 한여름 동안 고생한 보람을 비로소 맛보게 되며, 더 이상 농사일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더할나위 없이 행복

하다.

그리하여 속담에 '오월농부(五月農夫)', 팔월신선(八月神仙)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 뜻은 곧 5월에 농사짓느라고 애쓴 농부들이 8월이 되면 신선처럼 한가롭고 풍요로와진다는 뜻이다.

한가위가 되면 농부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풍요로우니, 이 모든 것은 농부들이 여름 동안 땀 흘려 일한 덕분에 온갖 과일과 곡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가윗날에는 각 지방에서 즐거운 민속놀이가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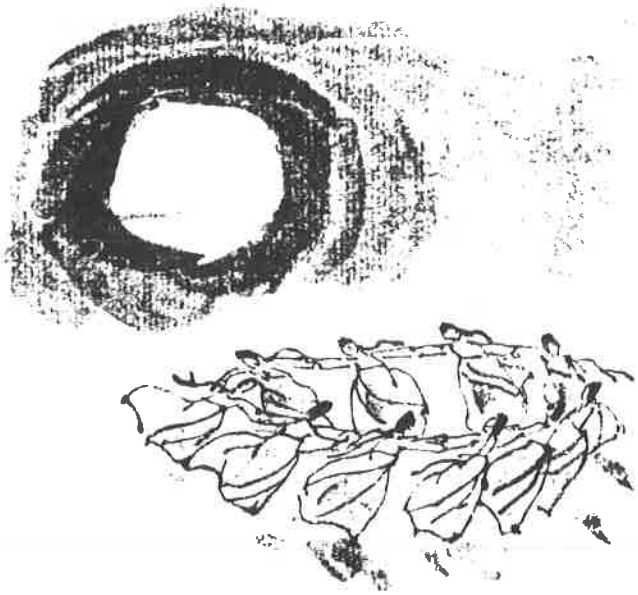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에서는 여인들끼리 '강강수월래' 놀이를 한다.

추석날 밤, 마을의 여인들은 곱게 단장을 하고 마을의 공터에 모인다. 그리고 수십 명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한쪽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른다.

이 때 목청이 좋은 여인 하나가 원의 중간이나, 맨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강수월래' 하며 후렴을 합창한다. 여인들은 힘이 다 빠져 지칠 때까지 노래가락에 맞추어 천천히 돌기도 하고 빨리 돌기도 하면서 신나게 논다.

이 놀이에는 남자는 절대로 낄 수 없으며, 여인들도 소녀는 소녀들끼리, 아가씨는 아가씨들끼리 따로 원을 만들어 노는 것이 보통이다.

추석날 밤, 대낮같이 밝은 보름달 빛을 받으며, 추석빔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청초한 목소리로 강강수월래를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쾌활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이 놀이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장군이 일본의 침입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 노래를 지어 여인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리하여 이 노래에 나오는 강강수월래를 오랑캐가 물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뜻의 강강수월래(強羌水越來)로 쓰기도 한다.



<그림 36> 강강수월래

이와 비슷하게 임진왜란 때 생겼다는 노래로 경상도의 '쾌지나칭칭나네'라는 노래도 전해진다. 이 노래도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뜻을 지녔는데, 다만 강강수월래가 여자들의 노래인데 비해 이 노래는 남자들의 노래인점이 다르다.

이 두 가지 놀이는 모두가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니, 우리 민족의 협동 정신과 애국심을 잘 느낄 수 있는 놀이이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가배를 이어받은 '두레길쌈' 이라는 베짜기 대회가 각 지방에서 벌어진다.

이 대회는 옛날의 신라 땅인 경상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베풀어지고, 그 밖의 지방인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에서도 벌어진다. 충청남도 부여에서 '모시두레' 라고 하는 것과, 경상북도 영주에서 '돌개삼' 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이 풍습은 신라 시대 때처럼 경쟁을 하는 성격도 약간은 지녔지만 옛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은 없고, 다만 먹을 것을 한 턱 내는 내기로 그친다.

마을의 여인들은 늦은 여름 밤, 마을의 넓은 뜰에 모여, 생솔가지나 쑥을 태워 모기를 쫓으며 베를 짠다. 이 때에 우스갯소리도 서로 나누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하며,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짜기의 지루함과 고달픔을 덜어 보는 것이다. 이러다가 8월 한가위가 되면 여인들은 그동안 짜 놓았던 베를 비교하여, 이기고, 진 사람을 가린다. 진 사람이 음식을 내면 모든 여인들은 너나 없이 먹고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그동안의 고달픔을 털어 버리고 정답게 이야기도 나눈다.

경상북도 의성 지방에서는 추석날 '가마싸움' 이란 놀이를 한다. 추석이 가까와지면 의성의 남쪽과 북쪽 서당의 학동(學童)들이 모여서, 추석날 가마 싸움할 것을 의논한다.

추석이 되어 서당의 선생님인 훈장이 고향에 가서 차례를 지내느라고, 서당을 쉬게 되면, 이 때를 틈타 어린이들은 가마 싸움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바퀴가 넷 달린 가마를 만든 다음, 앞뒤에다 밧줄을 매달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만든다.

가마 싸움이 벌어지는 날, 서당 어린이들은 가마에 대장을 태우고 싸움터로 가마를 끌고 간다.

가마의 맨 앞에는 힘이 센 어린이들이 밧줄을 잡고 가마를 끌며, 나머지 어린이들은 뒤에 서서 가마를 호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전진하다가 마주 오는 상대편의 가마와 맞서게 되면 가마를 서로 맞대어 놓고 싸움을 벌인다. 이때 각 편의 대장인 '동태 머릿군' 이 서당 어린이들을 지휘하여 밧줄을 조정한다. 그러면 서당 어린이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면 일단 뒤로 물러난다. 그 때 뒤에 있던 어린이들이 밧줄을 당겨 가마를 후퇴시킨다.

이렇게 밀치고, 밀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박수'라고 하면 공격수들이 맹렬히 돌진하여 상대방을 밀치고 들어가 상대편의 가마를 부수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긴 서당 아이들은 자기들의 가마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긴 것을 자랑한다.

가마 싸움 놀이는 서당 어린이들만의 놀이로써 어른들은 직접 나가 싸울 수 없게 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싸움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때때로 응원도 해주고, 싸우다가 다친 어린이가 있으면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한다.

이 놀이는 거칠고 위험한 놀이 이기 때문에 여자 어린이들은 낄 수 없는 남자 어린이들만의 놀이이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해마다 추석에 남녀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놀다가, 양쪽으로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다. 간혹 가다 줄이 중간에서 끊어져 양쪽 편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나가 떨어지면 구경꾼들은 한바탕 큰 웃음을 터뜨린다.

이 날에는 또한 그네도 뛰고, 닭잡기 놀이도 한다. 닭잡기 놀이는 닭을 풀어 놓고, 누가 먼저 붙잡는가를 내기 하는 놀이이다.

추석날에는 보통 날씨가 맑아, 달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맞이를 한다. 그런데 때로는 추석을 전후로 태풍이 불어 오니 날씨가 궂고 바람이 세고 비가 몰아쳐, 보름달이 떠도 달맞이를 할 수 없게 된다.

추석날 비가 오면 사람들은 다음 해 봄에 보리가 흉년이 든다고 하여 매우 걱정을 한다. 추석날에는 하늘이 맑아야 밝은 달을 볼 수 있고, 또한 밝은 달을 보아야 마음도 즐거워진다.

그러데,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달을 못 보게 되니, 마음 또한 유쾌하지 못하고, 섭섭해지는 것이다. 추석날 밤의 비는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추석 때에는 햅쌀로 밥을 지으며, 또한 술도 빚는다. 이 술을 신도주(新稻酒)라고 한다. 신도주는 차례 때에 쓰고, 차례가 끝나면 가족들끼리 나누어 마시는데, 이것을 음복(飮福)이라 한다.

또 추석 때의 떡으로 송편이 있다. 이 떡은 햅쌀을 가루로 내어, 더운물에 반죽하여, 조금씩 떼어서

<그림 37> 닭 잡 기

그 속에 소를 넣고 솔잎을 깔고 찐 떡이다.

송편 속에는 햇콩·햇동부와 참깨·밤·대추등을 고물로 넣는다.

추석 때는 모처럼 온 가족이 다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들의 교훈을 생각하며, 그 분들의 뜻을 기리며 햇곡식·햇과일을 천신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 오고 있다.

그 밖의 8월 풍습

음력 8월 16일, 충청도의 시골에서는 매년 씨름 대회를 열고, 술과 음식을 차려 먹고 마시며 즐긴다. 이제부터는 농사일도 별로 없고 한가한 시간도 많이 갖게되니, 그동안 농사 짓느라고 쌓였던 피로를 이로써 풀어 버리려는 것이다.

8월은 햇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과일들이 풍성할 때이다.

햅쌀로는 송편과 술을 빚어 먹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한다. 햅쌀로 지은 밥은, 묵은 쌀로 지은 밥보다 기름 지고 맛이 있다.

밭에는 옥수수가 토실토실 여물이, 농가에서는 옥수수를 따다가 수염을 다듬고 알맹이가 가지런히 붙은 옥수수를 옥수수 껍질로 머리를 따듯이 이엉을 엮어 여기저기에 널어 말린다.

옥수수는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데, 가을에 강원도의 들길을 지나다 보면, 옥수수를 무더기로 말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황금으로 지붕을 덮은 모양 같아 보기 좋다.

각 가정에서는 옥수수와 감자를 쪄 먹으니, 이 또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된다.

8월에 나오는 햇과일로는 밤·대추·감·사과·배 등이 있다.

밤은 가시가 많은 겉껍질 속에 알밤이 두 개나 세 개가 들어 있는데, 어린이들은 밤나무 가지를 장대로 두드려 알밤만 줍기도 하고, 가시 많은 겉껍질을 벗겨 알밤을 꺼내기도 한다.

밤 껍질을 벗기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알밤은 속껍질을 까서 날것으로 먹기도 하지만, 삶아 먹거나 구워 먹기도 한다. 어떤 집에서는 밤을 넣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도시에는 군밤장수들이 거리에서 밤을 구워 팔므로, 손쉽게 군밤을 맛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로 대추가 있는데, 이 열매는 작지만 그 맛이 아주 달아 어린이들은 동네의 대추 나무에 몰려가 장대로 대추를 털어 땅에 떨어뜨린 후, 그것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고, 돌아다니면서 꺼내 먹는다.

농가에서는 빨갛게 익은 대추를 따서 지붕 위에 널어 말린다. 이렇게 말려 둔 대추는 겨울 동안 먹을 수 있고, 또한 한약으로 쓰기도 한다.

감도 이 때쯤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아서 맛이 떫다. 감은 감나무 가지에서 홍시로 익을 때까지 두기도 하지만, 떫은 감을 따서 우려 먹기도 한

다. 뜨거운 물에 소금을 녹여, 항아리에 담고, 그 소금물에 떫은 감을 담가 하룻밤을 묵혀 두면 감에서 떫은 맛이 빠져나가, 맛좋은 단감이 된다.

감은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주홍빛으로 익어 홍시가 되니,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붉은 홍시는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기 전에 껍질을 깎아 곶감으로 말리기도 한다. 곶감은 겨울철에 수정과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

8월은 채소도 풍부하다. 농가에서는 멀지 않아 다가올 겨울을 위하여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하여 호박과 무우를 썰어 말린다. 호박 말린 것은 '호박고지'라 하고, 무우 말린 것은 '무우말랭이'라고 부른다.

고추도 말려 둔다. 농가의 지붕 위나 마당에는 붉은고추, 대추와 함께 온갖 채소가 멍석 위에서 말려진다. 겨울 동안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물기를 말려 두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무우와 호박을 썰어 넣고 시루떡을 쪄 먹기도 한다.

또 찹쌀 가루를 쪄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검은 팥이나 누런 콩을 삶아 가루를 내어 그 떡에 묻히니 이것이 인절미이다.

찹쌀 가루를 쪄서 계란같이 둥근 떡을 만들고, 여기에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이는 것을 율단자(栗團子)라고 한다. 토란으로도 단자를 만든다.

9 월

중 양 절 (重陽節)

음력 9월 9일은 9자가 겹친 날이라 하여 중구(重九)라고 하기도 하고, 홀수 곧, 양수(陽數)가 겹쳤다 하여 중양(重陽)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노란 빛이 나는 국화를 따다가 찹쌀 가루에 섞어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 떡을 국화떡이라고 하니, 3월 삼짇날 진달래로 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가을철의 향기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계절음식이다.

또, 국화를 넣어 술을 담그니, 이것을 '국화주'라고 한다. 옛날 중국에는 국화주가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하여, 많이들 담가 먹었다 한다.

우리 나라에도 가을이 되면 산과 들에 국화가 많이 피어 나니,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화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

중양절에는 3월 삼짇날 강남에서 돌아왔던 제비들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제비들은 한여름 동안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한 가족을 이룬 후, 겨울의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고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때부터 다음해 봄이 올 때까지는 제비를 보기가 힘들다. 옛날에는 제비들이 사람 사는 집 처마에 둥지를 틀기 좋아하였고, 해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 사람들과는 아주 친근한 관계를 가진 새이다.

제비가 떠나 버리면, 여름내 소란스러웠던 처마 밑은 어느덧 조용해지고, 덩그러니 남아 있는 빈 둥우리는, 허전한 느낌을 줌과 동시에, 겨울이 다가옴을 알려 준다.

바깥 날씨는 싸늘해져, 어느새 서리가 내리고, 산에는 시리 맞은 나뭇잎들이 화사한 빛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단풍나무 잎은 빨간 빛으로, 은행나무 잎은 노란 빛으로 제각기 곱게 물든다. 가을의 산은 이처럼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든 나뭇잎과, 푸른 빛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록수의 잎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우리 나라의 단풍은 그 색이 곱기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으며, 특히 설악산의 단풍은 험준한 바위 산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그 밖에도 내장산·속리산의 단풍이 유명하고, 북한 지방의 금강산과 묘향산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림 38> 단풍이 고운 산

지금도 가을이 되면 단풍을 찾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선조들도 가을의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산에 오르기를 즐겼다.

특히, 중양절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산으로 올라가 노니는 풍습이 있다.

이것을 '등고(登高)'라고 부른다. 등고란 높은 데에 오른다는 뜻이다. 등고의 풍습은 옛날 중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 후한(後漢) 시대에 환경(桓景)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비장방(費長房)이라는 도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따라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환경에게 말하기를,

"9월 9일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수유(茱萸)의 열매를 넣어 팔에 메고,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환경은 스승의 말에 따라 가족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다. 저녁때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집안에 들어서니 아침까지도 살아있던 가축들이 한꺼번에 죽어있는 것이었다.

환경이 놀라서 이 일을 스승에게 알리니, 스승은 그 짐승들이 환경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 가르쳐 주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 사람들은 9월 9일만 되면 저마다 수유와 국화주를 가지고 산에 오르니, 이것이 바로 등고의 시초이다.

<그림 39> 등고이야기

우리 나라에도 이 풍습이 전해져 한때 양반들이나 글 읽는 선비들이 산에 올라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즐겼던 적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 풍습이 가을 소풍이나 글짓기 대회로 변화되어 행해지고 있으니, 원래 등고가 지니고 있던 목적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

옛날 궁중에서도 중양절을 명절로 여겨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 시대에는 왕과 신하들이 경치 좋은 누각을 찾아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즐겼다하며, 고려 시대에는 나라안의 신하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온 사신들까지 잔치에 참여하여 즐겼다 한다.

조선 시대에는 이 날 절일제(節日製)를 베풀었다. 절일제는 중양절말고도 정월 인일(人日), 3월 삼짇날, 7월 칠석날에도 베풀어졌던 임시 과거이다.

민간의 서당에서도 이 때 글짓기 대회를 여는데, 보통 이를 일컬어 백일장(白日場)이라고 한다. 백일장에서는 주로 시짓기를 겨루며, 대개의 경우 한 가지 제목이 정해져, 그 제목에 맞춰 시를 짓게 된다. 백일장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글을 잘 지은 사람을 장원(壯元)이라하여 많은 상품을 주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 날을 택하여 노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어,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국화떡과 국화주 등을 갖추어, 형편이 닿는 대로 소박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드렸다 한다. 이러한 풍습들은 어버이를 비롯한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하고, 조상을 공경할 줄 아는 지극한 효성에서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중양절을 전후한 9월 음식으로 '화채(花菜)'가 있다. 가을에 많이 나오는 배와 유자와 석류를 보기 좋게 썰어 꿀물에 띄운다. 여기에 잣을 몇 알 띄워 차게 먹으니, 과일 빛이 색색으로 곱고 맛이 달고 새콤한데, 이것을 화채라 부른다. 화채는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제사에 쓰이기도 한다.

10 월

말 날 (午日)

10월에는 '말 날'을 정하여 특별히 말을 위로하는 풍습이 있다.

말은 일 년 내내 수레를 끌고, 짐을 실어 나르고, 사람을 태우고 먼 길을 달려야 한다. 또한, 소대신 논밭을 갈기도 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말이 큰 역할을 했다. 군사들을 태우고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고,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나르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평소에도 군마(軍馬)들을 잘 훈련시키고, 건강하게 길러 두었다.

옛날 자동차가 없었을 때에는 말이 먼 곳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의 구실을 했다.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나, 중요한 편지를 전할 때나, 말이 없으면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나 양반들은 길이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항상 말을 타고 다녔으니, 이것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뽐내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말은 다른 가축들과는 달리 양반집에서도 소중히 기르는 사치품과도 같은 동물이었다.

말은 또한, 주인을 알아볼 줄도 알고 잘 따르며, 힘이 자라는 데까지 힘든 일을 참고 해내니, 사람들로부터 영리하다는 칭찬을 듣고, 사랑도 많이 받는 짐승이다.

사람들은 바쁜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10월에 말을 쉬게 하여 잘 먹이니, 가을이 되면 말이 살찐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가을을 일컬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옛날 사람들은 10월 들어, 오일(午日)이 되는 날을 택하여 마굿간 앞에 팥으로 만든 시루떡을 차려 놓고 고사를 지냈다. 이는 말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말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특히 무오일(戊午日)을 좋게 여기는데, 이 때의 '무(戊)'는 무성하다는 뜻의 '무(茂)'와 음이 같으므로, 말의 기운이 왕성하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그런 날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오일(丙午日)이 되는 날은 꺼리고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이 때의 '병(丙)'은 병이 든다는 뜻의 '병(病)'과 음이 같기 때문에 말에게 나쁜 병이 들까봐 걱정되어 꺼리는 것이다.

말 날에는 성주신(城主神)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손돌 바람이 부는 날

음력 10월 20일에는, 해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매서운 추위가 닥쳐온다. 사람들은 이 때의 바람을 '손돌바람'이라 하여, 매우 꺼린다.

이 손돌바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림 40> 손돌과 임금님

옛날 고려 때 어느 임금이 배를 타고 강화도에 가게 되었다. 이 때 임금이 탄 배를 강화도까지 저어 가게 된 사람은 손돌이란 뱃사공이었다. 그는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도를 향해 노를 젓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와 배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쏠려가, 아주 험한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손돌은 애를 써서 배를 올바른 길로 저어 가려 했으나, 배는 점점 더 험한 곳으로 떠내려갔다. 사람들은 손돌이 나쁜 뜻을 품고, 임금을 해치려고 배를 험한 곳으로 몰고 간다고 여겨 임금님에게 손돌을 벌주라고 간청했다.

임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손돌의 목을 베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손돌은 자신이 젓던 배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임금이 탄 배는 다른 사람이 간신히 노를 저어 강화도에 닿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손돌이 죽은 10월 20일이 되면 해마다 매섭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원한이 바람이 되어 부는 것이라 해서 이 때의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손돌이 죽임을 당했던 험한 뱃길은 '손돌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강화도 사람들은 해마다 손돌바람이 불 때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을 꺼린다.

그 밖의 10월 풍습

음력 10월은 모든 신령에 대한 제사가 베풀어지는 달이다. 크게는 한 동네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대동(大同)굿·부군(府君)굿이 벌어지고, 작게는 각 가정에서 성주신(城主神)을 제사지내는 '성주받이'가 벌어진다.

성주신은 집안의 평화와 번영을 담당하는 신령이므로, 사람들은 햇곡식으로 술과 떡을 빚고, 많은 과일들을 장만하여, 성주신에게 제사지낸다.

<그림 41> 시 제 (時祭)

성주받이는 가정의 주부가 간단히 치르는 수도 있으나, 크게 할 때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한바탕 벌인다.

그리고, 10월 15일을 전후하여, 가문의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시제(時祭)라고 한다. 시제 때는 멀고 가까운 데에 있는 후손들이 모두 조상의 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제사 때 쓰는 제물은 후손들이 마련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사 놓은 논과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팔아서 제물을 마련하기도 한다.

시제 때에는 많은 자손들이 모여드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며, 묘자리가 명당(明堂)일수록 그 자손들이 많이 불어나고, 복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10월에는 이 밖에도 토지신을 위한 제사나 재물의 신이나 곡식의 신을 위한 제사가 벌어진다.

이 모든 제사는 한 해 동안 일하여 얻은 수입과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곡식이 여물어 수확되는 이 10월에 한꺼번에 벌어진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을 '상(上)달'이라고 불렀다.

10월은 겨울을 앞두고 있어, 이 때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다.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다 시들어 봄·여름과 같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고, 또한 반찬거리도 줄어든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서는 겨울 동안의 반찬을 김치 한 가지에 의존하게 된다. 김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찬으로, 김치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반찬이 많아도, 하루의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김치의 재료인 배추와 무우 따위도 겨울이 되면 구하기 어렵게 되니, 겨울 동안 김치를 반찬으로 쓰기 위해서는, 배추와 무우가 풍부한 때에, 겨울 동안 쓸 만큼의 김치를 해 두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배추와 무우가 많이 나는 늦가을이 되면, 각 가정에는 자기 식구들이 겨울 동안 먹을 만큼의 김치의 양을 계산해서 알맞게 배추와 무우를 사들인다. 이 때의 배추와 무우는 평소에 김치를 담글 때 들이는 힘도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이 들여야 한다.

이처럼 많은 재료와 많은 힘을 들여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을 김장이라고 한다. 김장철이 되면, 모든 가정 주부들은 필요한 만큼의 김장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몰려 가고, 시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김장 재료를 농촌으로 부터 사다가 가게에 내놓는다. 그리하여, 김장철의 시장에는 밭에서 캐낸 배추와 무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게 되고, 김장의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인 파·마늘·고춧가루·갓·젓갈 따위가 평

소 때보다 훨씬 많이 진열된다.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김장 재료들을 사다가 배추를 절여서 씻어 놓고, 무우는 채를 썰어 김장을 시작한다.

양념들을 모두 깨끗이 다듬어 미리 썰어놓은 무우채에 섞고, 이것을 절여둔 배추 속에 골고루 넣어 김장독에 담으면 김장은 끝난다.

김장 김치를 담은 독도 겨울 동안 얼지 않도록 땅 속에 묻거나, 깊은 광속에 넣어 둔다. 김장김치는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 익기 시작한다. 김치는 시원할수록 맛이 좋고 또한 잘 시지도 않아 겨우내 이 김치 한 가지로써 훌륭히 반찬 구실을 하는 것이다.

10월의 음식으로는 먼저 만두국을 들수 있다. 이것은 밀가루나 메밀 가루를 반죽하여 손바닥만한 크기로 얇게 밀어, 그 안에 고기와 채소·두부 등을 다져서 간을 맞춘 소를 넣어, 오무려 싸서 장국에 넣어 익혀 먹는 것이다.

만두국에는 밥이나 흰떡을 넣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한다. 만두국에 떡을 넣으면 떡만두국이 된다.

또한 '변씨(卞氏)만두'라 하여 세모난 모양의 만두를 만들기도 한다. 또 이 달부터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화로에 숯불을 피워 넣고 번철을 그 위에 얹은 다음, 간장·계란·파·마늘·참기름 등으로 재어 놓았던 쇠고기를 뜨거워진 번철 위에 놓고 구워 먹는다.

사람들은 여럿이 화롯가에 둘러앉아서 번철 위의 고기가 다 익으면 나름대로 집어 먹고, 거듭 새 고기를 얹으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한다. 이 때 화로를 둘러싸고 앉아서 먹는다 하여, 이러한 모임을 '난로회(煖爐會)'라 부른다.

또한 숯불을 피운 신선로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무우·오이·계란·파·미나리·당근·은행등을 색색으로 담아 지져 먹는데, 이 음식을 열구자탕(悅口子湯) 이라고 한다.

이 열구자탕은 겨울에 만들어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나, 잔치를 베풀 때, 흔히 만들어 내놓는다.

<그림 42> 난로회

10월에는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강

정이란 것이 있다.

찹쌀 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둥글고 길게 잘라 햇볕에 말린 후 기름에 튀기면 통통하게 부풀어오르는데, 그 속은 비어 있다.

이것에 꿀을 발라 흰깨·검정깨 또는 콩가루·잣가루를 묻혀 먹는데, 이것이 강정이다. 강정은 기름에 튀긴 것이라 바삭바삭하고, 꿀을 발라서 달콤한게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것 같이 맛이 좋다.

강정은 제사 때 쓰기도 하고, 설날 때 세찬으로 쓰기도 한다. 錮

초겨울에 즐겨 먹는 시절 음식으로 애단자(艾團子)와 밀단고(蜜團餙)가 있다. 애단자는 쑥을 찧어 찹쌀 가루에 섞어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것이다.

또, 찹쌀 가루에 동그란 떡을 만들어 삶은 콩을 꿀에 섞어 발라, 붉은 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라 한다.

11 월

동 지 (冬至)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 있으니, 이 날이 하지(夏至)이다.

그 반대로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동지(冬至)이다.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쯤 되므로, 추위가 막 시작되는 겨울철이다. 동지는 음력으로는 11월에 들게 되므로 옛날에는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불렀다.

동짓달을 옛날에는 '아세(亞歲)' 혹은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 이 이름들은 동짓날이 정월 초하루의 설날에 버금가는 설날이라는 것을 뜻한다.

달력이 아직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해의 움직임을 보고 날짜를 셈하였다. 해가 떠서 날이 밝아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되면, 이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고 만물이 다 잠들어 버리면, 이 때가 바로 하루의 끝이다.

이와 같이 옛날의 하루는 해가 뜸으로써 시작되고, 해가 짐으로써 끝난다.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도 해가 길고 짧음으로 재었으니, 낮이 짧아져 가다가, 한 해 중 가장 짧아진 날이 한 해의 끝이며, 그 날 바로 다음 날부터 낮이 점점 길어지며, 그 때부터가 새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마찬가지였으므로, 동짓날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아들이는 특별한 행사를 벌였다. 행사의 대부분은 미신에서 나온 것으로, 무당들이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가장 많았다.

서양에서도 동짓날을 신의 생일로 삼았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이다.

동양에서도 동짓날을 해가 힘을 잃고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로 여겨, 설날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흔히 동지 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까지 말하는 것이다. 동짓날에는 보통 팥죽을 쑤어 먹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중국에 공공씨(共工氏)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는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관직에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재주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못난이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평소에 구박만 받다가 어느 겨울 동짓날 죽으니, 그의 혼령은 나쁜 귀신으로 변하여, 질병을 몰고 다니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그 귀신이 들어가는 집에는 나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귀신이 무서워 그를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였다. 사람들은 드디어 그 귀신이 공공씨의 아들이며, 죽기 전에는 늘 팥을 무서워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어 그 귀신으로 하여금 무서워서, 섣불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 풍습은 우리 나라에도 전해져, 동짓날이 되면 집에서 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은 붉은 팥을 삶아 으깨어, 체에 걸러서 그 국물로 죽을 쑤는 것인데, 동짓날 먹는 팥죽에는 찹쌀 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넣는다.

이 찹쌀떡을 일컬어 '새알심'이라 한다. 팥죽에는 새알심 외에도 꿀을 넣어 단맛을 내기도 한다.

팥죽은 붉은 팥으로 만들어 그 색이 붉다. 옛날부터 붉은 빛깔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는 것으로 여겼으므로 팥죽을 쑤어 먹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팥죽은 먼저 동짓날 아침 조상을 모신 사당에 올려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으로 방·마루·광 같은 데에 한 그릇씩 떠다 놓으며, 대문 벽에도 죽을 수

<그림 43> 공공씨의 전설

저로 떠서 뿌려 둔다. 그리고 나서 집안 식구들도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동짓날 팥죽을 사방에 두고, 먹는 것은 동짓날 질병을 옮기는 귀신을 쫓고, 그 밖의 재앙을 뿌리치고자 하는 뜻에서 생긴 풍습이라 할 수 있겠다.

나라에서는 동지가 되면 새해의 달력을 펴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선 시대에 별의 움직임과 날씨를 맡아 보던 관상감(觀象監)이란 관청에서는 다음해의 달력을 펴내어 동짓날 궁중에 올린다. 이 달력들은 다시 모든 관리들에게 차례대로 나뉘어 진다.

달력은 종이의 질과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노란 빛으로 장식한 황장력(黃粧曆)과 흰 빛의 백장력(白粧曆)이다. 이들 달력에는 특별히 임금님의 옥새가 찍혀 있다.

달력은 각 관청에도 일정한 양만큼 내려지니, 각 관청의 아전들은 이 달력을 가지고,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 선물로 선사한다.

각 관리의 집안에서 대대로 일을 맡아 보는 아전들은 매년 동짓날이 되면 그 주인집에 청장력(靑粧曆)을 선사하는 풍습이 있다. 청장력은 푸른 빛으로 장식한 달력이다. 이 풍습은 단오날, 관리가 아전들에게 단오 부채를 내려 주는 것과 반대로, 아전이 관리에게 달력을 바치는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을 일컬어 '하선동력(夏扇冬曆 : 여름의 부채와 겨울의 달력)'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달력은 손에 손을 거쳐서 농촌의 농부나 산지기·묘지기에게까지 돌아간다. 달력에는 한 해 동안의 절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농사철에는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오늘날도 연말 연시 때에 달력을 선물로 주고 받는데, 이것은 옛날의 풍습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궁중의 병원인 내의원(內醫院)에서는 한약의 재료인 계피·후추에다 설탕·꿀을 섞어, 쇠가죽과 함께 삶아 기름이 엉기도록 만든다. 이것을 전약(煎藥)이라고 하며, 궁중에 올린다. 각 관청에서도 이 약을 나누어 갖는다.

그 밖의 11월 풍습

나라에서는 청어를 종묘에 천신한다. 양반 집안에서도 사당에 청어를 올린다. 청어는 겨울 생선으로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많이 잡힌다. 청어를 가득 실은 고깃배가 한강에 와 닿으면, 온 시내의 생선 장수들이 몰려 가 청어를 받아 가지고, 시내의 거리거리를 누비며, 청어 사라고 외친다.

남해의 통영 지방에서는 전복과 대구를 임금께 진상하고, 또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도 선물한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귤과 유자를 진상한다. 귤은 더운 지방에서만 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다.

제주도는 우리 나라의 남쪽 끝에 있어서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므로, 귤나무를 기를 수 있었다. 귤은 희귀할 뿐만 아니라, 맛도 향기롭고 새콤하여, 옛날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고, 또한 다른 과일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겨울에 익어서 맛을 내므로 신기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처럼 귀중한 과일인 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먹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다만 임금과 궁중의 왕족들, 양반들만이 조금씩 맛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제주도에서 귤이 올라오면, 궁중에서는 이를 축하하는 뜻에서 과거를 실시했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귤을 나누어 주었다.

조정에서는 이 귤을 종묘에 천신한 후 궁중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신하들에게 약간씩 나누어 주었다. 임금께서도 귤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다고 한다.

북부 지방에서는 겨울에 냉면을 먹는 풍습이 있다.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무우김치나 배추김치 국물에 말고 거기에 돼지고기 삶은 것과 달걀 삶은 것, 생파·배 등을 채로 썰어 넣어 시원하게 하여 먹는다. 냉면은 찬 국수라는 뜻으로 더운 여름에 먹어도 좋지만, 맵게하여 겨울에 먹어도 맛이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에도 냉면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또한 메밀 국수에 배·밤·쇠고기 등을 섞고, 기름·간장·고추장에 비벼 먹기도 하니, 이것이 비빔냉면이다. 옛날에는 비빔냉면을 골동면이라고 불렀다. '골동'이란 뒤섞어 비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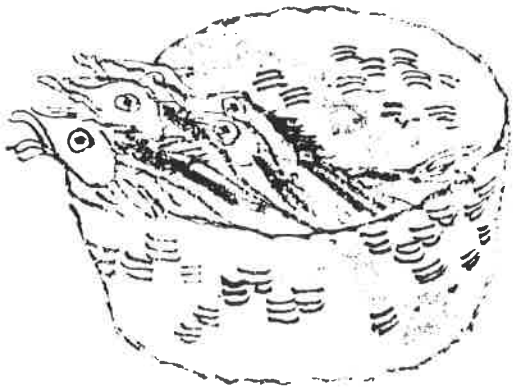
냉면으로는 함흥 냉면과 평안도 냉면이 유명하다. 또한 겨울의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동치미와 수정과를 빼놓을 수 없다.

동치미는 김치의 일종인데, 김장할 때 주로 담근다. 무우의 뿌리가 비교적 작고, 매끈한 것을 골라 통째로 독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간이 배어 들게 한다.

무우에 간이 알맞게 배어, 잘 익으면 국물과 함께 무우를 꺼내어, 납작납작 썰어, 국물에 띄워 상에 올린다. 한겨울, 무우를 띄운 국물에 얼음이 몇 조각 떠 있는 동치미의 맛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고 담백하다.

동치미는 겨울 동안의 반찬으로 알맞으며, 봄이 될 때 까지 먹을 수 있다.

겨울철의 시원한 간식으로 수정과(水正果)가 있는데, 먼저 솥에다 물을 붓고 거기다 생강과 계피를 넣어,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달인다. 국물이 검에 우러나 맛이 매콤해지면 식힌다. 국물이 식으면 이것을 항아리에 쏟아 붓고, 그 속에 곶감을 담아 서늘한 곳에 놓아 둔다. 딱딱하던 곶감에 국물이 스며들어 말랑말랑해지면, 깨끗한 사기 그릇에 곶감과 국물을 담아 잣을 몇개 띄워 내는데, 이것이 수정과이다. 수정과는 잔치 때나, 손님이 왔을 때



<그림 44> 명 태

특별히 내놓는 고급 음식으로,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음식이다.

겨울철에 민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생선은 명태이다. 명태는 겨울에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데, 그 맛이 담백하고 상쾌하다.

또, 이 명태를 얼려 두어 겨울철이 아닌 때에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동태(凍太)이다. 명태를 말린 것은 북어라 하여 제사상에 주로 쓰인다.

충청도 홍성 지방에는 매년 겨울, 땅에 용이 지나간 자취가 생긴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자취가 용이 땅을 갈아 나간 자취라 여기고, 또한 이 자취가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나 있으면,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그런데, 만약 이 자취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나 있으면 다음해에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그 자취가 가로·세로로 어지럽게 나 있으면 다음해에는 평년작이 된다고 하여, 이것으로 농사일을 점쳐 본다.

경상도 밀양 지방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겨울이 되어 땅의 물기가 얼어 갈라지는 현상이거나 아주 약한 지진이 일어나 땅 거죽에 틈이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된다.

12 월

납 일 (臘日)

조선 시대에는 동지가 지난 뒤로부터 세째 번 되는 미일(未日)을 납일(臘日)이라 정하고, 이 날이 낀 음력 12월을 납월(臘月)이라고 불렀다.

조선 시대 이전에도 부여(扶餘)에서는 영고(迎鼓)라 하여 12월 중 하루를 택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고, 그 뒤로 신라 고려시대에 와서도 나름대로 납일을 정하여 명절로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납일(臘日)의 '랍(臘)'자는 사냥한다는 뜻의 '렵(獵)'에서 나온 글자로,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바쳐 조상이나 신령께 제사를 지냄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납일에는 멧돼지와 산토끼로써 제사를 지냈다. 이 때에 쓰는 멧돼지·산토끼는

주로 경기도의 산간 지방에서 잡은 것을 썼다.

납일이 가까와지면, 경기도 지방의 수령은 여러명의 포수를 시켜 산과 숲을 뒤져 멧돼지를 잡게 했다. 이렇게 하여 잡은 멧돼지·산토끼 등의 짐승은 궁중에 진상된다. 궁중에서는 이들 짐승을 납일 때 종묘에 올려 제사를 지내니, 이를 납향(臘享)이라고 한다.

<그림 45> 臘 享

그리고 납일에 잡은 짐승의 고기는 맛도 있고, 사람에게도 이롭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날 사냥을 하여 잡은 짐승으로 조상께 제사도 지내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한다.

이 날에는 특히 참새를 잡는 풍습이 있다. 서너 사람이 한 패가 되어 그물을 가지고, 새집을 찾아 나선다. 주로 저녁 늦게 날이 어두워지면 새잡이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새가 밤눈이 어두워 잘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새가 살고 있는 지붕의 처마밑에 그물을 댄다. 그리고 막대기로 추녀를 호되게 두들겨댄다. 그러면 밤잠을 자던 참새가 놀라서 밖으로 날아 오르다가 추녀에 대 놓은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새들이 많이 사는 숲에 가서도 이런 방법으로 새를 잡는다.

납일에 잡은 참새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먹이면 천연두를 순하게 앓는다 하여, 민간에서는 총을 쏘아 참새를 잡기도 하니, 국가에서도 이 날만은 총으로 참새 잡는 것을 허락했다.

납일에 내린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이 날, 눈이 내리면 집집마다 깨끗한 그릇에 눈을 받아 독에 가득 넣어 둔다 그러면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데, 이 눈 녹은 물로 알약을 만드는데 쓰기도 하고, 눈병이 났을 때 눈을 씻기도 하니, 병이 낫고 또한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또한, 이 물을 김장독에 넣어 두면 김치의 맛이 변하지 않으며 옷이나 책등의 물건에 바르면 좀이나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궁중의 내의원에서는 각종 알약을 만들어 임금께 올리니, 임금께서는 이것을 가까운 신하와 궁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때 올리는 약을 통틀어 납약(臘藥)이라고 부르는데, 급한 병에 쓸수 있는 구급약이 대부분이다.

이들 납약 중에서 청심원(淸心元), 또는 청심환(淸心丸)이라고 하는 알약이 있는데 이

약은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나, 급히 체했을 때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는 이 청심원이 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려 낸 신비의 약이라 하여 우리 나라 사신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의 귀족들까지도 이 약을 얻어 내려고 구걸을 하다시피 했다 한다.

이들에게 들볶이는 것이 귀찮아, 우리 사신들이 청심원을 만드는 법을 적어 주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국에서는 우리 것만큼 좋은 약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청심원에는 우황(牛黃 : 소 쓸개에 생긴 혹의 일종)이 들어가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대신 낙타의 쓸개를 쓰니, 아무리 똑같은 방법으로 청심원을 만들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 것만 못했다 한다.

청심원 외에도 안신원(安神元)과 소합원(蘇合元)이 또한 유명했다. 안신원은 열을 잘 낫게 하며, 소합원은 급성 위장병에 잘 듣는다.

오늘날에도 청심원과 소합원의 약효는 널리 알려져 중국을 비롯한 동양 각국에서는양약(洋藥)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납약들은 군대에도 배급되어 군사들을 치료하는데 쓰기도 했고, 나이 많은 신하들로 구성된 '기로소(耆老所)'에도 내려졌다.

각 관청에서도 납약을 많이 만들어 나누어 쓰기도 하고, 서로 선물하기도 했다. 납일에 만든 약은 벌레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여 민간에서도 약을 만드는 일이 많았다 한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납일이 되면 엿을 곤다. 엿기름 물을 뜨겁게 끓이다가 그 속에 밥을 해서 넣고 오래 고면 엿이 된다. 납일 밤부터 고기 시작하여 이튿날 새벽까지 밤새워 고면, 물이 졸아 진득진득한 엿이 된다.

설탕을 만들 줄 모르던 옛날에는 엿이 사탕 대신 어린이들의 간식 구실을 하였다.

섣달 그믐(除夕)

<그림 46> 제야(除夜)의 종

일년 중 맨 마지막 날, 즉 섣달 그믐날을 제석(除夕), 제야(除夜)라고 부른다. 섣달 그믐은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 되고, 음력으로는 12월 30일이 된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음력 섣달 그믐을 중히 여겨, 한해동안 해 왔던 모든 일을 끝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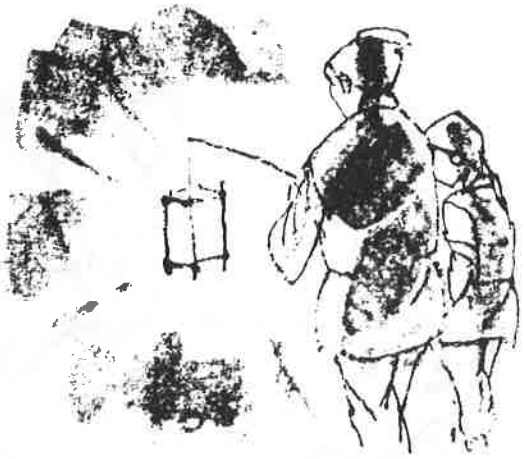
그리고, 이 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므로, 그 해가 가기 전에 빚을 청산한다. 즉 빚진 사람은 깨끗이 갚고, 빚을 준 사람은

빚진 사람을 찾아 다니며 받는다.

이 날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빚은 독촉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돼 있다. 또한 섣달 그믐날에는 대청소를 벌여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한다.

방안과 마루 등의 집안 청소는 여자들이 맡고, 마당과 집 둘레의 길은 남자들이 맡아 청소한다.

땅이 움푹 패인 곳은 흙으로 메꾸고 돌부리가 솟은 것은 캐내어 평평하게 만든다.



<그림 47> 묵은 세배

가축을 기르는 우리도 깨끗이 치우고 개나 닭이 사는 집도 돌보아 준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이나 책들도 가지런히 정리해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 안팎이 깨끗이 정리되고 또한 새해를 맞는 기분도 상쾌해진다. 사람들 자신도 목욕을 하여 몸을 청결히 한다. 이것은 묵은 해의 먼지와 때를 없앰으로써 잡귀와 액을 함께 떨어 버리고 새롭고 신성한 가운데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행사이다.

또한 집안이 깨끗하고 훤하면 복이 많이 들어 온다는 말이 있어 섣달 그믐날에는 청소를 하는 집이 많고, 목욕탕을 찾는 사람도 많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 모여 절을 하고 나서, 집안의 어른들께도 절을 올린다. 이것은 '묵은 세배'라 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로써 조상과 어버이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또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도 한다.

이 날 밤에는 묵은 새배를 다니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호롱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묵은 세배는 가까운 친척들에게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궁중에서는 섣달 그믐 전 날부터 대포를 쏘는데, 이는 연종포(年終砲)라 하여 한 해가 끝남을 알리는 것이다. 이 대포는 오늘날의 '제야의 종'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

또한 불화살을 쏘고 징과 북을 울리며 폭죽을 터뜨려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이는 귀신이 놀라 도망가게 하려는 행사이다.

이 밖에도 귀신을 쫓는 대대적인 굿을 궁중에서 벌이는데 이것을 나례(儺禮)라고 한다. 또한 질병의 귀신을 쫓았다는 신라시대의 처용(處容)을 본 떠 만든 탈을 쓰고, 여럿이 처용무(處容舞)를 추는 행사도 벌어지는데, 이것 역시 잡귀를 몰아 내기 위한 것이었다.

궁중에서는 높은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임금께 묵은 해의 문안을 올리니 이것은 민간에서의 묵은 세배와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내의원에서는 벽온단(辟瘟丹)이라는 향을 만들어 진상한다. 왕은 설날 아침에 향을 피

<그림 48> 수 세 (守歲)

워 새해 한 해동안 질병과 전쟁이 없고 평화롭게 되기를 기원한다.

각 지방 관청에서는 섣달 그믐을 앞두고, 각 고장의 토산물을 바친다. 이들을 공물로 바칠 때는 편지에 이들 물건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함께 바친다. 이처럼 이름을 적은 종이를 총명지(聰明紙)라고 한다.

공물로 바쳐지는 물건은 꿩·닭·물고기·담배·술등 그 고장에서 가장 좋은 특이한 것들이다.

섣달 그믐날, 밤이 되면 민간에서는 밤을 밝히는 풍습이 있다. 집안의 방·마루·다락·부엌·광·변소 할 것 없이 구석구석에 등불이나 호롱불을 밝힌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롯가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다음날 새벽닭이 울때까지 자지 않는다. 이것을 수세(守歲)라고 한다.

여인들은 섣달 그믐날, 새해에 먹을 세찬을 만드느라고 바쁘며, 또한 새해에 아이들에게 입힐 설빔을 짓는 등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섣달 그믐날 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 하여 억지로 졸음을 참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구경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으며, 밤을 샌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자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장난으로 눈썹에 밀가루를 묻혀 눈썹이 세었다고 놀리기 위해서이다.

섣달 그믐날 밤 불을 밝히는 것은 집안이 밝은 가운데 새해를 맞기 위한 것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가운데, 새해를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이웃속에서는 복조리 장수의 복조리 사라는 소리가 들려오니 이는 자정이 지남과 함께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 밖의 12월 풍습

섣달 초하룻날 국가의 벼슬아치 중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공적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벼슬을 깍는 행사가 있다.

지방의 관리들은 조정의 벼슬아치들에게 예의에 따라 세찬을 올려 보낸다. 젊은이들은 축국이란 놀이를 한다. 이것은 공놀이의 일종으로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발로 차서 상대편에게 보내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놀이이다.

이 때의 공은 큰 탄환만한 것으로 꿩의 털을 꽂아 장식하였다.

고성지방에서는 동네의 사당에 비단으로 만든 신의 가면을 만들어 두었다가 12월 20일에 그 가면을 쓰고 나례를 벌인다.

윤달(閏月)

보통 1년은 열 두달이다. 그러나 음력에는 1년이 열 세달이 되는 때가 있으니, 그런 해를 윤년이라 하고 한 달이 더 끼여 있다.

윤년은 2년 또는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러한 해에는 어느 한 달이 연달아 두 번 있게 된다. 이 때 두 번이나 오는 달이 윤달이다.

만약 4월이 윤달이 되면, 원래의 4월이 지난 뒤에 곧 이어 또 4월이 오게 되는데, 이 때의 4월에는 '윤(閏)'자를 붙여 '윤사월(閏四月)'이라고 불러, 그 달이 윤달임을 표시한다.

윤달은 열 두달 중에 속하지 않고 그 밖으로 있는 달이라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생기지 않는다 하여, 꺼림칙한 일은 이 달에 다 한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달을 택하여 집을 수리하고, 이사를 가는 집이 많다. 또한 이 달에는 혼인을 하거나 수의(壽衣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만들어 두면 좋다 하여 대개 윤달에 이런 일들을 한다.

옛날 서울 장안의 여자들은 윤달이 되면 다투어 봉은사에 모여 불공을 드리고, 탑 위에 돈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 세계로 간다 하여 특히 할머니들이 분주히 달려와 이 일에 참여한다.

이 행사는 윤달이 다 가도록 사람들이 줄을 이어, 끊일 줄 몰랐다 한다. 서울 외에 지방의 여러 절에서도 이런 행사를 벌인다.

윤달에 행하는 특이한 풍습에 성돌기라는 것이 있다. 성돌기는 성밟기라고도 한다.

윤달이 되면 옛 성터가 있는 근처의 마을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 성터에 올라가서 성 줄기를 따라 열을 지어 성돌기를 한다.

개성에는 천마산성(天磨山城)이란 성터가 있는데, 이 곳에는 '안돌이' 혹은 '치돌이'라고 불리는 매우 험한 곳이 있다.

그런데 이 험한 곳을 통과하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이 있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줄을 이어 이 곳을 통과한다. 이것은 불교 신앙에서 유래된 풍습인데, 열성적인 불교의 여신도들은 이 풍습을 열심히 실행한다.

이 여인들이 성돌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면 미리 장만해 온 음식과 술을 벌여 놓고 함께 먹고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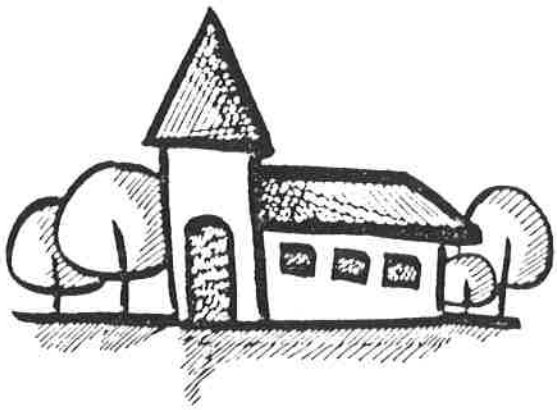
전라도 고창 지방에도 옛 성터가 있다. 윤달이 되면 사람들이 이 성터를 세 번 도는데, 머리에 돌을 이고 도는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하면 재앙을 떨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 지방에도 성돌기 풍습이 있었는데, 이 때 성돌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새 옷을 갈아입고 먹을 것을 준비하여 성을 돌면서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

이러한 윤달의 성돌기 풍습은 다른 풍습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에는 윤년은 있어도 윤달은 없기 때문이다. 양력에서는 윤년은 4년에 한번씩 2월달이 28일에서 29일로 늘어난 해로 다른 해보다 하루가 많을 뿐,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윤년의 2월 29일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4년만에 한 번씩 돌아와 곤란을 겪게 되니, 이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기도 한다.



제 2 편

가 정 편 람

차 례

□ 一 家 ····· 89

• 친당 • 시친당 • 본당 • 척당 • 취객당 • 처당

□ 親族間 呼稱 ····· 94

• 친족간 호칭 • 사교간 호칭

□ 말하기 예절 ····· 101

• 부름말 • 걸림말 • 촌수말 • 택호 • 나의 집단과 남의 집단에 대한 말
• 말하는 이 자기표현 • 금지된 말 • 상스런 말 • 망령된 말 • 숙맥 말
• 남남끼리 사용해야 될 말 • 사장에게 사용해야 될 말
• 사돈끼리 사용해야 될 말 • 처친당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될 말
• 처척당에게 사용해야 될 말

□ 절의 예절 ····· 121

• 남자의 절 • 여자의 절

□ 婚 禮 ····· 124

• 관례 • 혼례의식 • 혼담과 약혼 • 사성거래 • 연길서식
• 납폐 • 혼례식장 • 성복 • 혼례식의 순서

□ 初 喪 禮 ····· 130

• 상주 • 곡례

□ 喪 禮 ····· 135

• 유언 • 운명 • 수시 • 고복 • 상주와 발상 • 호상 • 전
• 부고 • 습과 염 • 염습준비 • 설전 • 반함 • 소렴 • 대렴
• 영좌 • 명정 • 성복제 • 분상 • 조상예식 • 만장쓰는 법
• 장례절차 • 영결 • 발인 • 조전로제 • 정상 • 천광과 회격
• 하관과 성분 • 반우 • 초우 • 재우 • 상우 • 졸곡

□ 祭 禮 ····· 152

• 제사 • 제사의 종류 • 제수 • 지방 • 제사의 대상 • 제차진설
• 제사지내는 시간 • 제사지내는 순서

一 家

친당(親黨) 시친당(媤親黨) 본당(本黨) 사람들을 가족(家族) 또는 一家, 그리고 "집안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一家란 "한집"이라는 뜻인데, 할아버지 또는 시할아버지가 같아야만 한집이 되는 바, 할아버지 또는 시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一家라고 부르게 됩니다.

친 당(親黨)

친당(親黨)이라는 말은 "아버지당"이라는 뜻입니다.

친당(親黨)에는 직계(直系)가 있고 방계(傍系)가 있게 됩니다. 직계(直系)는 위로 올라감에 직선(直線)으로 오르는 아버지 쪽이요, 방계(傍系)는 옆으로 뻗어가는 형제(兄弟)쪽입니다. 친당(親黨)사람들의 성씨(姓氏)를 따져 보면 男子 쪽은 모두 아버지 姓氏와 같은 사람이요, 女子 쪽은 아버지의 姓氏와 다른 사람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게 되고 아버지 姓氏와 같은 사람들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된 女人들은 친당(親黨)이라는 말을 사용(使用)하지 아니하고 친정당(親庭黨)이라는 말을 사용(使用)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이중(二重) 국적(國籍)을 가질 수 없음과 비슷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요컨대 男兄弟, 女兄弟와 그의 아내들 차례로 자꾸만 위로 올라감에서 포함되는 사람들이 한 당(黨) 사람이 되는 바, 자기 아들급으로부터 그 아래급에 드는 사람을 본당(本黨)이라고 부르게 되고 형제급(兄弟級)으로부터 그 위급에 드는 사람을 부름에 있어서 男女들의 그 집단(集團)을 친당(親黨)이라고 부르게 되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그 집단(集團)을 시친당(媤親黨)이라고 부르게 되고, 시집간 딸네들은 그 집단(集團)을 친정당(親庭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조(始祖)는 서로 같으나 그 뒤 몇 세대(世代)를 잊어버리게 되어 중시조(中始祖)가 나오게 된 집단(集團)끼리는 서로 一家라고 하지 않고 종씨(宗氏)라고 부릅니다.

시친당(媤親黨)

시친당(媤親黨)이란 "시아버지당"을 뜻하는 집단(集團) 이름입니다. 남편(男便)이 친당(親黨)이라고 부르는 집단(集團)이 그 아내되는 사람에게는 시친당(媤親黨)이 되는 것입니다.

본 당(本黨)

본당(本黨)이란 "내당"을 뜻하는 말인데 아당(我黨)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조카", "내 질녀", "내 질부", "내 손자", "내 손녀", "내 손부", "내 종손자", "내 종손녀", "내 종손부"에 든 사람들의 집단(集團) 이름을 본당(本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말해 온 가정당(家庭黨) 가운데 男子들에게는 친당(親黨)과 본당(本黨)이 있게 되고 女子들에게는 친정당(親庭黨)과 시친당(媤親黨), 그리고 본당(本黨)이 있게 됩니다.

척 당(戚黨)

핏줄로 계산이 되는 外四寸의 친당(親黨)과 본당(本黨) 그리고 핏줄로 계산이 되는 고모(姑母)의 직계본당(直系本黨)을 모두 척당(戚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척당(戚黨)의 경우 핏줄 계산에 있어서 팔촌설(八寸說)이 있으나 대충 육촌설(六寸說)이 우세합니다.

핏줄로 계산이 되는 타성(他姓)의 친당(親黨)과 본당(本黨)이란 어머니, 할머니의 친정당(親庭黨)이 되고 핏줄로 계산이 되는 타성(他姓)의 본당(本黨)이란 고모(姑母)남편 계열의 본당(本黨)입니다.

이 척당(戚黨)속에는 두 개의 당(黨)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척(戚)의 내당(內堂)이요, 다른 하나는 척(戚)의 외당(外黨)입니다.

척내당(戚內黨)은 모당(母黨)을 일컫는 말이요, 척외당(戚外黨)은 고모(姑母)의 본당(本黨)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근거되어 外四寸이 내종(內從)이 되고 고종(姑從)이 외종(外從)이 되는 것입니다.

고종(姑從)이 우리집에 오게 되면 사랑방으로 돌게 되고 外四寸이 우리집에 오게 되면 안방으로 돌게 되는데 그 이치에서 外四寸을 내종(內從)이라고 말하고 고종(姑從)을 외종(外從)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종(姑從)이 우리집에 와서 사랑방으로 돌게 됨은 사랑방에 자기 外三寸이 있는 때문이요, 外四寸이 우리집에 와서 안방으로 돌게 됨은 안방에 자기 고모(姑母)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종(內從)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인 즉 척당(戚黨) 四寸 가운데 우리집 안방으로 돌게 되는 사람을 가리킴이요, 외종(外從)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인 즉 척당(戚黨) 가운데 우리집 사랑방으로 돌게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취객당(娶客黨)

핏줄 계산이 되지 않는 남남끼리이면서도 그들이 우리집 안밖을 드나드는 집단(集團)이 있는 바, 그 집단(集團)을 취객당(娶客黨)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인(個人)을 두고는 귀(貴)한 손님 또는 백년객(百年客)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취객당(娶客黨)이라는 말은 우리집으로 장가든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왕고모남편·고모남편·종고모남편·누나남편·누이남편·딸남편·질녀남편·손녀남편·종손녀남편"들이 모두 취객당(娶客黨)에 들게 되고, 그들이 모두 우리집 귀(貴)한 손님 또는 우리집 백년객(百年客)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취객당(娶客黨) 사람을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까닭은 서로 사이가 척당(戚黨)도 아닌 남남끼리이기에 손님이 되는 것이요,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없음이 손님 처신(處身)에 기본이거늘 이 사나이 손님으로 말하면 안방을 드나들 수 있는 특혜(特惠)를 받는 손님이기에 "귀한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객당(娶客黨) 사람을 백년손(百年客)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남의 한 평생(平生)을 듣기 좋게 말한 백년(百年) 또는 백세(百歲)이요, 아무리 자주 드나들지라도 서로 사이가 남남끼리이기에 손님 자격(資格)을 면할 수 없으니 언제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경계의 뜻에서 나온 일컬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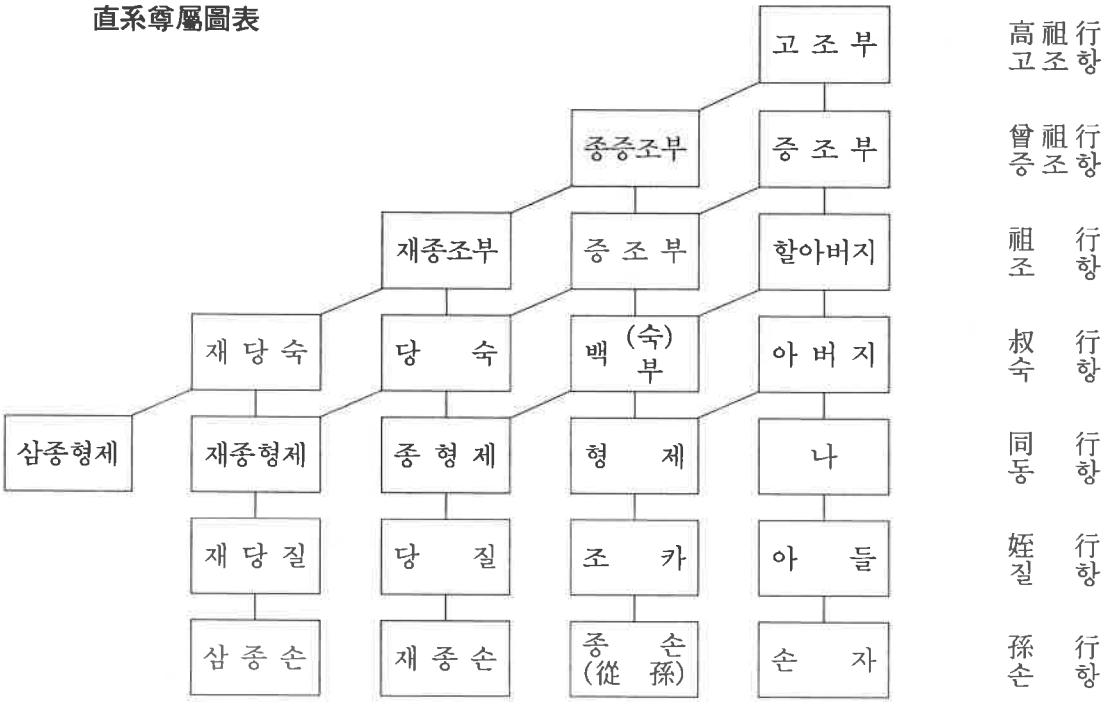
처 당(妻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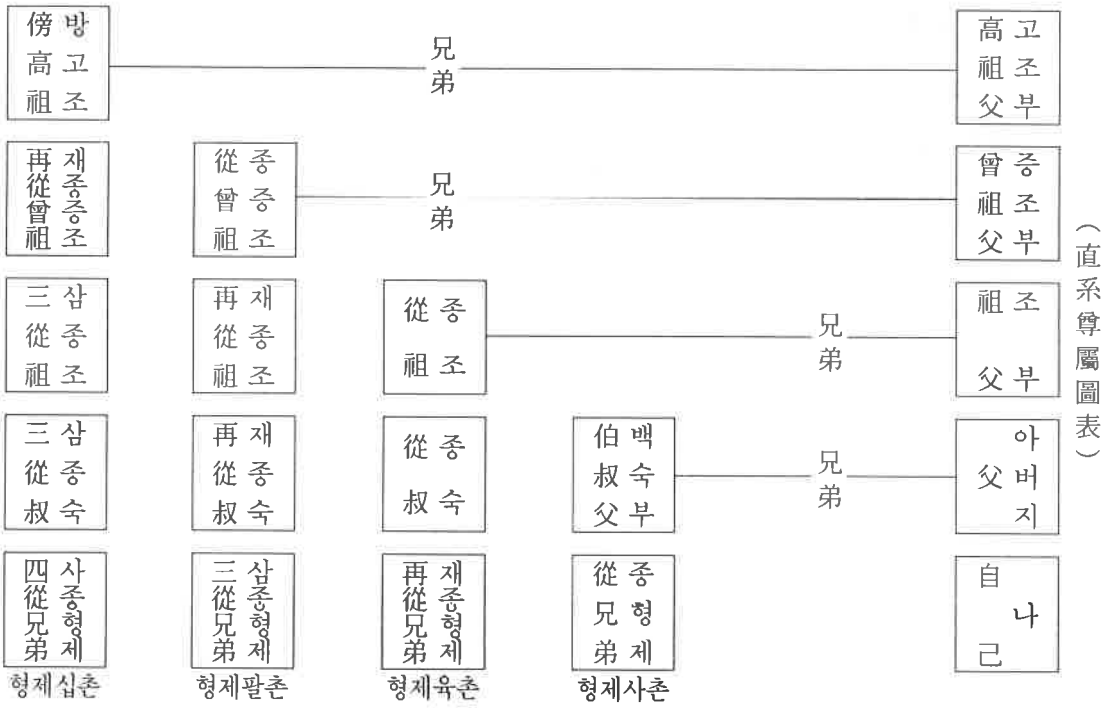
아내의 친정당(親庭黨)을 두고 이르는 말이 처당(妻黨)입니다.

처가(妻家)에 간다는 것은 귀한 손님 또는 백년객(百年客)의 자격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취해야 될 예절(禮節)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그것은 자신이 손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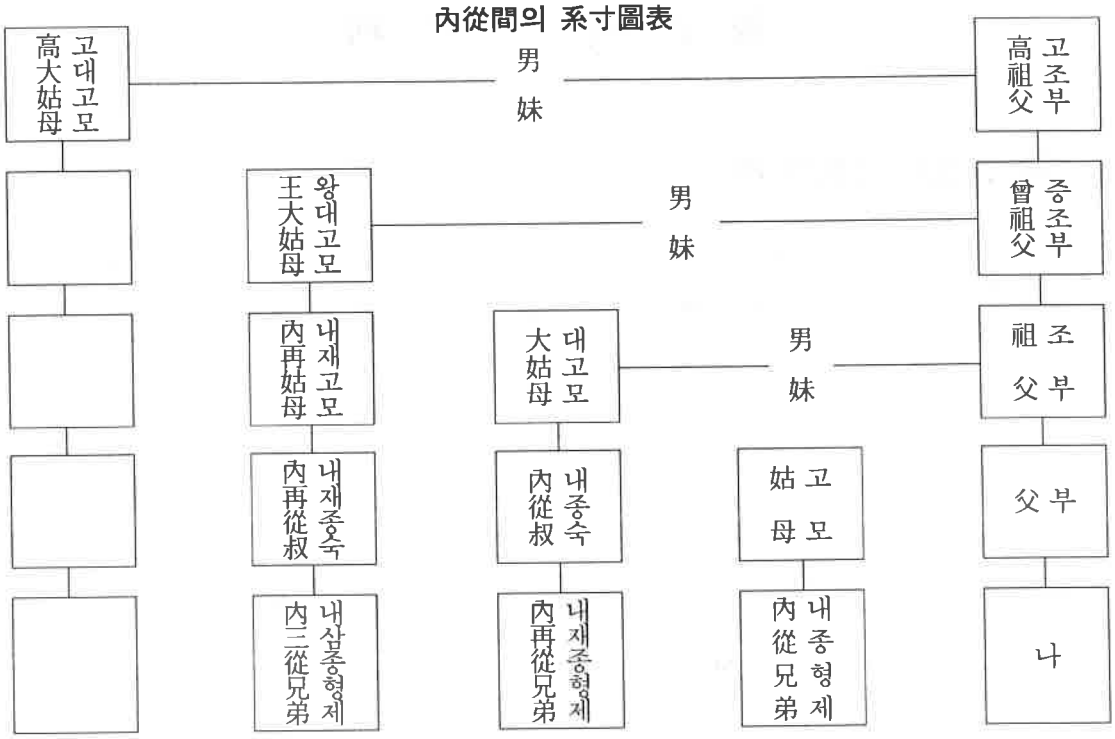
처당(妻黨) 사람에게 손님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처족(妻族)들로 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直系尊屬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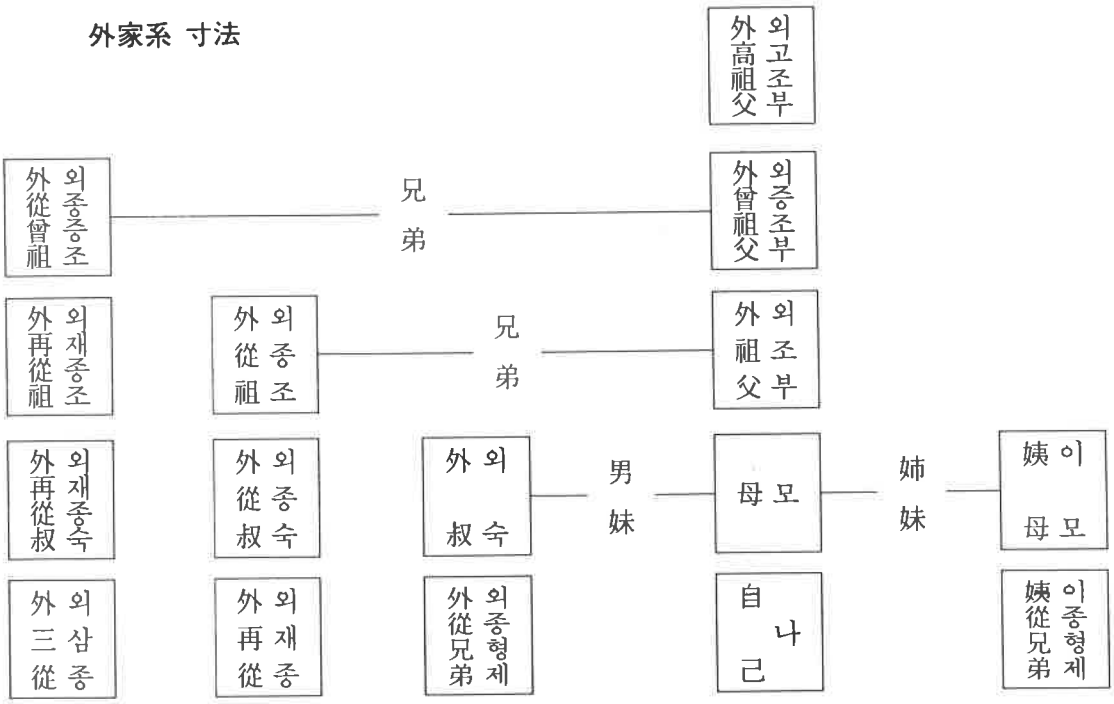

고조부
종증조부
증조부
재종조부
증조부
할아버지
재당숙
당숙
백(숙)부
아버지
삼종형제
재종형제
종형제
형제
나
재당질
당질
조카
아들
삼종손
재종손
종손(從孫)
손자
高祖 고조 行항
曾祖 증조 行항
祖조 行항
叔숙 行항
同동 行항
姪질 行항
孫손 行항


傍방高祖조
兄弟
高고祖조父부
再從曾祖 재종증조
從曾祖 종증조
兄弟
曾증祖조父부
三從祖 삼종조
再從祖 재종조
從祖 종조
兄弟
祖조父부
三從叔 삼종숙
再從叔 재종숙
從叔 종숙
伯叔父 백숙부
兄弟
아버지
四從兄弟 사종형제
三從兄弟 삼종형제
再從兄弟 재종형제
從兄弟 종형제
自己 나
형제십촌
형제팔촌
형제육촌
형제사촌
(直系尊屬圖表)

內從間의 系寸圖表



外家系 寸法



親 族 間　　呼 稱

친족간 호칭(親族間 呼稱) — 儒林便覽에 依함.

대 상	자기가 일컬을 때			자기를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父	아버지	아버지 顯 考 (祝 文)	父 主	아 들	아 들 孝 子 (祝 文) 孤 子 (片母下) 孤哀子 (俱沒下)	小肖子 不孝子 小 子 迷 子
母	어머니 顯 妣 (祝 文)	어머니	慈 主	아 들	아 들 孝 子 哀 子 (父在下)	小肖子 不孝子 小 子
祖 父	할아버지 祖 父	祖 考 顯祖考 (祝 文)	祖父主	孫 子 孫	孫 子 孫 孝 孫 (祝 文)	不肖孫 不孝孫 小 孫
祖 母	할머니 祖 母	祖 妣 顯祖妣 (祝 文)	祖母主	孫 子 孫	孫 子 孫 孝 孫 (祝 文)	小肖孫 不孝孫 小 孫
伯 父 仲 父 叔 父 季 父	伯 父 仲 父 叔 父 季 父	生存時와 같음	伯 父 仲 父 叔 父 季 父	從 子 猶 子 姪 子 姪	生存時와 같음	左와같음
伯 母 叔 母	伯 母 叔 母	左 同	伯母主 叔母主	(伯叔父의 경우와 같음)		

대 상	자기가 일컬을 때			자기를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兄	兄 伯 兄 仲 兄 叔 兄 (세째형)	左 同	兄 主主 伯 兄 主 仲 兄 主 叔 兄 主 (세 째)	弟	弟	舍 弟 家 仲 弟 弟 叔 (세 째) 季 弟
弟	아 우	亡 弟 (祝 文)	舍 弟 家 弟 季 舍 卯 君	兄	左 同	舍 兄 家 舍 兄 伯 舍 舍 仲
姉	누 님	左 同	姉 主	동 생 아 우	左 同	舍 弟
妹	누 이	左 同	舍 妹	오 빠	左 同	家 兄
夫	서 방 님 夫 君	서 방 님 顯 辟 (祝 文)	夫 子 嵩 砧	妻	左 同	拙 妻 妻
妻	夫 人	亡 妻 亡 室 (祝 文)	夫 人	拙 夫 家 夫	左 同	左 同
子	큰 아 이 몇째아이	左 同	이 름	아 비 (父)	左 同	左 同
女	아 기 女 息			아 비 (父)	左 同	左 同
嫂	아주머니 嫂 氏 兄 嫂 氏 弟 嫂 氏 季 嫂 氏	生存時와 같음	左 同	媤 弟	左 同	左 同
姪	家 姪	左 同	(某)	아 제 비 三 寸	左 同	左 同
從祖父	從祖父	左 同	左 同	從 孫	左 同	左 同

대 상	자기가 일컬을 때			자기를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從祖母	從祖母	左 同	左 同	從 孫	左 同	左 同
從 叔	아저씨	左 同	堂叔主	堂 從	左 同	左 同
從 兄	從 兄 四寸兄	左 同	從 兄 從兄主	從 姪 從叔主	左 同	從 弟
從 弟	四寸아우	左 同	從 弟	從 兄	左 同	從 兄
六寸以上 (祖父行)	再從祖……再從大父(六寸) 三從祖……三從大父(八寸) 四從祖……四從大父(十寸)					
十寸以上 (祖父行)	族 祖 族大夫	左 同	族祖主 族大父主	族 孫	左 同	左 同
七寸以上 (叔 行)	再從叔 三從叔 四從叔	(再堂叔)	(七寸) (九寸) (十一寸)	再從姪 三從姪 四從姪	(再堂姪)	左 同
十寸以上 (叔 行)	族 叔	左 同	左 同	族 姪	左 同	左 同
六寸以上 (同行列)	再從兄 三從兄 四從兄	再從弟 三從弟 四從弟	(六寸) (八寸) (十寸)	再從弟 三從弟 四從弟	再從兄 三從兄 四從兄	左 同
十寸以上 (同行列)	族 兄 族 弟	左 同	左 同	族 弟 族 兄	左 同	左 同
外祖父	외할아바지 外祖父	左 同	左 同	外 孫 杵 孫	左 同	左 同
外祖母	외할머니 外祖母	左 同	左 同	外 孫 杵 孫	左 同	左 同
外叔父	外叔父 外三寸	左 同	左 同	甥 姪	左 同	左 同
外叔母	外叔母	左 同	左 同	甥 姪	左 同	左 同
姑 母	姑 母 아주머니	左 同	姑母主	舍 姪 家 姪	左 同	左 同
姑母夫	姑母夫	左 同	姑 叔 姻 叔	조 카	婦 姪 左 同	婦 姪

대 상	자기가 일컬을 때			자기를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內從兄弟 (姑 從)	內從兄弟 姑從兄弟	左 同	內從兄弟 內 兄 弟	外 從 弟 外 從 兄	左 同	左 同
外從兄弟 (外 從)	外從兄弟	左 同	表從兄弟	內從兄弟 兄 弟	左 同	姑 從
姨 母	姨 母	左 同	姨 母 主	姨 姪	左 同	左 同
姨 母 夫	姨 母 夫	左 同	姨 叔 夫	姨 姪	左 同	左 同
姨從兄弟 (姨 從)	姨 從 兄 姨 從 弟	左 同	左 同	姨 從 弟 姨 從 兄	左 同	左 同
丈 人	丈 人 聘 丈	左 同	外 舅 主 聘 夫 岳 父	사 위	左 同	婿 外 生 男
丈 母	丈 母 聘 母	左 同	外 姑 主 岳 母	사 위	左 同	婿 外 生 男
戚 叔 姪	戚 叔 戚 姪	左 同	左 同	戚 姪 戚 叔	左 同	左 同
戚 兄 弟	戚 兄 戚 弟	左 同	左 同	戚 兄 戚 弟	左 同	左 同

대 상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父	父 親 家 親 嚴 親 家 嚴	先 親 先 考 先 人 先 君	家 大 人 家 君 家 公 家 父	어르신네 春 府 丈 椿 丈 (春通用)		椿 堂 尊 大 人 堂 丈 大 庭
母	母 親 慈 親	先 妣 老 親	母 親 慈 親	大 夫 人 慈 堂 慈 親		萱 堂 尊 堂 令 堂
祖 父	祖 父	祖 考 王 考 先 祖 考 先 王 考	祖 父 王 父	祖 父 丈 王 大 人	王 考 丈 先王尊丈 先王大人 尊 祖 考	祖 父 丈 王 尊 丈 王 府 丈
祖 母	祖 母	祖 妣 先 祖 妣	祖 母 老 祖 母	祖 母 님 王大夫人	先祖母님 先王大夫人 尊 祖 妣	尊 祖 母 尊王大夫人

대 상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伯 父 仲 父 叔 父 季 父	伯 父 仲 父 叔 父 季 父	先伯父 先仲父 先叔父 先季父	生存時와 같음	伯父丈 仲父丈 叔父丈 季父丈 院 丈	先伯父丈 先仲父丈 先叔父丈 先季父丈	生存時와 같음
伯 母 叔 母	伯 母 叔 母	先伯母 先叔母	伯 母 叔 母	尊伯母 尊叔母	先伯母夫人 先叔母夫人	左 同
兄	舍 伯 家 伯 舍 兄 家 兄 舍 仲 家 仲	先 伯 先伯兄 先 仲 先仲兄	生存時와 같음	伯氏丈 仲氏丈	先伯氏丈 先仲氏丈	伯氏丈 仲氏丈
弟	아 우	亡仲弟 亡叔弟 亡季弟 亡 弟 (祝 文)	舍 弟 家 弟 仲 弟 叔 弟 季 第	季 氏 令弟氏 賢弟氏 令季氏	先季氏 先弟氏	生存時와 같음
姉	姉 氏	左 同	左 同	令姉氏	故令姉氏	令姉氏
妹	妹 弟 舍 妹	左 同	左 同	令妹氏	故令妹氏	令妹氏
夫	바깥양반 사랑양반 家 夫	亡 夫	夫 君 家夫子	바깥어른 賢 君	先令君子	令君子 賢君子
妻	家 人 室 人	亡 妻 亡 室	荊 妻 拙 妻	內 相 令夫人	故令夫人 故賢閤	閤夫人 賢 閤
子	집아이 家 兒	亡 子	家 豚 家 督 迷 兒	아드님 令 胤 賢 胤 胤 玉 胤 君		貴公子 令 胤 賢 胤 胤 玉 胤 君
女	女 息		家 嬌 瓦 雛	따님 令 愛		令 嬌 令 愛

대 상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嫂	아주머니 嫂 氏 兄嫂氏 弟嫂氏 季嫂氏	(生存時와 같음)		令兄嫂氏 令弟嫂氏	故令兄嫂氏 故令弟嫂氏	令兄嫂氏 令弟嫂氏
姪	家 姪	左 同	鄙 姪	令 姪 咸 氏	左 同	令 姪 令咸氏
從祖父	從 祖	先從祖	從 祖	從祖丈	先從祖丈	貴從祖丈
從祖母	從祖母	先從祖母	從祖母	從祖母	先從祖母	貴從祖母 夫 人
從 叔	堂 叔 從 叔	先堂叔 先從叔	鄙堂叔 鄙從叔	堂叔丈 堂阮丈	先從叔丈 先堂阮丈	貴堂叔丈 貴堂阮丈
從 兄	從 兄 從 伯	先從兄 先從伯	鄙從兄 鄙從伯	從氏丈 從伯氏丈	先從氏丈 先從伯氏丈	令從氏丈 令從伯氏丈
從 弟	從 弟 堂 弟	亡從弟	鄙從弟 鄙堂弟	從季氏	姑從季氏	令從季氏 賢從季氏
六寸以上 (祖父行)	(자기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祖 鄙三從祖 鄙四從祖	再從祖丈 三從祖丈 四從祖丈	左 同	生存時에 貴字만 붙임
十寸以上 (祖父行)	族 祖 族大父	左 同	鄙族祖 鄙族大父	族祖丈 族大父丈	左 同	貴族祖丈 貴族大父丈
七寸以上 (叔 行)	(자기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叔 鄙三從叔 鄙四從叔	再從叔丈 三從叔丈 四從叔丈	左 同	貴再從叔丈 貴三從叔丈 貴四從叔丈
十寸以上 (叔 行)	族 叔	族 叔	鄙族叔	族叔丈	左 同	貴族叔丈
六寸以上 (同行列)	(자기가 일컬을 때와 같음)		鄙再從氏 鄙三從氏 鄙四從氏	再從氏 三從氏 四從氏	左 同	貴再從氏 貴三從氏 貴四從氏
十寸以上 (同行列)	族 兄 族 弟	左 同	鄙族兄 鄙族弟	族兄氏 族弟氏	左 同	貴族兄氏 貴族弟氏
外祖父	外祖父 外王父	左 同	左 同	外祖父님	左 同	外王尊丈 外王大人
外祖母	外祖母	左 同	左 同	外祖母님	左 同	外王大夫人

대 상	남에게 일컬을 때			남이 일컬을 때		
	생존시	사 후	서 장	생존시	사 후	서 장
外叔父	外 叔	左 同	鄙外叔 鄙表叔	外叔父님	左 同	外叔丈 渭陽丈
外叔母	外叔母	左 同	鄙外叔母 鄙表叔母	外叔母님	左 同	貴外叔母 貴表叔母
姑 母	姑 母	左 同	鄙姑母	姑母님	左 同	貴姑母 夫 人
姑母夫	姑母夫	左 同	鄙姑母夫	姑母夫님	左 同	貴姑叔夫
內從兄弟 (姑 從)	內從兄弟 姑從兄弟	左 同	鄙內從氏 鄙內從弟	內從氏	左 同	貴內從氏 貴內從
外從兄弟 (外 從)	外從兄弟	左 同	鄙外從氏弟 鄙表從氏弟	外從氏弟	左 同	貴外從氏弟 貴表從氏弟
姨 母	姨 母	左 同	鄙姨母主	姨母님	左 同	貴姨母 夫 人
姨母夫	姨母夫	左 同	鄙姨叔主	姨母夫님	左 同	貴姨叔丈
姨從兄弟 (姨 從)	姨從氏 姨 從	左 同 鄙姨從	鄙姨從氏 姨 從	姨從氏 姨 從	左 同	貴姨從氏 貴姨從
丈 人	丈 人	左 同	鄙聘丈	聘 丈	左 同	貴聘丈
丈 母	丈 母	左 同	鄙聘母	聘 母	左 同	貴聘母 夫 人

사교간 호칭(社交間 呼稱)

대 상	자기가 일컬을 때	자기를 일컬을 때
恩 師	先生님, 先生主, 丈席函丈	門下生, 門生, 侍生
尊 丈	尊丈, 丈氏, 어르신네	待下生, 侍生
老兄(10年以上)	老兄, 尊兄, 老兄氏	小弟
平 交 間	兄, 大兄, 仁兄, 學兄, 詞兄(普通사이), 愛兄, 情兄, 君(極親者間)	弟, 損弟, 拙弟(普通사이) 學弟, 敎弟, 庚弟(同甲者間) 愛弟(極親者間) 罪弟(喪人의 경우)
官 職 人	貴官, 貴職	本職, 本官, 卑職, 卑官, 小官, 小生

말하기 예절 (言語禮節)

부름말

듣는 쪽 사람을 불러 놓고서 하고자 하는 말을 건네어야 되는 것이 우리 韓國家庭言語의 基本原則입니다.

그것이 말하기의 原則이다가보니 "부름말"을 꼭 몸에 익혀 두어야 합니다.

"부름말"을 모르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이요, 우물쭈물하게 되면 정이 소홀해지고 情이 소홀해지다가 보니 발걸음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름말을 모르다가 보니, 親黨, 戚黨, 嫂黨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 사람을 피하게 되어 마침내 몹쓸 사람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들 사이에 "부름말"이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는바, 그것이 곧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됩니다.

만약 夫婦 사이에 "부름말"이 생기게 되면 어긋남이 두 가지가 생기는 바, 말소리가 높아져서 어긋나게 됨이 그 하나이고, 配匹(짝벗)이라는 同級의 秩序가 무너뜨러짐이 또 다른 하나의 어긋남이 됩니다.

男便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서로들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고자 하는 쪽에서 듣는이 쪽으로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男便 아내 사이의 말하기는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알아 들을 수 없도록 나즉한 목소리로 해야 하며, 그 말하기는 끝맺음이 없는 "반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夫婦의 왕도를 지키기 위하여 옛사람들이 남편 아내 사이만은 "부름말"을 만들어 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親黨, 戚黨 사람들을 부르는 부름말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男子들의 부름말	女子들의 부름말
할아버지 ····· 할머니	할아버님 ····· 할미님
아버지 ····· 어머니	아버님 ····· 어머님
○ ○아제 ····· ○ ○아주머니	○ ○아주버님 ····· ○ ○아주머님
아우 ····· 제수씨	아지벰 ····· 형님
○ ○아우 ····· ○ ○종수씨	○ ○아지벰 ····· ○ ○댁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되렴 ····· (총각시동생)
외아제 ····· 외아주머니	형님 ····· (시누나)
○ ○아주머니 ····· (이모에 대한 부름말)	○서방댁 ····· (시누이)
○ ○힝아 ····· ○ ○아지메	아씨 ····· (처녀시누이)
○ ○누나 ····· (고종, 외사촌)	○ ○아주머님 ····· (시이모)
○ ○누이 ····· (고종, 외사촌)	○ ○되렴 ····· (시외사촌, 시고종)

"님"이라든가 씨(氏)라든가 하는 말은 핏줄이 계산되지 아니하는 사이에 사용하는 接尾辭이기 때문에 親黨, 戚黨 사람에게는 "님"이나 "씨"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종숙모, 재종숙모, 삼종숙모, 족숙모를 부르는 부름말은 <아주머니>이요, 형수를 부르는 부름말은 <아지메>입니다. <아주>라는 말의 뜻은 대단함이요, <아지>라는 말의 뜻은 적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종숙, 시재종숙, 시삼종숙, 시족숙을 부르는 부름말은 <아주버님>이요 남편형과 남편아우를 부르는 부름말은 모두 <아지벰>입니다.

걸림말

어떤 두 사람의 사이에 걸림이 있을 경우, 그 걸림을 나타내는 말을 <걸림말>이라고 합니다.

걸림말 그것은 언제나 일방통행이 됩니다. 이를테면 한 쪽에서는 <내며느리일세>라는 걸림말을 사용하게되고, 한 쪽에서는 <저의 아버님이십니다>라는 걸림말을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一方通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걸림말과 부름말 사이를 놓고 보면 그것들이 한 덩어리로 된 경우가 있고, 그들 사이가 엄격스리 區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림말과 부름말이 한덩어리가 된 경우는 親黨 嫌親黨어른 가운데 至尊한 어른에 대한 것이요, 그 밖에 놓여진 사람에게는 부름말과 걸림말이 엄격스리 區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가운데 門外拜를 올려야 될 어른에 대해서는 그 부름말과 걸림말이 한 덩어리가 되어 부름말이 곧 걸리말이 되는 것이요, 그밖에 놓여진 사람에 대해서는 부름말과 걸림없이 엄격스리 區別되어 있습니다.

문밖절(門外拜 門下拜)을 받게 되는 어른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로 올라가는 直系와 큰아버지(맏아버지), 큰어머니(맏어머니), 시큰아버지(시맏아버지), 시큰어머니(시맏어머니)로 올라가는 傍系어른 뿐입니다.

문밖절을 받게 되는 어른의 경우, 부름말이 男子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인가 하면 걸림말도 <아버지, 어머니>이요, 婦人의 경우 "아버님, 어머님"이 부름말인가 하면 걸림말도 "아버님, 어머님"이 됩니다.

이를테면 姑母가 門外拜를 받기 때문에 부름말이 <아주머니>이요, 걸림말이 <姑母>입니다. 시姑母에 대한 부름말이 <아주머님>이요, 걸림말이 <시고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걸림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어른>도 그 하나이요, <저의 밖어른 저의 안어른>도 그 하나입니다.

한편 <저의 시어른>도 그 하나이요, <저의 밖시어른 저의 안시어른>도 그 하나입니다.

아들의 경우 <저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해도 좋고 <저의 밖어른이십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컬을 경우는 <저의 先考, 저의 先親, 저의 先人>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일컬을 경우에는 <지난날 저의 아버님, 지난날 저의 어머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甲의 아버지와 乙의 아버지가 서로 兄弟일 경우, 甲과 乙사이를 나타내는 걸림말이 從이요, 寸數말은 四寸입니다.

걸림말 사용에 따른 原則이 세 가지가 있는 바, 親黨, 媤親黨, 本黨의 경우에서는 四寸에서부터 八寸에 이르는 範圍에 든 사람들끼리의 걸림말이 하나의 낱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母黨, 妻黨 사람들을 두고 말할 경우에는 그 걸림말 앞에 黨을 밝히는 <外>, <妻>라는 말이 반드시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는 그 하나는 婦人의 경우 媤黨사람들에게 媤黨사람을 말 할 경우에는 "부름말" 그것을 "걸림말"로 사용해야 되고, 親庭黨 사람에게 媤黨사람을 말할 경우에는 그 걸림말 앞에 <媤>라는 말이 반드시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촌 수 말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핏줄의 마디를 수효로 나타내는 것을 "촌수말"이라고 합니다.

이 촌수말은 쓰일 곳이 별로 없는 말이나 핏줄의 마디를 셈하는 어린이 학습에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그 밖에 유전학을 강의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촌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寸數가 없다는 것은 핏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라는 것입니다.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 딸 낳으니, 그 아들, 딸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비로소 一寸이 됩니다.

一寸과 一寸끼리의 사이는 二寸이 되는데, 그 사이가 兄弟입니다. 마디 하나가 一寸이 되어 나가는 셈법으로 一寸, 二寸, 그리고 二十寸, 三十寸으로 셈이 되어 나갑니다.

寸數를 셈하는 基本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 서로 같은 할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나의 十三代祖考와 너의 十三代祖考가 서로 같다고 하면 서로 피마디 二十六寸(2×13)사이가 되고 나의 十七代祖考와 너의 十代祖考가 서로 같다고 하면 피마디 三十三寸(2×17=34: 34-1=33)사이가 됩니다. 高祖가 서로 같으면 피마디 八寸(2×4)사이가 되고 曾祖가 서로 같으면 피마디 六寸(2×3)사이가 되고 할아버지가 서로 같으면 피마디 四寸(2×2)사이가 되고 아버지가 서로 같으면 피마디 二寸사이가 됩니다.

한편, 直系는 어느 때나 一寸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一寸이요, 고조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一寸이요, 二十代할아버지, 二十代할머니도 一寸입니다.

寸數말이란 서로 사이의 피마디를 셈하여 볼 때 나오는 말일뿐, 그 밖에서는 使用될 곳이 없다는 것과 또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三寸 오신다"고 한다고 하면 피마디로 따졌을 때 "세마디짜리가 오신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兄弟를 부를 때, 장가를 들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부름말이요, 장가를 들기전에는 "아제"가 부름말입니다.

옛날 庶三寸를 부를 때 "三寸아" "三寸 오셨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庶三寸으로 말하면 一生동안 조카들로부터 "아제"라는 부름소리 한번 들어 보지 못하고 언제나 수효를 따지는 "三寸"소리만을 듣는 총각 시절을 보내게 되었으며, 장가를 들고서도 "작은아버지"라는 부름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한결 수효로 따지는 三寸 소리만을 들으면서 늙어 갔던 것입니다.

조카 쪽에서는 "아제"라고 부르기도 무엇하고,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과분하여 피마디로는 세마디짜리가 된다는 뜻이로 "三寸 오셨습니까"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택 호(宅號)

男子가 장가를 들면 그 집이름을 가지게 되는 바, 그 집이름을 宅號라고 합니다. 장가든 마을 이름을 따서 宅號를 삼게 되는데, 시집온 婦人으로 말하면 自己가 자랐던 親庭마을 이름이 永遠한 自己집 이름이 되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실"이라는 마을로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親黨, 本黨 사람들로부터 <한실아제, 한실할아버지, 한실오빠, 한실어른, 한실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그 婦人은 <한실형님, 한실아주머니, 한실할머니, 한실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한편 그 집에 대한 이름 또한 <한실댁>으로 되는 便利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男子가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 郡守를 지내게 되면 "한실댁"을 뒤로 미루고 郡守宅이라는 말이 그 집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親黨, 本黨 사람들로부터 <郡守아제, 郡守할아버지, 郡守오빠, 郡守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그 婦人은 <郡守형님, 郡守아주머니, 郡守할머니, 郡守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집니다.

시집간 딸내들이 親庭에 왔을 때는 그녀가 시집간 마을 이름을 앞자리에 두고 부름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虎溪>라는 마을로 시집을 간 女子가 親庭에 오게되면, 그 여자는 그녀의 親庭黨 사람들로부터 <虎溪형님, 虎溪아주머니, 虎溪할머니>라는 부름말을 듣게 됩니다.

이 경우의 <虎溪>라는 말은 宅號가 아닙니다.

요컨대, 집을 代表하는 이름이 宅號기에 집집마다 宅號를 가져야 하고 또한 宅號를 만들어야 합니다.

宅號란 婦人의 이름이 됨과 동시에 그 婦人의 家庭 全體를 일컫는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婦人으로 말미암아 宅號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男便으로 말미암아 宅號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婦人으로 말미암아 宅號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 婦人이 자랐던 親庭곳 마을이름이 되어 <○○宅>이 되는 것이요, 男便으로 말미암아 宅號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男便의 職業이름 또는 男便의 職位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仙岩宅>은 婦人이 자랐던 親庭곳 마을이름으로 된 宅號이요, 先生宅, 藥局宅, 醫師宅은 男便의 職業이름으로 된 宅號이요, 校監宅, 校長宅, 社長宅, 專務宅, 大領宅은 男便의 職位이름으로 된 宅號입니다.

나의 集團과 남의 集團에 대한 말

나를 中心으로 하여 핏줄로 計算이 되는 사람은 모두 "나"自身과 같은 集團이요, 핏줄로 計算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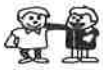
自身의 親黨一家가 "나"의 集團이 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自身의 外黨과 姑母黨도 핏줄로 計算이 되기에 "남"이 아닌 "나"의 集團입니다. 自己自身을 自己自身이 尊稱할 수 없기 때문에 親黨사람들과 戚黨사람들에게는 "님"이라는 말을 使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님"이라는 말을 使用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姑母는 "나" 自身과 같은 集團이지만, 姑母夫는 "남"이요, 누나는 "나" 自身과 같은 集團이지만, 누나남편은 "남"입니다.

姑母와 누나는 나의 親黨이지만, 그들의 남편으로 말하면 나 自身과 아무런 핏줄이 計算이 되지 않는 "남"입니다.

男子쪽에서는 妻父, 妻母가 "남"이요, 女子쪽에서는 媤父, 媤母가 "남"입니다. 그러하기에 妻父를 "장인님" 또는 "장인어른"으로 부르는 것이요, 妻母를 "장모님"으로 부르는 것이요, 媤父를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이요, 媤母를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말의 뜻은 自身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뜻에다가 權度에서 이룩된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權度란 法則이라는 뜻인데 法則보다는 간절하고 절실하면서 倫理性을 지니고 있는 뜻이 됩니다. 自己를 낳은 父母를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 되고, 權度로 이룩된 父母를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은 아들, 딸이 使用하는 부름말이요,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말은 며느리만이 使用하는 부름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은 孫子, 孫女들이 使用하는 부름말이요, "할아버님", "할머님"이라는 말은 孫婦만이 使用하는 부름말입니다.

男子의 경우, 自身의 親黨을 지키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세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중(僧)으로 나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데릴 사위로 나가는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양아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女子의 경우, 親庭父母가 죽으면 服을 一年동안 입게 되고, 媤父母가 죽으면 服을 三年동안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아들의 경우, 本生父母가 죽으면 服을 一年동안 입게 되고, 養父母가 죽으면 服을 三年동안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치는 永遠한 自己집이라는 곳에 그 根本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핏줄로 計算이 되는 親黨사람들과 戚黨사람들에게는 <님>이라는 부름말이 使用될 수 없고, 핏줄로 計算이 되지않는 "남"의 集團에는 "님"이라는 부름말을 使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呂增東>教授는 "님"이라는 말의 使用原則대로 좇아서 <형님>이라는 부름말을 버리고 원래 배달말인 <힝아>라는 부름말을 사용함이 마땅 하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 나 또는 내라는 말의 사용처

<나> 또는 <내>라는 말의 使用處는 매우 엄격합니다.

<나> 또는 <내>라는 말은 本黨사람말 앞에만 사용한 것이로되, 그것마저도 듣는이가 말하는이보다 下級사람일 경우에만 使用이 허락된 것입니다. 아들, 딸, 며느리, 조카, 질녀, 질부, 종질, 종질녀, 종질부, 재종질, 재종질녀, 재종질부, 삼종질, 삼종질녀, 삼종질부, 孫子, 孫女, 孫婦, 從孫子, 從孫女, 從孫婦, 再從孫子, 再從孫女, 再從孫婦들이 本黨 사람들입니다.

本黨사람말 앞에서만 <내> 또는 <나>라는 말이 올수 있다는 것은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조카, 내 질녀, 내 질부, 내 종질, 내 종질녀, 내 종질부, 내 손자, 내 손녀, 내 손부, 내 종손자, 내 종손녀, 내 종손부>라는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듣는이가 말하는이와 同級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부>라고 말해야 되고, 듣는이가 말하는이보다 上級 사람일 경우에는 <저의 아들, 저의 딸, 저의 손자>라고 해야만 바르게 말한 것이 됩니다.

親黨사람이란 男子兄弟와 그의 아내, 그리고 누나와 동생으로부터 비롯해서 아버지계열 사람들과 그의 아내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듣는이가 말하는 이보다 下級사람이라 할지라도 親黨사람말 앞에는 <나> 또는 <내>라는 말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라는 말은 모두 틀리게 말한 틀린 말입니다. 여기

에서 말한 틀림이란 그 말들이 모두 불손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戚黨사람말 앞에서도 <내>라는 말이 使用不可이요, 妻黨사람말 앞에도 <내>라는 말이 使用不可입니다.

이를테면, <내 외손자, 내 외손부>라는 말들이 모두 사용불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외손자, 우리 외손부>라는 말을 使用해야 됩니다.

□ 나이와 항렬에 따른 말하기

말하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나이도 많고 항렬(行列)도 위가 되면 말하기의 어려움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 쪽의 항렬은 위가 되나 나이는 저 쪽보다 아래가 될 경우 두 사람 사이의 말하기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八寸안에 든 有服親黨에서는 行列이 나이보다 앞서게 되고 九寸 以上이 되는 有服親黨에서는 나이가 行列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게 된다"라는 말은 윗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항렬이 나이보다 앞서게 되는 八寸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寸數가 八에 가까와질수록 그 行列의 힘이 弱하게 되는 것입니다. 九寸 以上이 되는 사이에서 나이와 行列이 서로 엇갈리고 있을 경우 두 사람은 서로 "습니다말"을 使用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이가 항렬보다 윗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시집온 婦人들끼리의 경우, 자기 남편들 사이가 九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가 공경말인 "습니다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서 婦人이 되면 男便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나이는 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적은 "형님"이 있게 됩니다.

男子의 경우, 누나남편이 자기 나이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그 누나남편이 자기 나이보다 적은 사람이지마는 누나를 中心으로 해서 그이를 "새형" 또는 "자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는 男子쪽이 자기 나이를 버린 것입니다.

시집온 婦人의 경우 八寸을 벗어난 媤黨, 免服親 사이가 되면, 이번에는 自己 男便이 지니고 있는 行列마저 버리고서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집간 婦人의 경우 八寸안에 든 有服親 사이에서는 自身의 나이만 버리고 男便이 지니고 있는 行列의 等級에 따른 말하기를 했던 것이, 九寸 以上이 된 免服親사이가 되면 男便이 지니고 있는 行列의 等級마저 버린 자격으로 말하기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媤黨, 免服親사이가 되면 婦人의 나이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男便 行列도 쓸모없는 것으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 自己表現(일컬음)

자기를 나타내는 말에 <저>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이들 말이 사용되는 갈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듣는이에게 걸리는 자기일컬음이고, 다른 하나는 말 속에 나오는 사람에 걸리는 자기일컬음입니다.

□ 듣는이에게 걸리는 자기표현

듣는이가 말하는이 자신보다 上級 사람일 경우 <저, 제>라는 말로 자기일컬음이 되어야만 듣는이가 말하는 이를 위한 공경말이 되고, 듣는이가 말하는 자신과 同級사람일 경우는 <우리>라는 말로 자기일컬음이 되어야만 바른말 하기가 되고, 듣는이가 말하는이 자신보다 下級사람일 경우에서만이 <나, 내>라는 말로 자기일컬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또는 <내>라는 自己表現은 自尊 또는 自大 그리고 自己年長의 뜻이되기 때문에 옛부터 이르기를 <나> 또는 <내>라는 말은 적어도 환갑 나이가 되어야만 틈틈히 사용할 자리가 나올 수 있고, 이말을 기침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려고 히면 팔십살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 말속에 나오는 사람에 걸리는 자기표현

듣는이에 따라서 <저>, <우리>, <나>라는 세 가지 自己表現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정지워짐이 말하기의 原則이기는 하나 그 原則 위에 올라가서는 또 하나의 絶對原則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이에게 관계없이 말속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이보다 上級 사람이 될 경우에는 <내 아버지>라든지, <내 아버님>이라는 말처럼 <나>라는 自己表現은 사용불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아버지를 말하기속에 가지고 올 경우 <저의 아버지>라든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하기는 가능하나 <내 아버지>라는 말하기는 듣는이가 누구이든 사용불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 시아버지를 말하기 속에 가지고 올 경우 <저의 아버님>이라든지, <우리 아버님>이라는 말하기는 가능하나 <내 아버님>이라는 말하기는 듣는이가 누구이든 사용불가의 말이 됩니다.

듣는이가 上級사람일 경우에는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님>이 되는 것이요, 듣는이가 同級일 경우에도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님>이 되는 것이고, 듣는이가 下級사람일 경우에만 <우리>라는 말로 自己表現이 되어서 아들의 경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가능하고, 며느리의 경우 <우리 아버님>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 속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이 자신과 同級사람일 경우에도 그 同級사람말 앞에

<나, 내>라는 말을 사용하질 못합니다.

말 속에 나오는 사람을 직접대함에 있어서 <나, 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말속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이의 本黨사람이라야 되고, 그 말을 듣는이 역시 말하는이보다 下級일 경우에서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自己를 나타내는 말에 <저>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이들 말이 사용되는 갈래가 두 가지 있는 바, 그 하나는 듣는이에게 걸리는 自己表現이고, 다른 하나는 말속에 나오는 사람에 걸리는 自己表現입니다.

듣는이에 걸리는 自己表現은 그 선택이 明白합니다. 그것은 듣는이가 말하는이보다 上級사람일 경우에는 <저, 제>라는 말로 자기를 일컬음이 되어야 하고 듣는이가 말하는이와 同級일 경우에는 <우리>라는 말로 自己表現이 되어야 하고, 듣는이가 말하는이 自身보다 下級일 경우만이 <나, 내>라는 말로 自己表現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속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自己表現에 대한 規則이 또 있는바, 첫째 親黨, 戚黨, 嫂黨사람말 앞에는 듣는이에 상관없이 <나, 내>가 사용불가이요, 둘째, 듣는이가 下級사람에다가 말속에 나오는 사람마저 말하는이 自身의 本黨사람일 경우에 한해서만이 <나, 내>라는 말하기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금지된 말(禁止된 말)

말속에 나오는 사람에게 불손스런 말로 대접했을 때, 그것을 일컬어 "흉한말"이라고 합니다.

공손말이 되지못하면 흉한말이 되는 것인데, 공손말과 흉한말 사이는 서로 相反되는 것으로 말속에 나오는 三人稱을 대접함에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임자말이 될 경우, 직접부르기와 간접부르기가 있는 바, 그 직접부르기가 공손스런 말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이 自身이 말속에 나오는 사람을 일컬을 경우 직접부르기를 使用하지 않고 自己子息을 앞세워서 그이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간접부르기로 임자말을 만들어서 말하는 것을 흉한말이라고 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오늘 서울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며느리가 "철이 할아버지는 오늘 서울에 가셨습니다"라고 말했을 경우 그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에 불손스런 말을 했고, 그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로부터 흉한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듣는이를 공경해야 될 경우에는 <저의 아버님, 저의 어머님>이라고 해야만 되고, 듣는이를 공경하지 아니해도 될 경우에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라는 말로 임자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른이 손아래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에는 간접부르기로 임자말을 만드는

것이 또한 어른말하기의 正法입니다.

이를테면, 손부나 며느리를 부를 때 "철이 어미 이리 오너라"같은 말하기가 어른 말하기의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며느리나 남의 손부를 보고 "철이 어미가 아닙니까"라고 말해서는 아니됩니다.

상스런 말

말하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임자말이 될 경우, 직접부르기가 공손스런 말하기가 되는 것이고, 간접부르기가 곧 불손한 말하기가 되는 것은 한국가정언어의 대원칙입니다.

손위 어른에게 간접부르기를 사용하면 그 불손함이 곧 그 어른에게 흉한 말이 되고, 자기 남편을 일컬으면서 간접 부르기를 사용하면 이것은 상스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상스런말(常漢語)이란 듣기가 민망스런 말을 "상스런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난날 하인배말이었습니다.

自己男便을 어른들에게 말할 경우에는 부름말 없이 바로 들어가야만 되고, 손아래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듣는이를 中心으로 임자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家庭黨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 自己男便을 이야기할 경우 <우리집 바깥양반> 또는 <우리집 바깥주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을 <철이 아버지> 또는 <철이 아빠>라고 하면, 이런 말하기를 상스런말하기라고 합니다.

<철이 아버지>와 같은 간접부르기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孫子, 孫婦, 아들 며느리에게만이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망령된 말

丈人을 아버지 또는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丈母를 어머니 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곧 망령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妻男을 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취객(娶客:장가든 손님)끼리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시동생을 三寸이라고 부르는 婦人이 있는가 하면 시누이를 고모라고 부르는 婦人이 있고, 시동생을 아제라고 부르는 婦人이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婦人이 있다고들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제, 아주머니가 아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제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망령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딜만 민지 나면 형님, 언니, 오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망령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숙 맥 말

어리석은 바보를 일컬어 숙맥(菽麥)이라고 합니다. 옛날 中國의 周子에게 兄이 있었는데 콩과 보리를 가려내지 못할 만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같은 말을 숙맥이라고 합니다.

妹夫를 두고 妹兄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숙맥말이 될 것입니다.

동생남편을 부를 경우에는 "무슨 서방"이라고 불러야 되고 서로 사이의 걸림을 알려주는 걸림말로는 妹夫 또는 누이남편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姑母男便을 두고 "고모아버지"라고 하면, 고모의 아버지는 곧 자신의 할아버지가 되기때문에 "새아제"라고 부름말을 해야 하고 남에게는 "우리 고모부"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모부를 "이모아버지" 또는 "이모아제"라든지, 孫婦를 두고 "손자 며느리"라고 말하면 숙맥이 아닐 수 없습니다.

侄婦를 "조카며느리"라고 하면, 조카가 며느리를 본 것인데 조카의 며느리는 나 자신의 從孫婦가 됩니다. 孫婦는 孫婦요 侄婦는 侄婦입니다.

자기 시동생의 아내를 보고 "ㅇㅇ댁"이라고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親黨과 戚黨에게는 "님"을 붙이면 안되는 것이고, 嫂黨에게는 "님"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妻黨어른의 경우 男子에게는 "어른"을 붙이고 婦人에게는 "님"을 붙이며, 妻黨同級끼리 사이에는 "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남남끼리 사용해야 될 말

남남끼리 사용하는 말에서 가정언어의 부름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원칙입니다.

親黨, 戚黨, 嫂黨사람들을 부르는 부름말을 가지고 親黨도 아니요, 戚黨도 아니요, 嫂黨도 아닌 사람을 두고 불렀다고 하면, 이것이 곧 망령된 말이 되어서 듣는이를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듣는이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든지(손자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데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아들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親黨, 本黨, 戚黨, 嫂黨에 들지 아니한 사람을 "남남끼리"라고 합니다. 남남끼리 사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바, 그것은 친분이 두터운 남남끼리와 친분이 성그른 남남끼리로 갈리어 집니다.

말하기 역시 이 두 갈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됩니다. 남남끼리 사용하는 부름말은 家

庭言語를 使用해서는 안된다는 절대원칙 아래 조금 自由스러운 편입니다.

조금 自由스럽다는 것은 알맞는 부름말을 골라서 使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남끼리 말하기에 있어서 챙기게 되는 것은 男女라는 그 系列과 나이가 됩니다. 男女사이에는 대충 內外法이 있는 것이요, 나이에는 "少年", "靑年", "中年", "老人"이라는 네 가지의 等級이 있게 됩니다.

十代가 少年이요, 二十代가 靑年이요, 三十代, 四十代가 中年이요, 五十代 以上을 老人이라고 말합니다. 老人 가운데서도 五十代가 下老이요, 六十代가 中老이요, 七十代가 上老이요, 八十代 以上이 大老가 되는 것입니다.

少年·靑年·中年 男女가 老人男子를 부를 경우, 그 부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말 하 는 이 와 듣 는 이
친소의등급	○○어르신	할아버지의 벗 또는 아버지의 벗 되는 노인에게
		말하는 이보다 20세 위되는 노인 가운데 평소 알음이 많은 분에게
	이 어 른	말하는 이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 가운데 평소 알음이 조금 있는 분에게
	이 노 인	처음 대하는 노인에게

□ 老人女子에 대한 부름말

少年·靑年·中年 男女가 老人女子를 부를 경우, 그 부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말 하 는 이 와 듣 는 이
친소의등급	이 어 른	할머니, 시할머니의 친지 어머니, 시어머니의 친지
	이 노 인	처음 대하는 노인
	士 母 님	선비를 기를만한 어미감이란 뜻으로

□ 中年 男子에 대한 부름말

少年·靑年 男女가 中年男子를 부를 경우 그 부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말 하 는 이 와 듣 는 이
친소의등급	○ ○ 어른	평소 친분이 두터운 中年男子에게
	이 분	평소 일음이 조금 있거나 처음 대하는 中年男子에게
	선 생	처음 대하는 中年男子에게

□ 中年婦人에 대한 부름말

少年·靑年·中年·老人 男女가 中年婦人을 부를 경우 그 부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름말	말하는이와 듣는이
이부인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 댁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士母님	장차 선비를 기를만한 어미니감이 된다는 뜻으로

□ 男子친구끼리 서로 부르는 부름말

男子친구끼리 서로 부르는 부름말로는 少年時節에는 "이름부르기" 靑年時節에도 이름을 부르며, 中年과 老人時節에는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길이 서로 다르고,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없는 사람 가운데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곧 친구입니다.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의 벗이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말하기가 벗에 대한 말하기와 비슷하나 다른 바는 벗보다 삼가조심하는 말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 주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했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이 벗이요, 부애를 내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부르는 부름말은 주로 "이 사람"이 됩니다.

□ 남의 집을 찾아 갔을 때 부름말

남의 집을 찾아 갔을 때 부르는 부름말은 "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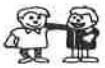
때로는 그 주인 가운데서도 <밖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의 집에 갔을 때 <주인 계십니까>라든지, <밖주인은 어디에 가셨습니까>라든지, <안주인은 어디에 가셨습니까>라고 말해야만 되는 것인데, <아주머니 계십니까>라든지, <아저씨 어디에 가셨습니까>라는 말은 망령된 말입니다.

査丈에게 使用해야 될 말

□ 男子系列에서 査丈에게 使用해야 될 말

婚姻으로 맺어진 집을 査家라고 하고, 두 사가집 사이에서 자기보다 上級되는 사가집 어른을 査丈이라고 하며, 그 査丈을 부르는 부름말은 <사장어른>이 됩니다.



사돈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가 사장어른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는 그 아들도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고, 아버지의 사돈 가운데 자기장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査丈에는 밖사장과 안사장이 있는 바, 여기에는 내외법이 있어서 男女가 系列이 서로 같을 경우에 査丈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丈人이 사위를 보고 "사장어른 근력이 좋으시더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사장어른은 사위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장모가 사위를 보고 "사장어른 근력이 좋으시던가"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사장어른은 사위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丈人이 사위의 할머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안사장어른 근력이 좋으시더냐"라고 말해야 되고, 장모가 사위의 할아버지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밖사장어른 근력이 좋으시던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며느리의 친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것도 앞에서 말한 사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査丈되는 이의 형과 아우가 모두 곁사장이 됩니다.

□ 女子系列에서 査丈에게 사용해야 될 말

사돈의 시어머니, 시할머니를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사장어른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는 그 딸과 그 며느리도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머니의 사돈 가운데 자기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고, 시어머니의 사돈 가운데서 자기 친정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돈끼리 사용해야 될 말

□ 男子系列 사돈끼리 사용해야 될 말

男便과 아내 두 사람의 본생 아버지끼리 서로 사돈이라고 부르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본생 어머니끼리 서로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계열이 다른 경우를 두고 밖사돈과 안사돈이라고 말하게 되며, 이런 경우는 내외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아니함이 정중한 禮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함이 극에 이르는 경우에는 말없음이 그 값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돈끼리 말하기에는 명백한 절대원칙이 있는 바, 그것은 서로가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이를테면 친하게 지냈던 벗끼리 사돈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난날에 서로 사용해 왔던 <하게말>을 버리고 서로 <공경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난날 친분과 나이 차이로 한쪽은 <하게말>을 사용했고, 한쪽은 <공경말>을 사용해 왔던 두 사람이 사돈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난날 사용해 왔던 말하기를 버리고 서로가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사돈끼리 서로 글로서 자기자신을 일컬을 경우에는 서로가 査弟라고 적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계열이든, 여자계열이든 사돈끼리는 서로가 똑같은 말하기로 되어있고 그 가운데서도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서로가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원칙입니다.

□ 곁사돈끼리 사용해야 될 말

남자계열의 경우, 兄의 사돈과 아우의 사돈이 자기자신에게는 곁사돈이 되고, 한편 사돈의 형과 사돈의 아우가 또 자기자신에게는 곁사돈이 되고, 한편 사돈의 형과 사돈의 아우가 또 자기자신에게는 곁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숙부들이 곁사돈이 되고, 며느리의 종숙들은 곁사돈이 되지 아니합니다. 사위의 숙부들이 곁사돈이 되고, 사위의 종숙들은 곁사돈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녀의 시아버지가 곁사돈이 되고, 질녀의 시숙부는 곁사돈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고 보면, 양쪽 숙부들끼리는 서로 곁사돈이 되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이 자기 사돈을 맞이함에 있어서 아우가 그 곁에 앉아 있게 되는 것과 아우가 자기 사돈을 맞이함에 있어서 兄이 그 곁에 앉아 있게되는 것을 상상하면 "곁사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 곁사돈이 되면 저쪽에서도 곁사돈이 되는 것이기에 곁사돈에 대한 말하기는 서로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사돈끼리 서로 말하기의 절대원칙이 여기에서는 그토록 엄격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편, 女子계열의 경우, 며느리의 친정 숙모들과 사위의 숙모들이 자기 곁사돈이요, 질부의 친정어머니와 질녀 시어머니가 자기 곁사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곁사돈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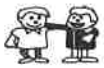
□ 査下生에게 사용해야 될 말

사돈의 아들 딸 며느리를 査下生이라고 합니다. 남자계열 査下生에게 사용해야 될 말가운데, 말하는이도 男子이요, 그 말을 듣는이도 男子일때, 여덟살이 적은 査下生에게는 <습니다>말인 삼가말을 사용하고, 아홉살이 적은 査下生부터 그 아래 査下生에게는 <시>라는 말이 들어가는 <하게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네 오랜만일세, 이제 오시는 길인가>등의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하는이도 여자이요, 그 말을 듣는이도 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나이에 걸리는 일이 없이 모두 <나…습니다>말에다가 <시>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남자 사장에 여자 査下生의 경우와 여자 사장에 남자 査下生의 경우는 査丈은 <나…습니다>말인 삼가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査下生끼리 사용해야 될 말

査下生들 끼리는 서로 부르는 부름말이 없고 걸림말도 없습니다. 등급말에 이르러서는 대충 서로가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女子査下生들끼리도 서로 부름말이 없고 또 걸림말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등급말에 이르러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妻親黨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될 말

□ 장조에게

아내가 자라났던 친정집을 처가라고 말하고, 아내의 친당을 처당(妻黨)이라고 말합니다. 처당 또는 처족(妻族)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쪽에서는 이 사람을 두고 이르기를 "우리집으로 장가든 손님"이라는 뜻으로 우리집 취객(娶客) 또는 "우리집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처가에 갔을 때, 그 아내는 그집사람들이 본생 친당이기에 친당을 상대로하는 말하기를 하게 되고, 그 남편된 사람은 그 처당사람들에게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신 또한 "귀한 손님"이 걷는 예절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주 드나들지라도 "손님"자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곧 "백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리하여 처가에 간다라는 것을 두고 이르기를 손님 노릇을 하러 간다는 뜻으로 "손질간다"라고 하는 바, 이 "손질"이란 손길(客道)이라는 말 소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손님에는 두 가지가 있는 바, 하나는 밖손(外客)이요, 다른 하나는 안손(內客)입니다.

밖손이란 남자손을 두고 이르는 것이요, 안손이란 여자손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손길(客道)에는 그 원칙이 있는 바, 그 첫째는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없음이요, 그 둘째는 오래도록 머무를 수 없음이 됩니다.

안(內)과 밖(外)을 드나들지 못함이란 밖손(男子손)은 그 집 女子들을 만나지 못함이요, 안손(女子손)은 그 집 男子들을 만나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없음이 손길(客道)의 원칙인데, 이 원칙을 얼마간 무너뜨려서 특별히 대접하는 손님이 꼭 하나 있는 바, 그것이 곧 장가든 손님(娶客)인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취객을 두고 이르기를 "손님" 되기는 "백년손"이로되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는 손님이기에 "귀한 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백년손(百年客) 또는 귀한손(貴客)이 스스로 갖추어야 될 손길(客道)을 취객손질(娶客道)이라고 하는 바, 그 취객손질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처당(妻黨) 여자들 가운데 장모급과 그보다 위급인 장조모급에게는 "예, 저…습니다"말인 공경말을 사용해야 되고, 이 아래에 든 여자들에게는 모두 "예, 내가…습니다"말인 삼가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객이 장모급과 그보다 위급에게 절을 하

게 되면, 처당 여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자신들도 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당 부녀자들이 절하기를 서로 그만 두자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내아우(妻弟) 처남딸(妻女) 또는 처남손녀(妻娚孫女)가 국민학교에만 다녀도 그녀들에게 "예, 내가 …습니다"말인 삼가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처당사람이라고 했을 때, 치마를 두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공경말이 아니면 삼가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객손질(娶客道)이 지니고 있는 둘째 원칙은 처당남자들과 말하기에 있어서는 장인급과 그보다 위급을 제외한 모든 처당남자들에게 열살까지 어리광벗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하게"말이 곧 벗끼리 서로 사용하는 말하기입니다. 취객을 맞아들이는 쪽에서는 그이를 "귀한 손님"으로 특별대접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취객손질(娶客道)이 지니는 세 번째 원칙은 처가집에 가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 됩니다. 들렸다가는 곧 돌아온다는 뜻이 "장가들다"라는 말입니다.

아내할아버지(妻祖)를 부르는 부름말은 장조님(丈祖)이요, 글로 나타낼 경우에는 처조(妻祖)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경우의 장(丈)은 장가들 장이라는 글자입니다.

□ 장조모에게

장조모(丈祖母)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 글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걸 림 말	등 급 말	글 말
장 조 모 님	장 조 모	저…습니다.	처조모(妻祖母)

입말로는 장조모(丈祖母)이지만은 글로 나타내는 글말로는 처조모(妻祖母)가 되는 것입니다.

□ 장인에게

장인(丈人)이라는 말이 한서(漢書)에 나오게 되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 丈人이라는 말이 내아버지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라는 말대신에 악장(岳丈), 악모(岳母)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악(岳)이라는 소리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 장모라는 부름말 밖에 빙장(聘丈), 빙모(聘母)라는 부름말이 사용되기도 하나, 이 또한 그 빙(聘)이라는 소리가 좋지않아서 "장인", "장모"라는 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아버지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과 글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걸 림 말	등 급 말	글 말
장 인 어 른	장 인	저…습니다말	처 부

아내아버지(妻父)를 부르는 부름말에 "장인님"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인어른"이라는 말로 줄곧 사용되어 왔습니다.

글자로 나타낼 경우에는 외구(外舅)와 처부(妻父)라는 두 가지의 걸림말을 사용하는데, 외구(外舅)라는 말보다는 처부(妻父)라는 말을 더 무겁게 사용합니다. 한편, 외삼촌에 대한 글말에 내구(內舅)가 있기 때문에 이 외구(外舅)라는 말은 내외(內外)의 착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외구"라는 말을 버리고 처부(妻父)라는 말로 통일시킴이 좋겠다고 呂增東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장모에게

아내어머니(妻母)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과 글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걸 림 말	등 급 말	글 말
장 모 님	장 모	저…습니다말	처 모

장모와 사위간의 대화는 "장모님, 그동안 편히 계셨습니까", "○서방왔는가"하는 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글자로 나타낼 경우에는 처모(妻母)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 처남에게

아내오라버니와 아내동생은 모두 처남(妻娚)이라고 부릅니다.

엄격히 따지면 "(娚)"이 오라버니 남(娚)이기 때문에 처남(妻娚)과 처동생(妻同生)으로 나뉘어졌음이 이치에 마땅하나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했습니다.

처남에 대한 말하기에는 원칙이 있는 바, 자기보다 여덟살까지 나이가 많은 처남에게는 모두 "하게말"을 사용해야 되고, 자기보다 아홉살 이상 나이가 많은 처남에게는 "하소말"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남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름말	걸림말	등 급 말	
처 남	처 남	처남이 9세이상 연장(年長)	장하소말
		처남이 8세이상 연장(年長)	하 게 말
		처남이 연하(年下)	하 게 말

처남에 대한 부름말도 "처남"이요, 걸림말도 "처남"입니다. 그리고 "처남"에게는 "습니다"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기의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처남(妻娚)과 매부(妹夫) 사이는 서로 친밀한 벗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말하기의 원칙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처남(妻娚)과 매부(妹夫) 사이는 서로 친밀한 벗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말하기의 원

칙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처남 형제의 차례는 밝히지 아니함이 통례이나, 상대가 굳이 물었을 때는 "처백남, 처중남, 처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큰처남" "둘째처남"등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남이 매부보다 아홉살 더 많다고 해서 손위 노릇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백년손(百年客) 또는 귀한손(貴客)을 대접하는 법도를 어기게 됩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법도를 어기게 되면, 그 매부되는 사람은 처가집에 가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 처남댁에게

아내백남댁이나 아내동생댁을 모두 일컬어서 처남댁(妻娚宅)이라고 부릅니다. 처남댁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 름 말	걸 림 말	등 급 말
(택호) ○○처남댁	처 남 댁	저…습니다. 말

처남댁의 차례 역시 밝히지 아니함이 통례이나, 상대가 굳이 묻는다면 "처백남댁, 처중남댁, 처동생댁"으로 말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큰처남댁, 둘째처남댁 또는 작은처남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처남아들에게

처남아들을 대충 처조카라고 부르는데 그 "처조카"라는 말을 "처친정조카"(妻親庭姪)라는 말이 줄어든 것입니다. "처친정조카"라는 말보다는 "처남아들"이 보다 분명하다는 것과 준말 사용이 불편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처남아들"이라는 걸림말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呂增東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질(妻姪)"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 름 말	걸 림 말	등 급 말
(이 름 부 르 기)	처남아들 또는 처질	하게·말

□ 처남딸에게

처남딸이라는 걸림말이 처친정질녀(妻親庭姪女)의 준말인 처질녀보다 분명한 말이다. 앞으로는 구차스런 준말을 버리고 명백한 걸림말이 되는 "처남딸"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呂增東교수의 주장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처질녀(妻姪女)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남딸(처질녀)에 대한 부름말이 없는데, 꼭 불러서 말해야될 경우라고 하면, 걸림말인 "처남딸"또는 "처질녀"란 부름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처남며느리에게

처남며느리라는 걸림말이 분명하고 완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친정질부"라는 구차스런 말을 종래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처친정질부라는 말이 길어서 "처질부"라는 줄임말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처남의 며느리라고 말한 것은 그 걸림을 직선표현한 것이요, 처친정 조카의 아내(妻親庭姪婦)라고 말한 것은 그 걸림을 곡선표현한 것인데, 그 곡선은 네 번이나 굽어들어간 말입니다. 처남며느리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등급말은 부름말은 없고, 걸림말은 "처남며느리" 또는 "처질부"라 하고 등급말은 "나…습니다"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妻戚黨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될 말

□ 처외조에게

처외조에 대한 부름말은 "처외조님"이고 걸림말은 "처외조(妻外祖)"이며 등급말은 "저…습니다"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처외삼촌에게

처외삼촌(妻外三寸)에 대한 부름말은 "처외삼촌"이고 걸림말 또한 "처외삼촌"이며 등급말은 "저…습니다"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외숙모에 대한 부름말은 "처외숙모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절의 예절 (拜禮)

□ 배 례(拜禮)

배례(拜禮)라고 하면 "절의 예절" 또는 "절인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경(恭敬)의 뜻을 표시(表示)하는 방법(方法)입니다.

배례(拜禮:절)는 절을 하게 되는 장소(場所)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고 男子와 女子의 절도 다르며 절을 받는 상대(相對)에 따라서도 절의 모습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男子의 절

건축물(방)안에서 하는 절과 건축물 밖에서 하는 절의 모습이 다르므로 건축물 밖에서 하는 절에는 허리절(腰拜), 머리손절(拜手), 머리땅절(稽首)이 있고 건축물 안에서 하는 절은 모두 무릎절(拜跪)이 됩니다.

동급(同級)끼리는 "허리절"을 하게 되고 어른들께는 "머리손절" 또는 "머리땅절"을 해야 됩니다.

"허리절(腰拜:요배)"이란 허리를 굽혀서 하는 절이요, "머리손절(拜首:배수)"이란 손이 있는 곳까지 머리를 숙이는 절이요, "머리땅절(稽首:계수)"이란 땅바닥에 머리가 닿이는 절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조부모(祖父母), 父母, 백숙부모(伯叔父母)에게는 "머리땅절"을 해야 되고, 그밖에 있는 복친당(服親黨)어른들께는 "머리손절"을 해야됩니다.

건축물(방) 안에서는 모두 "무릎절"을 해야 되는 바, "무릎절"(拜跪:배궤 또는 跪拜:궤배)이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내어 밀어서 마루 또는 방바닥에 짚고 머리를 숙여서 하는 절입니다.

또한 건축물(방) 안에서 하는 절에는 방문밖(門外:門下)에서 올리는 절과 방안에서 올리는 절이 있습니다.

방문밖에서 올리는 절은 두 마디의 행동(行動)이 따르게 됩니다.

절받을 사람은 방안에 계시고 절을 올릴 사람은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을 열어 놓고 문밖에서 무릎절을 올리고 난 뒤 곧 방안에 들어가서 무릎꿇어 엎드려 무슨 말이든 말을 건네어야 무릎절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밖에서 무릎절을 올리고 난 뒤 빨리 방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말을 여쭈어야 되는 그 문밖절(門外拜 또는 門下拜)을 받게 되는 어른은 父母, 祖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준직계존속(準直系尊屬)인 백숙부모(伯叔父母)뿐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준직계존속(準直系尊屬)이 아닌 사람에게는 방안절을 해야 됩

니다.

예(禮)라는 것은 마디(節)를 가지는 것인데 마디가 없으면 예(禮)가 되지 못합니다.

마디(節:절)는 동급(同級)에서 나오는 것인데 두터운 마디에는 두텁게 대접하고 엷은 마디에는 엷게 대접하는 것이 예(禮)를 행(行)하는 근본(根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디에 따라서 행동(行動)하는 사람을 두고 예의범절(禮儀凡節)을 아는 사람이라고 일컫게 되고 마디없이 행동(行動)하는 사람을 두고 무례(無禮)한 사람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男子들 사이는 길가는 사람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면, 서로 절을 하면서 말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女子의 절

女子의 절모습에는 큰절(大拜)과 평절(平拜)이 있습니다.

큰절은 두 손을 머리 이마앞에 대고서 그 손이 마루바닥에 닿이도록 허리를 굽히는 모습인데, 이 큰절은 시집가서 시부모, 시조부모를 처음 뵈올 때(見舅姑禮:현구고례) 한 차례하고 그 뒤부터는 제사(祭祀) 때에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절모습은 두 무릎을 나란히 꿇거나 또는 오른쪽 다리만 세우고 머리를 수그리며 두 손은 양쪽 무릎에 각각 두는데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고 네 손가락이 모두 뒤로 물러서면서 두 손을 꼿꼿이 세워야 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어밀어서 여덟팔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男子절인가 하면, 두 손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두 잇자 모양에서 엄지손가락만을 꼿꼿이 세우는 것이 평절입니다.

건축물 밖에 있을 경우 女子는 절이 없습니다.

건축물안 절인사에 문밖절(門外拜禮)과 문안절(門內拜禮)이 있는 바 문밖절은 지존(至尊)한 어른께 올리는 인사이고, 방안절은 지존(至尊)하지 않은 어른께 올리는 인사입니다.

지존(至尊)한 어른의 범위는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준직계존속(準直系尊屬)이 되는 바, 그것은 男子들과 달리 친정당(親庭黨)과 시당(媤黨)이 양쪽에 있게 됩니다.

친정당(親庭黨)에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 백숙부모(伯叔父母), 시당(媤黨)에 시조부모(始祖父母), 시부모(媤父母), 시백숙부모(媤伯叔父母)에게만 문밖절을 올려야 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방안절을 올리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문밖절은 그 행동(行動)이 두 단계인 바, 방문밖에서 평절을 올리고 난 뒤 빨리 방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서 말을 여쭈어야 합니다.

말이 없는 것은 절이 아니요, 절이라는 것은 모두 포함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 절인사의 금지조건(禁止條件)

절인사에는 금지(禁止)된 조건(條件)이 있는 바, 누워있는 어른께 절해서는 안되고, 먹

고있는 어른께 절해서는 안되고, 서있는(방안에) 어른께 절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받는 어른이 자리에 앉아서 절받을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 절인사는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女子는 절인사를 해야 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절인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말로 하는 "말인사"로 들어가야 되는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이를테면, "형님 오셨습니까?"라는 말로 시작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 범위가 넓은 것이 女子의 말인사입니다.

그러나 절인사도 가법(家法)에 따라 다소 다를 것으로 생각하나 절인사라는 것이 예(禮)이고 보면, 예(禮)란 마디를 따짐에서 나오게 됩니다.

공경(恭敬)의 무게대로 절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곧 예(禮)가 지니는 으뜸규정에 맞는 일입니다.

이외에도 머리로써 땅을 두드리는 돈수배례(頓首拜禮)와 양손을 서로 치며 절을 하는 진동배례(振動拜禮), 일단 절하고 다시 이마를 땅에 대는 길배(吉拜), 상인(喪人)이 머리 땅절(稽首拜禮:계수배례)을 하는 흉배(凶拜), 임금과 작별시에 사은(謝恩)으로 하는 숙배(肅拜)등의 종류(種類)가 있고 사행처(使行處)로 구분(區分)하면 평상시(平常時) 어른과 동우간(同友間)에 하는 단배(單拜)와 부모(父母)의 생신(生辰) 및 경사시(慶事時), 제사(祭祀)때 하는 재배(再拜:이때 女子는 四拜, 男子는 王에게만 四拜)가 있고 일반적으로 통용(通用)되는 마주보고 하는 직배(直拜)와 신하(臣下)가 왕(王)에게 하는 곡배(曲拜)등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공자묘(孔子廟)의 헌관(獻官)만이 곡배(曲拜)를 하고 있습니다.

婚　　禮

冠　禮

옛날에는 혼인하기전에 먼저 관례(冠禮)라 하여 남·여 15세부터 20세까지의 성년기(盛年期)에 달하는 동안 조발(組髮)하고 남자는 초립(草笠)을 쓰며, 여자는 비녀를 꽂는 예법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결혼성년에 있어서도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상이면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나 요즘에는 그와 같은 관례(冠禮)가 없어진 것이며, 결혼성년에 있어서도 현행의 민법에 따르면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後見人)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결혼연령의 최저(最低)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연령으로써 성혼되고 있는것이 요즘 일반적인 사회의 실정인 것이다.

婚禮儀式

혼례를 갖추는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육례(六禮), 즉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등을 갖추었던 것이나 이는 모두 길례일뿐더러 시대의 풍조에 따라 바뀌어진 것이다. 요즘에는 대개 사주(四柱)의 거래(去來)만으로써 약혼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혹은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의식(宗教儀式)에 따른 약혼방식 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례식을 치루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농촌에서는 유교식(儒教式)에 따른 구식(舊式)과 도시에서는 교회식(教會式)을 본딴 신식(新式)의 두가지에 많이 따르고 있다.

婚談과 約婚

혼인이 이루어지는데는 남녀간에 미리부터 애정의 접촉이 있었거나 또는 중매인을 통하여 간선=선보기(看選)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면 남자편의 주혼자(主婚者)가 여자편의 주혼자에게 정식으로 청혼서(請婚書)를 보내고 그에 따라 여자편에서도 허혼서(許婚書)를 남자편에 보내게 되는 것이다.

四星去來

四星은 즉 이른바 「四柱」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는 구식의 약혼에 따른 납채(納采)의 일

종인 것인데 요즘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남자편의 주혼자가 혼인당자(婚姻當者)의 生年月日時를 적은 四柱와 편지를 중매인이나 혹은 친한 사람을 시켜서 여자편의 집으로 보내어 청혼(請婚)하면 그것을 여자편에서 받으므로 허혼(許婚)이 되는 것이다. 여자편에서도 맞사주를 보내는 수도 있는바, 즉 여자의 사주를 남자편에서 온 그 사람에게 곧마주 보내는 것이다.

捐吉書式

연길(捐吉)은 규수(閨秀)집에서 택일(擇日)하여 신랑집으로 보내는 것이다. 옛날에는 납길서(納吉書)와 연길서(捐吉書)를 함께 갖추어 썼던 것이나 요즘에는 연길서만을 쓰고 있다.

納 幣

납폐는 즉 폐백(幣帛)과 혼서(婚書)를 말함인데, 폐백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써 쓰는 하나의 예물인 것이다. 이는 청홍채단(靑紅綵緞)의 양끝을 파랑실과 붉은실로 묶어 물목(物目)을 써서 함(函)속에 넣어 보내는 것이다. 그를 보내는 날짜는 혼례식을 치루기전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혼례식 당일에 가지고 가는 일이 많다.

□ 納幣文 쓰는 法

納幣文을 舊書式으로 쓰자면, 용지는 창호지 혹은 모조지를 쓰되 길이 1尺 2寸, 넓이 2尺 정도로 하여 初婚時에는 아홉칸을 접어서 양편가의 한칸식을 비우고 일곱칸에 쓰며, 再娶時에는 일곱칸을 접어서 다섯칸에 쓰는 것이다.

다만 참고로 구서식과 신서식을 실어두는 것이나 되도록이면 알기 쉬운 한글서식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納 幣 文(舊式)

正月二十日 全州後人 李○○ 再拜

伏惟孟春(계절에 따라 쓴다)

尊禮百福 儀之○子○○ 年旣長成 未有 伉儷 伏蒙 尊慈 許以 令愛 睨室 玆有 先人之禮 謹行 納幣 之儀 不備上狀

《備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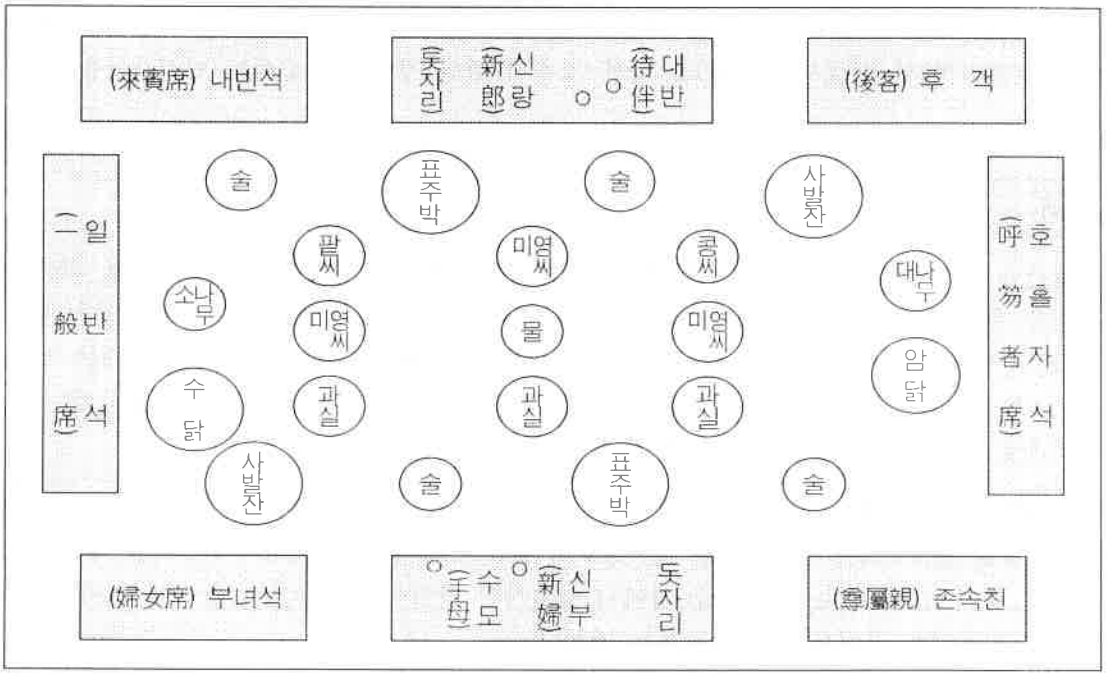
全州後人이라 한것은 全州李氏이면 全州後人이라고 쓰기도 하고 名祖의 諡號를 쓰기도 하 는데 例를 들면 文成公의 子孫이면 文成後人이라 쓰고, 忠武公의 後孫이면 忠武後人이라 쓴다. 또한 伏之○子라 하였는데 祖父가 主婚할때는 第○孫(몇째손)이라 쓰고, 兄이 主

婚할때에는「舍弟」라 쓴다. 또 相對方의 主婚者가 祖父일때는「令孫女」라 쓰고, 伯叔父가 主婚인 경우에는「令姪女」라 쓰고 오빠가 主婚인때는「令妹」라고 쓴다.

한글 納幣文

三월 三일 전주후인 이 상호는 삼가 존체의 만복을 비옵고 저의 둘째 자식 철수는 성취할 나이 지났사오나 아직 혼사를 이루지 못하옵던바 다행하옵게도 존좌께옵서 영애로써 그의 배필을 허락하시옵기를 선인의 예에 의하여 납폐의 식을 올리옵나이다.

醮禮床 (초례상) <舊式>



婚禮式場

혼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구식에는 대개 신부집에서 하게되고, 신식에 있어서는 예식장이나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거행하게 된다. 예식장에는 일정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교배석(交拜席)을 설비해야 한다. 구식혼식(舊式婚式)에는 초례상(醮禮床)을 갖추게 되는데 그도 또한 구식과 신식의 두가지가 있으므로 그림으로 위면과 같이 실어두니 참고하기 바란다.

盛 服

복장을 갖춤에 있어서 舊式婚禮에는 新郎은 사모관대(紗帽冠帶), 관복(官服), 흑화(黑

靴)등으로 예장(禮裝)을 갖추고 新婦는 족두리(簇頭里)를 머리에 쓰고 하는 것이다. 신식 혼례에는 신랑은 대개 양복을 입고, 신부는 면사포(面紗布)를 쓰게 된다.

婚禮式의 順序

혼례식을 進行함에 앞서서 먼저 전안례(奠雁禮)를 지내고 그 다음에 초례(醮禮)가 시작되는 것인데 혼홀(婚笏)을 구호(口呼)할 사람 즉, 주례(主禮)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 사처(舍處)

사처는 혼례식날 신랑이 신부의 집에와서 예식을 올리기전에 쉬는 곳을 사처(舍處)라 하는데 대개는 이웃집이나 혹은 신부의 집에 사랑방이 있으면 그곳에서 쉬게 된다.

□ 납폐(納幣)

납폐는 채단을 드리는 예식(禮式)인데 전날에 미리 납폐가 끝났으면 필요없는 일이나 예식당일에 납폐할때에는 함진아비가 채단함(綵緞函)을 지고 나서면 신부의 집에서는 하님이 나와서 받아간다.

□ 전안례(奠雁禮)

혼례식의 시간이 되면 신랑은 성복(盛服)을 하고 신부집 문앞에 이르면 신부의 집에서 접대인(接待人)이 나와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른바 중방이라는 사람이 신랑에게 안(雁 : 나무로 만든 기러기)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머리를 왼편으로 하여 안고 미리 병풍을 치고 설치한 전안상(奠雁床)앞에 이르러 목안(木雁)을 놓고 재배(再拜)한다. 이때에 절이 끝나기 전에 신부집 하님이 나와서 木雁을 집어가지고 가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신랑을 웃게 하느라고 무엇을 보고 절하느냐고 조롱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같이 안(雁)을 쓰는 것은 원래 음양왕래(陰陽往來)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 안은 동물중에서도 가장 부부유신(夫婦有信)을 천성으로 하는 짐승 즉 수절(守節)의 길조(吉鳥)이므로 부부의 혼약을 천신(天神)께 고하고, 화목해로(和睦偕老)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한편 안(雁)은 원앙(鴛鴦)이라고도 하여 사이좋은 부부의 뜻을 말함이다.

전안례의 혼홀(奠雁禮의 婚笏)

1. 新郎下馬拱立···신랑은 타고온 말 또는 가마에서 내려 선다.
2. 替引揖···접대인이 신랑에게 절을 한다.
3. 新郎答揖···신랑도 접대인에게 절을 한다.
4. 新郎就奠雁所···신랑이 전안상 앞으로 간다.
5. 新郎跪···신랑이 배석위에 꿇어 앉는다.
6. 抱雁···신랑이 안을 받아 앉는다.
7. 置雁於地···신랑이 안을 전안상 위에 놓는다.

8. 新郎興···신랑이 일어선다.
9. 新郎再拜···신랑이 절을 두번 한다.
10. 新郎興···신랑이 일어선다.
11. 新郎步退···신랑이 조금 물러 선다.

□ 醮 禮

초례는 신랑과 신부가 마주 대하여서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맹세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초례지내는 식장에 교배상(交拜床)을 베풀어 주과(酒果)를 진설(陳設)하고 신랑을 교배상의 東편에 서게 하고 하님이 신부를 교배상의 서편에 인도하여 신부를 신랑에게 사배(四拜)를 시킨뒤에 신랑은 신부에게 재배(再拜)하게 하고 하님이 합술배라고 하여 술잔에 술을 부어 신랑과 신부에게 권하니 이것을 교배잔이라 한다. 교배잔 돌리는 것이 끝나면 혼례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며, 손님중에 축사(祝辭)가 있으면 이때에 행하여도 무방하다. 신랑을 안내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객실(客室)로 나아가서 후행으로 온 자기의 친척에게 혼례의 끝난것을 절하고 인사한 다음에 후행의 지도에 따라 처족(妻族)들에게 인사(人事)한다.

醮禮의 婚笏

1. 新郎就禮廳···신랑이 초례청으로 간다.
2. 新郎東向立···신부가 나오면 신랑은 동쪽으로 외면(外面)하고 선다.
3. 新婦出···신부가 안방에서 나온다.
4. 新郎正面···신랑이 바로보고 선다.
5. 新郎新婦跪···신랑, 신부 서로 꿇어 앉는다.
6. 盥洗執巾···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7. 新郎新婦興···신랑, 신부가 일어 선다.
8. 揖婦就席···신랑이 신부에게 절을 하고 자리 위로 올라간다.
9. 新婦再拜···신부가 절을 두번 한다.
10. 新婦跪···신부가 꿇어 앉는다.
11. 新郎答一拜···신랑이 답례로 절을 한번 한다.
12. 新婦興···신부가 일어 선다.
13. 新婦再拜···신부가 절을 두번 한다.
14. 新婦跪···신부가 꿇어 앉는다.
15. 新郎答一拜···신랑이 답례로 절 한번 한다.
16. 新郎新婦跪···신랑, 신부 서로 꿇어 앉는다.
17. 行砂盃禮···신부측에서 술잔에 술을 부어서 신랑편으로 보내면 신랑은 그 술잔을 받아서 땅에 조금 지운 다음 조금 마시고, 신부측으로 도로 보내면 신부가 받아서 다 마

셔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신랑측에서 먼저 그와 똑같이 신부에게 술잔을 보내고 하니, 서로가 한번씩 권하는 격이 된다.

18. 行瓢杯禮···이번에는 신랑측에서 먼저 바가지(호주박)잔에 술을 부어서 행사배례(行砂拜禮)와 같이 서로 한번씩 권하는 것이다.
19. 禮 畢···혼례식이 끝남
20. 新郎新婦歸處所···신랑과 신부는 각각 방으로 들어간다.

□ 式後行事

예식이 끝나면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하고 피로연(披露宴)을 하는 것인데, 이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다르나 되도록 간소하게 하는것이 좋다. 혼례식장을 신부집으로 정하고 舊式의 혼례를 지냈을때에는 신랑측의 어머니가 참석치 않는 것이므로, 양가의 사돈간에 따로 인사하는 예법이 있는 것이지만, 신식으로 할때엔 양가의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므로 식이 끝난 뒤에 부모견례(父母見禮)를 하게 된다. 구식의 혼례법을 따른다면 신랑은 우례(于禮)할때까지는 신부의 집에서 쉬게 되는데, 이때에 옛 풍습으로는 동상례(東床禮)라 하여 신랑을 다루어 술을 얻어먹는 폐풍(幣風)이 있었으나 요즘은 그런 일이 점차로 없어져 가고 있다.

□ 新 房

신방은 초례 지낸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한방에서 거처하게 되는 것인데 옛날의 어린 신랑에게는 일러둘 말이 많으나 요즘에는 필요성을 인정치 않으므로 생략한다.

□ 于 禮

우례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식(禮式)인데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맞아들여 휴계시킨 뒤에 일정한 장소에 시부모가 나란히 앉고, 시부모의 뒤에는 친족들이 적당히 늘어서고 시부모 앞에는 상을 놓고 좌우에는 화분같은 것을 놓아 적당히 자리를 꾸민다음 신부가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시부모 앞에 나아가 먼저 시아버지에게 四拜하고 폐백을 올린 뒤에 시어머니에게 四拜한 뒤에 폐백을 올린다.

〔備考〕 시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린 다음 시어머니에게 四拜한 뒤에 따로 별석하여 먼저와 같이 四拜하고 폐백을 올린다. 옛날 예법에는 없는 일이나 요즘에는 보통 행하고 있다. 또한 새며느리를 맞이하는 시부모는 폐백을 받기전에 내외가 예복을 갖추고 父母에게 再拜하고 別席에서 폐백을 받는것이 禮法이다.

<註> 폐백은 닭을 잡아서 털을 뜯고 삶아서 입에는 대추를 물리고 밤으로 귀를 달고 종이로 벼슬을 만들고 五色종이로 오려서 봉(鳳)의 옷을 입히고 대추를 실어 꿰어서 상에 놓는것이 보통이다. 폐백은 신부의 집형세에 따라서 시부모의 의복, 버선, 패물(佩物)등 힌이 없는 것이나 보통은 닭과 대추와 술만 가지고 가는 예가 많다.

또한 시부모는 며느리에서 폐백을 받고 答禮로 조상때 부터의 유물(遺物)이라든지 패물, 衣服등을 주기도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初　喪　禮

상주(喪主)

모든 일에 집사주인(執事主人)이 있게 되는 바, 그 가운데에서도 주인(主人)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예(禮)를 잡지 못하게 되어 낭패되는 일이 사람이 죽은 일(喪事 : 상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父母)가 세상(世上)을 버렸을 때, 그 아들 며느리가 그 상사(喪事)에 主人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버린 가운데 조부모(祖父母)가 세상(世上)을 버렸을 경우에는 그 손자(孫子)가 상사주인(喪事主人)이 됩니다. 이런 손자(孫子)를 두고 승중손(承重孫)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自己아버지 몫을 이어받게 되는 손자(孫子)라는 말의 뜻이 그 승중손(承重孫)입니다.

이런 경우(境遇)에는 그 손자(孫子)와 그 손부(孫婦), 그리고 그 손자의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 어머니가 상사주인(喪事主人)이 되는데 그 손자의 어머니는 짝잃은 상사주인(喪事主人)이 됩니다.

그리고 父母가 이미 모두 세상(世上)을 버린 가운데 조부모(祖父母)가 世上을 버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자와 그 손부가 상사주인이 되는데, 그 손부(孫婦)의 경우는 안밖이라는 짝에다가 승중손부(承重孫婦)가 되는 것입니다.

상사주인(喪事主人)이라는 넉자말을 줄인 것이 상주(喪主)입니다. 상사주인(喪事主人)들 가운데서 아들을 바깥상주라고 부르고 며느리를 안상주라고 부릅니다. 대충 상사주인(喪事主人)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맏아들이 총주인(總主人)이 되고, 죽고 없으면 맏손자가 총주인(總主人)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루고자 하는 것은 상례(喪禮) 가운데 졸곡전(卒哭前)까지 기간(期間)에 상사주인(喪事主人)이 취해야 될 예절(禮節)입니다. 부모(父母), 시부모(媤父母)가 세상을 버렸을 경우 그 상례(喪禮)에 따른 절차(節次)를 두고 이야기하면 습염(襲殮)이 있고 그 뒤에 성복전(成服奠)이 있게 됩니다.

습염(襲殮)은 죽은 사람을 씻겨서 옷을 갈아 입히고 묶는 일이요, 성복전(成服奠)은 복인(服人)들이 모두 상복(喪服)으로 갈아 입음에 대한 고유절차(固有節次)입니다. 초상(初喪)에서부터 성복전(成服奠) 전에 급히 가야될 사람은 복인(服人)은 물론 면복친당(免服親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사를 안밖으로 도와 줄 사람은 성복전(成服奠) 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주(喪主)의 슬픔을 달래어 주기 위하여 가게 될 사람들은 성복전(成服奠)에 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복전 전에는 상주가 밖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期間)일 뿐만 아니라 슬픔이 극에 다달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복(成服) 이후 양일(襄日)이 정해지면 발인(發靷)이 있고 그 뒤 유택(幽宅)으로 가는 장사(葬事)가 있고 그 뒤에 반혼(返魂)이 있고, 그날의 해가 기울기 전에 초우(初虞)를 지내게 됩니다.

발인(發靷)이라는 절차(節次)는 상여(喪輿)가 대문밖에 나서서 그 혼백(魂魄)이 이 世上 사람들과 영원(永遠)히 작별(作別)하는 절차(節次)로서 이른바 영결종천(永訣終天)입니다. 발인(發靷)이 있은 뒤, 유택(幽宅)으로 마련된 장지(葬地)로 가게 되는바, 밖상주들은 상여(喪輿) 뒤를 따르면서 곡(哭)을 하고 안상주들은 곡(哭)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발인(發靷)을 마치고 난 뒤 안상주들은 집안으로 들어와서 유물(遺物)을 정리(整理)하도록 시키고 오후에 돌아올 반혼(返魂) 절차와 초우(初虞)를 지낼 일들을 준비(準備)시키면서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장사(葬事)란 성분(成墳) 까지를 이르는 것인데, 무덤이 이룩되면 반혼절차(返魂節次)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혼(魂)과 백(魄)이 한덩어리가 되어 있음이요, 사람이 죽게 되면 혼(魂 : 얼)과 백(魄 : 넋)이 서로 떨어지는 바, 백(魄 : 넋)은 땅속에 묻히고, 혼(魂 : 얼)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 그 혼(魂)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節次)를 반혼(返魂) 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이룩되면 밖상주는 곧장 서둘러 반혼(返魂)을 해야 하는 바, 그것은 혼(魂)을 모신 영여(靈輿) 뒤를 따라 곡(哭)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혼(魂 : 얼)이 돌아오는 곡(哭)소리가 들리면 집안에 있던 안상주들은 곧장 대문 밖까지 나가서 곡(哭)을 하면서 밖상주 뒤를 따르면서 혼(魂)을 실당(室堂)에 모시게 되는데, 그 반혼실당(返魂室堂)을 이름하기를 빈소(殯所)라고 하고 모시는 그 자리에 궤연(几筵)이라고 말합니다.

습염(襲殮)에서부터 반혼(返魂)에 이르는 절차는 모두 고유(告由) 의절(儀節)이라는 것입니다. 고유(告由)라는 것은 아뢰는 의절(儀節)로 그치는 것이며 제사의절(祭祀儀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혼실당(返魂室堂)이 이룩되면 늦어도 해가 기울어지기 전에 초우(初虞)를 지내게 되는데 이 초우(初虞)가 제사의절(祭祀儀節)입니다. 그리하여 이 초우(初虞)를 두고 초상례에서 첫제사(祭祀)라고도 말합니다.

제사의절(祭祀儀節)이란 축(祝)이 있음을 이름이요, 축(祝)이 있으면 헌작(獻酌 : 술잔을 올림)이 세 차례 있게 되는 것을 일컫게 됩니다. 초헌(初獻 : 첫드림)은 상사주인(喪事主人) 가운데서도 으뜸주인이 하는 바, 이것은 맏아들 또는 승중손(承重孫)이 될 경우 맏손자가 하는 것이요, 아헌(亞獻 : 버금 드림)은 초헌관(初獻官)의 아내로서 맏며느리 또는 맏손부가 하는 것입니다.

초헌(初獻)과 아헌(亞獻)은 그 드리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만, 종헌(終獻 : 끝 드림)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어서 초헌자(初獻者)가 지명(指名)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유일(柔日 : 乙丁己辛亥), 해뜨기 직전(直前 : 質明)에 재우(再虞)를 지내게 되는 바, 이 재우(再虞)가 초우례(初虞禮)에서 두번째 제사(祭祀)가 되고, 또 그 이튿날 강일(剛日 : 甲丙戊庚壬) 해가 뜨기 직전에 삼우(三虞)를 지내게 되는 바, 이 삼우(三虞) 초상례(初喪禮)에서 세번째 제사(祭祀)가 됩니다.

삼우(三虞)를 지내고 난 뒤 主人以下 모든 복인(服人)들이 산소(山所)를 둘러보러 가게 되는데, 이 때 안상주들도 함께 산소에 가게되는 것입니다. 안상주들이 산소에 가게 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바깥상주들은 행전(行纏)을 신고 흰바지저고리를 입은 위에 심의(深衣) 또는 중단의(中單衣)를 입고 머리에는 복건을 쓴 그 위에 방립을 쓰고 작지(빈소용 작지와는 다름)를 집고 나서게 되고 안상주는 삼베치마저고리를 입고 작지를 짚고 나서게 되는 것이 전통(傳統)의 복장(服裝)이었습니다.

오늘날 삼우(三虞)날 산소에 가는 밖상주 가운데는 굴건제복(屈巾祭服)을 한 차림이 틈틈이 보이고, 안상주 가운데는 머리에 수질(首絰)을 쓴 차림이 틈틈이 보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의 전통(傳統)차림을 말한 것입니다. 밖상주의 굴건제복(屈巾祭服), 요대(腰帶 : 허리띠), 그리고 안상주의 수질(首絰 : 머리띠), 요대(腰帶 : 호리띠)는 궤연(几筵) 앞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에 그것들은 빈소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사주인(喪事主人)의 옷은 두 가지가 있는 바, 그 하나는 제복(祭服)이요, 다른 하나는 상복(喪服)입니다. 제복(祭服)은 혼(魂)앞에 곡(哭)을 올릴 때 갖추게 될 복장(服裝)인데 밖상주의 복장은 행전(行纏), 굴건(屈巾), 요대(腰帶), 제복(祭服) 작지가 됩니다.

아 복장(服裝)들은 궤연(几筵)앞에서만 갖추게 된 복장(服裝)이기에 행사(行事)를 마치고 난 뒤에는 빈소(殯所)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상주(喪主)가 대문밖을 나갈 때 갖추게 될 복장(服裝)이 있는 바, 그것은 상복(喪服)이라고 말합니다.

삼우(三虞)를 지내고 난 뒤 호상(護喪)이 어느날을 골라서 강일(剛日 : 甲·丙·庚·壬이 든 날) 상주(喪主)들을 보고 졸곡절차(卒哭節次)를 가지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졸곡(卒哭)이란 여지껏 상주(喪主)들이 지내왔던 무시곡(無時哭)을 그만두고 정시곡(定時哭)으로 들어가는 절차(節次)입니다.

무시곡(無時哭)이란 "그칠 때 없이 곡(哭)을 올리는 의절(儀節)"이요, 정시곡(定時哭)이란 "아침 저녁 두 차례 밥상을 올리는 상식(上食) 의절(儀節)때만 곡(哭)을 올리는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곡례(哭禮)

곡(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피를 토하듯한 슬픔의 울음인 곡(哭)이 그 하나이요, 혼(魂)의 안정(安定)을 위하여 올리는 곡(哭) 그 다른 하나입니다.

상주(喪主)의 곡(哭)소리는 "아이고 어찌할고, 아이고 어찌할고"의 준말인 <아이고 아이고>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곡(哭)소리는 "어이할 수 있겠나, 어이할 수 있겠나"의 준말인 <어이 어이>가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 애고 애고>가 선곡(先哭)되면 <어이 어이>가 후곡(後哭)이 되며 <어이 어이> 곡(哭)소리를 <아이고 아이고> 곡성(哭聲)에 대한 화답곡(和答哭) 또는 위곡(慰哭)이라고 말합니다.

남녀계열(男女系列)이 다른 남남끼리의 죽음에서는 서로 곡례(哭禮)가 없게 된다는 원칙(原則)이 있습니다. 서로 곡례(哭禮)가 없다는 것은 선곡(先哭)도 없고 화답곡(和答哭)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려고 하면 상주(喪主)가 선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규칙(規則)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밖어른을 잃었을 때 남들이 외간상(外艱喪)이라고 말하고 안어른을 잃었을 때 남들이 내간상(內艱喪)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男子가 어떤 男子의 외간상(外艱喪)에 문상(問喪)으로 가게 되면 마땅히 곡례(哭禮)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상주(男子喪主)가 선곡(先哭)을 해야만 되고, 어떤 男子가 어떤 男子의 내간상(內艱喪)에 문상(問喪)으로 가게 되면 곡례(哭禮)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상주(男子喪主)가 선곡(先哭)을 해서는 안됩니다. 남녀(男女)의 내외법(內外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상객(問喪客)이 치루게 되는 곡례(哭禮)란 궤연(几筵)앞에 나타나서 상주(喪主)의 곡(哭)소리 "아이고 아이고"를 뒤에 받아서 "어이 어이"하면서 그 궤연(几筵)을 보고 절을 두번 올리는 것을 두고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이와 문상객사이에 남녀계열(男女系列)이 같은 남남끼리 사이에서도 이룩되는 의절(儀節)입니다.

상중(喪中)에 찾아온 사람이 친당(親黨), 본당(本黨), 척당(戚黨) 사람이면 남녀에 걸림없이 상주(喪主)는 빈소(殯所)에서 "아이고 아이고" 선곡(先哭)을 해야만 되고 그들은 상주(喪主)의 "아이고 아이고" 곡성(哭聲)에 대한 화답곡(和答哭)으로 <어이 어이>하면서 궤연(几筵) 앞에서 절을 두 번 하고는 일어서서 다음에는 상주(喪主)를 마주 보고 서로 맞절을 해야 됩니다.

이때 궤연(几筵) 앞에서 향불을 피운다든지 술잔을 올리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내간상(內艱喪)에 찾아온 손님이 남남끼리일 때에는 상주(喪主)는 손님을 빈소(殯所)방이 아닌 곳으로 모시고서 서로 맞절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외간상(外艱喪)에는 남남끼리라 할

지라도 男子 손님일 때는 상주(喪主)는 빈소(殯所)에서 <아이고 아이고> 선곡(先哭)을 해야 되고 문상객(問喪客)으로 온 그 손님은 궤연(几筵)앞에 서서 상주(喪主)의 곡성(哭聲)을 이어받아서 화답곡(和答哭)을 하면서 절을 두 번 하고 난 뒤 상주(喪主)를 마주 보고 서로 맞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드리는 일은 제사의절(祭祀儀節) 가운데 하나입니다. 향불을 피우는 일은 제사(祭祀) 지내는 백관(百官) 가운데서도 주인(主人)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술잔을 드리는 일은 초헌(初獻), 아헌(亞獻)은 고정(固定)된 것이요, 종헌(終獻)만이 주인으로부터 지명(指命)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喪　　禮

유언(遺言)

사람은 누구나 장생불사(長生不死)는 하지 못하고 죽는 병인 즉 병(病)이 침중하여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 病者는 자손에게 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은 死後의 부탁으로 교훈도 있으며, 혹은 財産의 분배 같은 일을 말하여 준것이다. 이것을 유언(遺言)이라 한다.

또한 자손은 병자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慇懃하며 침착한 태도로 간곡히 유언을 청하기도 하며 자세히 기록하여 명심한다.

운명(殞命)

마지막 숨이 지는(氣息絶)것을 운명(殞命)이라 하며, 또는 임종(臨終)이라고도 하는데 운명하기 직전 병자를 시체(屍體) 모실 방으로 옮기고 (遷居正寢), 안밖에 고요하고 정숙(內外安靜)하며, 햇솜(纊)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운명하기를 기다린다.

<註> 예법에 사람이 운명할 때면 방안의 물건을 치우는 것은 죽는 사람의 시체에서 나오는 병독기(病毒氣)를 피하기 위함이며, 햇솜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역시 병독기의 흐터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운명하기 전에 가리기가 너무 박정(薄情)한 듯 하면 운명하는 즉시로 가려야 한다.

또한 옛부터 男子는 女子앞에서 운명을 아니하고(男子는 不絶於婦人之手), 女子는 男子앞에서 운명을 아니하는 (婦人은 不絶於男子之手)것이 예법인고로 운명할 때는 직계(直系)의 존비속(尊卑屬) 이외는 잠시 피하는 것이 가하다.

수시(收屍)

殞命하여 숨이 아주 끊어진 뒤에는 햇솜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남녀가 곡(哭)을 하고, 수시(收屍)를 하는 것이니 시체가 굳기전에 수족(手足)을 고루 주물러서 펴고, 백지로 시체의 얼굴(面上)을 덮고(幠), 머리를 똑바로 괴여 삐뚜러지지 않게 하고 백지나 베헝겊으로 左右어깨(肩)을 단단히 동이고(綴), 두 팔과 두 손길을 곧게 펴서 두손을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놓고 두다리를 곧게 펴놓고 두발길을 똑바로 모아가지고 백지나 베로 동이여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덮어 놓고 다시 곡한다.

고복(皐復)

고복은 이른바 혼 부르기인 것으로 속칭(俗稱)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는데 수시가 끝난 뒤에 시체를 대면(對面) 않은 사람으로서 채반에 밥(白飯) 세그릇(속칭 : 사자밥), 짚신(사자짚신) 세켤레를 담아 대문(大門) 밖에다 놓고 女喪에는 여자가(內喪之用女御), 男喪에는 남자가(外喪之用男御),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상의(上衣), 즉 남자면 두루마기 주의(周衣), 여자면 적삼을 가지고 지붕위에 올라가서(升屋中留) 왼편손으로 옷깃을 잡고(左執領), 바른손으로 옷의 허리를 잡고(右執腰), 북향(北向)하여 옷을 휘두루며, 크고 긴 목소리로 학생모공(學生某公)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 한다. 여상(女喪)에는 유인(孺人) 모관모씨(某貫某氏)라 하고, 또는 남편의 직품을 좇아 모부인 모관모씨(某婦人 某貫某氏) 복 — 복 — 복(復) 세번 부르고 옷은 지붕위에 놓아두거나 또는 갖다가(復畢之卷衣降) 시체위에 덮고(覆尸上哭 男女哭擗無數)한 뒤에 시체를 시상(屍床 : 시체를 올려놓는 상)에 모시되 머리는 남향으로 두고(設席枕 遷屍其上, 南首) 시체 상하를 똑바르게 단단히 고정시켜 기우러지지 않도록 하고 병풍이나 돗자리로 가리어 바람을 막는다. 요즈음은 많이 행해지는 것은 지붕위에도 올라가지 않고 죽은이의 상의(上衣)를 왼손에 쥐고 왼편으로 두루며, 海東大韓民國江原道日月面道溪里居住 건명(乾命 : 남자는 건명)이라 하고 여자는 곤명(坤命)이라 한다. (乙亥生 慶州李氏) 옷찾아 가거라 복 — 복 — 복(復) 부르고 왼발을 세번 구르기도 한다.

喪主와 發喪

수시(收屍)와 고복(皐復)이 끝나면 즉시 머리를 풀고 哭하며 초상(初喪)을 발표하는 것으로, 즉 발상(發喪)이라 하는데 아들·딸 며느리가 머리를 푼다. 복인(服人)들 중 남자상제는 흰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좌단(左袒 : 왼편소매)를 끼지 않고 어깨에 엇메우고 모상(母喪)이면 우단(右袒 : 오른편 소매)를 끼지않고 어깨에 엇메우며,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옷으로 갈아 입는다.

복인들은 금은패물(金銀佩物)과 화려한 의복을 폐지하며, 상주는 시체뫼신 방문앞에 짚으로 만든 벼개와 짚자리(거적·苫席)을 마련하여 거처하며, 시체앞에 부복(俯伏)하여 근신(謹愼)한다. 또한 자손이 없는 백숙부모(伯叔父母) 형제자매(兄弟姉妹), 기타 근친상(近親喪)은 가장 근친(近親)되는 사람이 주상(主喪)이 된다.

〔備考〕 좌단·우단(左袒·右袒)은 옛날에 한 상주가 소창옷(도포와 같은 것)을 입고 상을 당한바 염(殮)을 할때에 소매로 시체의 얼굴을 스치어 불편한고로 한쪽소매를 빼서 뒤로 저치고 염(殮)을 했다고 고사(故事)가 유일한 습관, 즉 예(禮)로 된 것이라 한다. 요즈음 도회지에서는 상가(喪家)의 표

시를 다음과 같이 써서 문밖에 붙이고 발상하는 일도 있다.

호상(護喪)

발상(發喪)이 끝나면, 곧 상주를 대표해서 친족이나 친우중(親友中)에서 가장 상례가 밝고 경험있는 사람을 뽑아 초종범절(初終凡節)을 맡아보는 것이 호상이며, 장례식의 진행에 대한 여러가지 일을 맡아볼 집사자(執事者 : 書司) 몇사람을 정한다. 이때부터 호상은 지필묵(紙筆墨)과 공책(空册), 수건 등을 준비하여 금전(金錢)과 물품(物品)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며, 조객(弔客)의 출입(出入)과 부의금(賻儀金)의 수납(收納)을 일일히 기록한다.

<註> 조문객(弔問客)의 출입을 적는 책은 부상(父喪)에는 조객록(弔客錄)이라 하고 모상(母喪)에는 조위록(弔慰錄)이라 쓰며, 부의(賻儀)의 수납(收納)을 적는 책은 다같이 부의록(賻儀錄)이라고 쓴다. 가급적이면 백지에 붓글씨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護喪時의 準備

① 축(祝) ② 상례(喪禮) ③ 사서(司書) : 조객의 기록을 맡는 사람 ④ 사화(司貨) : 부의(賻儀)의 출납을 맡는 사람 ⑤ 지(紙) : 종이 – 책을 만든것 ⑥벼루(硯) : 혹은 잉크 ⑦ 붓 혹은 철필

전 (奠)

이것을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의 뜻에서 죽은 사람을 生時와 같이 섬기기 위해서 전(奠)을 올리는 것인데 주과(酒果) 포혜로 시상(屍床), (즉, 시체의 오른쪽 어깨부근)에 전을 드리는 것이며, 염습(殮襲)이 끝날때까지 날마다 한번씩 드리는 것이다. 奠을 드리는 것은 슬픔에 가득하므로 상제가 친히 올리지 못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올리며, 절을 하는 절차는 없다.

전(奠)드릴때의 준비

① 탁(卓) : 평상시의 밥상 ② 포 ③ 혜 : 과일이나 채소, 그 밖의 다른것도 씀
④ 술(酒) ⑤ 세수대 ⑥ 수건

관(棺)과 칠성판(七星板)

호상(護喪)은 목공을 명하여 棺을 만들거나 관장(棺匠)에게 부탁하여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 할 것은 시신(屍身 : 시체의 몸)의 길이와 부피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작아도 곤란하지만 너무 관이 커도 보공을 채우려면 큰일인 것이다.

칠성판은 염습(殮襲)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써 시신의 밑에 까는 것이다. 또한 부모 회갑이 지나면 미리 棺을 준비하며 옷칠을 하여 소중히 두었다가 쓰는 예도 있다.

부고(訃告)

護喪은 상주와 협의하여 친족친지(親族親知) 요우(僚友)에게 발서(發書)하여 신속히 訃告를 전한다.

습(襲)과 염(殮)

습(襲)은 향탕수(香湯水), 혹은 애탕수(艾湯水 :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 삶은 물)로 시체를 씻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하는 바 시체의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홑이불로 가리고 씻는다.

염(殮)은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있으니 시체에 수의(壽衣)를 입히는 것이 소렴이요, 입관(入棺 : 관에 뫼시는 것)하는 것이 대렴이라 한다. 이상 아래와 같이 습염제구(襲殮諸具)의 준비절차를 세분하여 기술한다.

목욕준비(沐浴準備)

1. 향탕수(香湯水) 두그릇 : 시체의 상하에 놓는다.
2. 새 솜과 새 수건 각 세벌 : 시체의 머리, 윗몸, 아래몸을 씻고 닦는 것으로 각각 놓는다.
3. 주머니 다섯개 : 목욕한 머리털, 좌우 손톱 발톱을 각각 깍아넣는 주머니(오양이라 한다.)
4. 유잠(버드나무 비녀) : 여자에 한함.

수의준비(壽衣準備)

수의는 가세빈부(家勢貧富)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니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복건(幅巾) : 검은 명주베로 만든것과 일반인 모자
2. 두건(頭巾) : 머리에 씌우는 수건(手巾)과 같은 것.
3. 망건(網巾) : 머리털을 쌓는 것이니 검은 비단으로 하며, 총망건(총網巾)과 같다.
4. 명목(瞑目) : 얼굴 싸매는 것으로 명주베로 四方 1尺2寸으로 四角에 끈을 단다.
5. 악수(握手) : 손싸매는 것으로 길이 1尺2寸으로, 넓이 5寸으로 한다.

6. 충이(充耳) : 새 솜으로 대추씨 같이 만들어 귀를 막는 것이다.
7. 속옷(內衣) : 속적삼, 속바지
8. 외의(外衣) : 바지, 저고리, 버선, 대님, 요대(腰帶 : 허리띠), 행전(行纏), 두루마기, 조대(條帶), 대대(大帶), 토수(吐手), 신(履 : 명주베에 종이를 부쳐서 만든 신), 여자의 수의저고리, 적삼(紅黃綠, 三作), 속것, 단속것, 바지, 큰허리띠, 홍상(紅裳 : 붉은치마), 청상(靑裳 : 푸른치마), 원삼(圓衫), 조대(條帶), 대대(大帶), 머리가리는 裹頭, 명목(瞑目), 악수(握手)
9. 천금(天衾) : 시체를 덮은 홑이불
10. 지금(地衾) : 시체밑에 깔 겹이불
11. 속포(束布) : 시체 묶은것
12. 반함(飯含)에 쓰이는 버드나무 숫가락 한개, 쌀 한홉, 무공주(無孔珠) 세개를 준비한다.

염습준비(殮襲準備)

습염준비가 된 뒤에는 습염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향탕수를 들여오면 상인이하(喪人以下) 모두 장외(場外)로 나와 북향하여 곡하고, 다시 들어가 시체의 입었던 의복과 초혼한 의복을 다 벗기고 새솜으로 향탕수를 찍어가지고 머리털을 씻은 후 빗질하여 수건으로 닦고 남상(男喪)은 상투를 짜고 여상(女喪)은 당지(唐只)따서 버드나무 비녀를 쪽진다. 또한 시체를 목욕시키는데는 향탕수를, 윗것은 위, 아래것은 아래만 구별하여 씻기며, 솜과 수건도 역시 머리, 윗몸 아래몸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머리털, 수갑(手甲 : 손톱), 족갑(足甲 : 발톱)을 다듬은 것은 좌우수족을 분별하여 오양(주머니)에 넣었다가 입관(入棺)할 때 제자리에 같이 넣으며, 속것과 적삼 입히고 망건 씌우고, 버선 신긴후 이불로 덮고 집사자(執事者)는 수의복(壽衣服)을 조사해 가지고 생시의식(生時儀式)과 같이 한다.

우선 습상(襲床 : 정한 침석)을 펴놓고 심의(深衣 : 두루마기), 중치마, 저고리를 함께 겹하여 바르게 펴놓고 바지 입히고 버선, 대님, 행전, 요대(허리띠)를 다 맨후 네사람이 시체상하(屍體上下)를 일제히 들고서 먼저 외의(外衣 : 겉옷)을 겹쳐 펴놓고 아래로 부터 위로 차츰 올려가지고 좌우수(左右手)를 옷소매로 빼고 옷을 여민후 매지는 말고 졸습(卒襲)을 기다리며, 다시 이불을 덮고 전(奠)을 올리는데 예배(禮拜)는 없으나 대곡(大哭)을 시작하여 그치지 않는다.

설전(設奠)

전(奠)은 酒·果·脯·醢로서 우혜하여 상(床)을 시체 동편에 놓고 집사(執事)가 손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체 동쪽(시체의 오른쪽)에 들이되 어깨 부근에 놓고 상인이하(喪人以下) 애곡(哀哭)하고 이어서 맏상인이 반함(飯含)한다.

이와 같이 염습(殮襲)과 성복(成服)이 끝난 뒤에는 아침 저녁 끼니때에 상식(上食)하고 곡(哭)한다.

반함(飯含)

설전(設奠)을 마치면 맏상인은 哭하며, 좌단(左袒 : 왼쪽소매)을 바른쪽 허리에 꽂고 무공주(無孔珠 : 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 세개를 담은 그릇을 받들고 쌀(깨끗이 닦은 생쌀 반수저 가량) 담은 그릇에 유목시(柳木匙 : 버드나무 수저)를 꽂아 가지고 들어가서 명건(命巾)으로 시체면상(屍體面上)을 덮고 상인 시체 동편 발치로부터 서편으로 쫓아 올라와서 동면(東面)하고 앉아 시면(屍面) 덮은 명건(命巾)을 들고 버드나무 숫가락으로 쌀을 조금 떠서 입 우편구(右便口 : 오른편입)에 넣고(쌀은 왼편으로 부터 뜬다함) 동시에 무공주(無孔珠)를 넣되 왼편과 가운데도 이와 동일하게 하고 햇솜 면주(綿紬 :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솜)에 싸서 턱 아래를 보공(補空 : 채우는 것)하고 복건(幅巾)을 씌우고 충이(充耳)로 좌우이공(左右耳孔)을 막고 명목(瞑目)을 덮고 신을 신키고 심의(深衣)를 걷우어 여미되 옷깃은 산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미고 조대(絛帶), 대대(大帶)를 동심결(同心結)로 매고 악수(握手)를 맨다. 이것이 졸습예필(卒襲禮畢)이다. 이것이 끝나면 다시 이불로 덮고 시상(屍床)에 모신다.

소렴(小殮)

소렴은 즉 수의(壽衣)를 입히는 예식으로 사망(死亡)한지 제이일(第二日) 아침에 소렴하는 것으로 첫째 깨끗한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펴 놓은 다음 속포(束布) 20尺을 일곱구비를 서려놓고 장포(長布) 20尺을 길이로 깐 다음 시체를 그 위에 뫼신 후 수의 상하의(壽衣 上下衣)를 각각 겹쳐서 아래서 부터 위로 치올려 입힌다음 벼개를 내놓고 옷을 접어서 시체의 머리를 반듯하게 괴이고 몸을 바르게 한 다음 새 솜으로 어깨를 보공(補空 : 들어간 곳을 채우는 것)하고 좌우를 거두어 매고 다시 양쪽다리를 옷으로 보공한 후 발끝까지 똑바르게 한뒤 수의를 왼편으로 부터 여미되 옷고름은 매지 않고 손은 악

수(握手)로 싸매고, 명목(瞑目)으로 눈싸매고 복건(幅巾), 두건(頭巾)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끝을 짜개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을만큼 끊어서 속포 한쪽끝을 세 갈래로 쪼개어 아래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 폭은 일곱폭이나 묶는 매수는 2매가 되는 것이다.

망인(亡人)이 여자일 경우 수의 입히기 까지는 여자가 하고 이후는 남자가 하는 바 이것이 소렴예필(小殮禮畢)인바 다시 시상(屍床)에 뫼시고 애곡한 후 상인남녀(喪人男女) 머리 푼것을 걷우어 매고 남자는 포두건(布頭巾), 포중단(布中單)을 입고 자리에 나가 애곡하고 집사자가 전(奠)을 올리는 바 상인은 애통망극(哀痛罔極)할 뿐 배례(拜禮)는 있는 것인즉 이것이 망인(亡人)에 대한 최후의 봉사이니 상주이하 근친일동(近親一同)이 지성을 다하여야 한다.

대렴(大殮)

소렴(小殮)이 끝나면 그 이튿날, 즉 사망한지 제삼일(第三日) 여명(黎明 : 동틀때)에 소렴때 전(奠)을 올렸던 상을 물리고 대렴식을 준비하는 바, 먼저 관(棺)을 갖다가 중당(中堂 : 시체옆)에 놓고 출회(숯가루나 석회)를 관속에 펴서 관바닥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두터운 백지를 두서너겹 깔고 지금(地衾)을 깔고 벼개를 놓은 다음 칠성판(七星板)을 놓고 (入棺한 대로 장사지낼때는 칠성판은 없어도 좋음) 大殮布 30尺에 횡포(橫布 : 가로매) 두매를 놓고 每1幅을 놓고 양끝을 셋으로 쪼갠 후 그위에 대렴금(大殮衾)을 펴놓고 상의와 산의(上衣와 散衣)를 놓은 후 소렴한 시체를 받들어 그위에 뫼시고 먼저 발을 여미고 다음에 머리를 여미되 먼저 좌편을 여민 후 나중에 우편을 여미고 먼저 장포(長布)를 세매로 묶고 횡포(橫布)를 매는데 좌우(左右) 각 다섯쪽만 묶고 한쪽은 제쳐 놓으니 모두 다섯매로 묶은 후 시체를 받들어 입관(入棺)하고 오랑을 관상하(棺上下)에 넣은 후 생시에 입던 의복이나 백지로 관속을 채우고 천금(天衾)을 덮으며, 상인이하 諸服人이 哀痛하고 천개(天蓋 : 관뚜껑)를 덮고 은정(隱釘 : 나무못)을 박고 명정(銘旌)은 써서 관동편에 세우고 장지(壯紙)로 棺을 쌓아서 노끈 50把(50발)로 내결관(內結棺)하고, 또 다시 초석(草席 : 집자리)으로 쌓고 백지로 싼 가는 동아줄로 외결관(外結棺)하여 정당정침(正堂正寢)에 뫼시고 천금(天衾 : 관덮은 홋이불을 반으로 나누어 上은 검은색으로 下는 붉은색으로 만든 이불)으로 棺을 덮고 영좌(靈座)를 배설(排設)하고 전(奠)을 올리되 소렴절차(小殮節次)와 같이하고 상인이하가 요질(삼으로 만든 허리띠), 수질(首絰 : 삼으로 만든 머리테두리)를 벗지 아니하고 조석곡(朝夕哭)을 시작한다.

영좌(靈座)

대렴(大殮)이 끝나면 棺을 정침(正寢)에 뫼시고 그앞에 휘장(揮帳)을 치고 교의(交椅)에 사진이나 혼백을 모시고 그 앞에 제상(祭床), 그앞에 향상(香床)을 놓고 향로(香爐), 향합(香盒), 모사기(茅沙器), 촉대 1쌍(燭臺 1雙), 모(茅 : 띠)등 망인이 生時에 사랑하는 물건을 갖다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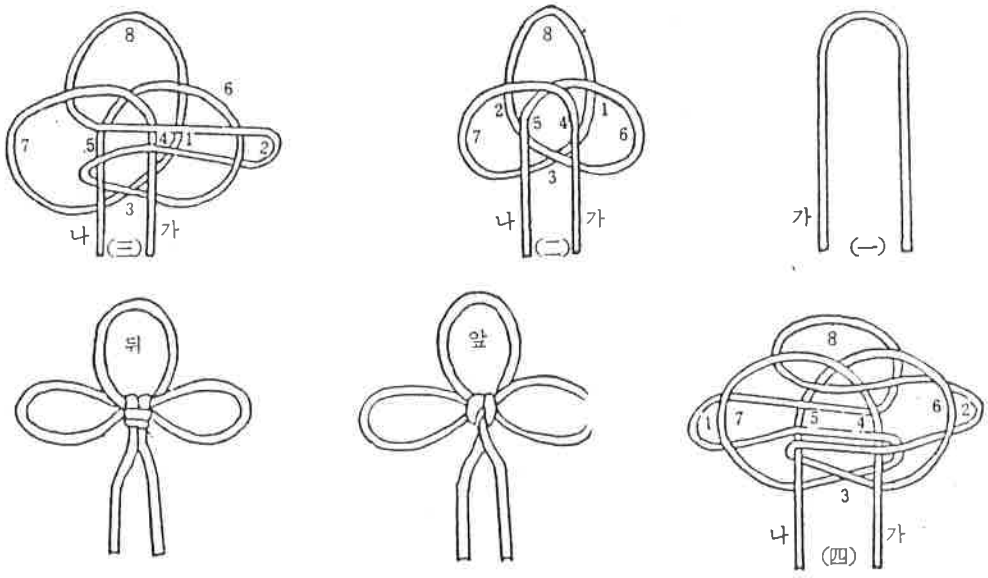
명정(銘旌)

명정(銘旌)은 죽은 사람의 명패(名牌)로 넓이 1尺5寸, 길이 7尺가량되는 붉은 명주(明紬)나 금포(錦布)에 흰글자로 학생모관모공지구(學生某貫某公之柩)라 쓰고 벼슬이 있으면 벼슬이름을 쓰며, 여자는 유인모관모씨지구(孺人某貫某氏之柩)라 쓰고 또한 남편의 직품(職品)을 좇아 모부인모관모씨지구(某夫人某貫某氏之柩)라 써서 대나무에 달아 관뫼신 동편에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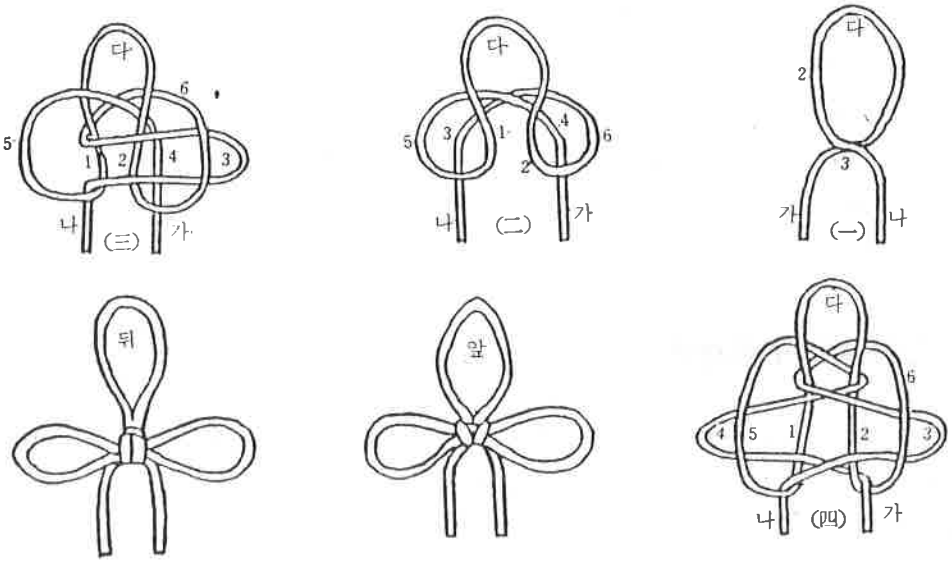
<例> 學生南陽洪公之柩　理事官　新昌孟公之柩
孺人達城徐氏之柩　哲學博士江陵於公之柩

同心結 매는 법

<경사에 쓰는 것>



<흉사에 쓰는 것>



성복제(成服祭)

사망(死亡)한지 第四日(대렴이 끝난 그 이튿날)에 상인이하(喪人以下) 내외복인(內外服人)이 각각 준비된 상복(喪服)을 갈아입고 영좌(靈座)앞에 형세에 따라 제상(祭床)을 갖추어 제물을 차려놓고 혼백(魂帛)을 교의(交椅)에 뫼시고 분향(焚香)하고 잔을 올리는데 단작(單酌)이 원칙이나 喪人과 服人이 자서제질(子婿弟姪 : 아들, 사위, 아우, 조카)의 차례로 잔(盞)을 올리고 곡하며, 재배하기도 하고 지구(知舊)도 분향재배(焚香再拜)하며 남자상인들은 영구(靈柩)의 동편에서 여자상인들은 서편에서 서로 마주서서 하고 제자손(諸子孫)이 조부(祖父), 백숙부(伯叔父), 조모(祖母), 백숙모(伯叔母)의 차례로 손윗사람 앞에 꿇어 앉아서 哭하며 절한다.

喪人은 이제부터 상장(喪杖)을 집는바 부상(父喪)이면 유장(柳杖 :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註> 成服以前에는 喪人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조례(吊禮)도 하지 않는 법이며, 술도 권하지 않는 바 成服祭에는 祝文도 없고 잔도 한번만 올린다.

家風에 따라 잔도 세번 올리고 成服祝은 없으나 祝을 읽기도 하는데 祝은 『虞祭祝文』의 奄及初虞를 奄及成服이라 하고 哀薦祫事를 哀薦服事라고 쓰면 된다. 祭物陳設에는 紅東果하고 白西果하여 造果는 中央에 놓는다. 특히 알아둘 점은 小殮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을 시작하고 大殮한 날부터 朝夕哭을 시작하며, 成服日부터 朝夕上食을 하는 법으로 生時와 같이 三年間 朝夕上食을 올리며 小祥 지낸 후에 朝夕哭은 廢止한다.

분상(奔喪 : 외방에서 부모상을 당하였을때)

객지(客地)에서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여 돌아옴을 말하는 것으로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로 哭하며, 흰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즉시 떠나 집에 이르러 먼저 시신(屍身)앞에 나아가 哭하며, 再拜한 후 변복(變服)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가게 될 때는 그곳에서 設立하고 발상(發喪)하며, 혹 장사(葬事)지낸 후에 오게되면 먼저 산소로 가서 哭再拜하고 그때까지 成服을 못하였거든 산소에 가소 成服한다.

조상예식(弔喪禮式)

조상(弔喪)은 원래 成服後에 하는 것으로 成服前에는 가까운 일가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가서 喪主에게만 人事를 하고 靈柩에 대해서는 절을 하지 않으며, 成服後라도 亡人과 對面이 없거나 여자인 경우에는 절하지 않고 喪主에게만 人事한다. 한편 조문은 成服後라 하였으나 옛날에는 장사지내는 날짜가 여러 날이어서 그와 같이 한 것으로 요즘에는 날짜가 빠르므로 친한 사이라면 부고(訃告)가 없더라도 즉시 가서 상인을 위로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조상(弔喪)하는 순서는 먼저 조객(弔客)이 호상(護喪)에게 성명(姓名)을 통하고 들어가면 喪主는 일어나서 哭을 한다. 弔客은 靈柩모신 쪽을 향하여 哭을 하고 再拜한 다음 다시 喪主에게 절하고 인사를 한다. 喪中에는 喪主가 哭하는 것은 일정한 때가 없는 것이다.

1. 곡(哭)하는 법

〔통곡(痛哭)〕=통곡은 祖父母, 父母, 兄弟등의 喪을 당한 직후에 자신의 몸둘곳을 모르고 식음(食飮)을 전폐하고 아프게 우는 것을 말한다.

〔애곡(哀哭)〕=애곡은 상을 당한 후 시간이 경과되면 서러운 정도가 처음과 자연 다르게 되어 때때로 설움이 북받쳐 울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애곡(哀哭)이다.

〔예곡(禮哭)〕=喪主가 弔客을 맞이할 때 상주의 예(禮)로서 하는 哭이다. 예곡(禮哭)은 낮은 목소리로 『애고, 애고(哀告, 哀告)』하여 弔客의 慰問을 禮答하다가 弔客이 자리를 떠나면 그치는 것이 禮哭이다.

〔조객곡(弔客哭)〕=『허희 허희(噓唏)』하며 서러워 한다. 보통은 이 『허희·허희』를 『어이·어이』로 소리내어 哭을 한다. 또한 상사(喪事)에서는 웃지를 아니하고 柩(널)을 보면 노래를 하지 아니하며, 상가(喪家)에 들어갈 때는 빨리 걷지 아니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곡성(哭聲)에 대한 문제이다. 슬픔에 가득찬 상가(喪家)이므로 주위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근신(謹愼)을 한다는 뜻에서도 고쳐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지으면 될 것이지 억지로 꾸며 고성대곡(高聲大哭)으로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히 도회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혼백(魂帛) 접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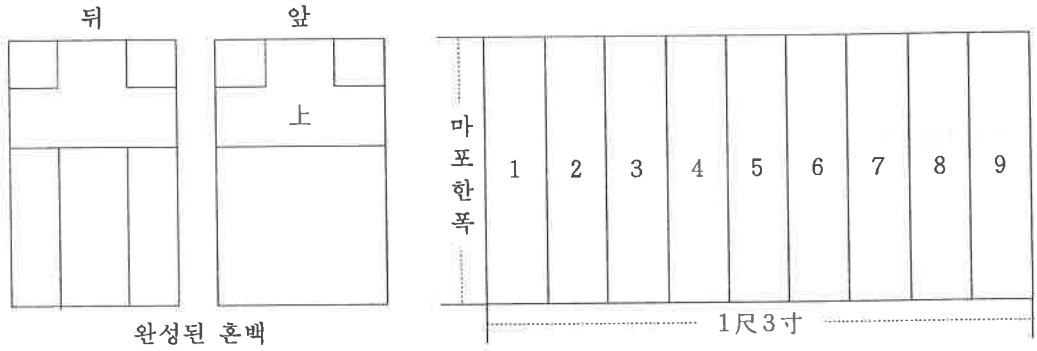
① 마포(麻布) 한폭과 길이 1尺3寸을 쓰되 길이를 1寸5分씩 8幅으로 남는 것이 1寸이 된다. 이것을 펴서 便利上 1~9까지의 순위로 정하여 그림과 같이 하여 접기 시작한다.

② 그림의 번호1을 번호2와 맞닿게 접는다.

③ 번호3을 반등분 하되 3이 보이게 접어서 1의 뒷면에 가게 접는다.

④ 번호4를 접되 4가 보이게 하여 2의 뒤에 가게 접는다.

⑤ 번호5의 중간을 접되 5가 속으로 들어가게 접어서 1의 뒷면에 가서 3과 마주되게 접으면 번호5는 보이지 않게 된다.



⑥ 6과 4가 서로 맞닿게 접으면 6은 보이지 않게 된다.

⑦ 7을 접어서 6의 뒷면에 붙이면 7은 보이게 됨.

⑧ 8을 7과 맞닿게 붙여서 접는다.

⑨ 4와 6의 사이를 벌리고 가로의 상변(上邊) 윗변을 접어서 4와 6에 붙게 안으로 접고 벌리기 전대로 접는다.

⑩ 7과 8의 사이를 벌리고 가고(橫)의 아랫갓(下邊)을 1접어서 7과 8이 붙게 안으로 접고 벌리나 전대로 접는다.

⑪ 9를 접되 4의 아랫갓과 윗갓을 접은 것을 쌓아서 꽂으면 된다.

⑫ 그림과 같이 『上』을 백지로 표시하되 번호8의 뒷면이 안으로 가게하는 것이다.

만장(輓章) 쓰는 법

만장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에서 글을 지어 상가에 보내는 것으로 만사(輓詞)라고도 한다.

만장 첫머리에는 근조(謹弔)라 쓰고 끝에는 자기의 성명(姓名)을 쓰되 ○○本後 ○○○(姓名) 哭再拜(例 : 蔚州後人 朴龍虎哭再拜)라 쓴다.

장례절차(葬禮節次)

옛날에 天子는 아홉달장(九月葬)하고 제후(諸侯)는 다섯달장(五月葬), 대부가(大夫家)에서는 석달장(三月葬), 사부가(士夫家)나 서인(庶人)은 한달장(一月葬)을 했다 하나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三日葬을 지내며, 형편에 따라서는 五日葬도 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出地를 정하고 장사택일(葬事擇日)을 본 후 참파토(斬破土 : 무덤을 만들려고 땅을 파는일)를 하고 개기사토지지신(開基祠土地之神)에게 주과포혜로 奠을 올리고 祝읽으며, 선영(先塋)에 장사할 때는 주과포혜로 전(奠)올리고 祝읽으며, 또한 선장(先葬)에 합폄(合窆)할 때도 잔올리고 祝읽는다.제후

영결(永訣)

영결은 亡人과 최후의 고별(告別)이니 靈柩를 자동차나 상여(喪輿)에 뫼신뒤에 상여앞에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고 상주(喪主)가 분향(焚香)하고 단작(單酌)으로 잔을 한다음 견전고사(遣奠告辭)를 읽은 다음 再拜한다. 그 다음으로 친척과 弔客은 차례로 분향하고 再拜한다.

<註> 옛날에는 발인(發靷) 전날 새벽에 빈소(殯所)를 열고 계빈축(啓殯祝)을 읽는다.

계빈축(啓殯祝)

今以吉辰遷柩 敢告 妻以下는 敢告라 쓰지 않고 玆告라 한다. 또는 發靷날 새벽에 祠堂을 하직하는 禮節로써 朝祖祝을 읽는데 가묘(家廟)가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 관(棺)을 청사(廳事)로 옮긴 다음 祝으로 遷柩祝을 읽는데 廳事가 없으면 柩머리를 세번 들었다 놨다 한다.

천구축(遷柩祝)

청천구우청사(請遷柩于廳事)

그리고 조전(祖奠)을 올리고 祝을 읽는데 친척지구간(親戚知舊間)이 다 참례한다. 영천지례 영신불류 금봉구거 식준조도(永遷之禮 令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다음으로 棺을 상여로 내모실때 천구취여축(遷柩就輿祝)을 읽는다.

금천구취여감고(今遷柩就輿敢告)

그 다음으로 관을 뫼시고 문밖으로 나와 영이에 뫼시고 견전축(遣奠祝)을 읽는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靈輀旣駕 往卽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註> 영결종천(永訣終天)을 아내의 喪일때는 불승감창(不勝感愴)이라 하고 아들喪에는 심언여훼(心焉如毁)라 하고 아우喪에는 비불자승(悲不自勝)이라 한다.

옛날에는 葬禮期間이 길고 가정에 祠堂이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예를 올렸으나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遷柩祝 遷柩就輿祝 遣奠祝만 읽는다.

발인(發靷)

이상과 같이 영결식이 끝나면 즉시 發靷을 시작하는 바 그 행렬(行列)은 명정(銘旌)을 선두(先頭)로 등롱(燈籠), 공포(功布), 만장(輓章), 요여와 배행원(陪行員) 영구와 시종(靈柩侍從), 복인(服人), 친척(親戚), 조객(弔客)의 순서로 墓地를 향하여 발인한다.

특히 요여 배행원(陪行員)은 복인 아닌 친척이 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복인(服人)이 陪行하게 되는 경우에는 巾과 행전을 벗고 따르는 것이 예법으로 되어 있으며, 靈柩侍從들은 소가사위들이 靈柩의 양갓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예법으로 되어 있다.

조전로제(弔奠路祭)

조전로제(弔奠路祭)란 발인(發靷)하여 묘지에 이르는 동안에 망인(亡人과의 친빈(親賓)) 또는 친척중의 뜻있는 사람이 성외의 적당한 장소에 병풍이나 장막으로 제청(祭廳)을 꾸미고 영구(靈柩)를 뫼신 다음 그 앞에 제물을 차리고 本人의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분향(焚香)하고 술잔 올린 뒤 꿇어 앉아 제문(祭文)을 읽으며, 상주이하(喪主以下) 복인(服人)들과 같이 곡배(哭拜)한다.

정상(停喪)

산소(山所)에는 미리 영구(靈柩)를 뫼시고 상인(喪人)과 조객(弔客)이 거처할 묘상각(墓上閣), 제청(祭廳), 정상소(停喪所)등을 준비하고 영구가 산상(山上)에 도착하면 집사자(執事者)가 요여(腰輿)의 혼백(魂魄)을 내어 제청교의(祭廳交椅)에 뫼시고 전(奠)을 올리고 관(棺)의 외결관(外結棺)을 풀어 제청(祭廳)에 뫼시되 괴임목 놓고 공포(功布)로 관(棺)을 씻고 구의(柩衣)를 덮고 명정(銘旌)을 풀어 棺위에 덮고 상인내외(喪人內外)가 애곡(哀哭)하되 부인들은 휘장(揮帳) 안에서 東向하여 곡(哭)하고 친척과 손님들은 휘장 밖에서 곡하며 재배(再拜)하고 하관(下棺)의 시간을 기다린다.

천광과 회격(穿壙灰隔)

천광(穿壙)은 광중 파는 것과 회격(灰隔)은 광중안에 회닿이는 것으로 이때에 산신제(山神祭)와 사토지신제(祠土地神祭)가 있으나 이것은 상인이외 사람이 지내게 되며, 이는 묘소의 왼편에 남향(南向)하여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고 고사자(告祀者)가 신위앞에 북향(北向)하여 분향재배(焚香再拜)하고 술을 부어 놓고 독축(讀祝)하고 再拜한다.

山神祭祝

維歲次乙丑四月己未朔三日辛酉　幼學申龍虎(告祠者姓名)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某公　營建宅兆(平土後에는 窆玆幽宅)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淸酌　脯醢　祇薦于神　尙饗(祝文은 縱書로 쓰는 것이 原則)

또한 先山內에 장사(葬事)하려면 선영(先塋)에 먼저 동강선영고사제(同岡先塋告辭祭)를 지내되 제일 윗대 어른이나 또는 墓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뫼신분에게 지낸다.

하관과 성분(下棺成墳)

천광(穿壙)과 회격(灰隔)이 끝나면 하관(下棺)할 시간을 맞추어 내결관(內結棺)을 풀고 공포(功布)로 관을 씻고 영구(靈柩)를 안정(安靜)히 뫼시어 하관하고 이의를 덮고 그위에 명정(銘旌)을 펴놓고 喪主가 폐백(幣帛 : 파랑 비단실과 붉은 비단실로 동승결을 맺인 것)을 드리는데 棺의 東上便에 훈(붉은 것)을 놓고 상인이 곡재배하고 친척빈객(親戚賓客)이 다 애곡(哀哭)하고 횡대(橫帶)덮고 격회평토(隔灰平土)하고 지석(誌石)묻은 다음 영좌(靈座)를 옮기고 제상(祭床)에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고 상주가 분향(焚香)하고 상주이하(喪主以下) 참사자가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題主祝

維歲次 乙丑四月己未朔三日辛酉　孤子　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旣成(神主를 못하면 神主未成 魂魄因存)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神未造則 仍舊是依)

〔참고〕 父喪에는 孤子라 하고 母喪에는 哀子라 하며, 부모구몰(父母俱歿)에는 孤哀子, 承重에는 孤孫, 哀孫이라 하고 平下사람에게는 敢昭告于에 敢字를 쓰지 않으니 妻에게는 昭告于, 아우에게는 兄告于弟, 아들에게는 父告于子, 承重에 祖父에게는 현조고(顯祖考), 조모(祖母)는 현조비(顯祖妣), 처상(妻喪)이면 망실(亡室)이라 하고 남자가 없고 부인이 주장(主掌)할 때는 자칭 신부(新婦)라 하고, (新婦金氏 敢昭告于 顯舅學生府君이라 한다.) 男便에는 主婦金氏 敢昭告于 顯辟府君이라 하며, 또한 伏惟尊靈을 平下人에게는 惟靈이라

한다. 이때에 神主를 갖추게 되면 흙을 메우기 전에 쓴다. 형체(形體)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면 神과 魂이 떠서 머무를 곳이 없으므로 形體가 구덩이에 들어가면 곧 神主를 쓰는 것이라 한다.

神主를 모시면 魂魄은 墓에 묻으며, 복(復) 부른옷도 이때 같이 묻기도 한다. 平土祭가 끝나면 魂魄 또는 神主를 요여에 받들어 올리고 분향하고 상주이하가 哭을 하면서 반우(返虞)하고 新賓中 착실한 사람을 擇하여 산역(山役)을 감시하도록 한다. 이때에 壙中에 平土하면 後土에게 山神祭를 지내는데 절차는 앞에 산소의 지경을 열때의 절차와 같이 하고 祝文도 참조하기 바란다.

<註> 夫妻의 合葬時는 男子는 오른편에 여자는 왼편이며, 원비(元妣·正室)로 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조역(兆域)을 한다. 또한 考位와 妣位의 棺의 길이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머리를 같이하는 것이다. 誌石은 돌에 좌향과 누구의 묘라는 것을 새겨서 묻는 것인데 보통은 사기그릇 안에다 먹으로 써서 짚불에 쪼여서 습기를 없앤후 묻는 것이다.

반우(返虞)

평토(平土)하여 제주제(題主祭)가 끝나면 神主 또는 魂魄을 모시고 돌아오는 것이 반우(返虞)라 하며, 형체(形體)가 둔석에 돌아가셨은즉 所重이 神主에 있으니 산소에는 哭拜치 않고 神主를 뫼시고 돌아오는 바 등롱(燈籠), 요여(腰輿), 神主 혹은 혼백(魂魄)을 모시고 배행인원(陪行人員), 喪人, 服人이 뒤를 따른다. 만일 오는 도중에 시가지(市街地)나 여리(閭里)를 당하면 상인은 哀哭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자가 영좌(靈座)를 배설(排設)할 궤연(几筵)을 마련하여 혼백을 교의(交椅)에 모시고 곧 반우제(返虞祭 : 즉 초우(初虞)를 말함)를 지낸다.

초우(初虞)

초우제(初虞祭)는 장사지낸 당일에 지내는 법으로 만일 장지(葬地)가 멀어서 당일에 집에 도착하지 못할 때는 도중 숙박(宿泊)하는 집에서 지낸다. 초우제(初虞祭)부터 제례(祭禮)에 의하여 지내는 제사인 바 초우제는 반우(返虞)후에 지내게 되므로 자연 늦어진다. 신주모신 궤연(几筵) 앞에 제물진설(祭物陳設)하고 신주를 내어 모시되 신주가 없으면 지방(紙榜)을 모시고 맏상주(喪主)가 분향곡재배(焚香哭再拜)하면 참사자(參祀者)도 같이 哭再拜(참신을 말함)하고 반갱(飯羹 : 밥과 국)을 올린후 맏상주가 분향하고 잔을 올린다. (즉 初獻) 이때 적(炙)을 올리고 哭再拜하고 젓가락을 바로 (正箸)하고 밥그릇 뚜껑을 열고 상인은을 곡을 그치고 내외제관(內外祭官)이 엎드린 다음 祝을 읽게 된다.

우제축(虞祭祝)

維歲次　甲辰壬寅朔二十五日丙戌　孤子　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再虞는 재우라 하고 三虞는 삼우라 한다)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淸酌庶羞　哀薦祫事 (再虞에는 虞事, 三虞에는 成事라 함) 尙饗

<註>　兄喪에는 夙興夜處 哀慕不寧을 悲痛無已 至情如何라 하고 아우喪에는 悲痛猥至 情何可處 玆以淸酌庶羞 陳比祫事라 하고 妻喪에는 悲悼酸苦 不自勝堪 玆以 淸酌庶羞 陳比祫事라 한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喪人以下 祭官이 哭한 후 初獻잔을 퇴주하고 종부(宗婦)가 아헌(亞獻)을 올린다. 분향(焚香)하고 잔 올리고 적(炙)올린 다음 곡사배(哭四拜)한다.

잠시후 아헌잔을 퇴주하고 자서제질중(子婿弟姪中)에서 三獻을 올리는 것으로 잔올리고 적(炙) 올리며 곡재배한다. 그러면 執事가 분향하고 빈잔에다 술을 따라 가지고 三獻한 잔에다 첨작하고 숟가락을 메가운데 꽂고 궤연(几筵) 방문을 닫고 상인이하 제관이 모두 문밖에 나와(闔門이라 함) 한식경(一食頃) 동안 끓어 앉았다가 執事가 세번 기침하고 문을 연 후 喪人以下가 모두 들어가서 喪人은 哭하고 국(羹)을 물리고 숙냉(熟冷)을 올리고 숟가락으로 밥 세숟가락을 조금씩 떠서 숙냉에 말고 숟가락은 숙냉그릇에 걸쳐놓고 조금 있다가 밥그릇 뚜껑을 덮고 시저(匙箸)를 다 내려놓고 집사가 상인(喪人) 오른편에 서서 읍(揖)하며, 이성(利成 : 즉 제사의 절차를 마치었다는 뜻)을 告하면 喪人以下 참사자가 곡재배하면 魂魄의 뚜껑을 덮으며 祝文을 불사르고 철상하면 제사는 끝나는 것이다.

<註>　만일 해가 중천에 우제(虞祭)를 지냈으면 저녁상식은 마땅히 올리는 것이다. 우제가 늦었을 경우는 저녁상식은 올리지 안해도 되고, 그러나 만일 여관에서 머물렀을 때에는 합문(闔門), 계문(啓門), 이성(利成)등을 省略하여도 무방하다.

재우(再虞)

재우(再虞)는 초우(初虞)뒤에 첫 유일(柔日)이 닿는 날에 지내는 것이다. 유일이란 일진(日辰)에 천간(天干), 즉 십간중(十干中)에서 우수(偶數)의 날을 말하는 것이니, 乙·丁·巳·辛·癸가 든 날이면 유일(柔日)이 되는 것이다. 그 제사 지내는 禮와 祝文은 앞에 記述한 初虞를 참조하기 바라며, 하루 전날에 제수(祭需)를 갖추어 그 이튿날 유일에 날이 밝을 때에 행사(行祀)한다. 만일 산소가 멀어서 반우도중(返虞途中)에 유일이 들으면 숙소(宿所)에서라도 행사하여야 한다.

삼우(三虞)

삼우(三虞)는 재우(再虞) 뒤의 강일(剛日)이 닿는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강일(剛日)이란 일진(日辰)에 천간(天干)의 십간중(十干中)에서 기수(寄數)의 날을 말하는 것이니, 甲·丙·戊·庚·壬이 든날이 강일(剛日)이 된다. 삼우(三虞)의 예(禮)도 초우나 재우와 같으며, 만일 묘가 멀어서 반우도중(返虞途中)에 강일(剛日)을 만날지라도 그 禮는 행사(行祀)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 후에 강일(剛日)이 닿은날 삼우를 지내는 것이며, 강일에 집에 도착하여도 도착한 날에는 三虞를 行祀치 않는 법이다.

졸곡(卒哭)

졸곡(卒哭)은 초상후 석달(三個月)되는 날 강일(剛日) 甲·丙·戊·庚·壬에 지내는 제사이다. 즉 졸곡은 슬프면 수시로 哭하던 무시곡(無時哭)을 마치고 조석(朝夕)으로 곡한다는 예(禮)인 것이다. 제사의 절차는 虞祭와 같으나 다만 현주(玄酒 : 제사때 술대신으로 쓰는 냉수)병을 술병 西쪽에 진설하는 것이다.

졸곡축(卒哭祝)

維歲次 壬寅正月甲子朔 初三日丙寅 孤子 某 敢昭告于

顯 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叩地昊天 五情摩潰 謹以 淸酌庶羞 哀薦成事 尙饗

<註> 만일 부제사(부祭祀)를 지내려면 哀薦成事來日 제부 于祖考學生府君 (祖母喪에는 祖妣孺人 金海金氏) 尙饗이라 한다.

祭　　禮

제사(祭祀)

제례(祭禮)란 제사 지내는데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禮)가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제사를 등한(等閑)해 한다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조상없는 자손이 어디 있드냐』고 말씀하신 어른들의 가르치심을 들지 않더라도 역시 나를 낳아 길러 주시고 돌봐주신 선조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예로써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라 생활에 바쁘고 일에 쫓기는 오늘날 한가해 부모나 조상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一年에 한차례 돌아오는 제삿날만이라도 보은감사(報恩感謝)의 뜻을 가지고 예를 지켜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년 동안 오대봉사(五代奉祀)니 사대봉사(四代奉祀)니 하여 종가(宗家)의 종손들이 제사를 지내왔다. 이것이야말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 불리어지는 한민족(韓民族)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모든 것이 형편에 맞도록 차리고, 다만 정성껏 지내면 될 것이다.

남의 이목(耳目)이 두려워서 형편이나 분수에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한 그릇의 냉수(冷水)로라도 정성껏 지내라』고 한 옛 어른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진리인 것이다.

祭祀의 種類

제사에는 상중(喪中)의 우제(虞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외에 時祭, 茶禮, 忌祭, 墓祭등이 있다. 그러나 近代에 와서 儀禮準則의 簡素化로 小大祥은 거의 폐지되고 時祭, 茶禮, 忌祭, 墓祭는 지내고 있다.

① 時祭 : 철을 따라서 一年에 네번 종묘(宗廟)에 지내던 제사 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지내지 않고 있다.

② 茶禮 : 절후에 따라 간단히 지내는 제사이며, 正月一日과 八月 秋夕 또는 명절마다 지내는 제사이다.

③ 忌祭 : 돌아가신날 첫 새벽에 지내는 祭祀로 오늘날 보통 제사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④ 墓祭 : 始祖부터 모든 祖上들의 墓所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대개 寒食이나 十月에 날짜를 정하여 지내고 있는 제사이다. 그리고 이 밖에 천(薦)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遷)은 보통 薦神, 또는 薦新이라 해서 철을 따라 새로 나온 穀食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등을 祠堂에 올리던 것을 말한다. 그러나 祠堂이 거의 없다시피 된 오늘날, 대개의 가정에서는 집안의 윗자리에 과일이나 새음식을 갖다 놓는 풍속으로 변한 곳도 있다.

제수(祭需)

제수란 제사에 쓰는 제물(祭物)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깨끗이 차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祭需를 차리는 主婦나 기타 자손들도 可能한 限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임하는 것이 정성의 표현이 될 것이다. 主婦는 祭祀日 며칠 전부터 제사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과 상의하고 주인과 상의할 일이면 주인과도 한다. 즉 제수의 종류, 祭需의 분량, 祭酒 등에 이르기까지 상의를 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제사지낼때 써야 할 기구도 모두 내서 깨끗이 닦아야한다. 즉 주인은 祭床이며, 交椅며, 卓子, 병풍, 돗자리, 향로, 향합, 촛대 등을 꺼내어 쇄소(灑掃)하고, 주부는 제기(祭器)등을 꺼내어 깨끗이 닦는다.

이와같이 미리하여 놓으면 제삿날에 집안도 깨끗하고 정숙한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부닥쳐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紙榜)

지방(紙榜)이라 함은 백지(白紙)로써 만든 신주(神主)이다. 옛날에는 가정에 사당(祠堂)이 있어서 가족이 죽은 뒤에는 밤나무로 그 사람의 위패(位牌)를 만들어 사당에 모셔 두었다가 제사때에는 그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에는 사당이 거의 없으므로 지방(紙榜)으로써 신주를 모시게 된 것이다. 한편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故人의 사진을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두분을 모시게 되는 제사 때에는 지방을 각각 두 개를 만들어 모시는 것이 옳으나 대개 한 개의 지방에 두 분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지방도 요즘에는 백지를 지방 모양으로 오려서도 많이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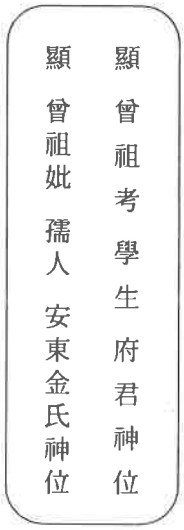
지방 쓰는법

지방은 가는 붓글씨로 쓰되 해자로 아주 가늘고 작은 글씨로 써야 하며, 깨끗한 백지에 길이 八寸, 넓이 三寸 정도의 크기면 된다. 이 지방은 神의 자리를 표하는 것으로 병풍을 치고 교의(交椅)에 지방을 붙여서 中央에 신위(神位)를 정한다. 이 경우에 비록 사진을 놓았다 하더라도 지방을 붙여 신위를 정한 다음 사진을 놓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지방서식을 참고로 하면 알 수 있겠으나 婦人의 姓氏를 알기 쉽도록 대강 썼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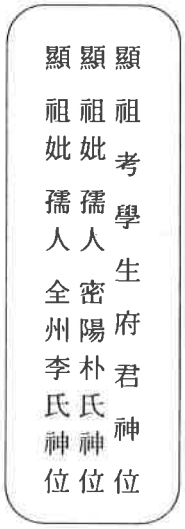
가령 高祖母의 姓이 李氏라 하고 고조부외 벼슬이 없으면 남자는 학생이라 하고 婦人은 孺人이라 쓰고, 벼슬이 正一品 崇祿大夫라 하면 婦人은 貞敬夫人이라고 쓰고 以下 벼슬을 등분대로 쓰면 된다. 한편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니를 안쓰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옳지는 않으나 써내려오던 것이기로 그대로 쓴다.

지방서식(紙榜書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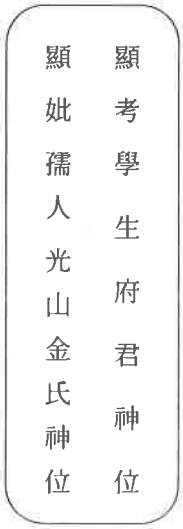
高祖父母의 지방
(벼슬이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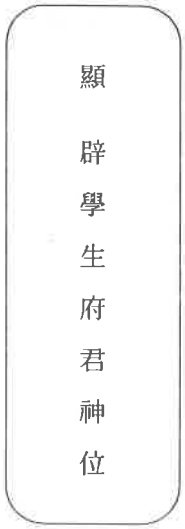
曾祖父母의 지방
(벼슬이 없을 때)



祖父母의 지방
(祖母가 두분이상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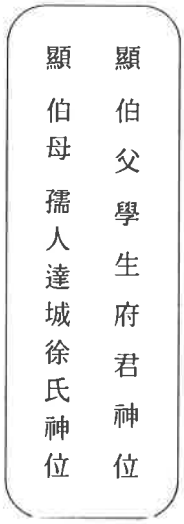


父母의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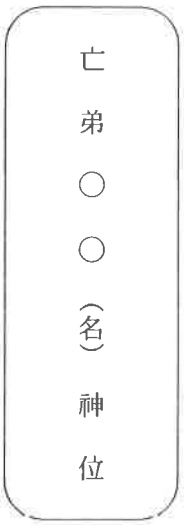
男便의 지방

妻의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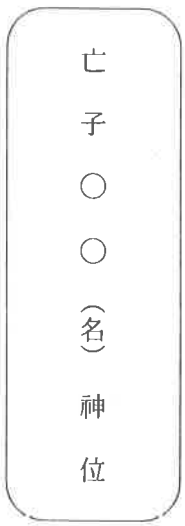


伯叔父母의 지방

兄의 지방



弟의 지방



子의 지방

祭祀의 對象

예로부터 받들고 지내오던 제사의 대상은 四代 즉 高祖까지를 종가(宗家)에서 忌祭로 방안에서 지내고 五代祖 이상은 忌祭를 물리친 다음 혹 문중(門中)의 친족들이 모여서 세일제(歲一祭)로 지내는 것이다. 忌祭를 지내는데 있어서 예설(禮說)에 의하면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아버지만을 모시고 어머니의 제삿날에는 어머니만을 모신다고 하였지만 한편 주자회제(朱子晦齊)와 정자가례(程子家禮)에는 한분씩 모시어 각각 제사 지냄이 옳으나 두 분을 모시게됨은 인정(人情)이라 하였기에 지금까지 모두 두분을 모시게 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祭羞陳設

祭 物

제물을 갖춤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 있으나 가세(家勢)의 형편에 따라서 할 것이며 비록 적은 제물일지라도 정성만으로써 지냄이 옳은 것이다. 한편 제물을 차려 올리는 위치와 순서에 있어서도 옛날부터 그를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방식과 각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과 같이 제물의 종류에 대하여 적어두나 참고하기 바란다.

○ 祭物의 種類

① 조과(造果) : 유과 또는 엽과(葉果) 등을 쓴다.
② 과실(果實) : 밤, 대추, 곶감, 배, 은행등을 쓰는데 적으면 세가지, 많아도 다섯가지 이상을 쓰지 않는다.
③ 포(脯) : 문어, 전복 그밖의 건어(乾魚) 혹은 육포(肉脯) 등의 마른고기를 쓴다.
④ 혜(醯) : 식혜를 쓴다.
⑤ 좌반(佐飯) : 미역, 콩잎 혹은 어육(魚肉)등으로 만들어 쓴다.
⑥ 숙채(熟菜) : 나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쓴다.
⑦ 침채(沈菜) : 김치는 두 가지 정도 쓴다.
⑧ 저채(菹菜) : 생김치를 쓴다.
⑨ 어물(魚物) : 생선을 쓴다.
⑩ 육물(肉物) : 간회(肝膾) 혹은 천엽(千葉), 우회(牛膾) 등을 쓴다.
⑪ 청장(淸醬) : 간장을 쓴다.
⑫ 작(醋) : 초를 쓴다.

⑬ 병(餠) : 떡은 낮으면 5개 정도 높으면 5개 정도 괴인다.

⑭ 적(炙) : 육물 생선 등으로 만들고 적으면 5꼬쟁이 많아도 7꼬쟁이 이상 쓰지 않으며 만약에 7꼬쟁이를 쓸 경우에는 초헌(初獻)때에 두 꼬쟁이 종헌(終獻)때에 두 꼬쟁이씩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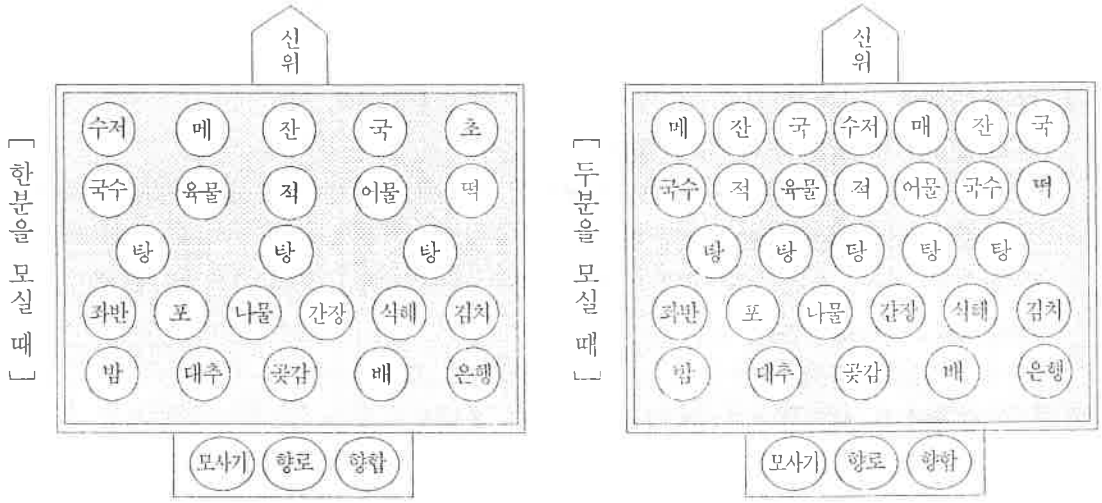
⑮ 탕(湯) : 육물, 생선, 굴, 대합, 두부등으로 만들되 단탕(單湯), 삼탕(三湯), 오탕(五湯)으로 형편에 따라 쓴다.

陳設하는 法

진설(陳設)은 집사(執事)가 준비한 제수를 교의(校椅)와 제상(祭床)을 놓고 그 상위에 제찬(祭饌)을 늘어 놓는 것이다. 차려놓은 것은 대청이나 방에도 좋으나 정면(正面)에 병풍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먼저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젯상(祭床), 그리고 그 앞에 香案을 놓는다. 香案에는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을 놓고 香案 밑에는 모사(茅沙) 그릇을 놓는다. 또한 祝文도 香案 왼편에 놓는다.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집사가 진찬(陳饌)을 한다. 그 진설도(陳設圖)와 방법은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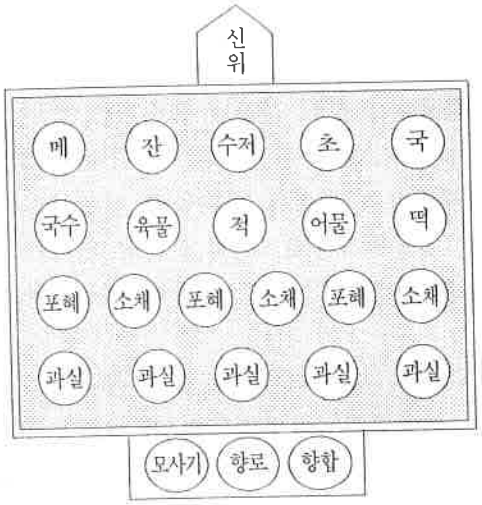
진설(陳設)의 順序는 먼저 시접(匙楪)과 잔반(盞盤)을 神位앞에 놓고, 탁자 양옆에 촛대를 놓은 다음, 앞줄에서부터 차례로 놓아가면 된다.

1. 栗谷先生擊蒙要訣祭饌圖



※ 제수를 陳設하는데 있어서 홍동백서(紅東白西)니 좌포우혜(佐脯右醯)니 하는데 紅東白西는 붉은 과실은 東편에 놓고, 흰과실은 西편에 놓으며, 어동육서(魚東肉西)는 어물(魚物)은 東편에, 육류(肉類)는 西편에 놓으라는 것이며, 두서미동(頭西尾東)은 생선의 머리는 西편에 꼬리는 東편으로 향하게 놓으라는 말인데 以上의 東西는 神位의 左便이 東이고 右便이 西가 된다. 左脯右醯는 執事者의 左便에는 포(脯)를 놓고 右편에는 식혜(醯)를 놓는 것이다.
또한 茅沙는 보수에 모래를 깨끗하게 담아서 그 위에 띳잎을 아홉개 묶어서 세우는 것이다.

2. 朱子家禮祭饌圖



3. 陷岩李先生四禮便覽祭饌圖

祭祀지내는 時間

제사는 본래 돌아가신날 전날 저녁에 임하여 子正이 지나 돌아가신날의 첫닭이 울기직전에 지냈었지만, 요즘은 子正 조금 지나서 지내고 있다. 하여간 남들이 모두 잠자는 조용한 시간, 새벽 한시부터 二時사이에 지내는 것이 엄숙하며 좋다 하겠다.

祭祀지내는 順序

제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順序)에 의하여 지내게 된다.

① 降神 : 강신이란 신위께서 降臨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강신은 제주(祭主)이하 모든 제관(祭官)이 관수(盥手), 서립(序立)한 후 제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분향(焚香) 재배(再拜)하고 다시 꿇어앉으면, 우집사(右執事·子姪)가 술을 잔에 차지 않도록 조금 따라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받아서 모사(茅沙) 그릇에 붓고, 빈잔은 右執事에게 돌려보내고 재배(再拜)한다. 그런데 향을 피우는 것은 위에 계신 神을 모시고자 함이요, 술을 모사에 따르는 것은 아래 계신 神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

② 參神 : 참신은 降神을 마친후 제주이하 모든 참사자가 함께 재배한다. 神主를 모신 경우에는 참신을 먼저하고, 紙榜을 모신 경우는 강신을 먼저하는 것이다.

③ 初獻 : 초헌은 제주가 神位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左執事가 盞을 제주에게 주면 左執事가 잔에 술을 가득 붓고, 제주는 降神할 때와 같이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모사(茅沙)위에 세번 기울인 뒤에 양손으로 받들어 左執事에게 주면 그 잔을 받아서 神位앞에 올린다. 먼저 고위(考位)앞에 올리고, 다음 잔을 받아서 비위(妣位)의 순서로 올리고, 정저(整箸=저범을 고르는 것)한다.

④ 讀祝 : 독축이란 축문 읽는 것을 말한다. 이 讀祝은 초헌이 끝난뒤 제주이하 모든 제관이 꿇어앉고 제주옆에 동쪽을 향해 앉아서 祝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축은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목청을 가다듬어 천천히 그리고 크게 읽어야 한다. 축을 다 읽고나면 일동이 곡(哭)을 하고 조금 있다가 모두 일어나는 것인데 요즘은 哭을 하지 않는 집안도 많다. 祝文에 대하여는 다음의 忌祭祝文을 참조하기 바란다.

※ 備考 : 初終·小·大祥·忌祭를 除外한 나머지 제사에는 哭을 하지 않는다.

⑤ 亞獻 : 아헌이란 둘째번에 올리는 잔을 말한다. 아헌은 주부(맏며느리)가 하는것이 禮儀이나 주부가 올리기 어려울 때에는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자(近親者)가 初獻 때와 같이 한다.

⑥ 終獻 : 종헌이란 끝잔 올리는 것을 말한다. 종헌은 아헌자의 다음가는 근친자가 아헌과 같이하여 잔은 칠홉잔쯤 부어서 올린다. 집안에 따라서는 이 아헌과 종헌에도 적(炙)을 따로따로 올리는 수도 있다.

⑦ 添近 : 첨작은 終獻이 끝난후에 얼마동안 있다가 종헌때 칠홉잔쯤 딸았던 잔에다가 세번 더 부어서 잔을 가득이 채우는 것이다.

⑧ 啓飯插匙 : 계반삽시란 메그릇의 뚜껑을 열고, 수저를 꽂는 것으로 수저는 동편을 향하게 꽂는다. 즉 수저바닥이 동편으로 가게하여 꽂는다.

⑨ 闔門 : 합문이란 참사자가 일동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대청인 경우는 뜰 아래로 내려섬) 밖으로 나와 대청이나 마루에서 약 10分이나 15분간 고요히 기다린다.

⑩ 啓門 :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제주가 앞에 서서 기침하고 문을 열면 일동의 참사자가 같이 들어간다.

⑪ 獻茶 : 헌차는 숭늉을 갱과 바꾸어 올리고 메를 조금씩 세번 떠서 말아놓고 메그릇을 덮는다.

⑫ 撤匙覆飯 : 철시복반이란 숭늉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시접(匙楪)에 놓고 멧그릇을 덮는다.

⑬ 辭神 : 사신이란 참사자 일동이 再拜하고, 神主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과 祝을 불살르는 것이다.

⑭ 撤床 : 철상이란 모든 제수(祭需)를 물리는 것을 말하며 제물은 뒤에서부터 물린다.

⑮ 飮福 : 음복이란 조상께서 주시는 복된 음식이라는 뜻으로 제사가 끝나면 참사자와

가족이 모여서 시식을 한다. 이는 친족과 이웃에게도 나누고 이웃 어른을 모셔다 대접하기도 한다.

祝文書式

祝文을 쓸 때에는 백지(白紙)에 쓰는 것이며, 크기는 幅(넓이) 8寸에 長(길이), 1尺5寸 정도의 크기에 먹을 진하게 갈아서 가늘고 작은글씨고 쓰되 해자(楷字)로 정성껏 쓰면 된다. 祝文書式이 多樣하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고 忌祭祝文을 參考로 적는다.

○ 忌 祭 祝

維歲次 乙丑四月己未朔三日壬戌 某親某官某 敢昭告于
顯 某親某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淸酌庶羞
恭神奠獻 尙
饗

<註> ○ 敢昭告于 : 妻나 弟以下에는 『昭告于』라 한다.
○ 諱日復臨 : 妻나 弟以下에는 『亡日復至』라 한다.
○ 追遠感時 不勝永慕 : 考妣(父母의 제사)에는 不勝永慕를 『昊天罔極』이라 쓰고, 傍親에는 追遠以下 八字를 빼고, 不勝感愴이라 쓴다.
○ 謹以 : 妻나 弟以下는 『玆以』라 쓴다.
○ 恭伸奠獻 : 妻나 弟以下는 『伸此奠儀』라 쓴다.
○ 庶羞 : 서수는 떡을 쓰는 때이고, 밥만 쓸때에는 반갱(飯羹)이라 쓴다.

〔祝文解說〕 – 아무날 아무부친 아무벼슬한 아무는 아무벼슬한 어른에게 고하나이다. 해의 차례가 옮기어 바뀌어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임하오니 감동되어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서 공손히 펴고 전을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以上 冠禮에서 婚禮(喪祭)에 이르기까지 우리 祖上들이 행해오던 傳統的인 禮節(祔祭以下 省略)로써 그 節次가 煩雜하여 배우고 익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설사 밝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文明이 高度로 發達한 社會에서 生活에 바쁘고 일에 쫓기어 한가하게 禮節만 지키고 있을 時間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禮節은 우리들 머리 속에서 점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筆者가 參考로 밝혀둔다.

제 3 편

무 의 · 부 적

차 례

□ 무 의 (巫醫) 163

- 무의란?
- 무 당

□ 부 적 (符籍) 183

- 삼 재 부
- 제귀자멸부
- 백병불입부
- 가내평안부
- 조왕동토부
- 천신도래문길부
- 성 조 부
- 측 심 부
- 옥 명 부
- 나무판자로 생기는 재앙부
- 천개 · 지개부
- 시험합격부
- 대장군동토부
- 벌 목 부
- 석 부
- 초 상 부
- 파 묘 부
- 용 왕 부
- 우마병부
- 순 산 부
- 전답재해부
- 배의 안전운행을 빌 때 쓰는 부
- 먼 길을 여행할 때 쓰는 부

무　　의(巫醫)

무의란?
무 당
1. 무당의 조상
2. 무당의 분류
3. 혼령을 부리는 법
4. 밝은 도력을 얻고자 할 때
5. 무녀들의 병 치료법
6. 도인과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부 적
1. 십이지신 부적(六甲符)

무 의 란 ?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해 태연히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큰일이 닥치면 인간은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 보고 각종 의술에 의지하다가 지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자는 심정이 되어 스님이나 신부, 목사 등의 성직자나 무당, 심령가, 도사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통신자(通神子)들을 찾아 구원을 받고자 한다. 이렇듯 인간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어떤 대상에 의지하여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예방 비방법이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런 점이나 예언을 미신시하여 천대하고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신앙이며 조상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다. 과학만능시대에 밀려 점차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천시하지 말고 되돌아 보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은 영체(靈體)이다. 영 가운데 살고 영을 떠나 살 수 없다. 영은 곧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거나 정성을 들일 때는 본인 스스로 성심껏 해야 영의 감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을 떠먹어야지 남이 아무리 대신 먹어 주려 해도 안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잠이 오는데 내 대신 남이 두 배, 세 배 잠을 자준다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길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법만 가르쳐 줄 뿐 내가 그 길을 가 줄 수는 없다. 그 길을 가야 할 것은 정작 너희들 자신이니라"하셨다. 그렇다. 신은 우리가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고 제물을 바친다 해도 직접 복과 재물을 건네 주지 않는다. 단지 그 방법을 알려줄 뿐이므로 실천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의지이다.

필자가 여기에 이런 예방 비방법을 밝히는 이유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정성을 들여 보라는 뜻에서이다. 부디 영적인 힘을 빌리고자 할 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산탕진하지 말고 이 내용대로 본인이 해 보시길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런 비방법을 미신시하여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여기에 실린 것은 필자가 혼자 생각해내거나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각 지방마다 독특하게 전해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의심하고 미신시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또 전국을 유랑하면서 실로 묘한 일들을 겪고 보고 느꼈다. 필자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며 신비의 세계를 몸소 체험했다. 이 책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필자의 경험담이다. 그러니 믿고 따라 한번 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 책의 근본 의도와는 관계없지만 살아가는데 있어 소용이 있는 각종 부정이라든가 재수 등을 푸는 방법을 싣고자 한다.

요즘 사람들은 미신이라 하여 우습게 여기고 천시하지만 이는 엄연한 우리의 전통신앙이다. 전통을 깔보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이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았다고 이런 비방을 찾게 될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무 당

무조령(巫祖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무당(巫堂)과 조상령(祖上靈)이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1. 무당의 조상

먼 옛날 지리산의 천왕봉 아래에 법우 화상이라는 도력 높은 스님이 그림 같은 암자를 지어 놓고 도를 닦고 있었다. 스님이 살던 암자 이름은 엄천사라고 했다.

어느 여름날 스님이 암자 앞의 뜨락을 거닐고 있는데 암자 앞의 계곡물이 비가 한방울 오지 않는데 갑자기 불어나며 물줄기가 세차게 흘렀다.

스님이 괴이하게 여겨 물줄기를 따라 올라갔더니 천왕봉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물이 멈춘 신성한 천왕봉 꼭대기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키는 팔대장신이요 활옷을 입었는데 여장부의 기상이었다.

여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성모천왕인데 그대와 인간 세상의 인연이 있어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을 이용하여 스스로 중매하니 법우 화상께서는 허락하소서"하니 전생의 인연이 남아 있다 생각하여 스님도 허락하여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엄천사를 떠나 초가삼간을 마련하고 성모천왕과의 사이에서 딸만 여덟을 낳았다. 부모는 이 여덟 딸에게 무당신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금령을 흔들고 부채춤을 추며 아미타불을

노래하더니 이때부터 열 식구가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누비며 무당을 업으로 삼아 많은 중생을 구제했다고 한다.

그런 후에 딸들을 각 도마다 고루 나누어 팔도 무당이 되게 하고 두 부부는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 천왕봉에 자리 잡고 기거하였다. 후에 성모천왕은 지리산 산신령이 되고 법우 화상은 지리산 국사도사가 되었으며 그 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리산의 주인으로 또 무당의 시조로서 중생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의 무당은 지리산에서 영을 받아야 신통하다고 한다. 지리산에 여자 기도자가 많은 것은 주인이 여신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도사(道士)의 인연이 깊이다. 지리산에서 도를 닦으면 남자는 도사가 되고 여자는 무당이 된다. 필자는 지리산령도 역시 여자 산신령이라 생각한다.

예로부터 도가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지리국운설을 들어 보면 지리산 신령은 여신이기 때문에 지리산 정기를 받은 대장부는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며, 지리산 천왕봉을 가로지르는 길이 생기면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신성한 큰 산맥을 끊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 나라 무당의 시조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여자무당이 많다. 인간은 영을 머금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영감이 있는데 영의 감동은 남자보다 여자가 민감하며 남자는 법사나 도사가 되지 무당의 흉내를 내지는 못한다.

2. 무당의 분류

○조상으로부터 무업을 이어 받아 몇 대째 내려오는 무당 집안의 자손이 신병으로 인하여 신을 받고 무업을 배우고 익힌 무당.

○무업과는 거리가 먼 집안의 자손이 무당들의 권유로 신어미를 삼아 배우는 무당. 이런 무당은 신통력이 떨어지고 오랫동안 무당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무당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무당, 점바치, 철학인, 도사, 초능력자 등을 만나 보았고 그 분들의 숨은 실력도 볼 수 있었다. 이 세상에는 숨어 있는 능력자들이 너무 많고 존경할 만한 기인들도 수없이 많았다. 반면에 아무 것도 모르면서 사기행각을 하는 자도 많았고 또한 큰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업을 회피하여 병마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분도 많았다.

필자도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다 보니 어느덧 반전문가가 되어 제법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 신병에 고통받는 사람이나 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 신을 떼어버리려고 하는 자를 분간할 수 있으며 제거 또는 강신을 받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능력을 언게 되었다. 그래서 간혹 원하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여기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몇 가지 소개한다.

①경남 하동이 고향인 한영숙 씨(가명, 32세 여자)는 착실한 남편과 남매를 둔 주부로 마

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울증, 조울증, 불안 초조, 정신착란, 공포증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아는 분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 분을 만나 보니 20대 남자의 영에 빙의(귀신이 붙는 것)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한 씨의 몸 속에 자그마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런 모습으로 발악을 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혹시 아내가 사고를 목격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발병하기 바로 전에 이웃집 보리타작을 도와주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다.

리어카에 보리를 가득 싣고 앞에서 옆집 아들이 끌고 한 씨가 뒤에서 밀어 주며 돌아오는데 내리막길을 만나 한 씨가 힘껏 리어카를 잡아당겼는데도 보릿짐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리어카가 쏜살같이 미끄러지면서 그 젊은이가 그만 압사당했다고 한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젊은이의 영은 한 씨의 몸으로 옮겨 빙의된 것이다.

그날밤 조용히 청년의 혼령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 보니 '너무 억울하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한 씨를 잡아 가겠다' 고 했다.

그래서 "한 씨는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리어카를 놓친 것이니 용서해다오"하면서 청년의 영혼 앞에 진실로 사죄할 것을 다짐한 뒤 사흘 후 사고현장에 가서 비방을 했다.

리어카 한 대를 사고 물에다 붉은 물감을 풀어 놓은 뒤 한 씨를 포박하여 사고현장에 눕혀 놓고 빈 리어카에 빈 보릿가마 몇 장을 실은 다음 남편에게 끌게 하여 한 씨의 몸 위로 지나가게 한 후 한씨의 몸에 물감 푼 물을 뿌렸다. 이렇게 한 다음 깨끗이 씻기고 사고 난 장소에 불을 놓았다. 집에 돌아와 하룻밤 자고 나니 한 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벌써 5년 전의 이야기이다.

②경남 남해에 사는 송모 씨(37세)는 온갖 병으로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 불안 초조, 신경질, 난폭한 성격, 알콜중독, 신경성 위장병, 심한 요통 등 많은 병 때문에 이름난 양의, 한의, 민간요법, 푸닥거리 등 안해 본 것이 없어 가산은 탕진되고 자포자기 상태였다.

필자는 이 분을 서울로 오게 하여 취직을 시켜 돈을 벌게 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하여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더니 송씨를 괴롭히던 번뇌망상과 질병이 간 곳이 없었다. 약 한 첩 쓰지 않고 스스로 병을 이긴 것이다.

③부천에 사는 모씨(여자, 43세)는 10년간 다방을 경영해 왔는데 원인 모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루에도 약을 한 홉 넘게 먹고 직장도 쉬고 있었다.

필자가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얻은 병이었다. 업종을 바꾸어 꽃가게를 하게 했더니 질병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으나 생략한다. 인간의 질병치료는 약물과 수술 또는 비방이나 특수요법을 쓰지 않더라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주거환경이 본인에게 맞지 않아 탈이 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도회지에서 병이 나면 시골에서 치료하고 시골에서 병이나면 도회지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이렇듯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무슨 사업이든 3년 안에 희망과 전진이 없거나 병이 생길 때는 본업과 정반대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지하층에서 하던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가야 하고 고층에서 하는 사업이 잘 안되고 희망이 없으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사업가가 병이 들면 집으로 들어가 쉬어야 하고 집안에서 병이 생겨 집안에 있으면 불안 초조해지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 사업이나 직업을 가져야 한다.

3. 혼령을 부리는 법

신을 받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장소나 신령스러운 장소 즉 무당이나 도사, 기도자들이 찾는 장소에다 장닭이 있는 닭장에서 계란을 구해 직접 유정란을 확인한 다음 묻어 두었다 9일이 지난 다음 파내서 먹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산신령의 영을 접영하고 싶으면

산신당이나 산신제를 지내는 곳에다 계란을 여자는 3개, 남자는 8개를 묻어 놓고 9일 동안 산왕경을 외운다. 일체의 세간 음식을 끊고 솔잎과 콩 볶는 것, 미숫가루와 물만 마신다. 감응이 오지 않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9일간 기도 한 후 10일째 되는 날 인시에 계란을 파내어 한 알을 먹는다.

심한 배앓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얻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산신령이 들어오는 것이다. 하루에 한 알씩 9일간 먹는데 10일째부터는 미음을 조금씩 먹는다. 소화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양을 늘린다.

조석으로 산왕경을 독송하며 일체의 잡념과 욕심은 부리지 않고 무엇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산왕경에만 전념하면 뜻을 이룬다.

남자는 18일간 수도를 해야 하고 여자는 12일간 기도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영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빠르다.

이때 본인의 사주에 매인 신이 어떤 신인가 알고 나서 신령줄에 기도해야 한다. 산에서 기도를 올릴 때는 언제나 제물을 준비하고 청정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시작한다. 첫날에는 세웅(구리로 된 밥솥)에다 밥을 지어 올린다. 다음날부터는 물만 올려도 된다. 이렇게 산령과 통신이 되면 묘한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했다.

(2) 용신을 받고자 할 때

용궁 기도터에다 같은 방법으로 계란을 파묻는데 남자는 6개, 여자는 1개를 묻고 9일 동안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10일째 되는 날 파묻었던 계란을 꺼내 먹는데 하루에 한 개씩

먹는다.

(3) 칠성신을 받고자 할 때

남녀 똑같이 계란 7개를 묻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혼령 부리는 법을 알려 주신 분은 부산 모 도교단체에서 20년간 수련을 끝내고 탈교하여 입산 수도하고 계시는 백호(아호)도사란 분인데 6년 전 경남 남해의 금산 중턱 석굴에서 수도하실 때 필자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비법들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4. 밝은 도력을 얻고자 할 때

(1) 백일 제단 공양 기도

준비물은 텐트, 취사도구 일체와 백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양식과 찬인데 된장, 간장, 소금, 장아찌, 쌀, 붉은 팥, 메밀, 약쑥 등이다. 생선, 비린 것, 마늘, 파 등 자극성 있는 음식은 절대 금한다.

산을 정하되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보아 본인의 일주 오행을 일으켜(生) 주는(용신, 천을, 귀인)오행의 방위에 해당하는 산으로 정한다.

기령 갑일(甲日)주의 용신이 병(丙)이고 조후가 경정(庚丁)이라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남쪽이나 남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산이 좋다.

준비물을 산으로 운반할 때 남의 손을 빌리면 안되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정한 장소에 다다르면 100일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숙소를 설치한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최대한 방비하되 일체의 닭소리, 개짖는 소리, 인가에서 들리는 잡음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석굴과 동굴이면 더욱 좋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신령께 제를 올릴 제단을 쌓는데 적당한 돌멩이 백 개로 쌓아야 한다. 정성껏 제단을 마련해 놓은 다음 깨끗이 목욕하고 나서 세옹그릇에 밥을 지어 제단에 그릇째 올려놓는다. 이밖에 제단 위에는 정한수(물) 한 그릇, 나무 수저와 나무 젓가락을 올린다.(항상 이렇게 올린다)

첫날 기도와 밥을 올리는 시간은 갑자일 갑자시이며 산신령께 신고식을 한다.

북쪽을 향하여 일곱 번 절을 한 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위 아래 이를 일곱 번 마주친 후에 산신제 문에 들어 가는데 제일 먼버 읽는 경문이 산왕단이다.

(산왕단) 지심귀명례 만득고승 성개한적 산왕대신 지심귀명례 차산국내 향주대성 산왕대신 지심귀명례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

(보소청 진언)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 아다야(세번)절이 산왕대성자 최신최령 능위능맹 능맹지처 최용항마 최령지시 소재강복 유구개수 무원부종시이 사바세계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 모시 모군 모동(이름과 사는 주소) 금차 지극지성심 헌공발원 제자 모인 주소(본인의 주소 성명)외우고 이차 인연공덕 산왕대신 가피지묘력 일체병고 액난등 영위소멸 사대강건 육근청정 안과태평 수명장수 자손창성 부귀영화 심중소구소원 만사여의(본인

의 소원사일체) 원만성취 지대원이 금월금일 건설법연 정찬공양 산왕대신 병종권속 기회령감 곡조미정 앙표일심 선진 삼청 나무일심봉청 후토성모 오악제군 직선외아 팔대산왕 금기오온 안제부인 익성보덕진군 시방법계 지령지성 제대산왕 병종권속 유원 승삼보력 강림도량 수차공양

(향화청) 영산석일여래촉 위진강산도중생 만리백운 청장리 운거학가 임한정 고아일심 귀명정례

(헌좌진언) 아금경설 보엄좌 봉헌제대 산왕전 감찰제자 도간심 원수자비애납수 상래가특이홀공양 장진이차 향수특신공양 향공양 연향공양 감로다주미공양 유원산신 애강도량 불사자비 수차공양

(보공양 진언) 옴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훔(세번)

(보회향 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 훔(세번)

(산왕례참법) 지심귀명정례 나무동악대령 창광사명진군 남악경화 자광주생진군 서악소원 요백대명진군 북악울미 동연무주진군 중악황원 대광사진진군 울울청송리 층층백석간 소요성모신 암반보굴심 만학청봉정 보덕대진군 위진단화색 담형록수성 조화제대 산왕대신 차산국내 향주대성 산왕대성존 심산신승호 나무만덕고승 성계한적 지령지성 곤륜대게 통제만국 산왕신위 익성보덕진군 영보천존 보봉개화주산신 위광보승주산신 미일광륜주산신 보안현견주산신 금강밀안주산신 나무대비보살 지자비 외헌산신 지위맹 신통자재 묘력난사 허철시방 광통삼증 산하석벽 불능장애 순목지관 청즉변도 후토성모 오악제군 직전위아 팔대산왕 금기오온 안제부인 차산국내 향주대성 시방법계 지령지성 제대산왕 병종권속 수차공양

(산왕경)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악소악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미산재처 산왕대신 이십육정 산왕대신
외악명산 산왕대신 사해피발 산왕대신
명당토신 산왕대신 금귀대덕 산왕대신
청룡백호 산왕대신 주작현무 산왕대신
동서남북 산왕대신 원산근산 산왕대신
상방하방 산왕대신 흉산길산 산왕대신
옴 급급여율령 (세번)

(산령주) 범천지만 태백산령 신후대길 삼각산령 병가대인 관악산령 마군대영 구월산령 신미자야 덕유산령 대주백명 대용산령 만세궁달 수양산령 궁지대방 지이산령 역적불입 용문산령 유명청중 림중산령 장청부재 속리산령 대장중궁 궁급산령 오복성수 봉래산령 충신유공 계명산령 후궁길흉 경주산령 팔도명산 금강산령 해금무강 해렴산령 석사비강 태명산령 수성부동 오악산령 세세불영 무획산령 청마수성 불공산령 오열불열 설악산령 기마불통

오대산령 급인취후 선길산령 박명수명 천마산령 천지음양 대제산령 음양불성 양장산령 오수중령 충용산령 상대산대산령 중대산대산령 하대산대산령 팔도명산도산령 차산국내좌우산령 동개골 남지리 서구월 북묘향 지대산령 황토산 금위신 장님은 속주오령 속부오신 자동하강하야 신통신통 조화 통령하옵소서 지성이면 감천이요 공든탑이 무너지며 신든 낭기 꺾어지리요 이번에 드리는 이 정성은 다른 정성이 아니오라 이 정성인의 죄를 소멸하고 신의 화기 소멸하고 신령님의 통령을 얻고자 드리는 소원이니 부디 소원을 들어주옵시고 옴 급급여 율령 사바하(절을 하면서 많이 외운다)

첫날은 이렇게 하여 끝을 내고 다음날부터는 인시에 시작하여 묘시까지 하고 저녁에는 자시에 한다. 잠은 되도록 적게 자야 한다.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세옹에 밥을 지어 올리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밥을 주어서는 안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되 세옹그릇째 놓고 먹으면 안되고 다른 그릇에 담아 먹는다.

제단에 올리는 그릇 일체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그릇과 수저를 정해 놓고 사용한다.

둘째날부터는 처음과 같이 정한 시간에 세옹밥을 지어 그릇째 올리고 뚜껑을 열어 놓고 수저, 젓가락, 물 한그릇을 올린다. 큰 절을 일곱 번 한다.(제단 앞에서는 언제나)

그런 후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이빨을 일곱 번 마주친 뒤 경문에 들어 간다. 경문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에 외워 두어야 한다. 이날은 영을 통하려고 하는 경문이니 통령문이라 한다. 십대주문이 있는데 이것부터 외운다.

(오방주) 동방에 청제장군 청제신장 내조아 남방에 적제장군 적제신장 내조아 서방에 백제장군 백제신장 내조아 북방에 흑제장군 흑제신장 내조아 중앙에 황제장군 황제신장 내조아

(소토지신주) 근청차간토지신 자세수파 수화문 왕래대로 수아주불허 투루아형적 오봉태산노군 급급여율령

(구신주) 복차왈 길시간 천지개창 당공결좌 하시고 분향천지신명 재천이라 등운가려 재궁하시고 괴궁재전이니 설전향연은 의당이라 고로 청신 하옵건대 산신지좌하하사 역좌남래하시고 서래서좌하시고 무사불감란청 도차래 령수 령수이라 향연총기 신도만리 유사통청 전가화룡호 유차성령주 만마함수 태상려제준 급급여율령

(신도경) 혼포 일심 오기정 중유달합 위몽경 전가 복룡호 유차성령주 만마함속수 태상려제군 급급여율령

(청신주) 간간간각 간간식부 광충금충 금충금

(안신주) 천하안병 팔괘지정 성도신장 문주속지 백사통령 무사불도 부득위령 오봉구천현녀 율령

(추신주) 천지령광 지지정광 일월휘광 원작성광 비부상주 급강아아방 오봉 태산노군 급급여율령 칙옴굉

(명이주) 산유산상슈해유 해중차오룡 질타가 옴굉 오봉태산노군 급급여율령 옴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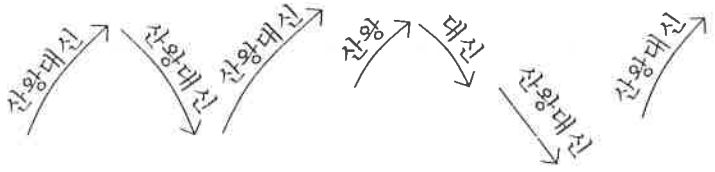
(개후주) 적산 동적산 동칠칠정 구구성 오봉태산노군 급급여율령 칙옴굉

(옥부경) 육부사십사만신장 십이신장 좌부마원수 우부 관원수 백마장군 수운장군 뢰공장군 율뢰장군 임대장군 태을신장 육경육갑신장등은 갑갑갑주 옴급급여율령

(영통축원문) 상제강령 호풍대도술 천지조화 호령일신 일신속기 자력신 령통광명세대각팔문이 통도신력 상하통명 만사치 사통개문 통정신 좌불능견관천지 일관천지 도통신 만물창생 일시화 만신장감응 속부오신영 오영결 일체신 룡하천지 해인 조화 천지 일월성진 일체감응하소서 천지일월성신 무궁무궁 조화정 상제강령 속개안이 통명양신 가사위신 호신호분 신인신심 신단 원사신 년액령하통신 토기장군 옴 급급여율령 사바하 천문지리 풍운조화 육정육갑 사령신

(산왕경)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악소악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미산재처 산왕대신 이십육정 산왕대신
외악명산 산왕대신 사해피발 산왕대신
명당토신 산왕대신 금귀대덕 산왕대신
청룡백호 산왕대신 주작현무 산왕대신
동서남북 산왕대신 원산근산 산왕대신
상방하방 산왕대신 흉산길산 산왕대신
옴 급급여율령 사바하 산왕대신 산왕대신 산왕대신

계속해서 하루종일 산왕대신을 외운다. 산왕대신은 길게 천천히 외운다.



이렇게 높이고 내린다.

백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면 반드시 통령이 된다. 이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무조건 100일을 채워야 한다.

(시험으로 오는 방해)

밤낮 구별없이 시험이 오는데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온다. 예를 들어 사냥꾼으로 보이는 자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협박을 하며 총부리를 들이대기도 한다. 이밖에도 나무꾼, 등산객, 여인, 각종 맹수, 미물, 스님, 보살, 수도자 또는 아는 사람, 친구, 형제, 부모 등으로 나타나서 밥을 달라고 하며 방해를 한다. 이때 절대로 밥을 뺏겨서는 안된다. 세웅에 지은 밥은 꼭 혼자 다 먹어야 한다.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나타나니 주의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생겨도 100

일 안에는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신들의 방해이니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면 비로소 본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크게 깨달음이 오고 어떤 이는 적게 오는데 그 또한 개인의 도량으로 대기본(大氣本), 중기본, 소기본으로 나뉜다.

대기본으로 태어난 자는 성인으로 신선이 되고 중기본으로 태어난 자는 도인이나 능력자가 되며 소기본으로 태어난 자는 본인을 깨달을 수 있는 자다.

필자도 온갖 수도로 정진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소기본자였다.

지금도 우리 나라 금수강산 석굴 토굴에는 도를 수행하는 도인이 많다. 그중엔 큰 도를 깨달은 분도 많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생긴 이래 7천명 정도의 대도인이 배출되었다 한다.(1만 2천명이 도를 깨달으면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고 세계 제일의 선두주자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

5. 무녀들의 병 치료법

대략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푸닥거리 또는 비손이라고 하며 타지방에서도 비슷하게 부르는 곳이 많다. 하지만 비손을 하는 방법은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한 병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보통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이렇다.

(1) 정신병(족비 재비굿)

정신이상을 일으키거나 실성한 사람, 우울증, 조울증에 걸린 사람 또는 원인 모를 질병, 낫지 않는 질병 등을 통털어 말한다.

①증세 : 안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이 마른다. 신열이 불규칙하게 급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며 눈이나 얼굴이 노랗게 되고 손톱은 푸르게 변한다. 갑작스럽게 헛소리를 하고 발광을 하며 수족이 뒤틀리고 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결핵환자처럼 된다. 척추에도 이상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발병한지 5~6개월 정도 지나면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며 대개 불구로 살아간다.

이는 귀신병 즉 악령이 몸에 붙은 것이다. 이것을 심령학에서는 악령에게 빙의되었다고 하고 무속세계에서는 족비라고 부르는 무서운 악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뇌 속에 파고 들어갔다고 한다. 족비라고 불리는 악귀의 모양은 날개 달린 고기 새끼나 흰터럭(白毛)과도 같다고 하는데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무당, 만신, 도사들만이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신병이 들면 무당들은 족비 재비굿을 한다.

②굿하는 방법 : 백설기 한 시루, 흰 닭 한 마리, 쇠고기 반 근을 21조각으로 나눈 것, 은으로 만든 족집게 1개, 경면주사 약간, 약쑥 약간을 준비한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환자를 집밖으로 내보내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앉히고 환자의 앞에다 제물을 차린다.

무당이나 만신 도사는 왼손에 방울 오른손에는 족집게를 들고 한참 동안 방울을 크게

흔들며 동서남북의 칠성님께 축원을 하는데 '이 몹쓸 족비를 없애 주시오' 하는 기도를 정성껏 올린다.

그런 다음 칠성님께 바친 백설기 시루에 큰 절을 세번 올리고 환자의 뒤로 돌아가서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족집게로 족비를 찾아낸다. 찾아낸 족비를 하나하나 쇠고기 토막에 싸서 흰 닭에게 먹인다.

족비를 다 먹이면 마른 조기나 명태를 환자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약쑥을 단단하게 뭉쳐 불을 붙인 후에 환자의 머리 주위를 일곱바퀴 빙빙 돌린 다음 콩알 만큼씩 쑥을 비벼 일곱 개를 만들어 머리 윗쪽을 불로 뜬다.

그 후 경면주사를 머리, 귀, 눈, 입, 목, 등줄기 등에 골고루 문지르듯 바른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 3일간 되풀이하면 병자가 대개 낫는다.

(2) 경남 남해, 하동, 전남 해남, 진도 등 남해안 지방의 실성굿 또는 병굿

제물을 준비하여 실내에서 기도를 한나절 한 후에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둥근 기둥을 세 개 세우고 이엉을 엮어 지붕을 만든 다음 항아리를 놓아 그 위에 환자를 걸터 앉게 한다. 그리고 나면 무당은 장구나 북을 치면서 축귀경 또는 축사경 등을 염송한다.

독경이 끝나면 무당은 몽둥이로 환자가 앉아 있는 항아리를 쳐서 깨뜨려 부순다. 그러면 환자는 놀라서 집으로 달아나게 되는데 이때 무당은 재빨리 신칼로써 머리를 찌르는 흉내를 내며 병마를 꾸짖어 쫓는다. 그리고 이엉에 불을 질러 환자가 놀라 달아나게 한다. 그런 후에 부적을 써서 주는데 부적은 옆과 같다.

(3) 정신병이나 불치병 치료 구타법

이 방법은 제물을 차려 놓고 환자를 앉힌 다음 각 신들께 치성을 올린 후 무당이나 만신은 병마를 구성지게 달랜다. 그런 후에 심하게 꾸짖으며 환자를 구타한다. 이때 환자를 때리는 매는 말총 채찍이나 대나무를 다섯 자 되게 잘라 석 자 정도까지를 여러 갈래로 쪼갠 것을 쓴다. 이때 축귀경이나 축사경을 외운다. 이렇게 하면 대개 환자는 놀라서 정신을 차리기도 한다.

이밖에도 수장법, 화광법도 있지만 너무 원시적이어서 생략한다.

어쨌든 악령으로 빙의된 환자는 악령을 정심정도법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된다.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은 대개 조상령(祖上靈)이지 타인의 악령은 극히 드물다.

필자는 필자가 알고 있는 정심정도법으로 정신질환이나 불치환자를 수없이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인은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짓으로 일축해 버리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4) 몹쓸 병살 풀이 방법(허장굿, 영장굿)

난치, 불치, 몹쓸병을 풀어 주고 또한 저승사자를 극진히 후대하여 돌려 보내서 병자를

소생시키는 굿인데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제물은 팥시루떡 일곱 시루와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 21개, 병자의 허수아비(초룡), 골자리(초자리), 조밥 한 그릇·초룡에는 환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입혀 놓고 문 밖에다 초자리를 깔고 조밥을 올려 놓는다. 활과 화살은 일곱 개의 팥시루떡 상 가운데에다 놓는다.

절차는 부정거리, 가망거리, 진작 사자거리의 3거리를 하는데 무당은 앉아서 푸닥거리 형식으로 한다.

사자거리를 할 때는 무당이 일어나서 장고에 맞추어 노래가락을 하며 공수를 준다. 이것을 세번 되풀이 하는데 이는 일직사자 월직사자 광림도령의 세 사자를 우대하는 행사이다.

다음에는 환자를 밖으로 끌어 내어 꿇어 앉혀 놓고 환자에게 조밥을 던지며 주문을 외우고 가무한다. 그리고 나서 활에다 실을 먹여 사방으로 화살을 쏘는데 '이 살은 누구의 살인고 상산별군웅님살이라' 하고 외친다.

그리고 허수아비를 땅에다 묻는데 이것은 환자의 바뀐 몸이라 한다. 무당은 환자를 거적 위에 엎어 놓고 신칼로써 환자의 몸 속에 있는 살귀를 찔러 죽이는 시늉을 한다.

몇 번을 그렇게 겁을 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네번째 사자와 다섯 여섯 일곱번째 사자를 계속 우대하여 하나씩 보내는 가무와 공수를 한다. 이것을 사자 배웅이라 한다.

(공수 : 무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말씀이다)

(5) 병이 위독할 때

'약을 쓰면서 이 약이 선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경문을 외우면 무슨 약이든 선약이 된다.

경문 : 동개골 서구월 남지리 북향산 팔도명산 신령님네 명약 명초 구해 낼 제 삼신산 불사약과 봉래산 불노초며 금강산천 만물초며 천지건곤 장생초며 나라님전 충신초며 부모님전 효자초며 남니자손 번성초며 대대손손 유련초며 무릉도원 천년과며 장생불수 흑발수며 영화경사 연수초며 부귀관록 공명초며 죽었다 사는 갱생초며 오곡인생 향계초며 양위부부 동락초며 태상노군 금단약과 옥황상제 천년도며 연당칠십 노인초며 인생백년 향기초며 가중내외 화해초며 일가문중 화목초며 동기간에 우애초며 자손창성 연수초며 모진악귀 소멸초며 온갖 선약을 가지가지 구해내어 어탁수에 씻어내고 감로수에 씻어 내어 가중팔신이 가지시고 승로반에 바쳐놓고 야반 삼경 찬이슬을 경경이 받아내어 옥황상제 팔괘화로 오행금채관을 들여놓고 갖은 선약을 앉히시고 감로수로 가입하여 화덕진군이 감관하야 달여내니 갖은 선약이 다 되었다 육미 팔미 인삼탕과 보명보신 장수 산과 사백 사병 통치환을 가지가지 구해낼제 동해용궁 야광주며 남해용궁 백진주며 서해용궁 일영주며 북해용궁 화수분을 가입하고 사해용궁 갖은보패 보살육도 유리병에 넣어들고 이 명당을 찾아들어 모생신을 치료하여 보원 보기 돋아 줄제 북두칠성 대장군은 머리끈에 견주었고 삼태육성 맑은 정기 좌우어깨 견주어서 연등백세 실어다가 수명장수 빌어주기 치성복축 발원이요

환자 앞에서 이 축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효험이 뚜렷하다.

(6) 악한 귀신이 몸에 붙어 약 효험이 없을 때 쓰는 경문

동등고산 망동해 유일대룡 조살 식악귀삼천 모살 식악귀삼만 유유부족 주유천하 여약부기 촉래화룡 무여진식 자력위 속철야 령기 불래 여율령 장문장 사문신 자광동해신 아명남해신 축융서해신 거승북해신 웅광선생 용왕오채호 수일군대 수심해 연봉사광 천제선 방장봉래산 두봉선인 길음외유 부례주례 사바하 옥황상제 금궐모정 관악성두 매출퇴정 자미수호 현천시병 개개현래 조철유명 신비추월 시결한수 급급여율령 천기지신 내조아 지기지신 내조아 보아천상 조아지하 망명지귀 로중성왕 시기성함 지중도 풍운조화 경도호위 가질이미 작타 천서지리 하송귀인 신이 악해 둔갑장군 뇌공장군 팔십일만 제대조왕 일체호령 시기염병 하송뢰정 결박촉송 불문소설 명명차가 명명차신 옴급급 여율령

(7) 자식을 얻는 기도 방법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천지신명, 칠성님, 산신령님, 용왕님 등의 신들께 비는 일이 많은데 이왕 이런 기도 방법으로 신들께 빌어 얻고자 한다면 제신들께 올리는 바른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적이 드문 심산 암석이나 선바위, 부부바위, 맑고 깊은 연못, 깨끗한 냇가, 반석 위 등 정결한 곳을 택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부부가 함께 가야 한다.

대개 여자 혼자 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을 나서면서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올 때까지 부부는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된다.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동행하는 사람은 영이 강한 욕심없는 무당이나 만신 또는 도사이다.

제물로는 과일, 밤, 대추, 나물 종류, 간장을 갖추고 부인의 속옷(팬티)을 새것으로 하나 가져가서 제물차릴 때 이것을 깔고 제물을 차린다.

밥도 그곳에서 바로 지어 올린다. 촛불과 향을 밝히고 사루어 두 부부가 수없이 절을 하며 치성을 드리는데 오색실로 부부의 엄지손가락 좌우를 묶어 서로 연결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풀지 않는다.

치성이 끝나면 표주박이나 바가지에 쌀을 담고 계란껍질 일곱 개에다 기름 심지를 박아서 불을 켜고 물에 띄운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빌고 나서 준비한 제물을 사방에 조금씩 뿌리고 밥은 그 자리에서 부인이 한 수저 떠 먹은 후에 집으로 가져와서 부인 혼자서 다 먹는다. 심산 선바위에서 기도할 때는 계란에 불을 붙혀 물에 띄울 필요는 없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바로 일주일 동안 조석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밥상 위에 촛불과 향을 사루고, 물 한 그릇 올려놓고, 전날 손가락에 감았던 오색실을 가지런히 사려 접시 위에 올려놓는다. 기도하며 외는 경문은 아래와 같다.

경문 : 안산기자축원(安產祈子祝願)

석달에는 핏골제석 넉달에는 뼛골제석 다섯달에는 반짐받고 십삭열달은 곱게 채서 거적자리 펼친 후에 삼신의 세존 자손 소리질러 탄생할제 화병에 물쏟듯이 석벽에 말을 타고

달린 듯이 대소변을 보는 듯이 선후도침을 소멸하고 피부실 부정을 제치여서 무사태평하게 도우시고 삼신의 세존자손 탄생하여 나올적에 이마 위에 혈점없이 양빰에 도화살과 원진살과 팔괘살과 간귀살도 제치어서 어질고 양순하고 젖 잘먹고 잠 잘자고 일월같고 화경같고 닦은 방울 같이 점지하야 나라에 충신동이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친척간에 화목동이 붕우간에 유신동이 석숭의 복을 빌고 동방삭의 명을 빌어 부귀창성 수명장수 반석같이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수백 번 하면 감응한다. 그리고 검은콩을 물에 살짝 씻어 소금을 조금 넣고 볶아 매일 조금씩 수시로 먹는다. 반찬으로도 검은콩 조림을 매일 먹는다.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복숭아 잎 삶은 물로 목욕을 하면 더욱 좋다.

6. 도인과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조상이나 부모님이 불심이 지극히 강했거나 도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 가정의 후손.
○서예나 한학을 많이 했던 조상의 후손.
○능력자의 후손.
○3대 이상 독자.
○어릴 때부터 모진 질병에 고생한 사람.
○신동이라고 불릴 만큼 똑똑한 천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일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
○이상하게도 꿈의 예시가 적중하는 사람.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
○신체의 한 부분이 마비증세나 경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
○앞날에 일어날 일이 미리 적중이 되는 사람.
○항상 마음이 불안 초조한 사람.
○항상 도통하는 꿈이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꿈에 항상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는데도 중매가 잘 안되는 사람.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
○역학이나 주역 점성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그런 종류의 책을 많이 사서 읽는 사람.
○아픈 환자를 보면 안쓰럽고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지의 병을 보살펴 주고 싶고 또는 남을 만져 주었는데 아픈 부위가 나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
○꿈에 신령이나 도인, 상제, 장군 같은 분께 예시를 받는 자, 무슨 말을 하거나 글씨를 준다든가 하지만 알 수 없어서 안절부절 하는 자.

○좋은 학벌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웬지 세상과 인연이 없어 직업이나 취직이 안되고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

대략 이런 사람들은 정신수양을 해야 한다. 정신수양을 바로 하면 곧 대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전생에 도를 닦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자의 혼신이거나 아니면 도인의 영혼이 천도되지 못하고 구천을 배회하다가 도인의 기질이 많은 사람의 몸을 빌려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큰 도를 깨닫는 이는 있다.

누구나 도를 닦을 수도 있고 시작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를 깨닫기는 어려운 것이다. 잘못하면 오히려 몸만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행하고자 할 때는 바른 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밝은 도를 깨닫고 싶은 자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 적

부적이란 인간을 다스리는 신의 말씀이다. 우리 조상들은 신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 우리에게 물려 주었다.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이 세상 어느 것이라도 모두 약이 되고 치료도구가 된다. 그 중에 부적의 힘은 더욱 크다. 우리 선조들은 모든 재앙을 예방, 비방하는 방편으로 부적을 으뜸으로 여겼다.

그런데 서양문물에 물든 사람들은 부적을 일러 미신이니 마귀니 사탄의 짓거리니 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최첨단 과학기기가 발달되었다 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氣), 공기의 생성, 계절의 흐름, 몸 속에 흐르는 경락줄기의 정체 등은 측정되지도 찍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불현듯 느껴지는 예감, 꿈속을 보는 듯한 순간의 환상, 무덤속의 시신들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환자의 통증 부위가 어디 있는지 느껴진다.

그러나 말하기란 실로 두렵다. 미친 놈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염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나 혼자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구했고 필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전국에 적지 않으리라.

필자는 부적에다 염력을 불어 넣어 부적의 힘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공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 부적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그저 무당이나 돌팔이 점바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혹세무민하며 선량한 국민들을 상

대로 사기행각이나 벌이고 있는 현실이니 아니 그럴 수 있겠는가? 또한 부적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나 있을까?

어쨌거나 부적은 누구나 또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구나 다 지니는 것도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 지녀야 할 사람만이 지녀야 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부적을 백여 장 그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 큰 효험을 보았다. 부적의 큰 힘을 보아 액운을 면한 사람들의 감사의 인사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부적을 쓴다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온몸의 정기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부적을 미신시하거나 쓸데없는 종이쪽지라는 인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아는 바를 적어 본다.

1. 십이지신 부적(六甲符)

십이지신 부적은 호신부이면서 소원을 성취케 해주는 부적이다. 이 부적은 평생을 지니도록 되어 있다. 집안 내실 벽에 붙여도 좋고 개인이 소유하는 호신부적인데 해당 때에 맞추어 지닌다.

(1) 육갑 부적

육갑 부적을 쓸 때는 복숭아나무로 검을 만들어(木劍) 참기름에 경면주사를 개어 바르기를 3일간 한다. 이렇게 검이 준비되면 부적을 그리기 일주일 전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은 보지도 먹지도 말며 조용한 장소를 정하여 바깥 사람을 일체 보지 않는다.

그런 후 갑일 갑자시가 되면 냉수에 목욕, 양치하고 깨끗한 옷으로 의관 단정히 한 뒤 동쪽을 보고 앉아서 부적 그릴 상 위에 샘물이나 약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초와 향을 사룬 다음 복숭아나무 목검을 움켜쥐고 이를 일곱번 마주친 후에 육갑신주를 외운다.

(육갑신주) 오호육군원양 갑자신이여 급급히 강림하시와 동참하옵소서 원하옵건데 법력이 무궁하신 신군께옵서는 미졸한 저를 바로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태상노군 급급여율령 사바하

이렇게 축문하고 해당 부적을 두 장 그려서 한 장은 불에 태워 상 위에 올려 놓은 약수나 샘물에 타서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는 흉한 곳 사방에 뿌린다.

한 장은 몸에 지닌다. 집에 가보로 소장하고 있는 검이 있는 분은 진검으로 하면 더욱 좋다.

큰 뜻을 품고 진짜 부적을 쓰고자 하면 검을 100년 이상 된 장군의 무덤 아래에 아무도 몰래 파묻어 두었다 엿새 뒤에 파내어 사용하는데 부적 쓸 날을 잡으면 엿새 전에 무덤 앞에 파묻되 밤에 묻고 밤에 판다고 한다. 이 부적이야 말로 진짜 부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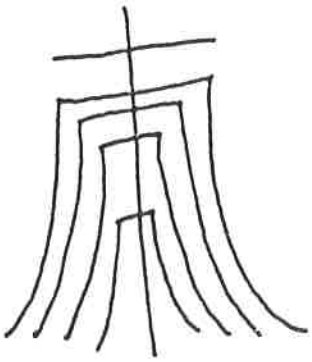
① 갑자신장부

비천대제(飛天大帝), 공격(攻擊)장군이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어질고 착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도와주는데 불의를

많이 저지르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후려치는 성급한 신장이다.

이 부적은 갑자(甲子), 병자(丙子), 무자(戊子), 경자(庚子), 임자(壬子) 생이 지닌다. 남색 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리는데 정월달 처음 갑자(甲子)가 드는 날에 그려 몸에 지닌다.



<甲 子 符>

② 갑술신장부

엄랑, 사옥장군이다.

주인을 섬기며 잘 따른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이 부적을 지닌 사람은 부적을 펴 놓고 빌면 뜻대로 된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 관직자에게 좋다고 한다.

<甲 戌 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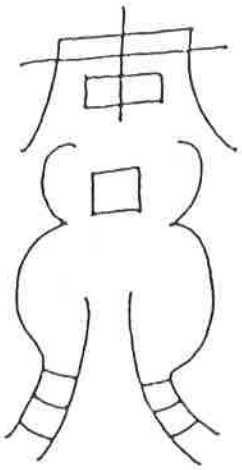
노랑 무명 헝겊에 경면주사로 그려서 지니는데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할 때마다 빌어야 한다. 이 부적은 갑술(甲戌), 병술(丙戌), 무술(戊戌), 경술(庚戌), 임술(壬戌)생이 지니는 부적으로 관직에 나아가려면 꼭 지녀야 한다고 한다.

③ 갑신신장부

육부신(六符神), 월보(鉞報)장군

순리를 따르는 자에게 행운을 주며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사정없이 파괴시키는 괴팍한 신이다. 항상 자기를 따르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신을 모신자에게 좋은 부적이다.

흰 무명 천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이 부적은 갑신(甲申), 병신(丙申), 무신(戊申), 경신(庚申), 임신(壬申)생이 지닌다. 신생(申生) 중에 신을 모신 자가 이 부적을 지니면 명리를 날린다고 한다.



<甲 申 符>

④ 갑오신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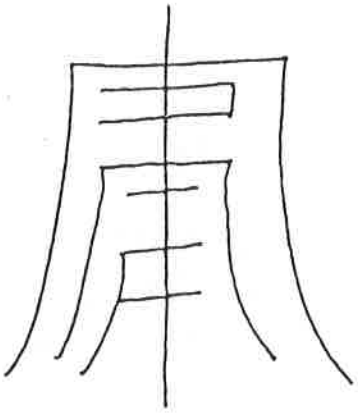
문백, 평수(平水)장군이며 보신탕집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부적.

이 부적을 지닌 자는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할 때 개고기를 차려 놓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한다. 원수진 자를 사정없이 물리치는 사나운 신장이니 조심하라.

청색이나 홍색 종이에 검은 먹으로 정월 첫 갑오일에 그린다. 갑오(甲午), 병오(丙午),

무오(戊午), 경오(庚午), 임오(壬午)생이 지니면 소원을 성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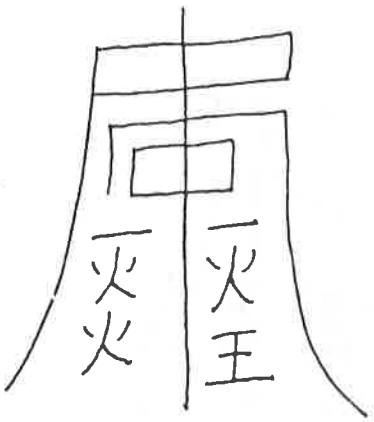
살생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 즉 도축장, 생선횟집, 보신탕집, 삼계탕집, 개소주집, 뱀탕집을 운영하는 오생(午生)이 지니고 업소에 붙여 두면 대길하다.



<甲 午 符>

⑤ 갑진신장부

통원, 평만장군(平蠻將軍)이라고 하는데 어질고 진실한 사람을 도와주고 간교하고 요사스런 자를 격퇴 소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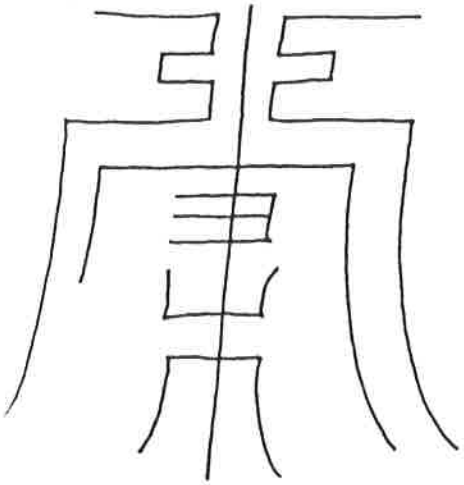


<甲 辰 符>

청색이나 황색 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이 부적은 갑진(甲辰), 병진(丙辰), 무진(戊辰), 경진(庚辰), 임진(壬辰)생이 지닌다.

정월 첫 갑진날에 부적을 그리는데 동남쪽으로 뻗은 복숭아가지를 가지고 와서 부적 그리는 장소에 놓고 부적을 그린다.



<甲 寅 符>

⑥ 갑인신장부

관개랑(灌佳郎), 육설(六薛)장군이다.

성정이 급하고 힘이 장사요 무서운 신장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간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군인, 경찰, 법관이 지녀야 할 부적이다.

파란색 종이나 무명 천에 경면주사로 정월 첫 갑인날에 그린다.

이 부적은 갑인(甲寅), 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생이 지니면 대길하다. 또 법정의 증인석, 면접 시험장, 연설장 등에 나갈 때 지니면 대길하다. 언제나 몸 속에 지니면 비굴하지 않고 시기와 시기하는 자가 따르지 않는다.

(2) 육정 부적

육정 신장부적을 쓸 때는 예식을 갖추고 남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를 가져와 상 위에 올려놓고 남쪽으로 향하여 앉아서 쓰는데 남쪽 생기를 한껏 들이 쉬고 이(齒)를 일곱번 마주 친 뒤 주문을 왼다.

(주문) : 육정신병과 팔괘정령의 추열신장께서는 몸을 편케하시와 이 주문을 듣는 즉시 속히 오셔서 백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흉한 일은 없도록 칙령내려 주옵소서. 오봉, 구천현녀 급급여율령

이렇게 일곱번 외운 다음 부적을 두장 그려서 한장은 불에 태워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는 흉한 장소에 뿌리고 한장은 몸에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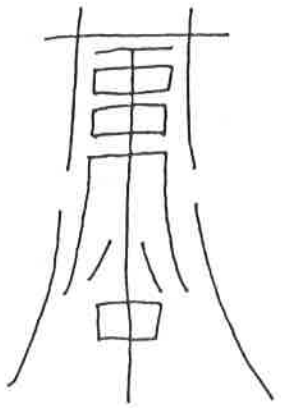
① 정묘신장부

잔인, 일륙(日六)장군이다.

유순한 장군인데 유순하고 착한 사람을 보살핀다. 남을 꼬여 사기하는 자는 일시에 격퇴시킨다. 한번 화가 나면 무서운 것이 없다.

청색이나 붉은 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이 부적은 묘생이 지닌다.

나에게 사기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부적을 지니고 비방하면 없어진다고 한다. 불량한 사람이 접근해 올 때 격퇴하는 부적이다.



<丁 卯 符>

② 정축신장부

일허, 일혁(日奕)장군이라 한다.

수산업, 해외 여행하는 사람이 지니면 아무 탈이 없다. 나와 물로 인해 씨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적을 써서 지니고 비방하면 스스로 굴복한다고 한다.

노란 괴황지(노란색으로 된 문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이 부적은 축생들이 지니면 대길하다.

물장사, 목욕탕, 여관, 다방, 술집, 수산업, 양식업, 음료수 회사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대성한다. 이런 업을 하는 축생만이 가능하다.

<丁 丑 符>

③ 정해신장부

정경, 일도 장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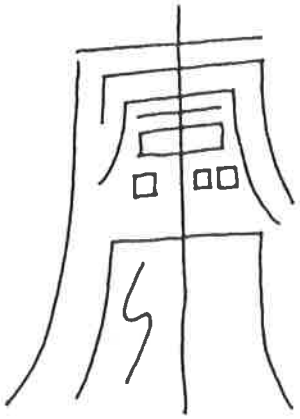
욕심이 많은 장군이다. 쌀밥과 술을 좋아한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할 때 쌀밥과 술을 준비하고 정해신장께 빌면 소원을 들어 준다고 한다. 이 부적을 쓸 때도 술과 밥을 차려 놓고 그린다.

무슨 일이든 착한 일은 모두 들어주지만 옳지 못한 일이면 모르는 체 한다고 한다. 또 노하면 용서가 없는 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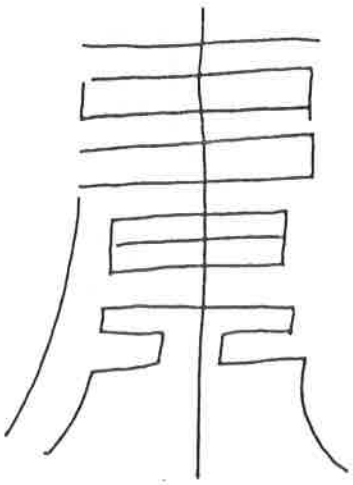
붉은 종이나 검정색 종이에 경면주사로 쓴다. 이 부적은 돼지띠들이 지닌다.

음식점이나 사업가가 지녀야 할 부적인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술과 밥을 대접하고 해당 부적을 지녀서 예방한다.



<丁 亥 符>

④ 정유신장부



<丁 酉 符>

문경, 일비 장군이라고 한다.

성질이 아주 고약한 장군인데 술과 고기를 좋아해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부적을 그릴 때나 무슨 일이 있어 제를 올릴 때도 술과 고기를 준비한다.

이 부적은 닭띠(酉生)들이 지녀야 할 부적이다. 관재구설로 법정에 서거나 불리한 일에 이 부적을 지니면 대길하다.

단 악한 일에는 더욱 나쁘게 화를 낸다. 언제나 착하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

⑤ 정미신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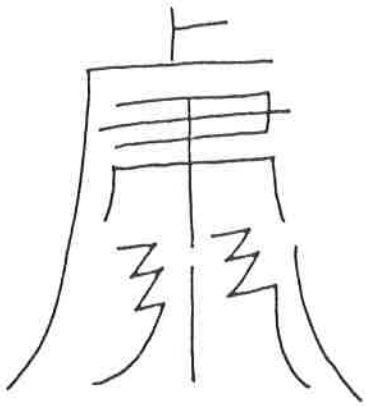
문공 일장군이라고 한다.

성정은 유순하지만 괴팍하다고 한다. 물과 습기를 싫어하고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니 무슨 일이든 하고자 하여 제물을 차릴 때는 과일을 올린다. 부적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좋아하나 물길 건너는 것을 싫어한다.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는 더욱 나쁘게 한다.

이 부적은 양띠들이 지니는 부적이다. 건어물이나 건재상을 하는 사람이 지니고 비방하면 대길하다.

붉은색이나 황색 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丁 未 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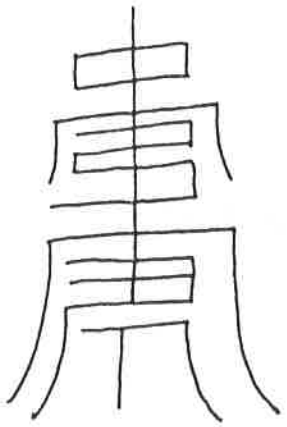
⑥ 정사신장부

화석 일진 장군이라 한다.

성질이 너무나 독살스러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신장이다. 육식을 좋아하니 고기를 올려 놓고 기원하면 소원을 들어 준다. 단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용서가 없다.

이 부적은 뱀띠(巳生)가 지니는 부적이다. 붉은 종이에 경면주사로 그린다.

금전거래에 이 부적을 지니면 부도가 생기지 않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다. 증권, 금융, 부동산 등에 종사하는 뱀띠생이 지니면 아무런 탈없이 대길하다.



<丁 巳 符>

부 적(符籍)

부적의 신앙과 사상
부적이란 무엇인가?
부적은 어떻게 만드는가?
삼 재 부
제귀자멸부
백병불입부
가내평안부
조왕동토부
천신도래문길부
성 조 부
측 심 부
옥 명 부
나무판자로 생기는 재앙부
천개 · 지개부
시험합격부
대장군동토부
벌 목 부
석 부
초 상 부
파 묘 부
용 왕 부
우마병부
순 산 부
전답재해부
배의 안전운행을 빌때 쓰는 부
먼 길을 여행할 때 쓰는 부

符籍의 信仰과 思想

진 욱
(홍국사 스님)

머 리 말

21세기를 향하는 현대의 합리적 사고와 고도로 발달된 기계문명 속에서도 부적(符籍)이 있다는 현실은 그것 자체를 미신(迷信)화해서 터부시하는 고정관념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모든 문화의 현상은 분명히 그 문화의 결과에 대한 원인과 그것을 키워온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화현상이 현재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것을 사용하던 시대의 인과(因果)를 이해한다면 왜곡된 해석이나 이로 인해 터부시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아울러 옛조상들의 생활과 사상, 신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해서 현대의 고등종교와 고등문화가 탄생되었다는 새로운 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남해안 도서지방의 부적을 한데 모아서 정리한다는 것은 이 지방 사람들의 종교, 문화, 사상의 제반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졸고(拙稿)를 쓰는 것은 부적이 지니는 신앙과 사상을 현대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신적인 것으로부터 왜곡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하고자 필을 들었으나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선에서 머무르는 정도로 글을 쓰고자 한다.

符籍의 生成

부적의 기원은 인간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원초적인 신앙형태인 샤마니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샤마니즘 신앙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금의 부적형태인 종이의 모습을 하지 못했고 신앙의 대상을 축소한 조각물 등을 이용하거나 짐승의 털이나 뼈 등을 사용하였다. 그 예로 인디언의 목걸이, 깃털 장식이나, 인도의 링카상과 우리나라의 조상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대사회의 토템신앙의 상징물들이 부적의 기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인 자연의 힘 앞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동물들에게 공포를 느껴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보다 복종하므로서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으며 이러한 대상은 차츰 인간을 수호해주는 위치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를 수호해주는 상징물을 마을, 또는 집, 더 축소시켜 몸에 지니게 된 것이 부적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의 부적형태는 장승이라든지, 서낭당, 링카상, 바위, 나무, 동물 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들은 차츰 문자와 종이가 발달되면서 개인 소유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상징들은 차츰 도식화되고 또한 문자화되어 2차적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기(古朝鮮記)>에 나오는 「천부인(天符印)」도 아마 도장 형태의 신앙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대 고등종교의 신앙상징물도 원래는 이 부적의 형태가 발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종이로 문자화된 부적과 고대사회의 부적과는 조금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고대사회의 상징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적이 사용되었다면 문자화된 부적은 신앙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현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도구화된 점이다. 그렇다고 신앙성이 전혀 배제된 것은 물론 아니다.

符籍의 歷史記錄

부(符)의 역사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첫째, 부(符)가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이고,

둘째, 부(符)에 대한 신앙의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대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국설화부터 부(符)가 나타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기(古朝鮮記)>에

"옛날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어 구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라고 한 것이 한국역사에서 최초의 부(符)에 대한 기록이다.

이 「천부인(天符印)」 세 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설의 대개는 경(鏡 : 공명), 검(劍 : 정의), 령(鈴 : 사랑)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세우는데 기본이 되는 사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울」, 「칼」, 「방울」이 하늘에서 내린 치국(治國)의 사상적 의미로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무속신앙에서 현재까지 「칼」, 「거울」, 「방울」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상징으로써 사용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중국(中國)에서는 요(堯)임금의 「천적부(天赤符)」라는 것이 있는데, <춘추전성도(春秋全誠圖)>에

"서력기원전(西曆紀元前) 3255년, 봉황이 옥사슬로 봉한 한 개의 노란 구슬상자를 성

인(聖人) 요(堯)에게 바쳤는데, 열어보니 그 속에 '천적제부새(天赤帝符璽)'라고 새긴 인장(印章)이 나왔다."

는 등의 기록은 당시 부족사회에서 왕족사회로 옮겨가면서 왕은 곧 천(天)이라는 권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라(新羅)시대에 신라의 세 국보(三國寶)였던 진평왕(眞平王)의 옥대(玉帶), 옥피리(玉笛) 등은 왕권의 강화와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부적은 곧 천(天)의 대리권적인 효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표시인 것이다.

이 이후부터는 차츰 개인적인 이익과 실생활 복리를 위한 부적이 나타난다.

이 첫번째가 최치원(崔致遠)의 오색부(五色符)이다. 신라 때 최치원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천왕문(天王門)을 지날 때 오색부(五色符)를 사용하여 재화(災禍)를 면했다는 기록이 <최고운전(崔孤雲傳)>에 나와 있다.

두번째가 <삼국유사(三國遺事)> <처용랑(處容郎)>과 <망해사(望海寺)>조에 나와 있는 처용에 관한 기록이다.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 때 동해 용(東海龍)의 아들 처용이 임금을 도와 정사를 보살폈는데, 그의 부인을 역신(役神)이 간통한 것을 용서했으므로 그 역신이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그녀와 관계했는데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맹세코 이후로는 공의 형상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기원이 되어 처용상(處容像)을 5월 단오날에 붙여 역신을 물리쳤다."

는 것이다. 이것이 처용부(處容符)와 천중부(天中符)인 것이다.

세번째로, 고려시대에는 불가살부(不可殺符)가 있었는데, 이것의 기원은 한 법사(法師)가 만든 쇠만 먹고사는 불가사리가 있었다. 장안의 모든 쇠를 다 삼켰는데, 몽고병(蒙古兵)의 총(銃)까지 다 삼켜 몽고병이 물러간 뒤 큰 쇠산(鐵山)으로 변하여 지금도 호국의 신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는 설화이나 이 불가사리 그림이 부적으로 등장되었다.

네번째로, 조선시대에는 <한중록(閑中錄)>의 기록에 의하면,

"21대 영조대왕(英祖大王)의 아들이 몸이 약하여 영부사(領府事) 이천보(李天輔)와 박시민(朴市民)등의 권유로 천존부(天尊符)를 가지고 옥추경(玉樞經)을 읽었다."

는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으나 생략하고, 이러한 기록은 부적이 신앙화되어 재물을 갖게 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주며, 병을 낫게 해주는 등 인간의 현실이익을 줄 수 있는 상징으로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符籍의 思想性

부적의 사상성을 정리하는데는 몇 가닥의 분류가 필요하다. 그 사상성의 원류는 비슷하

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서적들이 다르고 사용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符)의 근원은 천지자연숭배(天地自然崇拜), 서물신앙(庶物信仰), 정령숭배(精靈崇拜), 토테미즘 등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그것이 문자화되고 서민화 된 것은 실례로 불교, 유교, 도교와 그리고 복무(卜巫)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교전(教典)에 전하는 사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부적이 각 교(教)의 정통사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불교부적(佛教符籍)

불교부(佛教符)는 인도의 근본(根本), 원시(原始), 대승불교(大乘佛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이 부적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불멸후(佛滅後) 800년 이후 밀교(密教)의 생성(生成)과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밀교(密教)의 진언(眞言)신앙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쓴 종이도 신성시(神聖視)되었으며, 이러한 신성한 다라니는 액운을 막아주고 좋은 일이 있게 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불교(佛教)는 근본사상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므로 미음의 어두운 곳을 밝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정법(正法)이다. 그러나, 세상 중생들은 근기(根機)가 차이가 나므로 방편을 베풀어 두려움을 없애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적금강경(穢跡金剛經)>에서 42종의 부적과 <육자대명왕다라니경(六字大明王多羅尼經)>의 세 가지 부적을 합하여 45종이 있다.

물론 양 경전(經典)은 위경(僞經)이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불교가 낳는 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열부(避熱符 : 지옥의 뜨거운 열을 피하는 부적)

②파지옥생정토부(破地獄生淨土符 :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 극락세계에 나는 부적)

③만겁생사불수부(萬劫生死不受符 : 생사를 받지 않는 부적)

④구산부(救產符 : 임신 때 먹으면 편안히 출산하는 부적)

⑤파지옥왕생정토부(破地獄往生淨土符 : 지옥에 있는 자를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하는 부적)

⑥당득견불부(當得見佛符 :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부적)

⑦선신수호부(善神守護符 : 착한 신들이 수호하는 부적)

⑧멸죄성불부(滅罪成佛符 : 죄를 멸하고 성불하는 부적)

⑨당생정토부(當生淨土符 : 내세에 정토에 나는 부적)

⑩소망성취부(所望成就符 : 모든 소망을 성취하는 부적)

이상의 불교부적은 대개가 성불(成佛), 멸죄(滅罪), 득복(得福), 내세정토왕생(來世淨土往生) 등의 내용이다. 이는 불교의 근본 목적과 매우 부합하는 것이며 현세에서 득복하고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고, 내세에는 극락에 태어 나기를 원하는 염원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교부적(道敎符籍)

도교는 원래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과 장자(莊子)에 의해서 제창된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을 기본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고한 진리가 뒤에는 차츰 퇴화되면서 오행참위사상(五行讖緯思想)과 신선둔갑술(神仙遁甲術)이 가미되면서 조식(調息), 복약(服藥), 방중(房中), 둔갑술(遁甲術) 등이 발달하여 정사상(正思想)보다는 방경(傍經)인 <영보진문(靈寶眞文)>, <태상옥결(太上玉訣)>, <삼원부록(三元符錄)> 등이 발전하였다.

<옥추보경(玉樞寶經)>은 천상(天上)의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이 하계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方便)으로 설한 경으로 장님들이 이것을 읽어 미친사람을 치료하였다.

이 경(經)에 나오는 부적이 21종이 된다.

①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부(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符 : 미치광이를 치료하는 부적)

②초구령삼정부(招九靈三精符 : 오래오래 살며 소원을 성취하는 부적)

③구도선인부(求道仙人符 : 대도를 깨달아 만신을 부리는 부적)

④제삼재팔란부(除三災八難符 : 삼재팔란이 소멸되는 부적)

⑤해왕행구요부(解王行九曜符 : 어두운 곳에서 신이 도우는 부적)

⑥침아고질부(沈痾痼疾符 : 오래된 병이 낫는 부적)

⑦관재구설부(官災口說符 : 관재나 구설이 없어지는 부적)

⑧토황신살금기부(土皇神殺禁忌符 : 百無急病 惡夢禍免)

⑨화목창성부(和睦昌盛符 : 부부화합부적)

이상의 부적은 대개 도교의 이상향(理想鄕)인 대도(大道)를 깨닫는 부적이라든지, 삼재팔란, 일체병고, 관재구설, 소원성취 등의 부(符)가 대부분이다.

3. 염제신롱씨(炎帝神農氏)의 비전부(祕傳符 : 儒敎符籍)

사실 이 부적은 누구에 의해서 전수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그 표현내용이 유교적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로 분류하였다. 여러가지 종류의 부적이 있으나 그 유형별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소원부(所願符 : 소원성취 부적)

②삼재부(三災符 : 삼재를 면하는 부적)

③부부불화부(夫婦不和符 : 원진, 천인살이 있어 화합 못한 것을 막아주는 부적)

④재수부(財數符 : 재수를 있게 하는 부적)

⑤대장군부(大將軍符 : 대장군 방위에 이사를 잘못 갔을 때 붙이는 부적)
⑥가운불화부(家運不和符 : 가운이 불리 할 때 붙이는 부적)
⑦가화불화부(家和不和符 : 집안에 불화가 있을 때 간직하는 부적)
⑧가옥개수부(家屋改修符 : 집을 수리하는 부적)
⑨치백병부(治百病符 : 모든 병을 치료하는 부적) 등이 있다.

4. 이 밖에도 태을경(太乙經)의 태을부가 있는데, 태을(太乙)은 하늘 북쪽에 있어 병, 난리, 재앙, 생사를 다스린다는 신성한 별이다. <태을경(太乙經)>은 이 별의 운행을 천지만물의 변화에 부쳐 이루어진 것인데, 곧 경(經)을 읽으므로 일체의 난(難)을 피할 수 있으며 이를 도록(圖錄)으로 그린 것이 부(符)이다.

符의 效用性

부적의 효율성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 효용성을 정리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현대에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실용사학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그 합리성이 인정될 때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부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부적은 당시 사회의 필연적인 인과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서 당시 조상들의 사회, 문화, 종교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실용노선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몇 가지 정리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의료시설·문화시설·종교시설 등이 그다지 발달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을 종교의 신앙상징인 부적에 의지하게 되는 자연적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부적(실제로 부적에 사용되는 영사와 주사는 약효가 있음),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신성의 상징을 지니므로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료의 상징 앞에 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한 가지 빼 수 없는 것은 색(色)의 사용이다. 이 색은 동양사상에서 오행철학(五行哲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 오행과 아울러 신체의 안정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이 원래의 뜻을 벗어나 너무나 개인의 이익추구에 사용될 때에 그 근본뜻을 벗어나 차츰차츰 부적이 사라지게 될 것같다.

符籍이란 무엇인가?

符籍의 生成起源

부적(符籍)은 중국 후한(後漢)시대에 태평도(太平道)라는 신흥종교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며 민간신앙으로 현세구제(現世救濟)하는 일에 많은 일화가 전해온다.

특히 중국 삼국시대 초기, 나라가 어지러울 때 농민들을 이용 황건적들이 이 부적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장각(張角)은 스스로 대현량사(大賢良師)라 일컫고 구절장(九節杖)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며 이 부적을 만들어 병자들을 참회시킨 후 물과 함께 부적을 태워 재를 먹였다. 병이 나으면 신심(信心)이 있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 이 부적은 중국 하북(河北), 산동(山東), 하남(河南)에 퍼져 십수년간에 수십 만의 신도를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부적의 기원을 보면, 이미 단군조선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환웅이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가지고 온 것도 부적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겠다. 무거운 것에서부터 문자가 생기면서 발달하여 가볍고 편리한 부적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부적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개가 질병과 귀신에 대한 예방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불교·유교·도교 방면에서 전승하여오고 있다.

符籍은 어떻게 만드는가?

符籍의 製作과 使用方法

대체로 부적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1. 길일(吉日)을 택해야 한다.

부적을 사용할 당사자의 연령에 의한 생기(生氣), 복덕(福德), 천의일(天宜日)이나 좋은 날과 기타 길신(吉神)과 일치 되는 날을 정해야 한다.

2.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부적을 사용할 사람이나 부적을 만드는 사람은 하루 전에 목욕, 이발을 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한다.

3. 깨끗한 백지(白紙)나 괴황지(槐黃紙)에 경면주사(鏡面朱砂)나 영사(靈砂)를 사용한다.

4. 부적을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한다.

날짜가 정해진 아침 일찍이 정성을 들여 세수하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동쪽을 향하여 깨끗한 물을 올려 분향(焚香)한 뒤 고치삼통(叩齒三通 : 이를 세번 딱딱딱 마주침)과 다음 주문을 외운다.

赫赫陽陽 日出東方 五勅此符 普撑不詳
혁혁양양 일출동방 오칙차부 보탱불상

口吐三昧之火 服飛門邑之光提怪
구토삼매지화 복비문읍지광제괴

使天蓬力士 破疾用穢金剛
사천봉력사 파질용예금강

降伏妖怪 化爲吉祥 急急如律令
항복요괴 화위길상 급급여률령

위와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경면주사 또는 영사를 곱게 갈아 기름이나 설탕물에 잘 개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적을 찾아 정성껏 그린다. (규격은 대체로 가로10㎝, 세로15㎝)

삼 재 부(三災符)

1

2

1삼재(三災)가 드는 해

申子辰生－寅卯辰年

巳酉丑生－亥子丑年

寅午戌生－申酉戌年

亥卯未生－巳午未年

삼재가 드는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삼재부적 가운데에서 마음 드는 대로 사용하면 길복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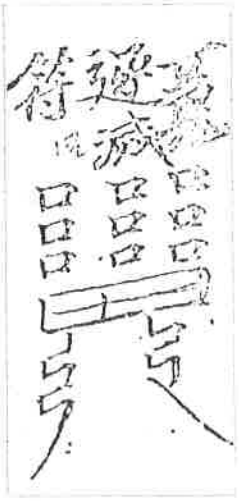
2인간은 누구나 일생 동안 삼재가 몇 번이고 있기 마련이다. 이 때, 삼재가 드는 해는 손재,질병, 상패(喪敗)등의 재앙이 이르게 되는데, 미리 재앙을 막으려면 삼재운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

3가정내에 백 가지의 모든 잡귀가 침범치 못하게 하는 부적으로 대문, 안방, 출입문, 위나 선실(배) 출입문 위에 붙이면 가정에 우환질고(憂患疾苦)가 없어 진다.

3

제귀자멸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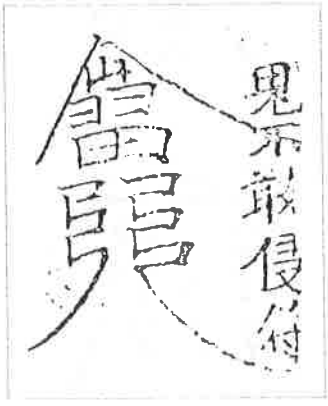
2

1악귀(惡鬼)란, 귀신 중의 제일 사나운 것으로 즉 마귀(魔鬼)이니 불결, 부정을 범하거나 실수로 인해 재앙을 초래하여 악귀가 집안에 들면 우환질고, 교통사고, 여러가지 손재(損財), 상패(喪敗)가 야기되는데 이 부적을 경면주사로 써서 대문, 안방, 출입문, 선실(배) 출입문 위에 붙여두면 악귀가 침범치 못한다.

2옛말에 여자의 원한은 오뉴월(五六月)에서리 내린다는 속담처럼 악귀(惡鬼)나 잡귀(雜鬼)중에 제일 무섭고, 사납고 끈질긴 여귀(女鬼)가 침범할 때는 이 부적을 붙여 쫓아내는 부적이다.

3가정에 헛것(귀신)이 보이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며 우환질고, 시비구설, 송사, 손재(損財) 등의 재앙이 떠나지 않을 때 제사(祭祀)를 지내고 이 부적을 붙이면 재앙이 도망간다.

3



5

4

4악귀(惡鬼)가 침범하여 재앙을 부리다가 이 부적을 붙이면 피해 도망간다. 이것도 병마, 손재수, 상패(喪敗), 교통사고, 여러가지 원인 모를 재앙이 초래할 때 경면주사를 써서 대문, 내실, 선실(배)의 출입문 위에 붙이면 재앙을 퇴치할 수 있다.

5이 부적은 모든 귀신들이 침범치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경면주사(鏡面朱砂)로 두 장을 써서 한 장은 대문 위나 내실 출입문 위에 붙여두면 가정의 우환질고가 없어진다.

백병불입부(百病不入符)

◀백 가지 병의 재앙이 침범치 못하는 부적으로 약을 써도 호전이 안 될 경우 이 부적을 경면주사로 써서 하루밤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날 불에 살라 맑은 물에 재를 타 먹으면 효험이 있다.

이 부적은 백 가지 병이 빨리 소멸되는▶ 부적으로 경면주사로 써서 붙이고 불에 살라 재를 마시면 효험이 있다.

▲산모가 젖이 나지 않고 젖에 이상이 생겼을 때 사용하면 길복(吉福)이 온다.

▲이 부적은 급한 병을 빨리 퇴치시킨다. 경면주사로 써서 문 위에 붙이고 재를 불에 살라 마시면 효험이 있다.

▲풍치 또는 충치로 이(齒)가 몹시 아플 때 경면주사로 부적을 써서 불에 살라 재를 먹고 박하 한 돈중 다린 물에 혼합해서 입에 물고 몇번이고 양치질하고 이 부적을 출입문 위에 붙여 두면 치통이 사라진다.

◀밤눈이 어두울 때는 이 부적을 출입문에 붙여 두고 쥐를 잡아서 구어 먹고 부적을 불에 살라 마시면 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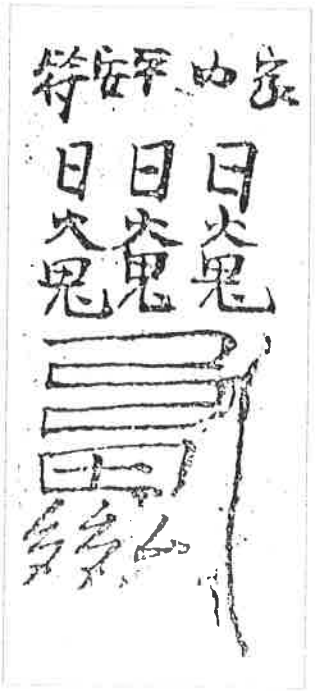
◀철 따라 오는 병을 예방하는 부적으로 출입문 위에 붙이고 경면주사로 써서 사용하고 재를 불에 살라 재를 마시면 신효하다.

▲중한 눈병으로 이 부적을 사용하여 형개(荊芥) 한 돈중씩 다린 물에 혼합하여 3일간을 걸쳐 눈을 씻이내면 맑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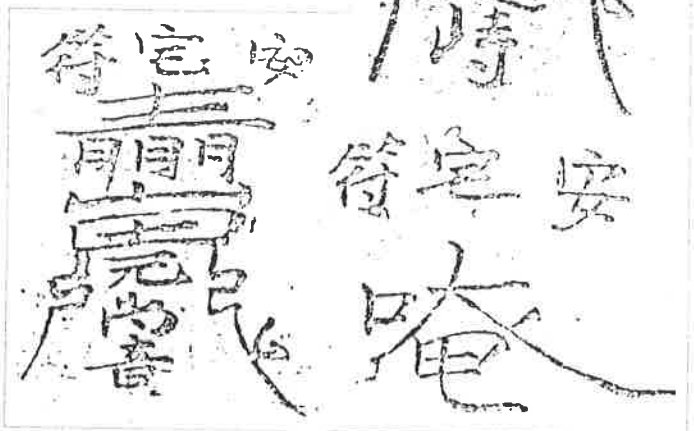
▶여자가 학질에 걸렸을 때 사용하는 부적으로 경면주사로 써서 문 위에 붙이고 태운 재로 마시면 효험이 있다.

◀남자 학질에 사용하는 부적으로, 경면주사로 써서 문 위에 붙이고 태운 재를 마시면 효험이 있다.

가내평안부(家內平安符)



◀이 부적을 출입문 위에 붙이면 가정이 편안하다. 재앙이 없어지고 경제적이나 사업도,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이 부적은 일년 동안 가정에 우환질고 및 여러가지 재앙이 침범치 않고 가정이 편안히 지내라는 안택 부적으로 정월초에 경면주사로 써서 방문 위에 붙여주면 길운이 온다.

조왕동토부(竈王動土符)

◀조왕동토부는 다른 곳의 흙을 파서 부엌(조왕)을 고치거나 부뚜막을 함부로 고치거나 수리하여 재앙이 생겼을 때 다라니경을 외우고 조왕신을 달래고 이 부적을 시용하면 재앙이 물러 간다.

▲조왕(부엌)을 건축하거나 수리하거나 부엌(조왕) 안의 일체를 수리할 때 모든 부정이나 동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적을 수리하는 곳의 동, 서, 남, 북 사방에 붙이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조왕(부엌) 안의 조왕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잡귀나 요귀가 침범치 못하게 하며 항상 부엌에 재앙이 범치 못하게 하는 부적.

천신도래문길부(天神到來門吉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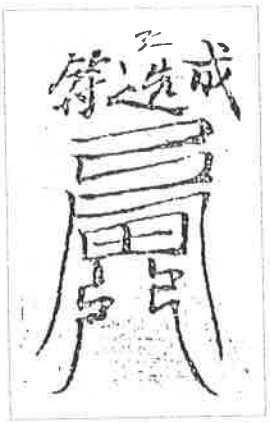
◀북쪽 문위에 이 부적을 붙이면 북쪽의 재앙이 침범치 못하며 재앙이 사라진다.

출입문을 새로 만들 때나 수리▶할 때 이 부적을 문 위에 붙이면 재앙이 침범치 못하고 길운이 온다.

이 부적을 출입문에 붙이면▶모든 재앙이 침범치 못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길운이 온다.

▶모든 재앙이 침범치 못하도록 사용하면 가정에 우환질고가 없고 마귀의 재앙이 생기지 못하도록 출입문 위에 붙이는 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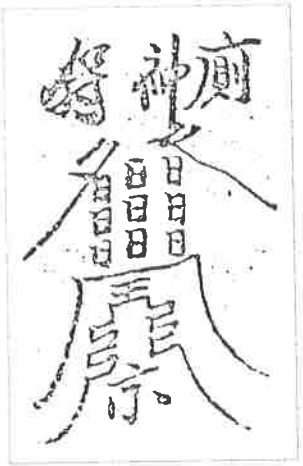
성 조 부(成造符)



▲집을 새로 지을 때나 개축, 수리, 보수할 때 이 부적들을 사용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길복이 온다.

▲집을 새로 짓거나 보수, 개축, 수리한 후에 사방에 이 부적을 사용하면 길운이 온다.

측 신 부(廁神符)



▲옛날 가정의 변소는 멀리 떨어져 있어 항상 야산으로 용변을 볼 때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 부적을 변소에 사용하면 귀신이 접근치 못하고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옥 명 부(屋鳴符)

▲집이 울거나 방이 울거나 집안에 불길한 예감이 들면 이 부적을 사용하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나무판자로 생기는 재앙부

▲나무로 된 판자로 인하여 재앙이 침범치 못하게 사용하는 부적이다.

천개·지개부(天蓋·地蓋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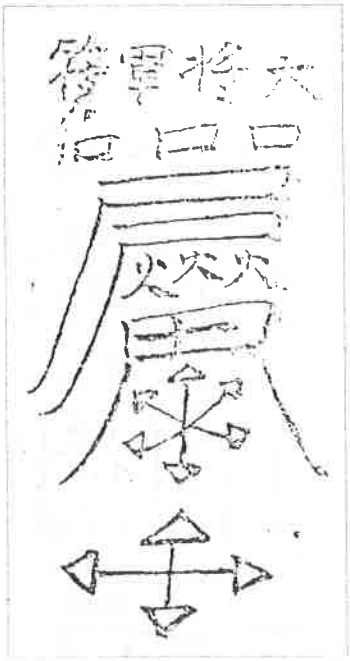
▲방 안의 기구인 이불장이나 장롱이나 함(궤), 이것들을 들여오므로 재앙이 생겼을 경우 이 부적들을 그 원인이 된 물건에 붙여두면 재앙이 없어진다.

시험합격부(試驗合格符)

◀이 부적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부적이며 오늘날에는 시험, 승진 회사 시험에 이것을 사용하면 합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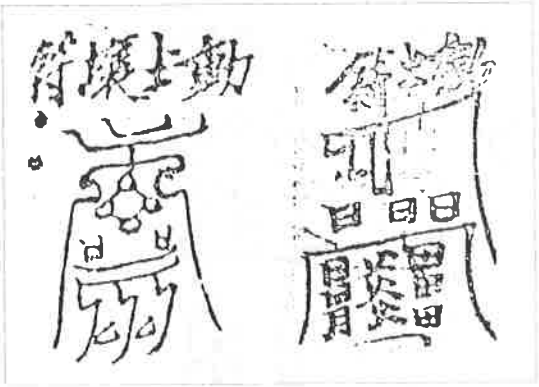
이 부적은 재판할 때 쓰는▶ 부적으로 이 부적을 사용하면 천왕신이 도와 재판을 이기게 한다.

대장군동토부(大將軍動土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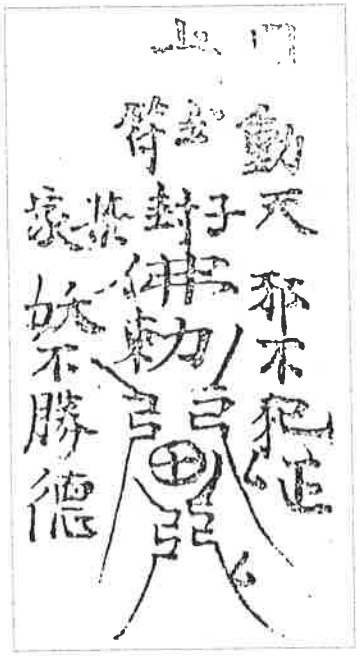
▲대장군 방위에 일이 있거나 일을 시작할 때 이 부적을 사용하면 재앙이 침범치 못하고 일이 순조로워지며 길운이 온다.

▲대장군 방위를 범하여 탈이 났거나 장차 대장군방에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 부적을 사용하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삼살방(三殺方) 동토부로 삼살방에 집수리 및 동토를 했거나 삼살방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개축, 수리를 해서 재앙이 비쳤을 때 이 부적을 집 네귀(四方)에 붙이면 흉액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흙을 다루는 부적으로 통용되는 동토부적이다. 꼭 흙을 다루다가 탈이난 것 뿐이 아니요, 작업상 신의 노여움을 받게 되어 재앙이 이르면 이 부적을 사역(事役)한 장소에 붙여 두면 탈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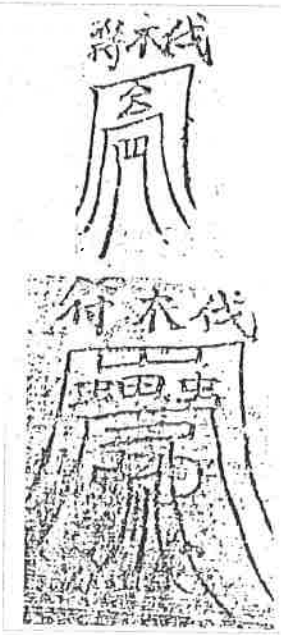
▲이 부적을 흙으로 인한 재앙(동토)이 출입문으로 침범치 못하게 붙여 두고 이 부적을 사용하면 집안이 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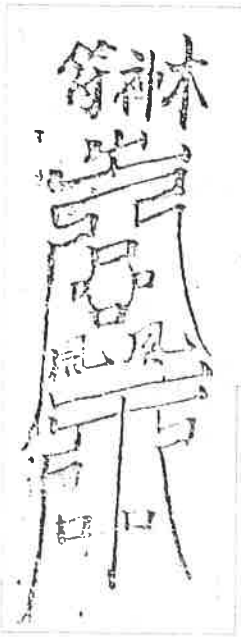
▲나무의 재앙(동토)이 생겼을 경우, 이 부적을 사용하여 재앙을 물리친다.

▲돌을 옮기어 재앙(동토)이 생겼을 경우, 이 부적을 사용하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벌 목 부(伐木符)

▲나무를 벨 때 이 부적을 붙이고 베면 재앙이 없다.





◀다른 곳에서 나무를 옮겨 일을 해서 탈이 났을 경우, 이 부적을 써서 목신(木神)에게 기도해야 한다.

석 부(石 符)

▲나무 잡신으로 이 부적을 사용하면 나무 잡신의 재앙이 없어진다.

▲도끼나 쇠붙이 기구를 사용하여 나무를 벨 때는 이 부적을 붙이고 베면 재앙이 없어진다.

▲다른 곳에서 돌을 옮겨 탈이 났을 경우, 이 부적을 써서 석신(石神)에게 기도해야 한다.

초상부(初喪符)

◀초상 때 위로하는 부적으로 이 부적을 사용하면 장사가 끝날 때 까지 아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파묘부(破墓符)

묘의 이장이나 개장을 하여▶ 묘를 팠을 경우, 이 부적을 사용하면 어떠한 재앙도 침범치 못한다.

우마병부

가축에 병이 들거나 병이 들지 않도록▶ 이 부적을 사용하면 무병장수 하면서 가축이 튼튼히 잘 자란다.

용왕부(龍王符)

◀물에 부정 불결을 하였거나 물의 재앙으로 화가 미칠 때, 이 부적을 써서 놓고 수신(水神)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 부적은 주로 강, 호수, 바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물놀이, 한재(旱災) 등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몸에 지니거나 사용하면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

순 산 부

◀산모가 난산을 하거나 출산시 태아를 쉽게 낳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부적을 써서 불에 살라 마시면 빨리 출산하며 재앙을 물리친다.

전답재해부(田畓災害符)

전답에 가뭄, 홍수, 한재, ▶ 수재 등이 있을 때, 이 부적을 써서 풍년이 오도록 한다.

▲농사의 결실을 풍성하도록 과일 열매가 병충해의 피해가 없도록 이 부적을 사용한다.

배의 안전운행을 빌 때 쓰는 부

▲배를 항해할 때 배의 안전과 위험을 물리치도록 이 부적을 사용한다.

먼길을 여행할 때 쓰는 부

▲이 부적은 먼 길을 여행할 때 모든 재앙이 침범치 못하도록 몸에 지니고 다닌다.

▶먼 길을 여행할 때, 험한 길을 갈 때, 안전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이 부적을 사용한다.

제 4 편

무속인불경문

차 례

□ 불 경 문 211

- 육 계 조
- 소축원문
- 대축원문
- 부 정 경
- 불설환희조왕경
- 당 산 경
- 산 왕 경
- 성 조 경
- 공왕관세음경
- 천 수 경
- 가택고사편
- 태을보신경
- 명 당 경
- 신 장 문
- 신장축원문
- 음 부 경
- 기 문 편
- 용호축사
- 생사팔문경
- 옥추삽팔장
- 옥추보경
- 오추후편
- 천지팔양신주경
- 역대해원
- 역대해원
- 지 신 경
- 육십갑자

불 경 문

육 게 조

선남자. 선여인니. 개경하고. 송경하나이다. 분향고. 공양하면. 공덕은. 무량하고. 선심수호하시나니. 선심수호하시면. 일광불. 월광불. 대독불. 도덕불. 공덕불. 제천제불제대보살은. 감찰비상하시고. 차가내. 신살액. 소살액 팔란액. 구혼액. 금봉액. 금신액. 겁살액. 천액만액은. 일시로. 소멸하고. 차가내일문권속. 인다장수케하소서.

1. 정심신주

태상태성. 응변무정. 구사박매. 보명호신 지혜명정. 심신안영. 삼혼영주. 백무상경 급급여.

2. 정구신주

단주구신. 토에제분. 설신정용. 통명양신. 라천지신. 각사위진. 후신호분. 기신인진. 심신단원. 영아통신. 사신연액. 토기장존 급급여.

3. 정신심주

영보천존. 안위실형. 제자혼백. 오장현명. 청용백호. 대장분운. 주작현무. 시위오신 급급여.

4. 안토지신주

원신안진. 보고만영. 악독진관. 토지기영. 좌사우직. 부득만경. 회양정토. 내외숙청. 각안방위. 비수단정. 태상유명. 수포사정. 호법신왕 보위송경. 구이대도. 원형지정 급급여.

5. 정천지혜에신주

천지정명. 예기분산. 동중현어. 황랑태연. 팔방원신. 사자연. 영보부명. 보고구천. 건라답라. 동강태연. 참요박사. 도귀만천. 중산신주. 원사옥문. 지송일편. 각병년역. 안행오악. 팔해지문. 마왕숙소. 쉬위아연. 흉에소탕. 토기장존 급급여.

6. 개경현온주

천왕천황. 보화십방. 무도불응. 무구불양. 양양온음. 만고수광. 순호자영. 역오자망. 옥문보전. 송지길창. 사명수호. 부득은장 급급여.

소축원문

복원. 천고지고. 하니, 오악이구존이요. 상유상길지정하고. 하유오방지신하고. 수유하백지

정은. 산유지령이. 지존위하고. 국유사직지단하고. 읍유성왕지탑하고. 리유당산이지존위하고. 가유사중팔신하고. 유유신명이지위하사. 복원천성이지평하야. 일월이광명하고. 성심이살라하야. 실령이청청한데. 기중에유인니최귀하고. 유신은최영이라. 삼고지세에. 인무별고하니. 생장로사는. 인개의자연이라. 천지기합하야. 일체초목이생언하고. 일월이교휸하야. 사십팔절이명언하고. 수화가상승하야. 일체만물이생언하고. 남여가윤애하야. 자손이흥언하나니. 신시자연신이면. 오체자연족하고. 장내자연장이면. 생내자연생이요. 로즉자연노하면. 사즉자연사하고. 병즉자연병하나니. 지여후천지속말하야. 자택에. 인다질병과. 인다비명횡사는. 전무제살하시고. 지여한명시하야. 석녁구서역불법니. 시통어중국하사. 여기에인생들리. 질병지액이며. 우환질고에이치로. 기도하니. 송경하면. 암중은광명하고. 위중은득안하고. 병중은득차하고. 옥출득출하고. 태중순산하고. 절체봉새하고. 사중구생하나니. 약무차법이면. 각도각읍가가인들이 하가도액이며. 기유제살지법하오리가.

대축원문

복원. 천개로자하니. 천황씨가나기시고. 지벽어축하니. 지황씨가낙기시고. 인생어인하니. 인황씨가나기시고. 물생어묘하니. 만물리생장하고. 귀생어진후염라국이낙기시고. 유왈유소씨. 락기시고. 식목은실하고. 귀목귀이하사. 사인거지집을지니. 옥대공에가왕삼만육천성조대신낙기시고. 수인씨불를내여교인들의. 화식법을가라처. 남무팔만사천열위조왕대신락이시고. 염제실농씨는. 작뇌사하사. 백성들의. 노사법을가라처. 가을이면. 백곡을정히거두어. 천지일월성신전의제사하시니. 사식단실영니낙기시고. 후토당산실령이낙기시고. 태호복희. 실농황제요순누탕문무주공. 공맹안증대성인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는. 천간을분별하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는. 십이지디를분별하고. 건곤간손진태감이. 팔방를분별하야. 천상천하에는. 팔만사천열위조왕대신낙기시고. 인물적간마련하든. 철리강남호구별성락기시고. 제후에도당씨는. 신명을하위하사. 금모수화토오성를마련하야. 동서남북이십사방에. 남혼여가법을가라처. 생남생여식키시니. 삼신제왕낙기시고. 하우씨는. 구년홍수만니시매. 삼십삼천천궁제와. 이십팔수성신전의. 지성으로제사하사. 억조창생도탄중의. 구제중생사중구생. 하섰으니. 근들지성공덕이안이라하오리가. 은왕성탕어진인군칠년대한만나시매. 태사에게문겸하고. 상님의비를빌제. 실영백모. 진조단발하고. 육사로사책하니천지신명도. 자연감응감동하사. 대우방내수철리하사. 억조창생. 도탄중구제중생. 사중구생식켜쓰니. 근들지성공덕이안이라하오릿가. 놋나라숙양을씨는. 년장사십에. 무자고로. 이구산에들어가니. 그산이명산이라. 그산에들어갈제. 그안애안씨부인과. 더불어. 이구산에. 들어가. 칠일도삼일재배하신후. 대대칭칭칠성단를. 덩그럿케높이모와녹코. 백일산제를 지성으로성공하니. 천지신명도. 자연감응감동하시고. 이구산실영님이구버보시고. 칠성님전명을빌고. 제석전의복을빌고. 부처님점지하시고. 삼신제왕이. 구버보사. 그달터잉태하야. 처하대성인. 도통군자. 문성왕공자

님을탄생하야. 명전천추에. 혈식천를 지금까지. 대대로유전하니. 근들지성공덕안이시며. 산신덕택이안이라하오릿가. 남양초당제갈공명선생님은. 전구시대날리를만나시매갈건야복으로. 남병산에들어가. 칠일기도. 삼일재배하신후. 대대칭칭칠성단을. 덩그러케놉히모아녹코. 백일산제를지성로성공하니 천디신명도자연감응감동하시고. 남병산신령이구버사. 동십일월 이십일일. 갑자일갑자시에때아인. 동남풍을. 삼일삼야. 빌어다. 적벽강화전에승전하사. 유왕숙을구제중생하시고억만인도. 사중구생식켜쓰니. 근들지성공덕안니며. 산신덕택이. 안이라 하오릿가.

그러함으로. 지성이면감천이요. 지은이면감신이라 지성과. 정성으로. 천액만액을. 소멸하고. 질병지액소멸하고. 우환질고소멸하고. 삼재팔란. 관재구설. 실물지액. 화재지액. 천액만액를. 소멸하야. 가인안택. 가부인응의. 소원지사를. 소원대로. 성공하여거늘. 하물며. 지금세상의. 자칭천자로. 지여경대부. 사대부. 사서인. 우리갓튼범인들이야엇지하야. 지성과. 정성이. 읍다하오릿가. 그러함으로복원. 지성이면. 감천이라. 자택에. 일문권속은. 차가중팔신지위며. 열위제대실령전에. 지성으로발원하면. 태산같은. 공덕를. 하해갖이잎을차로. 금위태세. 유세차. 해수로는. 모년모월모일공수요. 남선구호요. 해동은대한민국인데. 모도모군모면모리. 거주거생하옵기는. 모생모씨요. 곤명치주도모생모씨요. 당상부모님과. 실하자손들과. 상하남여노소. 일문권속들이. 일년이면. 열두달. 과년이면. 열슥달. 삼백육십오일. 내내번듯도라가도. 상봉하솔하고. 안과태평하기를. 날로때로기다리든. 가중인대. 자택에모생모씨가. 년액이불길튼지. 월액이불튼지. 일액이불길튼지. 시액이불길튼지. 년운이사납든지. 운수가비색튼지. 조물이시기튼지. 귀신이생괘튼지. 조련득병하야. 병지간세는. 복이무타라. 음식이무미하고. 침석이불안고. 오심번만하고. 육맥창양하고. 사가실령하고. 백절고급하고. 한열이내왕하야. 기지사경이라. 의가에병논하야. 만단으로치료하되. 종무에차효고로. 원가에복문하고. 근가에복문하고. 문복자에문겸한즉. 일건천. 이태대. 삼이화. 사진뢰. 오손풍. 육간수. 칠간상. 팔곤지. 필필육십사괘지내삼백팔십사괘로지위히고. 오괘로지위하고. 동효로문추한즉. 혹자는동토다. 혹자는살생다. 혹자는귀책이다. 가지각색에. 수다대한말리만사와. 복원. 자택에일문권속은. 지성로택일하. 독경으발원코자. 천하공의올라가. 천기대요. 펼쳐노코지하공의나려와. 묵은책녁젓처노코. 해책녁펼처노코. 천기대요. 상합맛처. 일생상기. 이중천. 삼하결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덕. 칠하절명. 팔중유혼. 구궁으로. 상합하니. 건명대주생기일. 곤명지주복덕일. 남생기여복덕. 당상부모안영일. 실하자손창성일. 우마육축번성일. 농수에대통일. 사업에재왕일. 객귀객신절명일. 동토살생능멸일. 혼신에는유혼일. 사중팔신안정일모생모씨병쾌차일로. 지성으로택일하야. 독경으로발원할제. 송경법사는. 엄정의관정심정기고차연후. 낭송호대. 실물견만. 교담저버무재단속념념무의소원을. 고축이오며. 자택에곤명지주는. 동방갑읍청용수. 남방병정주작수 서방경신백호수. 북방님계현무수. 중왕무기구진등사황용수. 오방오룡수빌어노코. 병지간세즉차수. 만년안택태평수. 천상에은하수. 지하에황해수. 명수복수일수월수. 천년수만년수빌어다 상탕에마지 하고. 중탕의머리목욕.

하탕에손발수족즌조단발실영백모한년후. 상당에금메공향중당에해시루공양. 하당에옥수공양. 삼색실과공양이며. 지성으로공양하고. 정성으로공양하고. 지성으로공양하오니. 열위제대실영님은. 공양마지을흠향하시고. 자택에일문권속안과택평소원성치점지케하소서.

부 정 경

천상부정. 지하부정. 원가부정. 근가부정. 대문부정. 중문부정. 계견부정. 우마부정. 금석부정. 수화부정. 토목부정. 인물부정. 오방부정. 사하부정. 침구부정. 측거부정. 조정부정. 방청부정. 년월일시. 사부정. 청상지하. 부정일로개소멸케하소서.

불설환희조왕경

계수장조왕신. 십방요조대광명. 위광자제조왕신. 토지용신개환희. 천상사관조왕신. 합가인음총안녕. 내외길창조왕신. 금은옥백만당진상봉길경조왕신. 악귀사천퇴산란. 지망정조왕신. 억선만복구족제. 이장안주조왕신. 부부가인중복수. 쟁앙영멸조왕신. 백병소제대길창. 증시수호조왕신. 백곡승출양잠배. 구호택사조왕신. 일체신개환희. 옴급급여.

당 산 경

동방천왕당산신. 남방천왕당산신. 서방천왕당산신. 북방천왕당산신. 중왕천왕당산신. 동방청의분인당산신. 남방적의부인당산신. 서방백의부인당산신. 북방흙의부인당산신. 중왕황의부인당산신. 동방청제장군당산신. 남방적제장군당산신. 서방배제장군당당산신. 북방흙제장군당산신. 중왕황제장군당산신. 급급여.

산 왕 경

대산소산산왕대신. 대악소악산왕대신. 대각소각산왕대신. 대축소축산왕대신. 미산재처산왕대신. 이십육정산왕대신. 외악명산산왕대신. 사해피발산왕대신. 명산토산산왕대신. 금귀대덕산왕대신. 청용백호산왕대신. 현무작산왕대신. 동서남북산왕대신. 원산건산상왕대신. 상방하방산왕대신. 흉산길산산왕대신. 급급여.

성 조 경

남무성조성신성조대신. 태세진군성조대신. 나무동방택신성조대신. 남무남방성조대신. 남무서방택신성조대신. 남무북방택신성조대신. 남무중왕택신성조대신. 남무갑을방성조대신. 나무병정방성조대신. 남무무기방성조대신. 남무경신방성조대신. 남무경신방성조대신. 남무

임게방성조대신. 남무자축방성조대신. 남무인묘방성조대신. 남무진사방성조대신. 남무오미방성조대신. 남무신유방성조대신. 남무술해방성대신. 남무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월성조대신. 남무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월성조대신. 남무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일성조대신. 남무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시성조대신. 남무일백이흑성조대신. 남무삼백사록성조대신. 오황육백성조대신. 남무칠척팔백성조대신. 구자지신성조대신. 천탑지탑성조대신. 남무년탑월탑성조대신. 일탑시탑성조대신. 대탑소탑성조대신. 남무대리소리성조대신. 절명절체성조대신. 천상백상성조대신. 남무오방지신성조대신. 사해지신성조대신. 오방오토성조대신. 남무금석수화성조대신. 목물토석성조대신. 금위금택성조대신. 남무목택성조대신 화위화택성조대신. 수위택성조대신. 남무토위토택성조대신. 당실내외성조대신. 귀옥택신성조대신. 남무천문지호성조대신. 남무산야임중성조대신. 남무제현주신성조대신. 남무호법장군성조대신. 남무증복수성조대신. 남무반야바라밀.

공왕관세음경

관세음보살. 남무불. 남무법. 남무승. 불구유연. 불법상인. 상락아정. 유연불법. 남무미히반야바라밀시대신주. 나무반야바라밀. 시대명주. 남무반야바라밀시무상주. 남무반야바라밀. 시무등등주. 남무정광비밀불. 법장불. 사자후신족유왕불. 불고수미등왕불법호불. 금강장. 사자유희불.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광불. 보광공덕산왕불. 선주공덕왕불. 과거칠불. 미래원겁철불. 천오백불. 만오천불. 오백화승불. 백억금강장불. 정광불. 육방육불. 병호동방보광월전묘존음광불. 무량재불. 타보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초불. 아미타불. 중왕일체중생재불토게중사행무어지상급재허공중. 자어일중생강영안혼휴식주야주지신. 심상구송차경능멸생사고. 수복어득해. 남무대명관세음. 개명관세음. 약왕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허공장보살. 보광여래화승보살. 염염송차경. 칠불세존. 즉설주왈. 이바이바제. 구아구아제. 다라니제. 이하라제. 비리니제. 마하기제. 진영갈제사바하. 십방관세음. 일체보살. 서원구중생칭명실해탈. 약유박복자. 은은위해설. 단신유인연. 독송구승철. 독경만천변. 념념심불점. 화렴불능상. 도병입체절. 에로생환희. 사자변성활. 막언치시에. 제불불망설고왕관세음경.

천 수 경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수리. 수수리사바하.

1. 오방내의안위제신진언

남무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지미사바하.

2.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여래진실의.

3. 개법장진언

옴아라남아라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대비심대다라니. 계청. 계수관음대비수월녁홍심상호심.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광명편판관조. 진실어중선밀어. 무의심내귀비심. 속역만족제희구. 영사멸제죄제법. 청용중성동자호. 백천삼매돈훈수. 수지심신광명당. 수지심신신통장. 세척진료원제해. 초증보리방편문. 아금치송서의구. 소원정심실원만.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치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에안.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득선방편.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월고해.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게속도.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원적산. 남무대비관세음. 원아속승법성신. 아약산도산. 도산자체열. 아약향화탕. 화탕자고갈.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아기. 악귀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 남무관세음보살. 마하살. 남무대세지보살. 마하살. 남무천수보살. 마하살. 남무여윤보살. 마하살. 남무대륜보살. 마하살. 남무정취보살. 마하살. 남무만원보살. 마하살. 남무수월보살. 마하살. 남무군단위보살. 마하살. 남무십일면보살. 마하살. 남무제대보살. 마하살. 남무본사아미타불.

4. 신묘장구대단라니

남모라. 단아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가로기야. 옴. 살바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바. 이맘알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반니라칸타. 낙막하리나야. 마발타. 미사미. 살발타사다남. 수반아혜염. 살바보다남. 바바말미수다감다야타.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혜혜하레모지사다바. 사마라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현제. 마하미현제. 다라다라다린나례세바라. 자라자라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에혜. 헤로게. 세바라라아. 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호로호로마라. 호로하레바나바나바. 사라사라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짜못짜모다나야. 모다나야. 매다리야. 나라칸타. 기미사다남사다야. 바라하니야. 나막사바하. 싯다야사바하. 싯다유에세바라야사바하. 니라칸타야사바하. 바라하욕따야사바하. 싱카섭나네모다나야사바하. 마하라구타다라야사바하. 바마사간타이사시젯타가리나야사바하. 마가라갈마니바사다야사바하. 나모나다나다라야야. 나막알야. 바로기제세바라야사바하.

—사방찬—

일쇠동방결도량. 이쇠남방득청양. 삼쇠서방구정토. 사쇠북방연안강.

5. 도 량 찬

도량청청무하헤. 삼보청용강차지. 아금치송묘진언. 원사자비밀가호.

6. 참 회 게

아석조석제악업. 개유무지탐진지. 종신구지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7. 참죄업장십이존불

보승장불. 보광왕화렴존불. 일체향화사재력왕불. 백억향화사결정불. 진위덕불. 근강건강속괴산불. 보광월전존왕불. 환희장이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미이승광불

8. 십악참회

살생중죄금일참회. 투토중죄금일참회. 사음중죄금일참회. 망어중죄금일참회. 기어중죄금일참회. 악구중죄금일참회. 양성중죄금일참회. 탐애중죄금일참회. 진해중죄금일참회. 치암중죄금일참회. 백겁십제. 일념돈탕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죄무자성종심지. 심약멸시죄역망죄망심멸양구공. 시즉명위진참회. 참회진언. 옴살바못자모지사다야사바하.(3번)

준죄공덕취. 적점심장송. 일체제대란. 문능치시린.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정획무등등. 남무칠구지불묘대쥰제보살정법게진언. 옴남(3번). 호신진언. 옴치림(3번) 관세음보살. 봄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준제진언. 남무사다남. 구치남다야타. 옴자레준제사바하. 부림. 아금칭송대준제. 즉발보리광대원. 원아정혜속원명. 원아공덕개성취. 원공중생성불도. 여래십대발원문. 원아성심삼학도. 원아속단탐진지. 원아상문불법승. 원아근수계정해. 원아향수제불학. 원아불퇴보리심. 원아결정생안양. 원아속견아마타. 원아분신변진찰. 원아광도제중생

9. 발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량서원학. 불도무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뢰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발원이귀명삼보. 남무상주시방불. 남무상주시방법. 남무상주시방승.「천수선편」

가택고사편

천지만물. 조판시에. 인간말물생장하고. 일월성신작분후. 삼양오제따라나니. 은왕성탕대성인은. 선천후천마련하고. 하도락서와. 주역서펼친후. 최귀자인간인생출세하니. 유정무정걸인. 인생팔십이. 한명이라. 건곤니 개벽후. 명기산천생기연네. 주미산이제일리라. 동학태산. 남학화산. 서악금산. 북악형산은. 산악지조정이요. 사해지근원이라. 오초는동남탁이요. 건곤은일야부라. 만첩청산운심터에. 고여초목성림하고. 록수청강절승한데. 개자춘몽락시로다. 산지조정골윤산이요. 수지조종황하수요. 국지조종대한민국. 인지조종순덕수라. 골륜산일지맥이태왕하야. 천하구추분별할제. 백자연은육갑이되잇고. 산천은고교하야. 세계를덥허쓰니. 등태산소천하는. 공자님도량이요. 천하지중낙양땅은. 중원이명승지라. 천문을 열어녹코. 지리를살피보니. 낭경은오천배요. 북경은선천배라. 주장봉이청용이요. 백운산은백호로다. 남병산주작이요. 태백산이현무로다. 간용산맥버더나려. 백두산를마련하고. 그산맥버더나려. 묘양산이생기엿네. 우리시조. 단군님도그산에하강하사. 평양에서철년도읍그안이장하

시며. 그산맥버더나려. 천하제일. 금강영주. 봉래산이. 그안니장하시며그산맥버더나려. 삼각산이되여잇네. 삼각산이뚜떨어저. 어정주춤. 나린줄기. 용두호미학의형국분명하네. 봉의머리. 터를닥고. 학를눌너대궐세니. 궐내에육조로다. 억만장안. 억만가구. 태평성덕이. 억만년지무궁이라. 각도각읍을마련할제. 평안도는삼십삼관. 함경도는이십칠관. 황해도는삼십칠관. 강원도는이십육관. 경상도사십이관. 절라도는사십사관. 충청도는이십관. 경기도에이십칠관마련하이. 여천지무궁이라. 원아금일. 사바세계남선부주. 해동은. 대한민국. 모도모군모면모리. 거주거생하옵기는. 모생모씨역의. 대한가중인데. 이가게를. 창건할제. 주장봉이청용이요. 백운산은백호로다. 왕생득고정파는. 압수구를막아잇고. 녹초문곡생길성은흉악한살막아내고. 안대에문필봉은. 문장재화가날것이요. 노적봉고창성운각에소사스니. 천하부귀될지로다. 경개만은. 이터전이명당이라. 유소씨찬수생화. 실농씨농약법은. 경전이식하고. 채약이음고로. 각도각읍가가인니. 방방곡곡가택이요. 가가호호성주로다. 부귀공명. 어나무. 울울창송송백목구헤다가. 이가게를. 창건할제. 천정용줄금부용은. 천작으로. 생겨쓰니. 곤산옥돌. 주추노코. 기산오동네모접어. 삼합으로. 사개아서. 원형지정. 기둥세고. 오륜삼강. 도리언고. 호박으로들보언고. 산호로. 반자하야. 사시장천화양목을. 옥도키로베여다가. 금도키로다듬어서. 은대패로솰솰밀어. 생기복덕. 년월세덕. 중간호미갈라부처.응천상지삼광. 비인간지오복를. 두려시새기여언고. 영춘세목구헤다가. 너스레를. 총총매고. 인의에지. 예의념치. 팔조목으로연목걸고. 개화로영개하야. 이가계를. 창건한이. 제일명당여기로다. 안채는복복자요. 박갓채는목심수짜. 우채는편안영자. 좌채는. 편안강자. 수복강영라일한데. 사대문을만련할제. 삼팔목은동문내고. 이칠화로남문내고. 사구금은서문내고. 일육로북문내고. 오십토로중문내니. 재앙니물너가고. 복록이자래로다. 한일자집에다. 줄상양. 호박주추. 소실대문. 우불구불평고자. 구름도리색칠하고. 봉의머리단장하야. 주란화각이. 반공에소사쓰니. 구궁팔쾌증법실은토주지신견소되고. 내외음양. 생기문우방위가두렷하고. 장춘화기품었으니. 귀분인처소로다. 인의예지. 가지버더. 오륜상강꽃이피고. 자소창성열매매저. 무량불로인성은. 백이십명식점지할제. 전후의정원에는. 천상벽도. 도리화. 난초지초. 불로초부기목단심노니. 삼춘서기도라들고. 삼양서기. 모아든이. 제일명당여기로다.

태을보신경

태상왈. 황천생아. 황지재아. 일월조아. 성신영아. 제선거아. 사명영아. 태을임아. 옥신도아. 삼관보아. 오제우아. 북신상아. 남극좌하. 금동시아. 옥녀배아. 육갑직아. 육정진아. 천문개아. 지호통아. 산택농아. 강하도아. 풍우송아. 뢰성순아. 팔쾌존아. 구궁순아. 음향종아. 오행부아. 사시성아. 아명착아. 태청현적. 상궁승강. 상하왕래. 무궁불식. 금반옥장. 향구개지. 허범일월. 여천위서. 은포성구. 비작보성. 소구자득. 소양자형. 소위자합. 소육자형. 종종변화. 여도합신. 하신불복. 하명불행. 전유주작. 후유현무. 좌유청용. 우유백호. 상정화개. 하섭괴상. 신통광명. 위진시방. 애아자생. 오아자앙. 모아자사. 증아자망. 영동신녀. 파쇄금

강. 삼천육백. 상재아방. 집철봉부. 영아동유. 정정보화. 도검옥부. 태상섭아. 경천길창. 이십사부. 여제성력. 천지만물. 각각자순. 팔방제신. 자연복종. 자연영험. 만수동정. 일일에보. 명명봉행. 일체무의. 원언여시. 옴급급여.

명 당 경

불설명당신주경. 안토지신명당경.. 여시아문일시불. 천황대제수명당. 지황대제증복수. 인황대제액소제. 대법천왕오액멸. 제석천왕관재멸. 조왕대제무량복. 동방택호복희씨. 남방여제실농씨. 서방호소금천씨. 북방전욱고양씨. 중왕황제현원씨. 동방세성안심지. 남방화성멸화지. 성방금성록위지. 북방수성장엄지. 게도라후별경지. 일성월성애호지. 탐낭거문창자손. 녹초문곡흥인구. 념정무곡성소원. 파군대성만여희. 칠성구호강님호. 이십팔수환희지. 일백이흑만세지. 삼백사록의복지. 오황육백천재멸. 칠척팔백진재멸. 구자지신득우마. 오방장군복록지. 팔부금강수호지. 사해용왕의복지. 오악산왕조가호. 금귀대덕칠보지. 옥당현무수명당. 청용백호득우지. 사면주작현이봉. 명당구진복덕지. 철뢰천형악퇴산. 공조태을의복지. 천강태을의복지. 슨광초길입천지. 천괴증명만복지. 신후대길입재물. 은현신호상수호. 부동안좐금강지. 여시여시 우여시. 천세천세 천천세. 만세만세 만만세. 부귀부귀 증부귀. 직설주왈절라조. 지라조일월황라조. 일체가리야신. 마하반야바라밀. 옴. 급급여.

南無壹心奉請正壹天尊玉皇上帝奉命使者素車白馬大神將 之位
三奇八門堂堂井井六屯九法回回滾滾
東西南北五行 主在年身方位一局順逆
劍水刀山即汝之按劫海驚浪即汝之路
八陣六花變而化之九法六屯鐔而藏之

신 장 문

천위신장. 지위신장. 오방신장. 동방갑을청용신장. 남방병정주작신장. 서방경신백호신장. 북방임계현무신장. 중왕무기황제신장. 천수이십사만신장. 지부이십사만신장. 옥추사십팔원제대신장. 천상옥경태을신장. 천상옥경천존신장. 천상옥경뢰성보화천존신장. 풍운신장. 풍백신장. 상무신장. 우수신장. 지하병마도원수. 인간병마도원수. 춘하추동변화신장. 시시로변화신장. 육정육갑둔갑신장. 북두대성구료신장. 천지팔양팔부신장. 악귀잡귀금란신장. 천지기합광명대장. 전후좌우호령대장. 황건역사금의신장. 청용팔부야차신장. 수부사해용왕신장. 금은오행주장신장. 일월동방십이신장. 사중팔신권속신장. 천지조화풍운신장. 사시열진십이신장. 이십팔수번회신장. 천상천하차귀신장. 남무일심봉천증일천존옥황상제보명사자소거백마대원수대신장님은. 다솔각장. 다솔병마. 다솔게장하시고. 일월조림지하의. 루지하강하시고. 차가내일문권속. 소원성취점점지케하소서.

신장축원문

제 일 편

태호복희실농황제. 요순우탕문무주공. 공맹안증대성은. 개개로대성인야신이. 촬철리하시고. 관지맥하사. 내지천지조와하시고. 내지만물편복하시니. 구구팔십일은. 천지즉극양이요. 팔구칠십일은. 음양지종신야라. 천장은만만천천구만구천구백구십구리야요. 지광은만만천천구만구천삼백오십오리야니. 동서남북이. 개시동야라. 삼고로제왕군자는.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루. 지하강하시고. 조아소원하소서.

제 이 편

동양서음은. 부지처야오. 남포북인은군신지분야요. 천양지원은. 부모지도야요. 전후좌우는혀제붕우지신야라. 말물지승세와. 인형지흥망과신장님조화는. 여차로가이맨지. 구구도사. 마의도사. 한의도사. 철의도사는. 축전축지. 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류지하강하시고. 조아소원하소서.

제 삼 편

청양은지원하고. 지역은지방하고. 인욕은지욕하고. 귀신은지령하나니. 시고로. 일월이원조하고. 목석이방생하고. 탈제는건물하나니. 축복내영임시변화. 여차로가이맨지. 육갑육을철뢰장군. 육병육신지신장군. 육무육기월근장군. 육경육신일퇴장군. 육임육계교물장군은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아소원하소서.

제 사 편

천무라지. 지무라지. 일형백모. 만야반야. 의양의양하야. 내조응하시니. 비금은철리야요. 조수는지맥야라. 하오는정간하고. 순종은의관하니. 음양시야라. 하로는치송하고. 춘하는동세하하니. 만복이차애라. 간무내지조와하시고. 임시내지길흉하나니. 복원오방신장은.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오 편

중선이정정호대. 불여일월지광명이요. 인물이정정호대불여. 귀신지영이요. 천택이수심이나. 불여풍운지영인니. 차사자는. 정물지망이라. 환산도사. 연봉도사. 방변사신. 선토전물은.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육 편

남산이. 여등애. 북액이장미하고. 동녁이저님애. 석북이제도하고. 벼능애사방요란하니. 차는천지변복이라. 달아존사. 아금석신. 육육각방시이신장은.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칠 편

원영지정은. 천도지심야요. 원도는부모야요. 형도는사제야요. 지도는형제야요. 정도는군

신야라. 인의례는. 인승지강인니. 인형은. 춘일야요. 의형은하일야요. 례형은추일야요. 지형은동일야니. 차사자는. 천지사주야라. 구구도사. 강파도사. 소부의선생님은. 축전축지하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팔 편

길인은. 성인야요. 봉황은군자야요. 후토는소인야요. 길인은성인야요. 군자는간인야니. 차사자는. 정물지망이라. 화산도사. 연봉도사. 방변사신은.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 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구 편

천문이서개즉. 동영하고. 지리를동영즉. 남풍북흉하나이. 선천지월은. 후천지월하고. 동지지월은. 동지일하나니. 차는음양선우라달아존사. 아금석신. 육육각방십이신장은. 축전축지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제 십 편

춘생지물은 동서가염지하고. 추생지회는. 하로를. 불비하나니. 차는천지변복이라. 시고로 목석지고. 어사요가. 승애잔재. 타여지문과. 반왕지신과. 태을지하상가지의는. 내조흉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루지하강하시고. 조와소와소원하소서.

제 십일 편

태양장군. 복병장군. 태을장군. 화백장군. 축지장군. 산악장군. 울뢰장군. 선봉장군. 후봉장군은. 청아지귀를. 일시로소멸하시고. 육정육갑신장은. 류지하강하시고. 조와소원하소서.

음부경

관천지도. 하면. 집천지행하니. 진니라고로천유오적하니. 견지재창이요. 옥적이재심하야. 시여문추하니. 우주재호신이고. 만환상의라. 천성은인야요. 인심은기야니. 입천지도하이. 이정인니라. 천발살기하면. 용사기육하고. 인발살기하면. 천지반복하고. 철일함발하면. 만화정이리. 성인니. 교졸한니. 가이복장이요. 국유지사요하며. 재수삼하고. 가이동정이라. 화생이묵하니. 교팔필국하고. 간생어국하니. 시동필게하나니. 지귀수련은. 위선이라. 천생천살은. 도지인야요. 천지는. 만물지도요. 만물은인지도요. 인은만물지도니. 삼도기이면. 삼재기난이라. 고로. 식기시하면. 백해리하고. 동기리하면. 만화안이라. 인니지기신지신이요. 부지기신지. 소위신이라. 일월이유소하고. 대유소현한니. 성공이생언이라. 신명이출현하니. 기도기야는. 천하망능경. 막는지라도. 군자득지하야. 곤궁하고소인득지하야. 견명이라. 천리이원하면. 농사십배하고. 삼번주야힌면. 용시만베이리. 천일지효. 반왕지공이라. 지여주아삼번하면. 일불설화하며. 자연견이라. 심생이묵하야사어물한니. 신기재물인니라. 천지재물이라하되. 대운이생언야라. 실뢰열풍이. 맑불출원이라. 지곽은성여요. 지정은성님인니천지사요. 용

지지공인니. 금지주는. 생지근이다. 생자는사지근이요. 사자는생지근인니. 은생어해하고. 해성어은니라. 우인은미천지물로. 생컨대. 아는이지물로철하고. 이우로생컨대. 아는이지물로생하고. 인은이지로생컨대. 아는이지물로생하나니. 침수입하야재췬멸망인니라. 고로. 자연지도는. 정고로. 음향이상승하고. 천지지도는. 침고로. 일변화순야라. 시고로성인니. 지의자연지도. 침고로불가위하야. 인이주시하시나니. 지성지도는. 율역소불능게라. 해유기긔하야. 치상만상하니. 팔쾌갑자와. 신기구장이. 음향상승지술이. 손의진효상인니라.

기 문 편

일불증심이면. 무이수신행도요. 신불증심이면. 무이조화만물하시고. 귀불증심이면. 무이인도환생하나니. 고로역지위서. 쾌요. 당산지위. 비말물리. 지위하나니. 성인지위. 천하내세기극이라. 입즉불가. 포부의간. 천천대일. 제처재건. 관사유시. 선천하이개. 지물하고. 후천성지물하야. 시고로. 즉기수하야. 이성천하지. 기상하나이. 분기우하야. 이정천하지길흉하나니. 팔팔로. 육십사쾌하야. 이지여. 삼백팔십사욕즉. 개소이증명지리하고. 진변화지도야라. 산지재리애. 즉. 만수하고. 총지재리애즉. 무이치하니. 소이역에. 재유태극하니. 시생양의라. 태극자는도야요. 양의자는음야요. 음양은일도요. 태극은무극이라. 말물지상에. 부흥이. 표양하나니. 막비태극양이라. 인혼교갈에. 변화무궁하야. 영일애수기상하고. 신일애발기지하야. 정의출언니. 만서기언하고. 역에소이증. 길흉이성대업자시야라. 참효로순직하고. 미호로동정하니. 여천지로합기덕. 여일월로합기명. 여사시로하기서. 여귀신으로합기길흉하나니. 고로. 천존지비하니. 강유단이라. 방유취코. 물리군분하니. 길흉이생의라. 제천이성하고. 재이성영하니. 변화선의라. 선천이천불우하고. 후천이봉천차사. 하야. 천차불후는. 이향호신호며. 향호귀신호아고로. 대유소왕대래하고. 정길하며. 박의상의하야. 호안안택하고. 무망지질은. 물약유의하고. 대과동은유왕유정이라. 군자이하야. 제수도하고. 의덕행하야. 안관부찰하고. 지우명지고하고. 원시로반종하야. 지사생시설하니청기는유물이요. 유혼은위변이라고로. 지기신지정상하나니. 사마기간의. 감유가유원가. 천지는. 설우하야. 이역이. 행오기중의니도의지문야요. 범위불우하야. 이도통호기간의. 조화지문야요. 일문을광개한이. 만상이분배하고. 위철일지위. 천구지십수야요. 오이시야라. 기유생성지하니. 굴신이왕자진야라. 대연지수. 오십기용애. 사십육구지위하야. 이지어삼백육십오도. 사분지일직가. 지기일천오백이십책지소. 자유이당말문지수야라. 사역이서역하야. 십유팔번성쾌하야. 소성이신지장지하며. 지변화지도자는. 지기신지소위호지위로. 명우천지지도는. 이찰호민지고하나니. 합호를위지건이면. 벽호도위지곤이요. 일합일벽을위지변이라. 이용출입애. 기비기정가. 하용낙구애. 일리불차하고. 선천후천말유득기하야. 삼기팔문은당당정정하고. 육둔구법은. 뇌뇌곤곤차야동서남북이. 오행주재하고. 년신방위애. 일국순역즉. 천강태중신후대길시야라. 생유개두애. 외사마. 집출익긔야니. 상제님. 여하시나이. 왈여요사야. 방승기긔야. 년월지식사자금가하고.

이합지지는. 신장이호위하이. 구천보화천존이. 유언하사. 사차태을진인으로일체분부. 구사용사하나니. 왈정이라. 군자이하야. 용충충민하고 불영은청영하야. 주야가만방하고. 개비로. 광대지의문하고. 소실제유심지보장하야. 삼거재물애. 동조화격지향하고. 오교응기애. 전임제주지망이라. 군왕이신음하매. 호막도언가. 용강호복애. 사아순원가. 사지는천풍이지뢰하고 뢰화가병녁하고 사질이소연하니. 유소이법언하고. 화전복의라. 제은중고와. 삼재육해와. 오도칠승사자는. 기호법정과. 정불가효라. 일체철갑봉이. 대체지욕하니. 막천청기라. 천에묘수는. 방위소왕하고. 각정향영은. 국유좌우하야. 천뇌천형은. 늠약유상하고성역인문은. 유황유정이라. 대인니. 재차하야. 섬로을괴류와. 왈여요사야. 자수로이퇴하라. 정도막역하니 역지재사라. 약지국가하야. 행기고망즉. 일호개합의. 칠성이재패하고. 삼형주선애. 신기후막직하니. 잎하면. 중이요. 출하면곤인니. 게감은용수요. 태음태양은집인니. 자존하고. 게도라후는. 장금자입하니. 입저지왕이요. 왕자이문하니. 문하배수라. 수직수하나니. 금수도산은직여지협이요. 겁해경랑은직여지협이요. 팔진육화는변이화지하고. 구법육둔. 은보이장지하고. 철리무안하고. 순풍이용이하니. 파서지맹학이. 무역하고. 억복지진야라. 육손이요락하니. 군자견기야요. 불사종일하야. 심감입감하야. 일필십일망자는. 무사잠문야라. 일백구자는. 남북이상대하고. 삼백칠척은. 동서가공포하니. 건곤감실역사와. 곤감실박사주서는. 무불주망이요. 포미백호는. 순인니이. 불위하고. 비렴왕변은. 신지로용력하니. 반원중순과. 현구통천과. 주마육임니허합유의하야. 조와무궁야라. 대액을쇄하니군자견기야요. 일직불가하고. 가직불입하니. 시역이야요. 천천대일하고. 장부의형하니. 시역권야요. 지처재건하고. 상하불우하니. 식역권야요. 관재유시하고. 소불락루하니. 시역술야요. 문벽우생하고. 인겨우생하니. 생사일인은. 팔문니개역인니라. 요중의개법자하니. 어영부사가신인화복왈. 원형지정은. 사시가유방하고. 삼팔정기는. 일기유방하이. 기문기요. 기법은정이요. 기우는양이요. 기괴주인이니. 물리대문하야. 문을벽하니. 생은주라. 주여든왕하고. 사는물이라. 물이여든입하라. 중이외중이외는. 곤인니. 왈여요사야. 감승기거야. 도중보시로. 풍명누사하리라. 삼재육해와. 오토칠상이라. 기감승현일이요. 정중은팔문인니. 건원이재상이라. 태을진인. 천부백재양온부. 천황대제. 북극재미대제. 육갑. 육을. 육병. 육정. 육무. 육기. 육경. 육심. 육임. 육게. 건곤감이 간손진태. 옴급급여.

용호축사

축귀축사하고. 제귀벽사. 해구해살은. 천존소설용호보경. 이시승조. 원시천존자. 태청성경. 옥천선경. 태상노군. 옥황상제. 천황대제. 성왕성천. 승모후토황제. 일체오방오제성군. 동방목성군. 남방화제성군. 서방백제성군. 북방흑제성군. 중왕황제성군. 삼십육도. 사선이요. 팔십일만진인니라. 년직사자 월식사자. 일직사자. 식직사자. 저승사자. 황천세계인도사자. 태음태양성군. 라후성군. 게도성군. 칠원보필성군. 삼라만상. 이십팔수. 대소성군. 천지

수부상관사승. 원수진군. 봉행육정육갑신장. 십이신장. 인인교화. 개개청청. 생어호두. 기약풍운. 포미운몰. 호진용성. 사라상수. 범이신명. 홀견인가. 택상지내. 혹유이매망영지귀. 후임자격지기. 사완온역지기. 기사동자지귀. 산사급사지기. 목상석사지기. 우마낙상지귀. 이귀악귀제잡요귀. 자생남여원혼귀. 축생남여원혼귀. 인생남여원혼귀. 묘생남여원혼귀. 진생남여원혼귀. 사생남여원혼귀. 오생남여원혼귀. 미생남여원혼귀. 신생남여원혼귀. 유생남여원혼귀. 술생남여원혼귀. 해생남여원혼귀. 금생남여원혼귀. 목생남여원혼귀. 수생남여원혼귀. 화생남여원혼귀. 토생남여원혼귀. 장남중남소남귀. 장여중여소여귀는. 자수이퇴하라. 불연이면 일체철갑으로. 일시포함. 철사방매로. 탐라지욕. 요신박수. 쇠각방매. 우진일체. 요정와리태문동당서사. 와방루각. 택원지내. 세의수심. 수약택사. 죽장동토. 이문재료만은. 전도수불안. 수목갈부장금지. 불설양시촉범에. 토공토모토왕이. 경돈하고. 이뇌와하니. 작화만상지연이와. 분양생일간차경. 수명득장생본명간차경. 재병득인신명간차경. 조득이상침갑자간차경. 행주역호신축일간차경. 마상침기심야몽간차경. 수화득안행옥중간차경. 가사자해신산월간차경. 음향조강생매월갑자본명지일간차경. 종종향화사. 신호와. 오곡지심공양. 혹유생사제왕. 하급서신. 식수봉행. 귀작천핵. 필보리. 참신사매. 쇄신요귀. 수학도정. 생사멸진. 관재변환일시소멸. 정일천존설진대소재. 용호보경. 호위도위. 각위본위. 동토립하. 참귀천단. 하위설수. 태상노군설. 급급여.

생사팔문경

동방갑을. 청용신장은. 삼팔목을. 응성하고. 지하련에복병하엿다. 호승호명하거든일시병출하야. 조와소원하시고. 남방병정주작신장은. 이칠화를응성하고. 이허중의복병하엿다. 호승호밍하거든. 일시로병출하야조아소원하시고. 서방경신백호신장은. 사구금을응성하고. 태상결에. 복병하엿다가. 호승호명하거든. 일시로병출하야조와소원하시고. 북방임계현무신장은. 일육수를. 응성하고. 감중년에. 복병하엿다가. 호승호명하거든. 일시로병출하야. 조와소원하시고. 중왕무기구진등사황제신장은. 오십토를. 응성하고. 진술추미토공방에. 복병하엿다가. 호승호명하거든. 일시로병출하야. 조와소원하소서. 북방에감중년하니. 감방직힌수문부장은. 갑자병자무자경자임자하니. 자다서슨감중년차지하고. 감방직힌수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수직할제. 실휴자문을수직하라. 동북간에간생년하니. 간방직힌. 생문장은. 을축정축기축신축계축하니. 추다서슨좌진하고. 병인무인경인임인갑인하니. 이다서신우진하야. 간방직힌. 생문부장불너드러. 문를닷고. 진을칠제. 날생자문을. 수지하라. 동방에지하련하니. 진방직힌. 상문부장은. 정묘신묘기묘계묘을묘하니. 묘다서슨. 상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 진을칠제. 상할상짜문을수직하라. 동남간에. 손하절하니. 손방직힌두문장은. 무진경진임진갑진병진. 하니. 진다선슨좌진하고. 기사신사정사을사계사하니. 사다서슨우진하니. 손방직힌. 두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진을칠제. 막을두짜. 문을수직하라. 남방에이허중하니. 이방

직힌경문부장은. 경오임오병오갑오무오하니. 오다서슨경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 진을칠제. 베경짜문을수직하라. 서남간곤삼절하니. 곤방직힌. 사문부장는. 신미게미을미정미기미하니. 미다서슨좌진하고. 임신갑신병신무신경신하니. 신다슨우진하야. 간방직힌. 사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진을칠제. 죽을사짜문을수직하라. 서방에태상절하니. 태방직힌경문부장은. 게유을유정유기유신유하니. 유다서슨. 경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진을칠제. 놀낼경짜문을수직하라. 서북간에건삼년하니. 건방직힌개문부장은. 갑술병술무술경술임술하니. 술다서슨좌진하고. 을해정해기해신해게해하니. 해다서슨. 우진하야. 건방직힌. 개문부장불너드려. 문을닷고진을칠제. 열개짜문을수직하라. 팔문안의. 팔문신장각각호명하나이다 수문부장정증호. 생문부장방울영. 생문부장천일로. 두문부장백오정. 경문부장관해무. 사문부장허경로. 경문부장삼노봉. 개문부장문흑이라. 각팔문신장은. 각방위를수직할제. 각항저방십리기는. 간진부장이. 차지하고. 이십팔수옹위하야. 청기청솔청마에. 삼팔병마거나리고동방으로출입하는. 요귀사귀는. 호래착내잡어다가. 갑을툰에가두어두고. 둔문박의. 청의대장열진하엿다. 청령후거기서서. 오법으로시행하라. 둔문박의. 청사철망. 철망박의. 청의사자. 청의장군. 청의신장. 두우여우실벽은. 건감부장이차지하고. 일육수를응성하야. 흙기흙솔흙마에. 일육병마거나리고. 북방에서출입하는. 요귀. 사귀. 병귀. 악귀는. 호래착내잡어다가. 임계툰에가두어두고. 둔문박의흙의대장이열진하엿다. 청영후거기서서. 오법으로시행하라. 두문박에. 흙사철망. 철망박에. 흙의사자. 흙의장군. 흙의신장. 규류유모. 필자삼은. 권태부장이. 차지하고. 사구금을. 응성하야. 백기백솔백마에. 사구병마. 거나리고. 서방의서출입하는. 요귀사귀병귀악귀는. 호래착내. 잡어다가. 경신툰에가두어두고. 둔문박에. 백의대장이. 열진하였다. 청영후거기서서. 오법으로시행하라. 둔무박의. 백사철망. 철망박의. 백의사자. 백의장군. 백의신장. 정규유성. 장익진은. 손임부장차지하고. 이칠화를응성하고. 적기적솔적마에. 이칠병마거나리고. 남방에서출입하는. 요귀사귀병귀악귀는. 호래착내잡어다가. 병정툰에가두어두고. 둔문박의. 직사철망. 청망박의. 적의사자. 적의장군. 저의신장. 건곤간손. 사위대장은. 오십토를. 응성하고. 황기황솔황마에. 오십병마거나리고. 중왕으로. 왕래하는. 요귀사귀병귀악귀는. 호래착내. 잡어다가. 무사툰에가두어두고. 둔문박의황의대장이열진하였다가. 청령후에거기서서오법으로시행하라. 둔문박의황사철망. 철망박에. 황의사자. 황의장군. 황의신장. 갑자장군육천병마. 감중년에복병하야. 자방에진을치고. 갑술장군오천병마. 건삼년에복병하야다가. 술해방에. 진을치고. 갑신장군. 사천병마. 곤삼절에복병하야. 미신방에진을치고. 갑오장군삼천병마. 이허중에복병하였다가. 오방에진을치고. 갑진장군이천병마. 손하절에. 복병하야진사방에진을치고. 갑장군일천병마. 간상년에복병하였다. 축인방에진를쳤다가. 호승호명하거든. 일시로병출하야. 조와소원하시되상단간귀. 중단간귀. 하당간귀. 흉악귀신. 제악귀신. 낫낫치잡아다가. 단하의꿀엿다가. 쇠사실로결박하야. 문박으로. 끌어다가. 대도로요차하라. 요마사귀야. 눈익거든바라보고. 귀잇거든들어보라. 천상에는. 너의들을. 잡는장사가잇고. 인간에는. 너의들를잡는글이잇고. 지하에는너의들를가두는. 방위가따로잇는이라.

어서밧비신장단으로하림하라. 만일거역하면. 너의들을. 낫낫치. 잡아다가. 금의화지. 칼로베여. 수의탕지. 물에끓을여. 토의장지. 흙에뭇어. 억만년이라도불출세상할것시니. 어서밧비신장단으로하령하라. 만일거역하면. 너의들를낫낫치잡아다가. 착수자착수하고. 거제자거제하고. 멸진자멸진하고. 탕진자탕진하고. 츤도자츤도하고. 해원자해원하야. 일부종사나는대로. 어명분부나는대로. 신장공사나는대로. 가이시행할것이되. 너의같은사귀야. 이로사정둘가부냐. 어서밧비신장단으로. 하령하라.

옥추삽팔장

만법교주. 동화교주. 대법전사. 신공제허진군. 홍제구천사. 허정장천사. 정양허진군. 해경백진인. 낙양살진인. 주뢰등천군. 판부신천군. 비첩장천군. 월패주천군. 동현교주신조사. 청미교주조원군. 청미교주위원군동현교주마원군. 혼현교주노진군. 혼현교주갈갈진군. 신소전교조이진선. 신소전교여진선. 화덕사천군. 옥부유천군. 영대천군. 임대천군뢰문군원수. 뢰문필원수. 영관마원수. 도독조원수. 호구왕원수. 혼원방원수. 인원강원수. 태세은원수. 고교당원수. 풍도맹원수. 익영온원수. 규찰왕부수. 선봉이원수. 맹열철원수. 풍운주원수. 지기양원수. 낙영관원수. 충익장원수. 동신유원수. 활락왕원수. 신뢰석원수. 감생고원수.

옥추보경

구천응원뢰성보화천존설옥추보경.

1. 뢰 사 장

이시구천 응원뢰성.

2. 재옥청전중장

보화천존이. 재옥천전중하사. 여. 시방제천제군으로. 혜에옥허구광지전과. 울소미라지전과. 자극공밀지방하사. 열태유겁. 요지겁하며. 고동이명심지서하사. 교두접하시고. 세의중현하시니. 제다배신니. 좌우축적한니라. 천존이년좌하사낭송동장하시니. 제천제군니. 장음보호하사. 채녀선주사. 산화선요라가. 부상인형하야. 위이취궁하니. 군선도전하고. 선설후월하며. 용이날노로표요태공하다가. 병집우옥. 범칠보층태한이라.

3. 뢰사게백

시유로. 뢰사호옹니. 어선중중에. 월발이출하시면. 천존하사. 부쇠작에하시고. 발명장케하사. 상백. 천존언하사대. 천존이대자하며. 천존이대성하사. 위군생부하시며. 위만영사하시니. 금자제천니. 하차향적하압든이. 저격. 천존이열보급하시고. 공경서하옵신대. 어중비색을불가누케하오며. 유유옥서일부소통과. 삼십육천과. 내원중사와. 동서화대와. 현관묘객과. 사

부육원과. 급처유사. 각분초국한니. 소이총사오뢰하며. 천님상게. 자야로이다. 천존이지황하사. 심청서정하시오니. 차동소조를. 이하인년으로. 득이축복하온지. 원고욕문하노이다.

4. 선훈숙제장

천존이언하사대. 뢰사호옹니. 이등선경이. 저훈숙제하야. 누행작생함으로. 고득옥부등용하며. 경국간녹하나니. 금자훈행이. 시숙작다라. 이기실력뢰사하며. 위심화부하야. 일부일하고. 세부세하야. 흉중행저하며. 성세신흉하야. 극중고진으로. 즉게묘도한니라. 유시로뢰부귀신이. 주로서역하야. 동유축초하고. 대측교육하야. 설은소설을. 무유이시하며. 격용가하야. 차식피자하나니. 피소인고을. 이기이년하리라. 뢰사호옹니. 급체천제선니. 용이니묵이러니. 천존의. 소좌구봉단하지의에. 수거금광명지여의하시니. 낭풍이청미하고. 기운이욱겨라. 천존이격연양구하신니라.

5. 심봉차도장

천존이언하사대. 오석어천오백겁이. 선으로. 심봉차도하야. 수의상징하고. 의양창공하야. 수권대과한지라. 상어대라. 원시천존전에. 이청정심음로. 발광대원하고. 원어미래세에. 일최중생과. 청룡귀신니. 일층오명이면. 실사초안하고어소부자면. 오당이. 신으로신지라호니. 이등은세심하라. 위이선설하리라.

6. 지도심요장

천존이언하사대. 이제천인니. 용문지도하나니. 지도지심요하야. 부재기타한니. 이긔용문인대. 무문자시라. 무문문견이. 즉시진도라도. 문경영민니. 유인이니라. 상유비유하니. 하앙우도리요. 불문니문하니. 하도가담이리요.

7. 도이선잎장

천존이언하사대. 도자는이성입하고. 이묵이수하며. 이유이용하야. 용성사우하고. 용무사눌하며. 용유살졸하나니. 부여사즉가여망영하며. 강여망하하고. 가여망망하야. 입도자지지하고. 용도자지미하나니. 능지미즉회광생하며. 능지근즉성지전하며. 능지근즉태증안하며. 태증안즉성지전하며. 성지전즉. 회광생하며. 회광생즉여도유일하나니. 신명진망이라. 유기망이불하니. 망무가망이라. 무가망자를. 직시지도라도. 재천지호대. 천지지도는. 불지하나니. 유정무정이. 유일무일하리라.

8. 연모보장

천존이언하사대. 오금어세하야. 하이생하고. 위천인하야. 년차묘복. 오득오지자로. 비제선사하리라. 학도지사도. 신유기수하니. 북풍토부도하면. 즉품수자라고로. 고위지기며. 지우부동하면즉청탁이자니라고로. 위지수니. 수게호명하고. 기게호천한니. 기수소유에. 천명소고니라. 약득진도면. 우가이지하며. 탁가이정하야. 유명비지하고. 우혼혼하면. 탁명명함도. 녁품도품. 수지이지이라. 천지도신기하야. 사인불지하고. 즉왈. 자연이라하며. 자연지묘는. 수

묘어지라도. 이소이묘는. 즉. 자호부지라도. 연어도는. 즉. 미시유시우지탁진이라. 제천이문이하고. 사중이함렬한이라.

9. 설보경장

천존이언아사대. 오금소설이. 즉. 옥추보경인니. 약미래세에. 유제중생이. 등문오명하고. 단명심묵상하야. 작시념언호대. 구처응원뢰성보화. 천존이라하야. 혹. 일성이하며. 혹. 칠성하며. 혹. 천배성하며. 혹. 화형시방하고. 운심삼계하야. 사즉차로함득하리니. 시방상계에. 제천제지와. 일월성신과. 산천초목과. 비수준동에. 약유지와. 약무지와. 청용귀신이. 문제중생니. 일층오명이면. 여유불순자연. 괴수고심하고. 회이미진하리라.

오추후편

1. 학도선장

천존이연하사대. 오시구천. 정명대성이라. 매월초육급순중신일에. 감관만천하며. 부유삼계하노니. 약호유인니. 유학도커나. 욕이선커나. 욕완구현커나. 욕석삼재면. 당명정일도시하고. 혹자. 등친우하야. 어느관이나. 어가정이나. 어리사에. 작수권하하고. 곽송차경이면. 혹일과나. 혹삼오과나. 내지수십백과면. 즉득. 신청기상하고. 심관제반하야. 범소히구를. 실흥기감하리라.

2. 소구영장

천존이언하사대. 신중구령을. 하불소질리요. 일왈천생. 이왈무령. 삼왈현주. 사왈현주. 오왈혈단. 육왈회회. 칠왈단원. 팔왈태연. 구왈영동이면. 소지즉길하고. 심중삼정을. 하불소질이요. 하시니. 일왈태광. 이왈상령. 삼왈유정이라. 호지즉경하시니. 오심이번만하고. 육맥이창양하고. 사지실영하고. 백절이고급하야. 의송차경하이라.

3. 오행구로장

천존이언하사대. 약호유인니. 오행기건하야. 구료금기하며. 년봉현충하야. 운치극진하고. 고진과숙과. 양인금봉과. 겁살망신과. 귀문귀문과. 록조파패와. 마락공망이. 등용흉이하고. 행장감난커던. 즉송차경하야. 상청하면천관은해천액하고. 지관은해지액하고. 수관은해수액하고. 오세는해오방액하고. 사성은해사시액하고. 북두는일체지액하나이라.

4. 침가고질장

천존이언하사대. 침가복침하고. 고실암실하야. 적시불효하야. 구의망효하며. 오신무주하며. 사대불순하면. 혹시오제삼관지전이나. 산림초목지전니나. 영탑고적지전이나. 성황사묘지전이니. 이앙정조지전이나. 사칠담누지전과. 호지부삼십육옥과. 빙관칠십이사이에. 유제원앙하야. 치자견두하며. 혹맹소주하야. 서지소초하며. 혹채타부하야. 삼세결하고. 누겁흥구하야사기구호하며. 고기집대라도. 개탕수사하리니. 즉송차경하라.

5. 관 부 장

천존이언하사대. 천관부. 지관부하며. 년월일시에. 각유관부하야. 대측관부며. 소측구설이라. 시유적백구설지신과. 범제동작흉거와. 출입기거에. 부지피기하고. 여우관부. 구설하면. 즉사인격괄하며. 호야천추하야. 다초순문하고. 면시배비하야. 동치구아하며. 맹신조불하나이. 시유로방독하고. 종우구처하야. 유시로옥성니. 생언하며. 형언이존언이라. 약욕탈진댄. 즉송차경하면. 수득구설이. 전소하고. 관부영식하리라.

6. 토 황 장

천존이언하사대. 토황구료에. 기사가. 천육백신인니. 토후토백과. 토공토모와. 토자토손과. 토과권속이. 즉약태세과약. 장군과약. 학신곽약 태백과약. 구양과약. 검봉과약. 웅사과약. 금신과약. 화열과약. 신왕과약. 당명과약. 삼살과약. 칠살과약. 황번포미과약. 비범도첩에. 여시등토가신살이라약인니. 흉수복축에. 일혹범치면. 즉만신이. 개기하야. 천무기지무기. 음향무기하며. 백무금기하리라.

7. 혼 합 장

천존이언하사대. 세인부부가. 기여혼합하야. 혹법함지하며. 혹범천구하며. 삼형육해가. 격각교가하며. 고음과양에. 철라지망으로. 히혀사식하야. 다시고독한이. 약호구남인대. 즉송차경하면. 당유구천이. 감상대신하사. 초신선풍하사. 수생현자하리니. 여기생산지시에태을이재문하고. 사명이재정하나이. 혹유원연이나. 혹유금기나. 혹유흉액하야. 치명난산이어든. 독송차경하면. 즉득. 구천이위방하시고. 성묘묵여표송하니. 고능임문유경이라. 좌초무우하리라. 범우영애가. 재여강보. 위단단신왕좌하의. 일십오송귀가가. 쇠뇌해하야. 인다경간컨던. 의송차경하리라.

8. 조 서 장

천존이언하사대. 약인거지에. 조소송여하야. 사중이가열하고. 폭박적와하며. 경게농구하야. 요구제사하며. 이지엉업몽피하며. 이감거기소거하야. 위소열하고. 수사생으로. 피욕하야. 정오불청하며. 야소어향하고. 추감기실하며. 우마견시가. 역조온역하야. 화련골육하고. 개급열상하며. 음사요사도. 당비신간하면. 족객이빙잉하고. 상거첩출하나니. 약속차경이면. 즉사귀정으로. 멸상하고. 인물이 함영하리라.

9. 별모견숭장

천존왈. 구천뢰공장군과. 오방뇌공장군과. 팔방울뢰장군과. 오방말뢰사자와. 뢰부총병신장과. 막혐판관이. 발로신형를. 질여풍화차야. 유모가별하며. 유단가격하며. 유효가제하며. 유중가견하나니. 게세말법에. 다제무격하야. 사법유행하며. 음사요사도. 시고로. 상청에. 내유천현금. 귀록간지정과. 제수속요고사. 지방한니. 능송차경하면. 기응여행하리라.

10. 고노채장

천존이언하사대. 천온지온이. 이십오온이며. 천고지고가. 이십사고며. 천채지채가. 삼십육채며. 능송차경하면. 즉사온왕으로. 청청하여. 고득소제하야. 노채를평복하며. 역유기유하리라. 혹자선망부현커나. 혹자복시고기커나. 혹자시기감초커나. 범차귀신이. 혹비사하며. 혹게안하야. 견연집승하고. 병록주사하야. 승급산간하며. 내득기편하나이. 고로차경자는. 상통삼천하야. 하철구천하고. 가이추천온상하며. 초도조현하야. 태상이견. 소거백마대장군하야. 이감지하신니라.

11. 원 행 장

천존이언하사대. 약호유인니. 치자원행에. 적도빈간하며. 오행가해하며. 륙행즉. 호랑이. 초옥이마기야하며. 수행즉. 골육원약장기이하고. 혹탄뢰에. 유유황지온하며. 혹풍토에. 유겁수지에 전망후화하야. 책생대사하나니. 능어차경에. 귀명투성하면. 고득수륙평강하면. 행장이협길하리라.

12. 향양우택장

천존이언하사대. 향약위약하야. 우택이견기여든게상차경하면. 응시감수하고. 적음위력하야. 우수침요커든. 게상차경하면. 응시낭세하면. 추궁현화하야. 비화민거하며. 적성유성하야. 경혁어수면차경이. 가이양지하며. 해약이실경하야. 어벌망해하며. 홍수도천하야. 민생집입하면. 차경이가이지지하나이라.

13. 면제행장

천존이언하사대. 세인니욕면삼재구형지액이면즉. 어정하야. 어게수복진하라. 북진지상에. 삼유삼태한니. 기성이병전하야. 형어생목한야. 첩이상급하야. 이북두게한니. 시명천게라. 약인기지면. 생전에무형수우하고. 신유에불윤몰지고하나이라. 두중에불유존제이성하야. 대여겨윤하니. 약인견지면. 유형주세하며. 장생신선하나니. 귀명차경하야. 투심북극하면. 즉. 유명감한이라. 두유천추하고. 중위천강하야. 재내즉위염정하며. 재외즉위파군하야. 뢰성십이문이. 병수천강지소지하나니. 강성이. 기축이면. 기신이재미하야. 소지자길하고. 소제자흉하나니. 여유개연하이. 약인건지면. 수가천세하라라.

14. 오뢰침감장

천존이언하사대. 세뇌도미하야. 인무덕행하며. 불충군왕하며. 불효부모하며. 불경사장하며. 불형제하며. 불성부부하며. 불의붕우하며. 불의천지하며. 불구신명하며. 불에삼광하며. 불중오곡하야. 심삼구사하고. 태평소두하야. 장생행명하고. 인백이천과. 간사사음과. 요무반역이. 종미저하야. 삼관고필하며. 태을이이문하야. 즉부우뢰참감지사하야. 선참기신하고. 후감기영하야. 참신수호하야. 사지전도하고. 인소빈천과. 인소혐혜와. 인소원악으로. 이치감형진시하야. 사지붕열하고. 구기권수하며. 역기구거하야. 월북순교호대. 부유고약하나이. 일문

차경하면. 기죄즉멸하고. 위뢰소진하야. 기시불거하야. 수화불순커든. 측충. 구천응원뢰성보화천존하야. 잡기명년하면. 만신게수하야. 함청호명하리라.

15. 보경공덕장

천존이언하사대. 차경공덕은. 불가사의라. 왕석겁중에. 신소옥청진왕과. 장생대세에. 소승선설이신니. 지사수경하고. 개당단금지폐하야. 맹천이천하라. 뢰사호옹이. 장궤폐웅하시고. 중백하신대. 천존이언하사대. 시경재천에. 당명토지사명으로. 수소수호하고. 뢰부안림하야. 이시게심하나이약인가에. 유차경하야. 지성안봉하면. 즉득. 상영이만정하고. 경운이음혼하야. 화란이불맹하고. 길복이내체하야. 우기망물에. 불경지욕하나니. 소이자하오. 사즉왕생하고. 생기전도하나이. 승천졸역하면. 유차영통한니. 출입기거에. 패태차경하면. 중인이소음하고. 귀신이소외하야. 위체험란커든. 일심증명호대. 구천응원뢰성보화. 천존이라하면. 실득해탈하리라.

(1) 보 게 장

어시뢰사호옹. 대천존전. 이설게왈. 부상옥청왕 통청삼십육. 구천보화군. 화영십방게. 피발기기린. 석삭석중빈. 수파구천기. 소풍편뢰성능히회력. 섭북제미정. 제도장야혼. 이이어중생. 여피은하수. 천안천연운. 서어미내세. 영창천존교. 시천뢰사호옹. 설시겨이.

(2) 보 응 장

천존이언하사대. 차경을전세호대. 인인미치라오금소치. 구천뢰원부에. 부유구천뢰문사자와이구녹천자와. 염방전자로. 좌지하야. 부유사사한이. 일왈약잉사요. 이왈적제사요. 삼왈유왕사요. 사왈보응사이. 각유대부하야. 오지소리를. 경사사상하며. 함찬원화하나이라.

(3) 보경장하

천존이. 설시경필하시니. 옥범칠보층대에. 천하빈분하며. 경양요요하야늘. 시방제천제군과. 합승선채하시니. 청용귀신과. 뢰부관중과. 삼계만영이. 개태환희하야. 신수봉행하시이라.

천지팔양신주경

당삼장법사. 의정봉조변역

문여시하이. 일시에. 불이재대비야. 달마성요. 확대중하사. 시방이상수하고. 사중이위요러니. 이시에무애보살이. 재대중중하사. 즉종좌기하야. 합장향불하고. 이백불언하사대. 세존이시여차. 염부제중생이. 제대생생하야. 무시이래로. 상속부단호대. 유식자소하고. 무지자다하며염불자소하고. 귀신다하며. 지혜자소하고. 파계자다하며. 정신자소하고. 해태자다하며. 지혜자소하고. 우치자다하며. 장수지소하고. 단명자다하며. 성신자소하고. 살란자다하며. 부귀자소하고. 빈천자다하며. 온유자소하고. 강강자다하며. 흥성자소하고. 경독자다하며. 정직자소하고. 곡첨자다하며. 청신자소하고. 탐탁자다하며. 보시자소하고. 간인자다하며. 실신자소

하고. 허망자다하야. 치사세속으로천박하고. 관법이도독하며. 부역이번중하고. 백성이궁고하야. 소구난득은. 양유신사도견하야. 획여시고로하나니. 유원세존은. 유제사견중생하야. 설기정견지법하사. 면허중고케하소서. 불언선재선재라. 무애보살아. 여대잡이로. 우제사견중생하야. 문여래정견지법의. 불가사의하리니. 여등은제청하라. 선사염지하리라. 오당위여하야. 불별해설천지팔양지경하리라. 차경은. 과거제불이. 이설하시고. 미래제불이. 당설하시고. 현재제불이금설하나이. 부천지지간에. 위인니. 최승최상하야. 귀여일체만물하나니. 인자는. 정야요. 지야라. 심무허망하고. 신행정진인니. 좌별위정이면. 위불위진니라. 상행청진할새. 고명위인니이. 사지하라. 인능홍도하면. 도의윤심하나니. 의도의인하면. 개성성도하리라.

부차무애보살아. 일최중생이. 기득인신하며. 불능수복하고. 배진향우하야. 조종종악업타가망장욕중에. 침윤고애며. 수종종죄하나니. 약문차경하고. 심신불역하면. 즉득해탈죄죄지난하여. 출어고애하면. 선신이가요하며. 무죄장해하고년년익수하야. 이무횡요할새. 이실력고. 획여시복이여늘. 하왕유인이. 진능서사하야. 수지독송하며. 여법수행. 기공덕은. 불가칭불가량이라. 무유번제하야. 명종지후에. 병득성불하리라.

불고무애보살마살하사대. 약유중생이. 신사도견하야. 피사마의도와. 이매망영과. 조명백괴와. 죄약귀신이. 경내뇌란으로. 여기회병하대 악종악주악오로. 수기통고하야. 부유휴식이라도우선지식하야. 원 독차경삼편하면. 시제약귀신니. 개실소멸하야. 병즉제유하야. 신강역족하나니. 독경공덕은. 획. 여시복인니라. 약유중생이. 다어음욕과. 진회우치와. 간담질투라도. 약경차경하고. 심경공약하며. 즉독차경삼하면. 우치등악이. 병개제멸하야. 비자회사로. 득불법분하리라.

부차무애보살아. 약선남자. 선여인니. 홍유위법하대. 선독차경삼편하면. 죽장동토하고. 안립가택하대. 남당북당과. 동서서와. 주사개옥과. 문호정조와. 대애고장과. 육추난혼하면. 일유월살과. 장군태세와. 황번포미와. 호토지신과. 청용백호와. 주작현무와. 육갑금위와. 십이제신과. 토위복용과. 일최귀매. 개설은장하야. 원병타방하고. 형소영멸하고. 불감위해하고. 심대길이하야. 특복무량하리라. 선남자야. 홍공지후에. 당사영안하고. 옥택이뇌고하며. 부기길창하야. 불구자득하며. 약욕원행종군커나. 사환흥생하면. 심득의리하야. 문홍인구하며. 백자천손으로부자자효하며. 남충여정하며. 형공제순으로. 부처화목하며. 신의독친하야. 소원성취하리라. 약유중생이. 홀피현관굿게하야. 독적견만이라도. 참독차경삼통하면. 즉득해탈하리라. 약유선남자선여인이. 수지독송하고. 위타인하야. 서사천지팔양경자는. 설입수화라도. 분피분표하고. 혹재산택이라도. 호랑이병적하야. 불감박서하며. 선신이위요하며. 성무상도하리라. 약부유인니. 다어망어기여외. 아구양설이라도. 양능수지독송차경하면. 영제사과하고. 득사무애변하야. 이성불도하리라. 선남자선여인등이. 부모유죄하야. 임종지일에당타지옥하야. 수무량고라도. 기자즉위. 독송차경칠편하면. 부모증리지옥하고. 이생천생하며. 견불문법하고. 오무생인하야. 이성불도하리라.

불고무애보살하사대. 비바시불시에. 유바새나. 우바이하야. 시불신사하고. 경숭불법하며 서사차경하야. 수지독송하대. 수작즉차하고. 일무소문하며. 이정신고로. 겸행보시하며. 평등공향하고. 득. 무류신으로. 성보리도하나니. 호왈보광여래. 응정등각이라. 건명은대만이요. 국호는무변인니. 단시인민니. 행보살도하며. 재재처처에. 유팔보살과. 제법천황과. 일최명령이. 위요차경하고. 향화공양. 여불무이하나이라.

불고무애. 보살하사대. 약선남자. 선연인니. 위제중생하야. 강설차경하면. 심달실상하며. 즉심심이라대. 즉시. 심신인니. 불신법신니라. 소이능지즉하이. 안삼경종종무진색하대. 색즉시공이요. 공즉색이라. 수상행식도역공하나니. 즉시묘색신여래며. 이상문종종무진성하대. 성즉시공이요. 공즉시성이라. 즉시묘음성여래며. 비상유종종무진향하며. 향즉시공이요. 공즉시향이라. 즉시향적여래며. 설상요종종무진미하대. 미즉시공이요. 공즉시미라. 즉시법회여래며. 심상각종종무진촉하며. 촉즉시공이요. 공즉촉이라. 즉시지승여래며. 의사상불법무진법하대. 법즉시공이요. 공즉시법이라. 즉시법명여래이라. 선남자야. 차육근이현현하대. 이개구상설기선언하야. 선법상전하면. 즉성성도하고. 설기사어하야. 악법상전하면. 즉타지옥하나이라. 선남자야. 인지심신이. 시불법기며. 역시십이부대경권야어늘. 무시이래로. 전독부진하야. 불손호모하나니. 여래장경은. 유신심경자지소능지요. 비제성문법부의소능지야니라. 선남자야. 독송차경햐야. 심해길이하면. 즉시심신이. 불신법신이어이와. 약취미불성하면. 불효자심이. 시불법근원하고. 우랑재취하야. 타어악도하고. 명침고애하며. 불문불법명짜하리라.

이시에. 오백천자가. 제대중중하야. 불문소설하고. 득법안정하야. 개태환희하며. 즉발무등등아뇩다라. 삼막삼보리심하리라. 무애보살아. 부백불언하사대. 세존이시여. 인지재세에. 생사위중이나. 생불택일이라. 사직즉생하고. 사불택일이라. 시즉시사어늘. 하인빈장하고. 즉문양진길일하고. 연시빈장해대. 빈장지후에. 환희방해하야. 빈궁자다하고. 멸문자불소있고. 유원세존아. 이시여. 위제사견. 무지중생하야. 설기이연하야. 영득정견하고. 제기전도하소서.

불언선재선재라. 선남자야. 여실심능문어중생의. 생사지사와. 빈장지법하니. 여등은제청하라. 당위여설지레지리와. 대도지법한니라. 부천지광대청하며. 일월광장명하며. 시년선선미하며. 실무유익인니라. 선남자야. 인왕보살이. 심대자바하야민념중생하대. 개역적자하며. 하이인주하야작민부모호대. 순억속인하고. 교민속법하야. 견작역일하사. 반하천하며. 영시시설이어늘. 위유만평성주개제지자와. 집이파살지문이라하야. 우인은. 의자신용하야. 무불면기흉화코저하며. 우의사사로. 압진하고. 설시도비하야. 만구사신하며. 배아구하야. 각종왕자수고하나니. 여신인배는. 반천지하고. 역. 지리하야. 배일월지광명하고. 상투암실하며. 위정로지광로하야. 항심사경이라. 선남자야. 산시에독송차경삼편하면아즉생하고. 심대길이하야. 촌명이지하고. 복덕이구존하고. 이불중요하고. 사시에독송차경삼편하면일무방해하고. 득복무량하리라. 선남자야. 일일호일이며. 월월호월이며. 년년효년이며. 실무간격인니. 단판즉수빈장하고. 빈장지일에독송차경칠번하면. 심대길이하야. 회복무량하며. 문영인귀하야.

년년익수하고. 총명지일에. 병득성성하리라. 선남자야. 빈장지지를. 막문동서남북. 안온지처니. 인지애락은. 귀신도애락이라. 즉독차경삼편하고. 변이수영하고. 안치묘전하며. 영무재생하고. 가부인능. 하야. 심대길이하리라. 이시세존이. 욕중선차의하야. 이설개언하사대. 영생선선일니며. 후빈호호시라. 생시에. 독송차경하면. 심득대길이니라. 월월선명월이며. 년년효년이대. 독경즉빈장하면. 영화만대창인니라. 이시중중에. 칠만칠천인니. 문불소설하고. 심개의하야. 사사귀정하며. 득불법문하야. 영단의욕하고. 개발안혹다라. 삼막삼보리심한이라. 무애보살이. 부백불언하사대. 세존아일체법무개혼이구로. 위친하대. 성문상의하고. 후치길일하야. 연시성친하나이. 성친지후에. 부귀해로자소하고. 빈궁사이사별자다하니. 일종신사하대여아이유차별이있고. 유원세아. 위경주의하소서. 불언하사대. 선남자야. 여등은제청하라. 당위여설하리라. 부천음지양. 월음일양. 수음화야. 남양여음인니. 천지기합하야. 일체초목이생언하고. 일월이교훈하야. 사십팔절이명언하고. 수화가상승하야. 일체만물이숙원하고남여윤애하야. 자손이흥언하나니. 개시천지상도라. 자연지이며. 제세지법인니라. 선남자야. 우인은무지하야. 시기사사하며. 복문망길하야. 이불수선하고. 조종점악업이라가. 명종지후에. 부득인신자는. 여지갑상투하고. 타어지욕하야. 작애귀축생자는. 여대지토이라. 선남자야. 부득인신하야. 정신수선자는. 여지갑상토하고. 신사조각업자는. 여대지토이라. 선남자야. 욕건혼친인대. 막문수화상극과. 표대상합과. 연명부동하고. 유관농명성하야. 즉시복덕자소하고. 이위권속하야. 호영지일에. 즉독차경삼편하야. 이이성에하면. 채내성성상잉이요. 명명상소이라. 문고인기하고. 자손이흥성하며총명지하야. 다제다에하며. 효경상승하고. 심대길이하야. 이불중요하며. 복덕구조하야. 개성불도하리라. 시유팔보살이. 승불위신하야. 득대종지하며. 상처인간하야. 화강동진하고. 피사입정하야. 도사생처팔해하대. 이불자이하나니. 기명왈. 발타라보살누진화. 나린갈보살누진화. 교목도보살루진화. 나라다보살루진화. 수미신보살루진화. 인저달보살루지화라. 화륜조보살루진화. 무현관보살루진화라. 시팔보살이구백불언하사대. 세존아. 이등이. 어제불소에. 수득다라이. 신주한니. 이금설치하야. 옹호수지독송천지팔양경자하야. 영무공포케하며. 사. 일체불선지물로. 부득침선법사케하리라. 즉어불전에. 이설주왈. 아거니. 니거니. 아비라마에만다라 세존하. 약유불선자. 요래노법사하면. 문하설차주하며. 투파자칠푼을. 여아리수리하리라. 이시에무변신보살이. 즉종좌기하며. 전백불언하사대. 세존이시여. 운하명위천지팔양경자잇고. 위원세존은. 위제천금하야. 해설기의하고. 영득각오하며. 속달심본하고. 잎불지견하야. 영단의욕케하소서.

불언하사대. 선재선재라. 선남자야. 여등은제청하라. 오금위여하야. 불별해설. 천지팔양지경하리라. 천자는양야요. 지자는음야요. 팔자는분별야요. 양자는명애야요. 여래대승무지위지리하야. 요능불별이년이. 공무소득인니라. 우운팔식이. 위경하고. 약명이우위이. 경무상투하야. 이성경고라고로. 명팔양경인니라. 팔자는. 시팔식인니. 육근이시육식과. 합장식과아뢰악식이. 시명팔식인니. 육근이시육식과. 합장식과. 아뢰악식이. 시명팔식인니라. 명호불별팔십근원니. 공무소유하면. 즉시. 양인은. 시광명천이라. 광명천중에. 즉현일월광명세존이며.

양인은시성문천인니. 성문천중에. 즉현무량성여래며. 양비는시불향천인니. 불양천중에. 즉현양적여래며. 구설은시법미천인니. 법미천중에. 즉현법회여래며. 신시노사나천인니. 노사나천중에. 즉현성취노사나불과. 노사나경상불과. 노사나광영불이며. 의시무불천인니. 무불별천중에즉현부동여래며. 광명불이며. 시법게천중에. 즉공왕여래며. 함장식천에. 연출하나. 함경과. 대발열발경이며. 아뢰야식천예. 연출대지도론경과. 유팔논경인니라. 선남자야. 불즉시법이요. 법즉시불인니. 합의일상하야. 현대토지승여래이라. 불설차경시에. 일체대가. 육종진동하며. 광조천지하야. 무유번체하고. 호호탕탕하야. 이무소명이라. 일체유명은. 개실명랑하고. 일체지옥은병개소멸하고. 일체죄인은구득이고이라.

이시대중지중의. 팔만팔천보살이. 일시성불한니. 호왈공왕여래응정등각이라. 건명은이구요. 국호는무변인니. 일체인민니. 갱보살육마라밀하대. 무유죄차며. 중무쟁이삼매하며. 체무소득하며. 육만육천의. 비구이와. 우바새. 우바이는. 득대총지하야. 입불이법문하고. 무유청용야차와. 건달바와. 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긴나라와. 마후라가. 인비인등은. 득법안정하야. 행보살도한이라.

선남자야. 약부유인니. 득관등일지일과. 금신입택지일에. 잠독차경삼편하면. 심대길이하야. 선신니가효하고. 년년익수하야. 복덕구조하고. 선남자야. 약독차경일편하면. 여독일체경일편이요. 약사일권하면. 여사일체경일부라기공덕은. 불가칭. 불가량이라. 등허공무유번제성성도과이라.

부차무변신보살마살아. 약유중생이. 불신정법하야. 생사샤견태가. 홀문차경하고. 즉생비방하야. 언비불설이라하면. 성조추에를. 인개증길타가. 명종지일에. 즉타이미무간지욕하야. 상화철화하고. 하와철상하며. 철장철자는. 변체천열하며. 윤동관구에. 근골이난괴하야. 일일일야에. 만생만상으로. 수태고통으로. 무유수직하나니. 방사경고로. 획죄여시니라. 불위죄인하야. 이설개헌하사대. 신시자연신이면. 오제자연족하고. 장래자연장이면. 로즉자연로하고. 생내자연생이면. 사즉자연사하고. 구장부득장이요. 구단부득단이라. 고락여자당하고. 사정유여긔라. 욕자유여공인댄. 독경막문사이. 천천만만세에. 득도전법윤이라. 불설차경하시니. 일체대중이. 득미징유하야. 심명의정에. 환의요약하야. 개경제상이. 비상하고. 입불지견이면. 오불지견하야. 무이무오하고. 무지무견하니. 부득일법이. 즉. 열발락하더라.

<천지팔양경 끝>

역대해원

금춘에도지는꽃은. 명춘에또다시피고. 로금방초는. 해마다. 푸르건만. 석화갓튼이상에. 우리갓튼초로인생들이. 이세상의생겨낫다가. 저기저혼신갓치. 아차한번. 죽거지면은. 어느시절다시오나. 박절하고. 돈절하고. 처양하고. 망년하네. 무정세월양두팔아. 공들일손백발이요. 못면할건죽엄이라. 천왕씨와. 지왕씨. 인왕씨. 이후에. 요순누탕무무주공. 공맹안증대성

인은. 도덕업서봉하섯나. 엣날엣적. 은나라. 백이숙제는. 고국을마다하고. 수양산점은날에. 채미가를불느다가. 의불식. 주식주려죽었으이. 절개읍서죽었을가. 옷나라오자서는. 양눈빼서동문에걸고. 죽었으니. 의기도대단하고. 위나라충신굴원이는. 명라수깁흔물에. 풍덩빠저죽었으니. 충신도거룩하네. 엣날엣적. 성인들도. 한번죽엄못면하니. 손빈옥의왕보사는. 병법몰라죽었으며. 칼잘쓰든. 현경이는. 역수한풍좁은길에. 한번가고. 못왓스니. 금술도쓸곳업네. 삼람의세월은유수갓치흘너가고. 바람갓치. 오는백발위력으로막을건가. 위력으로막으려면. 만승천자왜죽언나. 삼화천의한퇘지와. 이적선두재미는. 문필읍서죽었스며. 왕대석순의돈이는. 즌곡읍서죽었으며. 화태와변작이는. 천하영웅열사라. 일너건만. 하변죽엄못면하니. 의약도쓸곳업네. 천하장사초패왕은강동자제팔천인으로. 도강에서건너와서. 팔년풍진다적굴제. 역발산기가세라. 천하장사. 일너건만. 게명산추야월에. 장자방. 옥통수한곡조에. 팔천병마흣터지고. 오강으로. 도라갈제. 그림자주. 술마시고. 우민이의. 홀목잡고. 우에곡. 한곡조에이별한이 처량하고. 한심하네. 어였풀사우민니는. 누구주구죽었을가. 말잘하든. 소지장은. 언변이조와길내. 육국제후는. 달내건만. 염라대왕은. 못달래서. 육미청산깊은골에. 터를닥고누었으니. 구변도쓸곳업네. 만승천자. 진씨왕은. 아방궁를상랑하고. 말리장성굿게싹코. 육국제후통일할제. 장생수라. 망원듯고. 불노초를. 구하려고. 동남동여. 오백인을. 삼신산에. 보내건만. 삼신산에건너간배. 가던이면안이오고. 사귀평대저문날에. 여산백골되였으니. 처량하고. 한심하네. 천하영웅한무제는. 구선대를. 놉피직코. 승노반놉피모아. 장생불사하려건만. 분수추풍갈바람에오는백발못막어서. 육십삼세죽었으니. 우염읍서죽었을가. 천하일색양귀비는. 당명왕을모실적에, 죽지말자천년맹세. 세류단풍참실갓치. 휘휘칭칭매저건만. 전생에제약이지중튼지. 이생에년분읍섯든지. 알록산에. 날리를만나. 마우역에죽은고혼. 해당화가되였으니. 처량하고. 한심하네. 천태산에마우선녀. 요지현의서왕모는. 신선이라일너건만. 말만듯고못보왓고. 삼천갑자동석도. 신선이라일너건만. 차일시피일시라. 오호라오도세는. 공부자의탄식이요. 오산락조. 지는해는제청공의눈물이요. 옥문금한곡조에. 맹상공이울고잇네. 영주봉래적송저와. 안기생여동빈은. 누구더러무러보나. 적벽강에. 다다르니. 소동파놀든풍유. 희구하게있다만은. 이태백은어데간나. 천지를구버보. 만고영웅열사들를. 다시한번아러보면. 저혼신과었트튼가저기잇는. 저혼신도. 살어서는인생인데. 죽어지니고혼일세. 엣날엣적성인들도. 살아서는인생인데. 죽어지니. 고혼일세. 처량하고. 한심하네.

1. 육갑해원경

갑자을축. 해중금은. 금생남여. 원혼이여. 망망창해황금되야. 금생여수화해난이. 금옥갓치중한일신. 이간일월적막하다. 가련하다. 세상인심엇찌안이적막한가.

병인정묘. 로중화는. 화생남여원혼도야. 로생천백타는불에. 무주고혼분별할가. 거리중천떠단이며. 야월공산두견갓치. 주야장천슬피우다. 원혼매저한이로세무진기시. 디림목은. 목생남여원혼되여. 동원도리섯는숩은. 곳곳마다. 푸르건만. 울울창송입초하에. 추월강산처량하다. 설중매화동대춘은. 홀로봄빗사양하네경오신미. 로방토는. 토생남여원혼되여. 대로변

에뭇친무덤. 어느누가분별할가. 무주공산누었으니. 좌우변에왕래행인. 거래갓이슯은소리. 가련하다. 저혼백이야.

임신게유. 금봉금은. 금생남여. 원혼되여. 말리천성. 죽온혼이. 충효보해누가할가. 억만장졸장검아래. 객사고혼가련하다. 부귀영화못해보고. 사장백골됫단말가갑술을해. 산두화는화생남여원혼되여. 실장군봉사자되야. 봉화불를어이할고. 봉명사신몸이되여. 일편단심먹은마음. 나라일를생각. 일화광뿐이로다.

병자정축. 간하수는. 수성남여. 원혼돠야. 벽해수야깁흔물에. 보국충신원혼되야. 초패왕의고집으로. 구말를안이듯고. 만경장파깊흔물에. 수중고혼가련하다무인기묘. 성두토는. 토생나여원혼되여. 일락서산저문날에. 일공명처량하다. 무주공산적막하네. 토성남여봉분하니. 청송록죽봉분삼고. 홀로우는고혼이야.

경진신사. 백락금은금성남여원혼되여. 백약에도효험업고. 병환다시죽단말과. 금의환양도라온들. 어느처자반겨하리. 고독으로운는몸에. 가련하기한이업네.

임오게미. 양유목은목성. 남여원혼되여. 추풍세월눈. 물되여. 세도이도맸처있네. 녹음방초성화시에. 시내강변푸르도다. 느러지고처진버들. 죽은고혼한심하다.

갑신을유. 천중수는수성남여원혼되야. 정수하에어부갓치. 가내소식적막하다. 감로수야흐르는물은. 주야천흘너가고. 가련하다이내눈물. 유수갓치슯프도다.

병술정해. 옥상토는. 토성남여. 원혼되야. 성조대신분부후에. 양로은택끈처있네. 대가소가지은집은. 의지할곳업서쓰니. 부귀빈천한탄마소. 이내원한누가풀가. 경인신묘송백목은목성남여원혼되야. 청송록죽안이라도. 백설한풍어이할고. 녹금방초푸른나무. 추월삼경슭프도다. 이팔남여병이들어. 이야창상덕이업다.

임진계사장유수는. 수성남여원혼되여. 영청수흐르는물은. 다시오기어렵도다. 가련하다세상이라. 물셜갓치흘너가네.

갑오을미사중금은. 금성남여원혼되여. 백사장에뭇친금은. 어느세상다시날가. 상호고혼점은날에. 일심고독가련하다. 노소간에죽은혼이. 귀명황천도라가며. 거름거름슬피운다.

병신정유산화화는. 화성남여원혼되여. 산하곡절저문날에. 일점화촉희황하네. 일가친척벗님네들. 이내한못푸는가. 구비구비쌓인서름. 어느누가알아줄가. 글로매저원혼이야.

무술기해평지목은. 목성남여원혼되여. 도로행중정자밋헤. 홀로섯는고혼이야. 부모처자어데두고. 무주고혼되단말과. 세상사를생각한니. 처량하기한이읍네. 경자신축벽상토는. 토성남여원혼되야. 토성으로지은집은. 분백사창간곳업네. 좌우석벽울을삼고. 고잔두뿌리삼친삼고. 두견초벗슬삼마. 홀로우는고혼이야. 임인계묘금봉금은. 금성남여원혼이야. 금옥으로지은집은. 일시에도이별하고. 일가친척이별하고. 한탄선실대뜰우에. 둥그렁케놉피신고. 푸른청산저원혼일세.

갑진을사옥등화는. 화성남여원혼되여. 추월춘풍두견새는. 공산야월달밝은데. 홀로안자슯피운다. 엇찌안이처량하리. 등불에저혼백은잠들길리전여업네.

병오정미천하수는. 수성남여원혼되여. 칠월칠일칠석일에. 철리은하오작교에. 일년일도건너가서. 견우직녀상봉하고. 만단설화못다하고. 무심하게이별하네.

무신기유대역토는. 토성남여원혼되여. 태산이평지되고. 원혼매저한이로다. 천년만년한니되여. 풀어내길망년하다. 가련하다이내몸이. 북망산천돌아가네.

경술신해차천금은. 금생남여원혼되여. 봉황의래맷진맹세. 일조강남돈절하다. 금봉의옥지환은. 보기실타오지마라. 처자권속한심하다. 가련하기한이업다.

임자계축상자목은. 목생남여원혼되야. 구곡간장슭픈눈물. 두눈에서소사나이. 녹원홍수병이되야. 생사불망도라간니. 세상천지사람들아장유홍수가련하다.

갑인을묘대계수는. 수생남여원혼되여. 사해팔방단이다가. 영결종천돌아간니. 소식조차돈절하네. 허망하기가이업다. 여보여러시주님네. 염불말씀다듯고. 부디부디선심하소. 염불공부하여보세병진정사사중토은. 토성남여원혼되야. 백골리진퇴되고. 황천길이적막하다. 처자권속어진마음.

황천길를열어주니. 극락으로나가노라. 홀홀리모은배는. 풀어저서못타고. 돌로서모은배는. 가란저서못타고. 갈입으로모은배는. 풍파처서못타고.

석가여래. 귀한여래. 말씀. 반야홍선이제일리라어서가소권하시니. 선심으로극락가소. 엇찌안니가련한가. 인도환생식켜주소.

무오기미천상화는. 화성남여원혼되여. 천상운거집을직코. 옥경으로소사올라. 이내원한매진마음. 세세이도풀어내여. 말리장성원평지여. 옥황전의등장가세.

경신신유성유목은. 목성남여원혼되야. 옥창에심은성유. 가련하게되여잇네. 홍도백도심은꽃은. 락화점점눈물이라. 남은동은푸른수풀. 화초정치근심이라.

임술계해대해수는. 수성남여원혼되여. 가련하고불상하다. 이세상이원수로다. 일업편주돗슬달고. 만경창파깁흔물에. 사해팔방다니다가. 모진광풍에수중고혼가련하네.

지 신 경

천지신명조리지. 일월명랑광명지. 성심조림애호지. 만년안과태평지. 수복다남만년지. 부귀겸전영구지. 부모강영장수지. 부부해로안락지. 자손창성만대지. 형제자매돈목지. 남여해로동락지. 문무겸전녹위지. 충효쌍전복위지. 만사여의형통지. 소원성취여의지. 소육자성안심지. 불구자득호감지. 천인앙시보호시. 망인환영명에지. 수여남산장명지. 복사복해다복지. 오악산왕구시지. 사해용왕급수지. 사중팔신안정지. 오방신장축귀지. 천재만애소멸지. 좌우조상불망지. 객귀객신퇴송지. 동토살생능멸지. 전염질병불침지. 유행학질소제지. 당상부모천수지. 실하자손만년지. 금은옵답만당지. 주단포목의복지. 인인상조동정지. 일가친척번성지. 일문권속안락지. 제대신장수호지. 옥곡풍등만창지. 복녹일래만복지. 재양영멸악퇴지. 군의신충충절지. 부자자효효심지. 남충여정정열지. 형공제순공순지. 남여해로동락지. 상여지지도통지. 학여지지통영지. 천추만대숭배지. 게게승승유전지. 문전옥답자득지. 명산대천상

응지. 동서남북중왕지. 춘하추동일체지. 원근붕우신방지. 일이친구충찬지. 제불영신하강지. 존위영신하림지. 신도실영내림지. 보호영신희락지. 조화접신죄령지. 변화무생신통지. 상통천문통달지. 충찰인사사달지. 하달지리이달지. 만사지뢰개달지. 천하인민앙시지. 불도제자환영지. 송경법사지성지. 불공발원대통지. 지성발원강영지. 승심공덕발원지. 일년이차불공지. 춘추양등게도지. 실하자손수양지. 신수대길왕성지. 재수대통재왕지. 부동안좌금강지. 여시여시여시지. 천세천세천세지. 만세만세만세지. 부귀부귀증부귀. 만년안과태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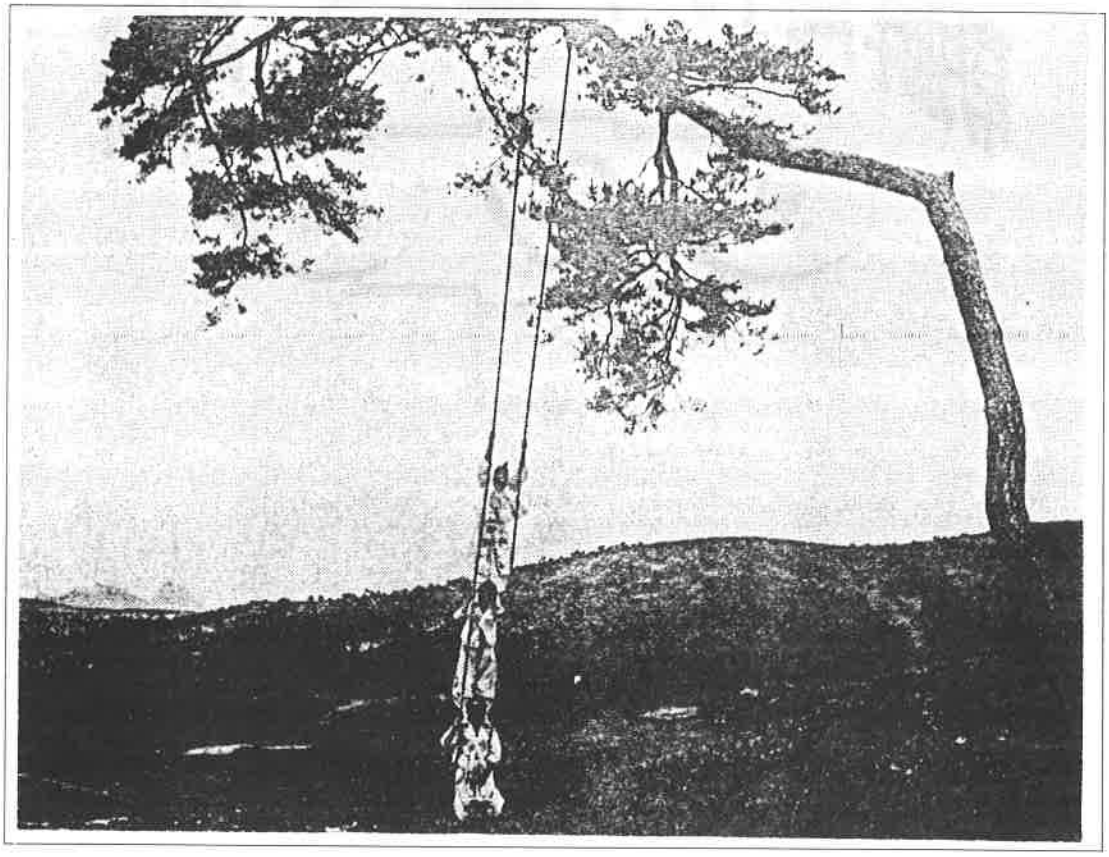
육십갑자

자오	상충	축오	원진	무진 기사	대림목	임오 계미	양류목	병신 정유	산하화	경술 신해	차천금
축미	상충	인유	원진	경오 신미	노방토	갑신 을유	청중수	무술 기해	평지목	임자 계축	상석목
인신	상충	신묘	원진	임신 계유	검봉금	병술 정해	옥상토	경자 신축	벽상토	갑인 을묘	대계수
묘유	상충	사술	원진	갑술 을해	산두화	무자 기축	벽력화	임인 계묘	금박금	병진 정사	사중토
진술	상충	진해	원진	병자 정축	간하수	경인 신묘	송백목	갑진 을사	복등화	무오 기미	천상화
사해	상충	갑자 을축	해중금	무인 기묘	성두토	임진 계사	장유수	병오 정미	천하수	경신 신유	석류목
자미	원진	병인 정묘	노중화	정진 신사	백락금	갑오 을미	사중금	무신 기유	대역토	임술 계해	대해수

朝鮮時代의 生活과 風習

화 ♡ 보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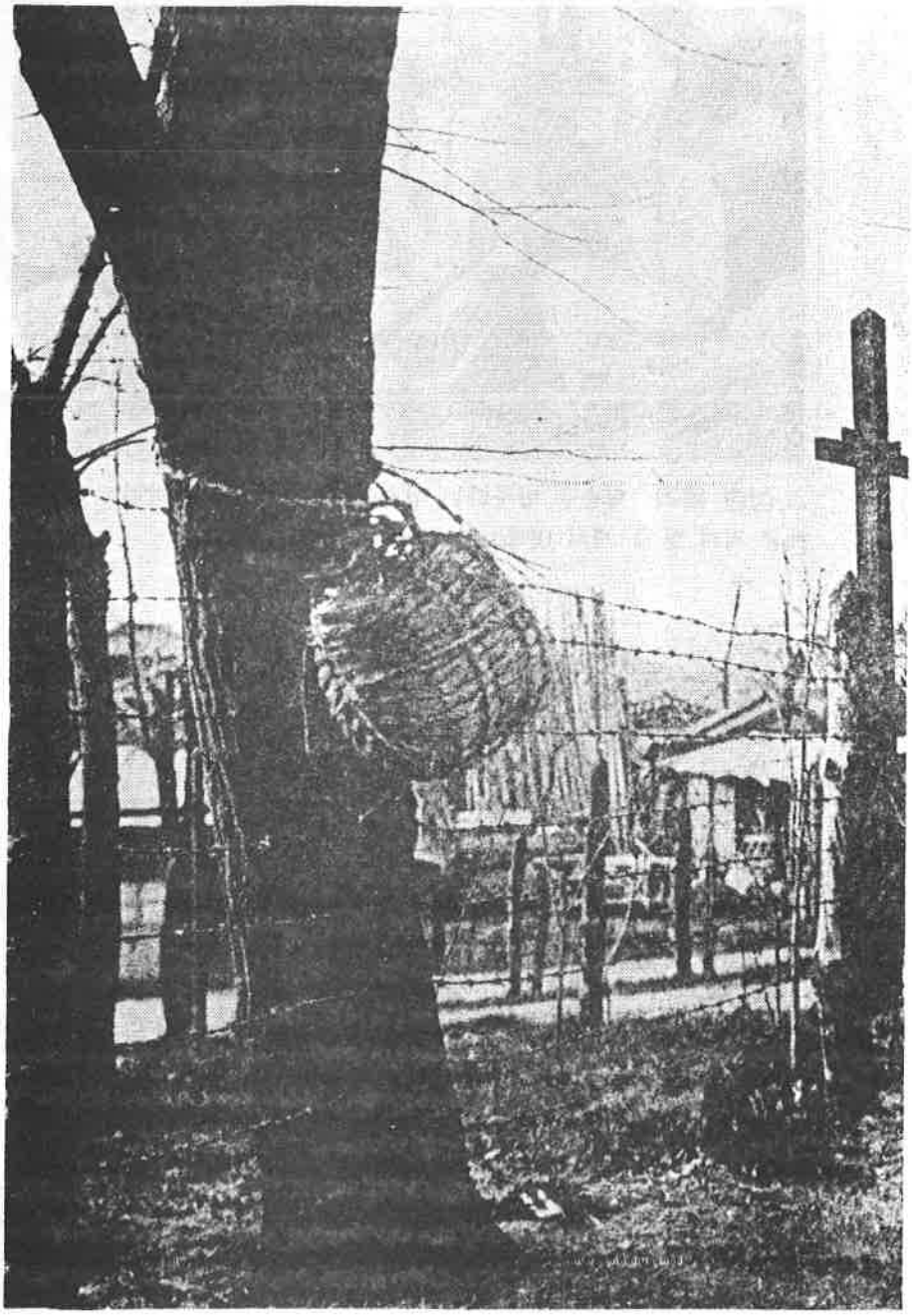


3층 그네 녹음 방초 호시절인 단오일의 우리 나라 풍물을 나타냄에 대표적인 것이 남자의 씨름, 여자의 그네뛰기다. 그러나 간혹 남자와 청소년이 뛰는 때도 있다. 동네 어귀의 큰 나무에 긴 그네를 매고 청소년들이 3층으로 올라 서 있다. 그러나 이 그네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래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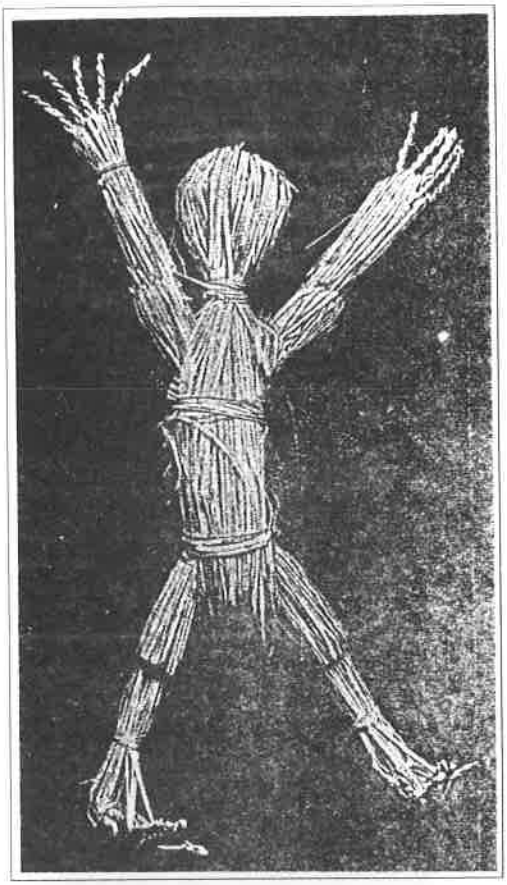
△ **삼현 육각** 탈춤을 반주하는 삼현(거문고·가야금·당피리), 육각(삼현과 북·장구·해금·피리 및 두 개의 태평소)의 일부

△ **사주장이** 길가에 앉아서 평생 사주와 1년 신수를 보는 사주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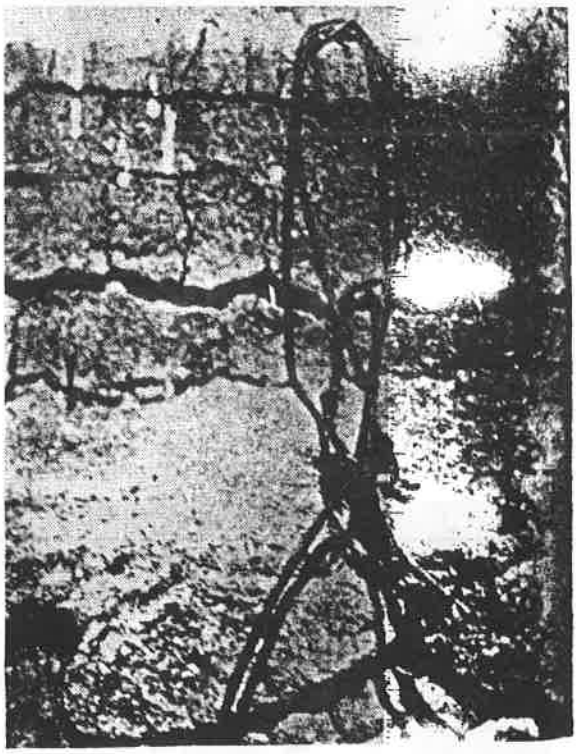
액 땜 북방 아시아와 페르시아 지방에 춤을 좋아하는 원시신이 있어서 특히 여자로 하여금 그 신을 제사케 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무녀가 되고, 그 풍속이 북부 중국으로부터 점차 조선에까지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것을 위하는 귀신은 소위 옥황상제·관성제군·태상노군·최영 장군·북두칠성·강남 호구 별성 등인데, 사람의 출생·혼인·부귀 등을 기원하고 또 질병과 재액을 예방한다. 이것은 질병·재액을 제거 예방하는 뜻의 물건.



서울에서도 흔히 보던 풍경 고목에 달아 놓은 섬 속에는 미신에 의한 어느 물건이 들어 있을 것이다.



제 웅 음력 정월 14일 밤에 직성이 든 사람을 상징하는 체웅. 직성이란 액년이 든 것을 말하는 바, 여자에 있어서는 11·20·29·38·47·56살이고, 남자에 있어서는 10·19·28·37·46·55살에 각기 해당한다. 직성이 든 해는 액운이 끼어 만사가 여의치 않을 뿐더러, 병에 걸리거나 큰 화를 입거나 불운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성이 든 사람은 무슨 술법을 써서 액운을 면하려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제웅을 만들어 거리나 개천에 버린다. 제웅은 말하자면 짚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 배나 허리 부분의 속을 헤치고 돈과 쌀을 넣고, 직성이 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넣어서 짚으로 동여매고 14일 밤에 길가에 버린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 제웅을 줍는 사람이 액을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



아기서낭 칡덩굴을 엮어서 액신을 몰아내는 아기 서낭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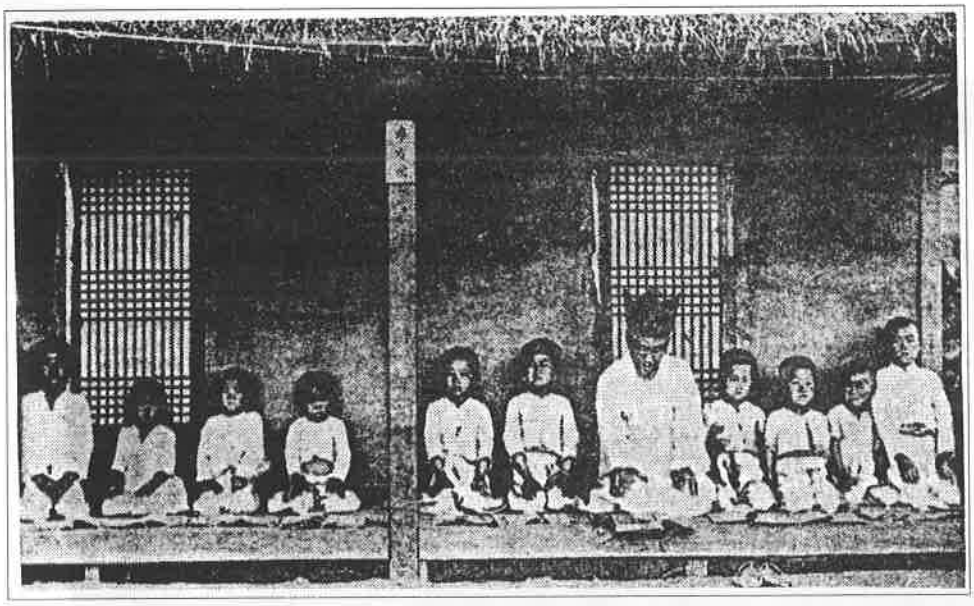
무녀의 복장 신복(神服)이라 불려지는 무복(巫服)은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고 신의 성격을 나타내며 춤과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별신굿 박수의 또 하나의 명칭은 무격이다. 민중이 즐겨 하는 굿이 씨금굿(또는 오구굿), 1년의 무사태평을 비는 안택굿, 부락민의 안강과 풍년을 비는 별신굿,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림은 무격이 하는 별신굿인데, 죽은이의 혼을 찾아 원혼을 풀어준다는 고풀이가 있고, 원혼을 깨끗이 씻겨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길닦음이 있다. 이것은 길닦음으로 죽은이의 주소·이름이 명정 같은데 씌어 있고, 무격의 앞에는 무가를 노래할 때 칠 장구가 놓여 있다.

강원도의 떠돌이 예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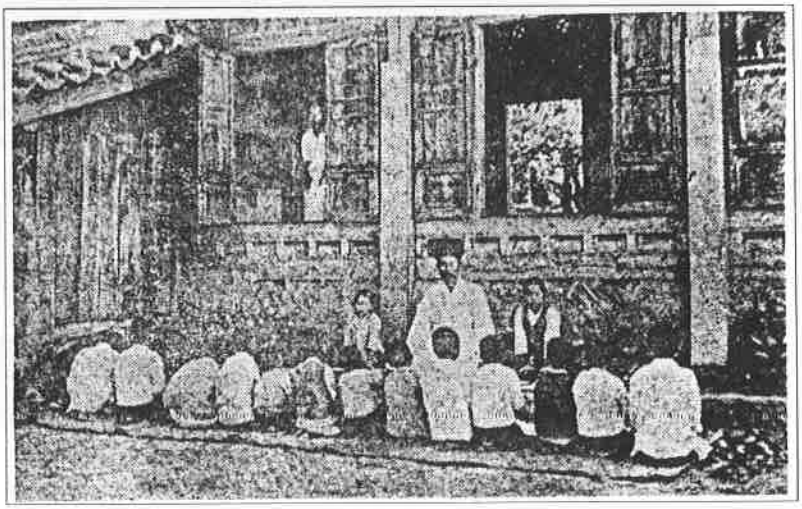
당주(堂主) 전통적인 마을에는 마을마다 무당(당골·단골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당주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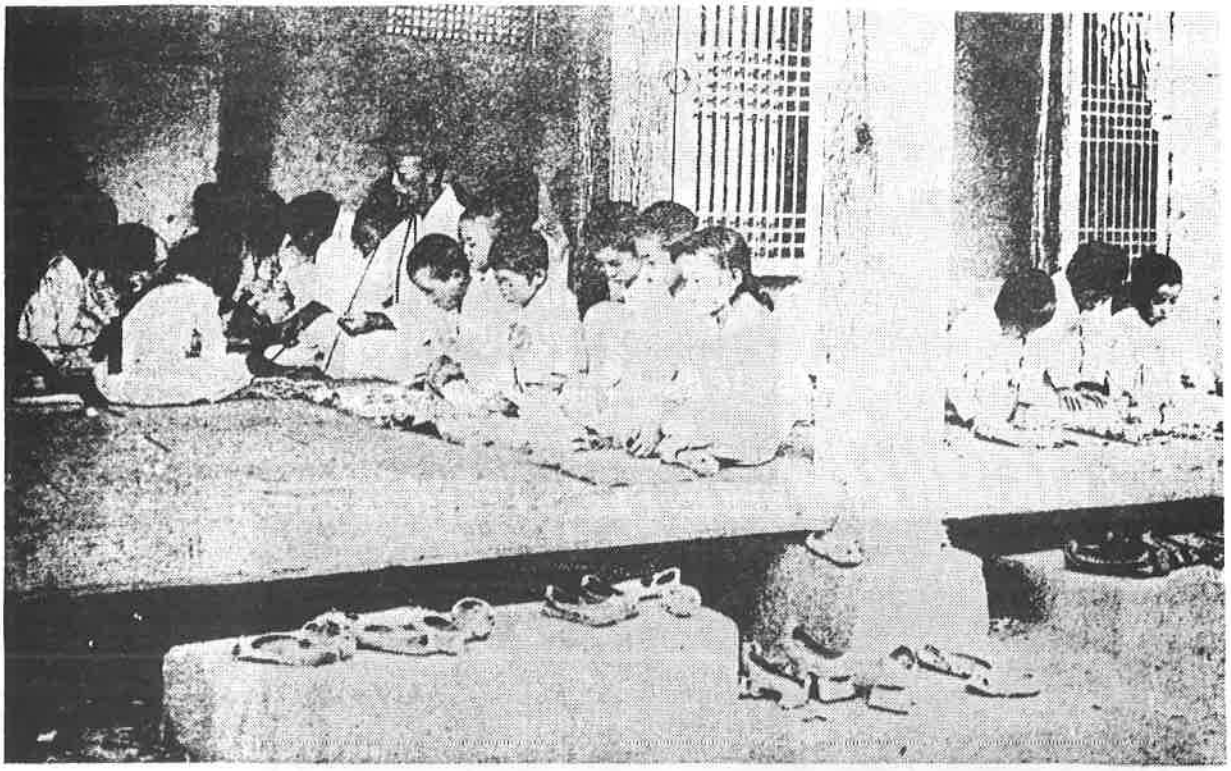
서당 풍경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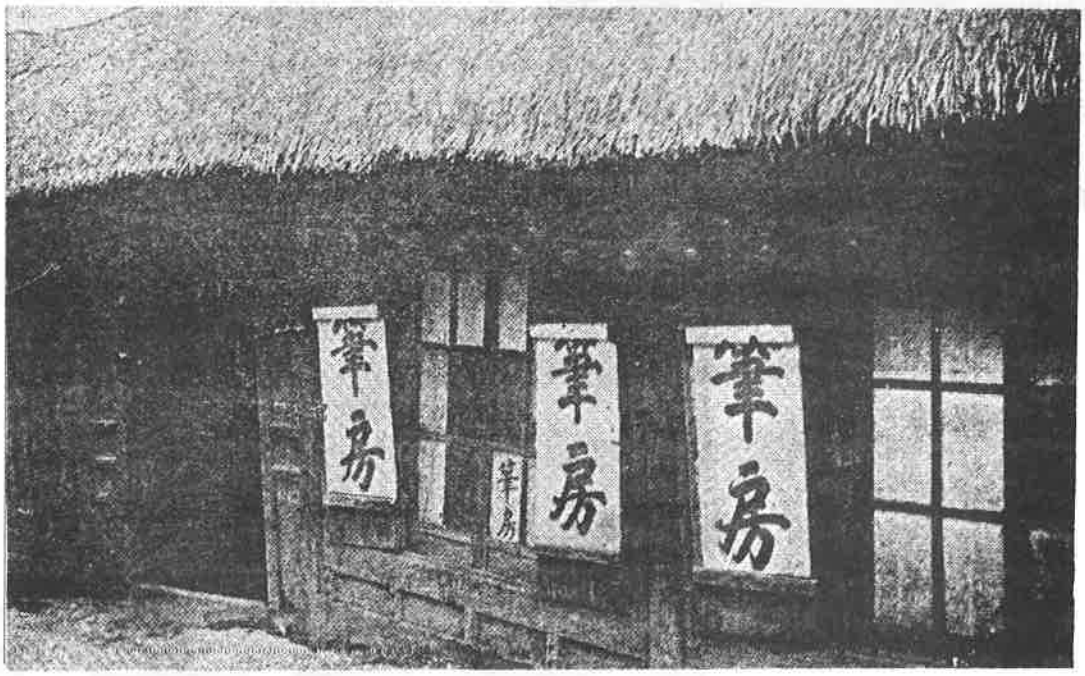
서당 풍경 ②

서당 풍경 ③





△ 서당 삭발한 아이들과 편발한 아이들이 뒤섞여 있다. 배우는 책이 각기 다르므로 글읽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그러나 아기 우는 소리, 다듬이질 소리와 함께 삼호성(三好聲)이라 하여 이웃으로부터 「소음 공해」라고 반발을 사는 일은 결코 없었다.



△ 필방(筆房) 아이들은 글 읽는 외에 붓글씨를 배웠다. 따라서 지필묵(紙筆墨)의 수요가 대단해 동네마다 이런 필방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다.

엿장수 아이들 엿 도가에서 팔 엿을 떼어가지고 나온 아이들. 옛에는 가락엿과 강엿이 있었는데, "엿장수 마음대로"인 가위질을 하기 어려워 낱개로 받아 왔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돈 받고 팔아도 자신은 군침만 삼켜야 할 빈민의 아이들이다.

지는 쪽에서 엿값 뒤집어썼던

엿치기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했던 엿은 여유있게 집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 종류도 많아서 재료에 따라 찹쌀엿·좁쌀엿·수수엿·감자엿·옥수수엿·호빅엿 등이 줄줄이 있었고, 또 엿을 굳게 할 때 섞는 재료에 따라 호두엿·잣엿·깨엿·콩엿 등이 있다. 엿맛으로 제일로 쳐준 것은 뭐니뭐니해도 울릉도 호박엿이었다. 또 가래엿으로는 엿치기라는 놀이를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엿가래를 부러뜨려 속의 구멍 크기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 **꼬마 호떡 장수들** 맨발에 더벅머리, 그리고 배꼽이 다 드러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꾸밈 없이 밝은 웃음과 건강한 호기심이 오히려 보는 이의 값싼 동정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굿 왕가에서도 무당을 불렀지만 민간에서 무당을 섬기는 품은 보다 더했다. 인간 만사가 귀신의 조화이며 무당은 귀신들과의 대화가 가능한 그야말로 살아 있는 만신(萬神)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녀는 무녀(舞女)라고 해도 좋을 만큼 춤을 잘 췄다. 먼저 초혼(招魂)·초신(招神)을 위한 춤이 끝나면 주문을 외어서 퇴산(退散)시키는데, 이 경문의 종류가 또 수십종이다. 굿은 오늘날까지 민간에서 성행되고 있다.

△ **돌날** 아이가 첫돌을 맞으면 돌상을 차려준다. 돌상에는 쌀·책·실타래 등 여러 가지를 올려놓고, 돌장이가 제일 먼저 잡는 것을 보고 그 아이의 장래를 점치기도 한다.

△ **모자(母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빨던 젖꼭지를 빼고 돌아다보는 아기. 내려다보는 엄마의 눈길이 더없이 인자스럽다.

금(禁)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전염병이 만연하므로 이렇게 금줄을 걸어 병귀를 쫓고자 했다. 보통 가시나무 외에 고추·명태·수박·청솔잎·배깡탱이등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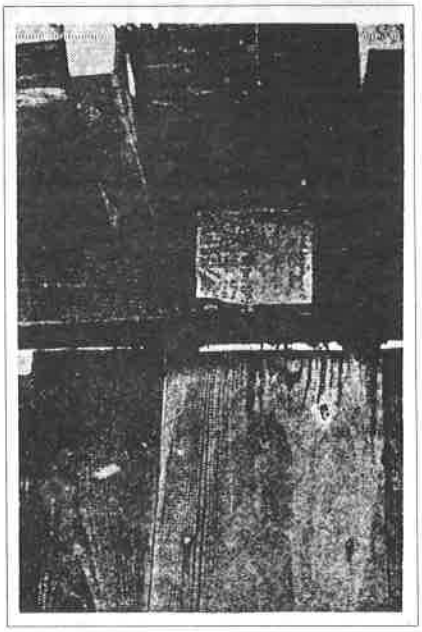
인줄 출산을 표시하여 근방에 알리고 귀신을 쫓기 위해 새끼줄을 매단다. 새끼에는 숯을 꼬고 아들일 때는 고추를, 딸일 때는 솔가지를 함께 꼰다.

부적 종기를 개나 개구리에 비유, 그 환부의 가장자리에 9마리의 호랑이와 7마리의 뱀을 먹글씨로 쓴다.

부적 불교나 도교를 믿는 집에서 악귀나 재앙을 쫓기 위해 붙이는 종이다. 붉은 색의 부자(符字)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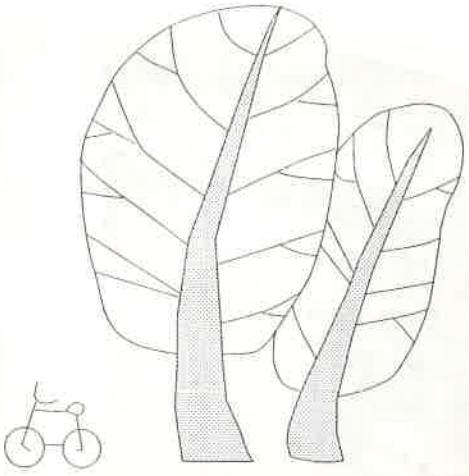
입춘문(立春文) 음력으로 정월절에 해당하는 입춘날이 되면 민간에서는 사진에서 보듯 대문에 주련(柱聯)을 써붙였다. 이것을 입춘서(立春書) 또는 춘방(春榜)이라고도 한다.

두통의 주술 병마로 고생하는 환자를 고치려면 그 병마를 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통을 앓는 환자의 신체를 그려놓고 머리에 낫을 꽂은 것.



한국의 토착신앙 한국의 토착신앙은 무속신앙으로 대표되었고, 이를 달리 샤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유형을 분류하면 조직적인 신앙(신흥종교)과 비조직적인 신앙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기능면에서는 무병(巫病)·접신(接神)을 기본으로 하는 신앙과 사제(司祭)적인 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령성과 신비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혹민(惑民)하는 요소가 짙다.

舞童타기 무동타기를 하는 아이들. 걸립패나 사당패를 따라 다니며 춤추거나 노래하는 아이를 무동이라고 불렀다.



才人 구한말 몰락한 사당패와 정재인패의 무리들은 재인패라는 형태로 발전하여 그 맥을 이어갔다. 재인놀이는 구성 멤버들의 재주에 따라 광대놀이, 줄타기, 그리고 일종의 피라밋 체조랄 수 있는 아희(兒戱)를

천대받던 계급으로 민중의식 일깨웠던 남사당

사당패 한말 흥행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당패는 우두머리인 모갑을 중심으로 일단을 조직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 다니며 절이나 광장 근처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매춘으로 생활의 방편을 삼았다. 사당이라고 하면 원래는 여사당을 의미하였으나 남자들만의 사당패가 출현, 이를 남사당이라 불렀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급으로 대부분 가난한 농가 출신과 고아들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으나 규율이 엄격했으며 흥행을 통해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도 했다. 그러나 사당패들은 한일합방 이후 흥행 횡재를 노린 일본인들이 들여온 서커스와 활동사진에 밀려 하나 둘 사라져갔다.

남사당(南寺黨) 떠돌이 광대패인 남사당은 춤과 노래 그리고 갖가지 재주로 구경꾼들에게 엽전을 받아 생활했다. 가장 장기로 삼은 것이 무동타기였다.

서예를 하는 기생 병풍 앞 보료 위에 앉아서 난을 치고 있다. 서예도 기생의 중요한 교양과목이다.

우리고장의 民俗 (大川市·保寧郡)

1994年 12月 日 印刷
1994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 : 大 川 文 化 院
發行人 : 院長 尹 源 錫
印 刷 : 明 文 堂 印 刷 社
TEL. (0452) 935－2850
32－5400

《비매품》

이 冊子는 道·市費의 지원금으로 발간한 것입니다.